

사회적 거리 좁히기

목차

- ◇ 인문학 일정표 - 3p
- ◇ 개신교, 잘 계신교? - 5p
- ◇ 우리는 '인싸'여서 살아남았다 - 44p
- ◇ 대안교육 제 이름 되찾기 - 99p
- ◇ 검찰을 검사한다 - 148p
- ◇ 무심코 던진 말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 209p

	4/22 금 개신교, 할 계신교? 개신교, 할 계신교?	4/23 토 인간 진화 우리는 인제여서 살아남았다	4/24 일 검찰개혁 검찰을 검사한다	4/25 월 언어 무심코 던진 말에 개구리가 알아 듣는다	4/26 화
아침식사 8:00					
9:00~10:00		내가 살아남은 이유 (토론) 쉬는 시간 10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검찰 이야기 일제강점기 ~ 군부독재 쉬는 시간 10분	언어의 탄생 언어 더 월드 : 세계 공용어, 필요할까? 쉬는 시간 15분	마무리
10:00~11:00		내 세포는 진화력 쉬는 시간 10분	노무현 ~ 문재인 쉬는 시간 10분	토론	
11:00~12:00		우리는 혐오하고 혐오하고 혐오했다 완벽한 인간 (토론)	앞으로 : 윤석열 ~	누구를 위한 언어인가	
12:00~12:30					
점심 식사 12:30					
14:30~15:30		대한교육 대한교육 제 이를 되찾기	그래서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시인부터 대통령까지 (상황극) 변화를 위해선 다른나라 사법체제 (토론) 쉬는 시간 20분	신조어로 문장 만들기 (참여형 프로그램) 무슨 말인지 1도 모르겠습니다 : 세대차이 쉬는 시간 10분	
15:30~16:30	16:00 시작 우리에게 종교란 어떤 의미일까? (참여형 프로그램)	대한학교가 앓닥드리고 있는 일곱 가지 문제점 1부 우리는 우를 안 개구리였을지도? 쉬는 시간 10분		신시영 교수님 특강	
16:30~17:30	우리가 알던 개신교 쉬는 시간 15분	대한학교가 앓닥드리고 있는 일곱 가지 문제점 2부 쉬는 시간 10분	처음전	언어 감수성 테스트 (참여형 프로그램)	
17:30~18:00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녁 식사 18:00					
저녁 프로그램 19:00	보수주의 개신교도를 왜 그런대? 쉬는 시간 15분 우리가 몰랐던 개신교 :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영상) 앞으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은? : 난 종교가 이랬으면 좋겠어 (참여형 프로그램)	대한교육의 진화를 상상하며 지식교육, 필요할까? (토론 간담회)	자체 활동 예정		

개신교, 잘 계신교?

오명민 이하은 양승혁 박선영

목차

- ◇ 우리가 알던 개신교 - 6p
- ◇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 16p
- ◇ 보수주의 개신교도들, 왜 그런대? - 24p
- ◇ 우리가 몰랐던 개신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 35p
- ◇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 나는 종교가 이랬으면 좋겠어 - 40p

우리가 알던 개신교

우리는 개신교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의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종합적으로 볼 때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63.9%가 ‘별로 혹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개신교 안티커뮤니티가 존재하고, 개신교 비하 단어인 ‘개독교’라는 단어까지 나오게 되었다. 개신교는 어쩌다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일까?

1. 코로나19와 개신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개신교를 바라보는 비개신교인의 시선은 매우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계 여론조사기관인 목회데이터연구소가 2021년 1월에 낸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평가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교회를 '매우 또는 약간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21%였다. 지난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이 32%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1년 만에 11% 떨어진 셈이다.

이러한 사회 인식이 생기게 된 이유로는 한국교회가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가장 유력하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때 신천지¹⁾로 인해 전체적으로 종교집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전락했지만, 종교와 ‘사이비²⁾’를 구분하려는 여론이 강했다. 그러나 같은 연도 8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사랑제일교회’가 8.15 집회를 강행하며 확진자가 우후죽순 쏟아져나오자, 개신교에 대한 인식도 급격하게 하락했다.

교회는 왜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타종교인 불교와 천주교는 중앙(종단, 교구)에서 방역지침을 내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개신교는 담임목사가 중심이 되므로 교회마다 다 다른 방역지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교회에서 오프라인 예배를 강행하고,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에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 언론이 바라보는 개신교

기윤실의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어디를 통해 얻으십니까?’라는 질문에 2009년부터 2017년까지 1위로 언론이 꼽혔다. 그렇다면 언론은 개신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1) 정식 명칭은 신천지예수교로 1984년 이만희가 창설했다. 모든 개신교 종파들은 신천지예수교를 이단, 사이비로 규정하고 있다.

2) 겉으로는 비슷하나 본질은 완전히 다른 가짜. 흔히 이단 같은 종교들을 사이비 종교라고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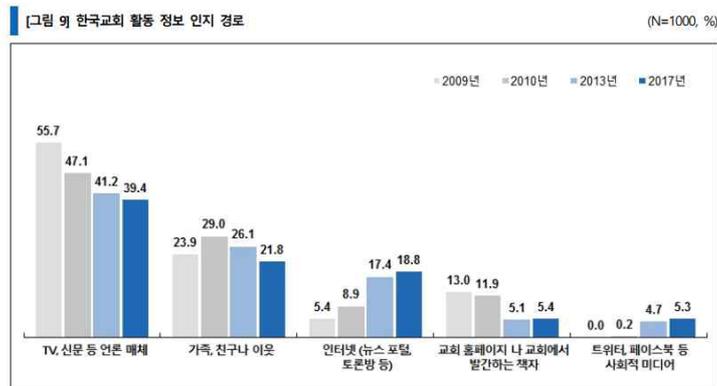


그림 2 ‘한국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어디를 통해 얻으십니까?’ 응답 그래프

개신교와 언론에 관한 인식조사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언론이 개신교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공정하다고 답한 목회자 그룹이 17.7%, 비개신교인 그룹은 59.6%이다.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목회자와 비개신교인이 큰 격차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질문에서는 ‘언론이 타종교보다 개신교를 바라볼 때 비판적인 프레임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목회자 그룹이 91.6%, 개신교인 그룹이 66.3%, 비개신교인 그룹 36.6%, 기자 그룹이 43.1%이다. 이 통계에서 주목할 점은 기자 스스로도 개신교를 비판적인 프레임으로 비추고 있다는 걸 인정한 것이다.³⁾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종교에 관한 기사의 빈도를 보면 불교(42.0%), 천주교(31.0%), 개신교(24.2%), 원불교(2.8%) 순으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기사가 많이 보도됐고 그다음으로 중립적인 기사들이 많았다. 긍정적인 기사는 천주교(59.6%), 개신교(45.5%), 불교(40.8%) 순으로 많이 보도됐다. 반대로 부정적인 기사는 개신교(17.2%), 불교(0.6%), 천주교(0%) 순으로 개신교가 타종교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보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⁴⁾

언론에서는 긍정적인 것을 더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왜 개신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사람의 뇌 구조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먼저 보이고 기억에 오래 남는다. 이것을 부정성 효과(Negativity Effect)라고 한다. 100번 좋은 일을 해도 1번 잘못하게 됐을 때 잘못이 더 크게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은 긍정적인 기사가 많이 보도되어도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더 오래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곧 개신교 전체를

3) 백광훈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의 과제: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 인식조사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21, 102~103p

4) 김기태 “미디어가 그리는 종교 이미지 분석” 한국언론학회, 2010, 149-150p

부정적인 집단으로 일반화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3. 미디어가 바라보는 개신교

2021년 전세계를 강타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는 세 명의 개신교인이 나온다.

첫 번째 개신교인은 244번 참가자다. 줄다리기 게임과 유리 다리 건너기 게임에 등장하며 개신교 윤리의 이중성을 보여준다. 그는 줄다리기 게임에서 상대방을 몰살시키고 내려오는 길에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기도한다. 주변인들의 비난이 이어져도 그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통곡이 들리지 않느냐. (중략) 죄 많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내가 그들의 희생과 주님의 선택에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라며 곳곳이 기도를 이어 나간다.

두 번째 개신교인은 참가자를 성폭행하고 아내를 살해한 목사다. 참가자 240번은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240번의 아버지는 목사였다. 목사는 아내를 때리고 딸을 성폭행하고 나면 항상 자신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를 했다. 두 번째 개신교인은 목회자의 강력범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한국교회탐구센터에서 조사한 <한국교회 4대 이슈>에 따르면 목회자의 강력범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세 번째 개신교인은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던 전도사다. 길가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던 전도사는 게임에서 우승 후에 길가에 버려진 주인공을 발견한다. 전도사는 주인공의 안대를 벗겨주며 “괜찮으세요?”라는 걱정 대신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한다. 청년사역연 구소 소장 이상갑 목사는 자신의 SNS에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기도 했다.⁵⁾

<오징어 게임> 속의 모습들은 개신교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개신교 언론사인 ‘크리스천 투데이’에서는 「<오징어 게임> 기독교 악질적 묘사, 대응책은」이라는 칼럼을 내며 오징어 게임 속 개신교에 대해서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노골적인 기독교 비하”, “악질적인 묘사”, “오로지 악하고 위선적인 측면만을 부각”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미디어가 개신교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소강석 목사도 “분하기도 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국내와 세계에서 기독교의 모습이 어떻게 이미지화됐을지 생각하면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고 평했다. 다른 한쪽의 개신교계에서는 백광훈 목사(문화선교연구원 원장)가 “감독이 맥락 없이 기독교를 묘사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들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성찰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⁶⁾

오징어 게임뿐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속에서 개신교는 등장한다. 영화 <의뢰인>에서는 개신

5) 최은숙, <오징어 게임, 기독교를 향한 독설은 사실.> 『한국기독교공보』, 21.10.11

6) 마이클 오, <“악질적 묘사” <오징어 게임>이 불편한 한국 기독교>, 『오마이뉴스』, 21.11.02

교 신자인 어머니가 딸의 결혼을 막기 위해서 딸을 기도원에 감금시키는 광신도로 나오고 드라마 <아르곤>은 대형교회 비리 보도로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다. 드라마 <리턴>에서는 신학 교수가 사이코패스로 나오고 영화 <1987>에서는 박종철 열사를 잔혹하게 고문하는 형사가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나오기도 한다.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미디어 속에서도 개신교는 부정적으로 비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개신교와 관련된 사건은 무엇이 있었을까? 다음 장에서 알아보자.

개신교의 사건사고

1. 정치와 개신교

이승만 정부 시절 정부와 개신교는 진한 유착 관계였다. 교회의 원로인 이승만은 주일성수(主日性守)를 우선시하여 일요일에는 국가행사를 최소한으로 진행하려 했다. 그 결과 1949년 7월 17일 제헌절이 일요일인 관계로 행사를 하루 늦추게 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정희 시절 개신교는 군사정권과 미국의 연결 다리였다. 군사정부는 자신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미국의 뜻을 바꾸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중요한 연결 다리였던 개신교의 지원을 갈구했다.⁸⁾ 현대 사회에서 교회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교모임화 되어가기도 한다. 17대 대선에는 이명박 후보가 교회 장로라는 이유로 개신교계는 이명박에게 표를 던졌다. 전광훈은 “이명박 장로님을 뽑지 않으면 생명책⁹⁾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하여 특정 후보를 뽑으라는 협박과 개인의 정치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18대 대선에서 개신교계는 대체로 중도적인 입장을 보였다. 개신교 내 보수 세력인 ‘한국기독교공공정책위원회’도 중도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신천지관련설’¹⁰⁾과 ‘1억짜리 굿 사건’¹¹⁾ 등 곤경에 처한 박근혜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면서 지원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박근혜에게 ‘여기서 확보할 수 있는 표가 300만 표는 됩니다.’라고 하며 지지를 약속했다.¹²⁾

이번 대선에서는 어땠을까? 윤석열 후보는 ‘무속 신앙’과 ‘신천지 유착 관계 의혹’이 있음에도 보수개신교 진영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타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보수개신교가 윤석열에게 관대해지는 이중적인 모습이다. 지난 2월에는 전국에 있는 목사 777명이 공개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문재인 정부 아래 한국교회는 125년 교회 역사상 가장 불행한 시기를 겪었다”라며 “전국 각 지역 목사 777명은 윤석열 후보를

7)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 이를 지키기 위해 개신교는 주일예배를 진행한다.

8) 김용민,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 2016) 178p

9) 구원을 받은 자들의 이름과 의인의 행위가 적혀 있는 하늘의 책

10) 시사평론가 김용민이 자신의 SNS에 박근혜가 사이비 교주와 20년 가까이 협력 관계를 맺고 신천지와도 우호적인 관계라는 글을 올려 시작된 의혹

11)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가 초연스님에게 1억 5천만 원짜리 굿을 부탁한 의혹

12)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선 정국, 한국 기독교」 9~10p

적극 지지함을 다시 한번 밝히며 거짓이 참을 이기려고 하고 조작과 왜곡이 난무하는 대선판에서 기독교 교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¹³⁾ 윤석열 당선 이후 보수개신교 목회자들은 축하예배를 주최하기도 하고 윤석열은 예배에 참석해 인사를 전하기도 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보여주었다.

2. 종교인 과세

과세란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목사나 교회의 실제 소득 수준은 베일에 감싸져 있었다. 교인들이 낸 십일조¹⁴⁾와 헌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없던 것이다. 기윤실의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이란 질문에 ‘불투명한 재정 사용’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5순위 안에 계속해서 꼽혔다. 불투명한 재정 사용 외에도 국민임에도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점이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처음으로 종교인 과세 이야기가 나온 것은 1968년에 초대 국세청장인 이낙선 때부터였다. 그는 “구멍가게에서도 세금을 매기면서 더 많은 소득을 얻는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과세공평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종교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다. 그로부터 24년 후인 1992년 9월 국세청에서 성직자의 과세 문제에 대해서 자율에 맡기겠다고 입장을 냈으로써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 후 사회적으로만 찬반 논의가 되다가 2012년 3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한 후 다시 공론화되었다. 2013년 8월 정부는 종교인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시행령을 내렸다. 긴 논의 끝에 2015년 9월에 정부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년의 유예를 거쳐 2018년 ‘종교인소득 관련 소득세법’이 귀속 소득¹⁵⁾부터 시행되었다.¹⁶⁾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교인 소득세 법은 다음과 같다.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본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¹⁷⁾하거나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을 때는 이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 개인이 소득 유형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을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13) 권해미, <목사 777명, 윤석열 지지 선언...“무속·신천지 의혹 수그러들 것”>, 『이데일리』, 22.02.25

14) 신도들이 자기 수입의 십분의 일을 신에게 바치는 의미로 교회에 헌납하여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일

15) 자기의 재산을 이용하거나 자가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

16) 청년ESG프로젝트팀(현예린, 노희원, 안치용, 이윤진), <[청년이 외친다, ESG 나와라](14)종교인에게도 공평한 과세를>, 주간경향, 2022.04.22

17)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의 일부를 거두어들이는 방법.

2013년 시행령이 내려지고 종교인 과세 관련해서 찬성 연합과 반대 연합의 갈등은 증폭되었다. 천주교는 이미 1994년 주교회 입장에 따라서 납세하고 있었고 불교계도 과세제도를 받아들일겠다고 했다. 진보 개신교계에서도 기운실을 주축으로 소득세법을 받아들일겠다고 했지만, 보수 개신교계는 한기총을 중심으로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반대 연합을 만들게 되었다.¹⁸⁾

반대 연합의 입장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종교인은 노동자가 아니라 성직자라는 것이다. 단순한 수익 목적으로 종교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닌 사명감에서 비롯하여 봉사하고 사례금을 받는 것이기에 이것을 노동자로 보기에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수익이 적어서 과세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수익이 적어서 과세하는 것보다 국가에서 주는 돈이 더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이다.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할 시 사찰의 위험이 있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이유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헌법 제38조¹⁹⁾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닌다는 점이다. 고로 종교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하고 종교인만 사회에 봉사하는 직업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종교인 과세를 통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앞선 기운실의 여론조사 결과처럼 사회는 종교의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종교인 과세를 통해서 해결하고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종교인 과세가 종교인 보호를 할 수 있는 점이다. 지금까지 소규모 미자립 종교들의 다수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시스템을 받을 수 없었다. 종교인 과세를 하게 되면 기초생활이 어려웠던 종교인들이 의료보험이나 연금, 실업급여, 기초생활 등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종교인 과세를 둘러싸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논란이 있었다. 종교인 과세를 통해 종교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혜택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크게 거론이 되는 것은 비과세 혜택이다. 비과세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과세 항목에 있는 종교활동비의 범위를 종교단체에서 정할 수 있게 했다. 만약 목회자가 종교활동비를 받고 개인 소유의 골프채를 샀어도 종교활동비로 증빙이 되면 비과세 처리가 된다. 비과세 항목 외에도 기타소득의 소득공제²⁰⁾ 불공평도 논란이다. 일반 급여소득자가 2%~70% 수준의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해 종교인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신고를 했을 시 소득의 20%~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구멍들이 절세²¹⁾할 수 있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어째서 종교인만 과세 혜택을 받게 된 것일까?

혜택을 받게 된 것은 반대 연합의 영향력이 컸다. 반대 연합의 주 단체들은 대형교회이다.

18) 박용성 “종교인 과세정책의 사회적 구성과 정책변동에 대한 연구”, 한국동북아학회, 2021, 179-180p

19)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닌다

20)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매길 때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만큼의 금액을 빼는 일

21) 세금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세금을 적게 내다

정치인들은 여론에 민감해서 쉽게 여론을 만들 수 있는 대형교회의 눈치를 보게 된다.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박용성 교수는 “2014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에 국회의원들이 보수개신교 단체로부터 받은 압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라고 평했다.

3. 동성애 혐오와 난민 혐오

혐오(嫌惡)의 사전적인 의미는 싫어하고 미워함이다. 비슷한 단어로 ‘분개’라는 표현이 많이 쓰인다. 분개는 사회적 소수자가 기득권층을 불쾌해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며 혐오는 그와 반대로 기득권층이 소수자를 향해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기득권인 개신교가 사회적으로 소수자인 난민, 성소수자를 향해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분개라는 표현보다는 혐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1) 동성애

보수개신교는 동성애 혐오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2020년 5월, 보수개신교를 대변하는 한국기독교언론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동성애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을 역차별하고 반인권주의자로 낙인찍으려는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라며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가 창궐할 것은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2019년 말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58%가 ‘동성애는 죄’라고 답했다. 이는 비개신교인의 25%보다 두 배가 넘는 높은 수치다. 감리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을 받기도 했다. 이들이 집중해서 혐오하게 된 이유는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 해방 이후 개신교는 친미, 반공으로 뭉치며 ‘북한 혐오’로 자기 정체성을 구축해왔다. 1990년대 세계적으로 공산권이 붕괴하고 진보정권이 등장하며 햇볕정책²²⁾ 등의 친북 정책으로 북한과 가까워졌다. 개신교는 정체성을 형성해오던 반공주의와 북한 혐오가 힘을 잃으니 새로운 혐오 대상을 찍었다. 그 대상으로 동성애가 꼽힌 것이다. 보수 목회자들은 동성애 문제가 한국교회의 사활이 걸린 것처럼 신자들에게 교육을 해왔다.²³⁾

그들의 동성애 혐오는 가짜뉴스를 통해서 더 크게 퍼져갔다. 그 중심에는 목사의 설교와 에스더기도운동이 있다. 목사들의 설교와 에스더기도운동은 주로 에이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동성애자만 에이즈에 걸린다’라는 혐오 발언은 이미 잘못된 정보라고 에이즈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

22) 남북한 간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한 정책.

23) 조현, “개신교는 왜 동성애를 신앙화 했을까”, 『한겨레』, 20.0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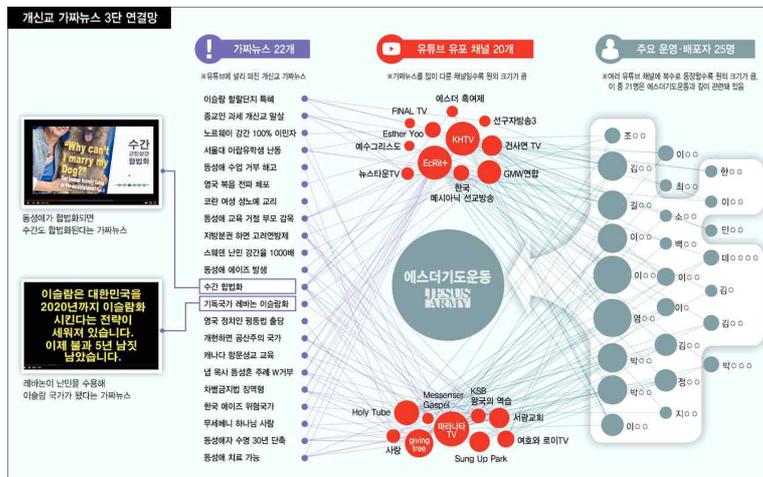


그림 3 에스더기도운동의 가짜뉴스가 퍼지게 되는 과정

에스더기도운동은 일명 가짜뉴스 공장이라고도 불린다. 사회에서 에스더기도운동이 알려지게 된 시점은 한겨레가 에스더기도운동의 실체를 단독 보도한 이후부터이다. 가짜뉴스의 내용은 주로 난민, 동성애 혐오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남기는 근거의 출처는 언론이 아닌 미국판 ‘일베’²⁴⁾라 할 수 있는 근거 없는 혐오 사이트다. 가짜뉴스는 에스더기도운동에서 만든 유튜브 채널 20여개로 퍼지면서 배포자들을 거쳐 사람들의 귀로 들어가게 된다.

보수 개신교도는 동성애를 죄이자 병이고 동성애자는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동성애자를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성소수자들 입장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2) 예멘 난민 (이슬람)

개신교인들의 이슬람 혐오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개신교 사이에서 이슬람이 쓰나미처럼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는 일명 ‘이슬람 쓰나미론’이 퍼지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보수개신교는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이슬람에 관한 국내외 포럼을 열었다. 극동방송²⁵⁾은 <이슬람, 그들이 몰려온다.>라는 방송을 내보냈고 《국민일보》는 12회에 걸쳐 이슬람 시리즈를 연재함으로써 이슬람의 국내 진출 현황을 알리며 개신교도들의 두려움을 자극했다.

예멘 난민 사태는 2018년 6월 예멘 내전으로 인해 제주도에 난민 신청이 급증하게 되면서 일어난 사태이다. 일부 보수 개신교인들은 청와대 앞에서 난민 반대 운동을 벌였다. 보수 개신교인들이 청와대로 나가게 된 이유는 신앙의 불안 때문이다. 이들은 ‘난민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면 이슬람이 개신교를 역으로 전도해 입지가 작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했다.

24) 일간 베스트의 줄임말로 커뮤니티 사이트다.

25) 기독교 복음 방송

실제로 난민 관련 인식조사에서 개신교인 중 73.4%가 난민 입국에 반대하였다. 그중에서도 31%는 난민이 이슬람을 전파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²⁶⁾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는 이슬람 혐오를 더 커지게 했다.

난민 수용 입장의 교회들은 이런 상황을 비판했다. 그리스도 소망의 교회 이택환 목사는 “한국교회가 예수의 복음과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거룩한빛한성교회의 정성진 목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예멘 난민은) 무슬림이기 이전에 인간이고, 우리를 찾아온 나그네”라고 하며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선대 하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개신교는 사회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어딜 가든 교회는 흔하게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종교 중 가장 많은 신자를 보유하고 있는 종교이기도 하다. 개신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회와 마찰을 빚었고 그로 인해 신뢰도는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보고 있는 개신교의 모습은 일부인 것이다. 일부의 집단이 개신교에 대한 대표성을 갖게 되었고 그런 모습만 보는 사회는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6) 윤신일, 오세일, 한국 근본주의 개신교인의 ‘4대 혐오’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2021, 60p

<참고문헌>

자료집

기독교윤리실천연구소,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자료집」, 2008, 2017, 2020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선 정국, 한국 기독교」 9~10p

논문

백광훈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의 과제: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 인식조사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21
김기태 “미디어가 그리는 종교 이미지 분석” 한국언론학회, 2010, 149-150p
박용성 “종교인 과세정책의 사회적 구성과 정책변동에 대한 연구”, 한국동북아학회, 2021, 179-180p
윤신일, 오세일, 한국 근본주의 개신교인의 ‘4대 혐오’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2021, 60p
다문화시대의 한국 개신교의 이슬람 인식: 이슬람포비아 중심으로 - 이진구
김기태 “미디어가 그리는 종교 이미지 분석” 한국언론학회, 2010

기사

최은숙, <오징어 게임, 기독교를 향한 독설은 사실.> 『한국기독교공보』, 21.10.11
마이클 오, <‘악질적 묘사’ <오징어 게임>이 불편한 한국 기독교>, 『오마이뉴스』, 21.11.02
권해미, <목사 777명, 윤석열 지지 선언...“무속·신천지 의혹 수그러들 것”>, 『이데일리』, 22.02.25
청년ESG프로젝트팀(현예린, 노희원, 안치용, 이윤진), <[청년이 외친다, ESG 나와라](14)종교인에게도 공평한 과세를>, 주간경향, 2022.04.22
이유진, “개신교 목사들 “예멘 난민 배척은 하나님의 뜻 아니다””, 『한겨레』, 18.10.25
조현, “개신교는 왜 동성애를 신앙화 했을까”, 『한겨레』, 20.06.23
김성우, "'코로나 장기화' 한국 교회 신뢰도 급락...1년 만에 32%→21%", 『YTN』, 21.01.30
박준용, “동성애·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의 이름, 에스더”, 『한겨레』, 18.09.27

도서

김용민,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 2016) 178p

기타

스브스뉴스, “성당이나 절에 비해 왜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잦을까?”, 20.08.21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개요

조선에 개신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외국 선교사들의 힘이 컸다. 선교사의 대다수는 미국인이었다. 1882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 입국한 선교사 1,529명 중 69.3%인 1,059명이 미국인이었고, 대부분은 근본주의적 신앙²⁷⁾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한국교회는 미국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의 교회가 되었다.

1. 평양대부흥운동

일제강점기 시절 개신교는 평양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커지게 되었다. 평양대부흥운동은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난 한국교회의 대표적 부흥운동²⁸⁾이다. 부흥운동은 한국만의 독자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외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었다. 19세기 말 무디부흥운동, 1904년 웨일스부흥운동, 1904년 호주부흥운동, 1905년 인도부흥운동, 1906년 오순절운동 등 전 세계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었다. 이 당시 어느 시대보다 선교가 활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흥운동도 같이 따라오게 되었다.

1) 시대적 상황

평안도와 황해도를 포함한 서북 지역이 한국 개신교 신자들의 80%를 차지했다. 특히 평안도는 개신교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었다.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했을 때 평안도는 일본군의 진군 루트였다. 평안도 사람들은 10년 전 청일전쟁 때의 일본군의 만행으로 이미 일본군에 대한 깊은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겨울에 시작된 전쟁은 매서운 바람을 쏟아내는 산속으로 사람들을 몰아냈다. 하지만 전쟁 기간 내내 산속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던 사람들은 교회로 몸을 피했다. 미국 선교사들의 공간인 교회는 일본군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신처였다. 미국의 주일 선교사인 조지 풀턴(George Fulton)이 평양을 ‘제국 속의 제국’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본에게 미국 선교사의 장소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시사했다. 실제로 교회들은 십자가와 함께 성조기를 달아 놓음으로써 일본군이 침입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게다가 교회는 신자들에게 쌀과 밀가루 등 인도적 지원도 해주었다. 교회는 ‘피난처’로서 민중에게 각인됐고, 선교사는 ‘구원자’라는 인상을 얻었다.

27)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그대로 따르려는 입장

28) 부흥의 사전적 의미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 개신교를 부흥시키기 위한 운동이다.

2) 대부흥운동의 시발점

1907년 대부흥운동은 1903년 여자 선교사들이 중심이 된 원산의 조그만 성경공부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이 모임의 강사는 선교사 하디(Robert Alexander Hardie)였는데, 그는 당시 "조선 교회는 진정한 믿음이 없고, 오만과 교만으로 물들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하디는 성경공부를 하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조선인들의 각성이 아니라 자신의 각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 모태 신앙이었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었고, 조선 교인들을 오만과 교만으로 대했음을 회개하였다. 그동안 '조선 교인 탓'을 하던 하디가 '내 탓'이라고 고백하자 조선 교인들에게도 회개의 불길이 번졌다. 하디의 진정한 회개와 고백은 신도들이 자신의 죄를 들어내며 하나님 앞에 당당해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 교인들의 회개와 도덕 각성 운동이 벌어졌다. 평양대부흥운동의 당시 상황은 이러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관리였습니다. 일본인들의 행위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 있었지만, 내가 예수께 나아오고 나의 왕이(예수를 영접한 후) 된 후로는 일본인조차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격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으니 회개한 사람들은 손과 머리로 방바닥을 쳤고 그들의 비명과 고향소리는 마치 군대라는 이름의 악마가 그들을 찢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흐느끼며 그들의 죄악에 찬 더러운 생활을 고백했다."

하디의 회개가 시발점이 되어 조직적으로 부흥운동이 확대되었다. 한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은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모였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닌 정치적인 동기로 교회에 오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이들을 진정한 신자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1906년 1월부터 기독교 연합기관인 '한국복음주의선교회연합공의회'가 중심되어 전국적으로 연합부흥회를 개최하였다. 초기에 남감리교²⁹⁾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부흥운동이 전국에 있는 교회로 확산된 것이다.

1907년 대부흥운동은 평양에서 절정을 이루며 한국에 기독교 신앙이 뿌리내리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부흥운동의 여파로 평양에만 20여 교회가 새로 생겨났고, 그중 5개의 교회는 매주 1,000명 이상 모이는 대형교회로 발전했다. 1907년 18,000여 명이던 교인의 수도 1910년에는 39,000여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과거 정치·사회적인 이유에서 교회를 찾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정한 개신교인으로써 신앙을 계기로 교회를 찾게 되었다. 한국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는 대부흥 이후 본격적인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이것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가 일제에 대항할 수 있는 체계를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부흥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후 3·1 운동에도 가담하였다.

29) 미국의 주류 감리교회 교단이다.

2. 신사참배

신사참배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천황(天皇)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해 곳곳에 신사를 세우고 한국인들을 강제로 참배하게 한 일이다. 신사는 일본의 신토 신앙에 근거해 만들어진 종교 시설이다.

1920년대 말 일본에 의해 전시동원체제³⁰⁾로 사회가 전환되고 개신교는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 동원체제의 일부였던 신사참배 때문이었다. 개신교계는 신사참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유일신을 믿는 개신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금기시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천황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자손, 살아있는 신으로 신격화되어있다. 신사참배는 이 일본의 신에게 참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민감하게 반응했고 이를 계기로 이들은 추방됐으며, 박형룡, 남궁억 등 주요 한국인 지도자들은 망명을 떠났다.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지도자 70여 명이 구속되었다. 당시 사립학교의 70%를 차지하고 있던 그리스도교계 학교들이 모두 폐쇄되거나 공립학교에 흡수되었다.

결과적으로 개신교계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사참배를 하게 되었다. 1938년 9월 장로교 총회는 신사참배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절대 다수인 근본주의 성향의 개신교도 대다수는 신사참배에 마지못해 참여했던 소극적 지지자였다. 우상숭배로 해석될 수 있는 신사참배는 개신교인들에게 당시의 큰 수치이며 아픔이다.

3. 반공

남한 사회는 건국 초기부터 빠른 속도로 '반공주의 사회'로서 조직되어 갔다. 일본의 갑작스러운 패망으로 독립이 되고 바로 미군정기를 보내게 되었다. 군정기 시절 조선에서는 나라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논의가 오갔고 그 사이에서 미국은 소련을 견제해 친미 반공 국가로 설계하려 했다. 하지만 남한 민중들 사이에서 자주독립국가에 대한 염원이 집약되었고 심지어 새 정부 형태를 사회주의로 하자는 의견이 77%³¹⁾나 되었다.

근본주의적 개신교도들은 자신들이 악마에 포위되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근본주의적 개신교도는 공산주의를 싫어한다. 공산주의 국가를 싫어하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공산주의

30) 국민, 국가의 모든 요소가 국방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되고 통제되는 국가체제이다.

31) 이는 1946년9월 미군정이 남한지역 8,800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사회체제에 대해 실시한 자체 여론 조사로서, 사회주의77%(사회주의 70%, 공산주의 7%), 자본주의 14%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2005.10.24, 5면. 「조선일보」는 1947년7월 6일 '조선신문기자회' 7월3일 오후 5시부터 한시간동안 서울시내 주요 지점 10개소에서 통행인 2475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국호: 조선인민공화국(70%), 대한민국(24%) 기타(1%), 기권(4%) 나. 정부형태: 인민위원회(71%), 종래제도(14%), 기타(10%), 기권(5%) 다. 토지 개혁 방식: 무상몰수 무상분배(68%), 유상매입 유상분배(17%), 유상매입 무상분배(10%), 기권(5%) 「국호는? 정권형 태는?」, 「조선일보」, 1947.7.6, 2면; 조돈문, 「역사연구의 역사추상형 접근방법-가치중립적 연구와 이데올로기적 공격」, 교수노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산업사회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긴급학술토론회 국가보안법과강정구 필화사건에서 발제, 2005.10.15 참조

국가에서는 종교를 탄압한다. 즉 무신론 국가이다. 개신교인은 무신론을 반기독교적이고 사탄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사탄은 타도하고 개신교인들에게 죽이고 없애야 될 존재이다. 자신들이 원하던 결과와 달랐던 미국은 남한과 미국의 연결 다리인 개신교에 집중하게 되었다. 미국은 개신교를 통해서 친미 반공 국가를 설립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 중심에는 개신교인이었던 이승만이 있었다. 미국은 이승만을 통하여 친미, 반공국가를 실현하게 되었다.

개신교에 반공주의가 한 층 더 강해진 것은 북에서 월남한 개신교도들의 영향도 크다. 북한에는 해방 당시 개신교 신자의 60%인 20만 명 정도가 있었다. 1945년~1953년, 7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의 신자들이 소련의 개신교 탄압으로 월남하였다. 이들은 신앙을 찾아 월남했다고 주장한다. 1945년 이주한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는 집단 이주 이유에 대해 “첫째 사상이 달라서 왔고, 둘째는 공산주의자들과 같이할 수 없으며 노력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월남인들의 일부는 정치, 경제, 종교 등의 분야에서 한국 보수 세력을 형성했다. 당시 월남인의 교육 수준은 평균 이상으로 추정된다. 1943년 당시 평안, 함경도, 황해의 사립학교 수는 264개교로 80여 개에 불과한 남한을 압도했다. 전국에 우수한 각종 사립학교의 70%는 이북에 집중되었고 대부분 개신교 계열이었다. 남한의 개신교인들은 교육 수준이 높은 월남인들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월남인들은 개신교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교회권력을 장악하며 개신교 내부의 여론을 주도했다. 이처럼 월남한 개신교인들은 강력한 반공사상 전파자로 존재감을 확립한 셈이다.

4. 교회의 성장과 몰락

한국전쟁 이후 개신교는 빠르게 성장했다. 본격적인 성장은 1960~1990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한국종교사회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1960년에 5,011개이던 교회가 1970년에는 12,866개로 늘어나더니 1980년에는 21,243개로 증가했다. 1960년에 60만 명 수준이던 개신교인 수가 1970년에는 300만 명, 1980년에는 700만 명에 육박했다. 이 성장의 주력은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와 순복음교회를 이끌었던 조용기 목사이다.

1) 영락교회

해방 이후 한반도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고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월남하였다. 이들은 미국 종교계와 정치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았다. 선교사 수가 남한보다 많은 만큼 월남인들은 미국 선교사와의 접촉도 많았다. 군정 당국은 월남인들에게 일본이 남기고 간 막대한 종교 재산을 무상으로 공여했다. 이것을 토대로 영락교회 같은 ‘월남자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이런 월남자의 교회는 남한 사회에서 반공주의를 추동하는 핵심 세력이 되었다.

한국 전쟁으로 반공주의가 극에 달해있을 당시 영락교회(한경직 목사)는 미국 북 장로회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정치계의 보수, 반공주의적 인사들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남한의 반공주의를 대표하는 유력 인사들부터 극우 테러리스트까지(서북청년단, 기독교청년면려회, 서북 연합회 등) 폭넓은 보수 우익의 기지 역할을 했다. 그 당시까지 소수 종파였던 개신교가 특권과 특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1961년 개발주의 정책이 본격화하던 시기에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되었다. 비 기독교 국가에서 최초로 도입된 사례인 군종제도는³²⁾ 그 특혜를 똑똑히 보여 준다. 군대 안까지 개신교가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엘리트 군인과 사병 모두에게서 최대 신자를 보유한 종파가 되었다.

2)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는 군사 정부가 추진한 개발주의 정책과 연관되어있다. 한국이 초고속 성장을 하던 시기에 순복음교회는 1963년 재적 교인이 3천 명을 넘어섰고, 1972년부터 1981년까지 평균 9.3% 성장했다. 1973년 교인 수가 1만 8천 명을 돌파했으며, 1993년 <크리스천 월드>가 발표한 세계 50대 교회 리스트에서 교인 60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주일 예배 출석 교인 수는 약 40만 명이다. 이는 미국 최대 교회인레이크우드 교회의 출석 교인 수인 5만 명의 8배이다. 어떻게 이렇게 신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었을까? 1960년대 경제가 급성장하며 많은 사람이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다. 국가가 주도한 개발 정책은 도시로 유입된 이 농민을 무허가 주택단지로 내몰았다.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주거지와 혹독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에게 국가는 아무런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기댈 곳이 필요했고, 순복음교회가 그들에게 접근한 것이다. 영의 성공, 물질의 성공, 건강의 성공인 3박자 구원론으로 나라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었다. 3박자 구원론은 삶의 질에 낙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건강과 풍요, 그리고 신앙의 성공을 동시에 획득하라는 축복론이다.

순복음교회는 오직 성장만을 추구하는 ‘성장지상주의’를 중심으로 신자수를 늘려갔다. 미국식 대형 교회인 ‘메가처치(Megachurch)’들이 주도하던 ‘변영신학’이 핵심 슬로건이었다. 변영신학은 재정적 축복이나 물질적 풍성함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며 신앙이 자신들의 물질적 부를 증가시킨다고 믿는 신학이다.

3) 청년의 공간이었던 교회

1970, 80년대 전후로 하는 교회의 대부흥기에는 지금과 다르게 젊은 층의 유입이 많았다. 젊은 층에게 교회는 모던한 공간이었다.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신문물인 교회는 청년들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다. 이 공간에서 청년들은 이전 세대가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의 문화를 경험했다. 기타 반주로 복음성가를 부르고 율동과 다양한 놀이가 덧붙여졌다. 또한 크리스마스 때 밤새 놀기와 새벽에 찬송을 부르며 동네를 돌아다니는 ‘새벽송’은 평소에는 할 수 없던, 통행금지³³⁾의 금기를 깨는 경계의 넘기의 쾌감을 주었다. ‘문학의 밤’ 행사는 시 낭송, 노래,

32) 군대 안에서 장병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이 군대에서 활동중이다. 이를 군종제도라고 한다.

연극, 콩트 등으로 구성된 청년의 종합 문화행사였다. 이것은 폭력이 난무하는 학교나 상투적인 말로 가득한 교회의 공식적 가르침에서 어느 정도 자율적인 공간이었다. 비제도 영역의 독서 체험, 연기 체험, 노래 체험, 문집 만들기 체험 등은 청년 세대의 자기 주도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것은 국가나 교회가 의도하지 않은 공간으로 교회의 청년 공간이 활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하여 1970년~1980년대 중반까지는 개신교가 대중, 특히 청년 전후세대에게 매력적인 문화공간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4) 교회의 몰락

하지만 ‘성장지상주의’, ‘번영’이라는 믿음만으로 교회를 확장해 나갔던 개신교의 위세는 벼랑 끝에 달하였다. 1200만을 자랑하던 한국교회의 교세는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967만으로 줄었다. 현재는 출석 신도를 따지면 500만 명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이 내부 의견이다. 이같이 주요 개신교단의 신도 수가 매년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한국교회의 부패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있다. 특히 ‘헌금 강요’와 ‘목회자들의 성경에 대한 무지’, ‘급증하는 목회자 범죄’는 뚜렷한 신도 감소세의 주원인으로 풀이된다.

2017년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진행한 설문에서 청년들은 교회 지도자와 관련해 ‘교회 운영에 대한 실망(27.3%)’ ‘교역자에 대한 실망(20.3%)’ ‘과다한 헌신 요구(19.6%)’등을 지적했다. 또 교회 내 관계에서는 ‘교회의 배타적 분위기(25.8%)’ ‘교인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24.7%)’을 꼽았다. 교회 전문가들은 한국교회의 신뢰도 하락 원인으로 신학이 아닌 정치적인 집단이기주의와 돈, 교권다툼을 꼽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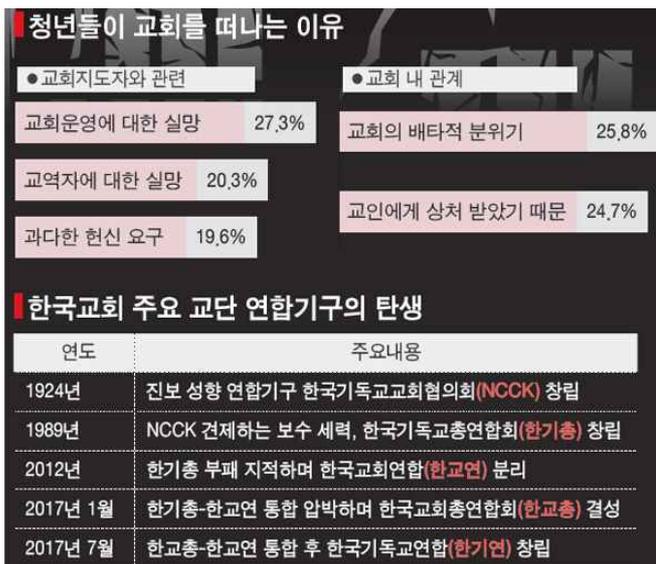


그림 4 천지일보

33) 야간 통행금지제도는 1945년 9월 8일 「미군정 포고령 1호」에 따라 치안 및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시작돼 1982년 1월 5일 폐지될 때까지 36년 4개월 동안 시행되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석가탄신일, 12월 31일 제야(除夜)에는 통금이 해제되었다.

“교회도 가고, 사찰도 가고, 성당도 다니는 이른바 종교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신도 층이 실제로 꽤 많다. 한국교회는 신도들의 충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한 압박을 받고 있을 것”
김진호 전 (前)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기획위원장

김진호 전(前)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기획위원장은 젊은 층의 신자가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를 목회자의 이미지가 도덕적으로 많이 실추된 점과 한국의 시대정신은 진보성이 주도하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여전히 보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청년 등 계층을 끌어들이 요소가 별로 없다고 말한다.³⁴⁾

교회는 젠더에 너무 무감각하다. 교회 안에서 여성이 목사가 되기도 하지만 절대적으로 없고 장로도 남성들의 것이다. 교회의 모든 걸 결정하는 것 대부분 남성들 위주로 되어있다. 젊은 세대들에게 젠더 이슈, 생태 이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한데 동성애, 소수자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점점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고령화 시대여서 70대 80대 분들이 그나마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들이 지탱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분들 이후에 교회가 남아있을 수 있을지 미래가 불투명하다. 서구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미 교회가 텅 비어 있다. 한국 교회는 이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³⁵⁾

34) 임혜지, <[종교포커스] 어디까지 추락? 한국교회 신도 또 빠져나갔다>, 『천지일보』 2020.10.18

35) 이택규 목사님 인터뷰 中

<참고문헌>

기사

임혜지, <[종교포커스] 어디까지 추락? 한국교회 신도 또 빠져나갔다>, 『천지일보』
2020.10.18

김한수 기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자, 원산의 기적이 시작됐다>, 『조선일보』,
2021.09.01

도서

김용민,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 2016.05.30)김진호,
『시민k 교회를 나가다』, (현암사, 2012.03.31)

영화

(다큐멘터리)Again1907 평양대부흥, 한국기독교방송문화원 (KCMC), 2005.10.03

홈페이지

박명수, <천구백칠년 대부흥운동(千九百七年大復興運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5
남애리, <야간 통행금지와 해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보수주의 개신교도들, 왜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보수주의 개신교도들은 사회와 끊임없는 마찰을 빚어왔다.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원인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원인에 대해 <성서해석, 목사의 설교, 사명감> 세 가지 가설을 세웠다.

1. 성서해석

성서는 기독교의 교리를 적은 책이다. 총 66권이며 구약성서 39권, 신약성서 27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구약성서는 예수 탄생 이전의 신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다. 신약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신교도들은 성서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을까? 또한, 성서해석은 어떠한 행동을 낳게 되며 어떻게 혐오와 이어지게 될까?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문자주의적(근본주의적) 성서해석

문자주의적 성서해석은 성서에 어떠한 오류도 들어있지 않다는 신앙적 신념을 특징으로 한다. 즉, 성서는 모든 면에서 오류가 전혀 없으므로 문자 그대로 진실하며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다. 이러한 문자주의적 성서해석은 보수적 개신교도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서를 문자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성서해석

한국에 성경이 전해진 연도를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 선교사와 아펜젤러(Henry Gerhart Appenzeller, 1858-1902)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한 1885년 4월 5일로 잡는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러 선교사가 살았던 시대가 성서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는 한국교회에 성경이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쳤다. 그들은 성경 말씀이 신도들의 신앙과 생활을 위한 중요한 규범임을 강조했다. 그렇게 성경에 권위를 부여했고, 신도들의 신앙과 삶에 확실한 기준이 되었다. 북장로교³⁶⁾ 선교회 25주년 보고서에 의하면 “물론 성경 자체가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 복음 전도의

36) 미국의 주류 장로교회 교단이다.

가장 큰 요소로 두드러지게 부각되어 왔지만, 한국에서는 이 성경이 유달리 독특한 위치를 점유해왔다. 한국교회의 능력, 영성, 기도에 대한 큰 믿음, 후한 기부 정신은 교회가 성경 지식에 깊이 젖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한다.³⁷⁾

성서를 해석하는 일은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다. ‘성장지상주의’를 핵심으로 여기던 한국의 대형교회와 ‘짜퉁 대형교회’³⁸⁾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 주일예배뿐만 아니라, 일주일에도 6~7번이 넘는 예배를 진행했다. 당연히 성서를 깊이 있게 해석할 시간은 없었고, 이미 해석되어있는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3) 문자주의적 성서해석의 문제점?

문제는 문자주의적 읽기가 해석이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간단한 비유 하나를 들어보겠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밥 먹기 싫어”라고 소리쳤다고 하자. 그것을 말 그대로 아이가 밥을 먹기 싫어서 한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엄마에 대한 반항일 수는 없을까? 혹은 자신의 요구를 두고 엄마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하는 전략적 발언일 수는 없을까? 아니, 어쩌면 배우의 꿈을 가진 소녀가 엄마와 연기 연습을 하는 중인 것은 아닌가? 소녀의 말을 해석하는 데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러니 그 말만을 직설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결코 해석될 수 없다. 해석을 위해서는 엄마와 소녀 사이 대화의 전후 맥락을 알아야 한다.

또한, 우리가 인간인 이상 성서를 아무리 객관적으로 읽으려 해도 어쩔 수 없이 각자의 처지, 지적 능력, 문제의식 등에 의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해석을 떠난 성경 읽기란 없다. 이런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읽고 ‘그대로’ 따른다는 신념에 철두철미하게 되면 자신이 받아들인 대로의 성경을 ‘절대화’하게 된다. 문자주의적 해석이 위험한 점이 바로 이것이다. 오류가 없이 완벽한 성경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자신의 행동이 절대적이고 오류가 없다는 오만이 생긴다. 그런 오만은 성서를 혐오나 배척, 차별 등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4) 반(反)동성애, 성소수자 혐오의 성서해석

교회의 대대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동성애 혐오 역시 성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것들이다. 그들은 “성서가 동성애는 ‘사형에 처해야 할 죄’라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한데 과연 그럴까? 우선 주목할 것은 성서에서 반동성애 텍스트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37) 박형용, “성경, 종교개혁, 그리고 한국교회의 미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021, 131p에서 재인용
38) 김진호 목사는 대형교회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대형교회의 방식(메시지의 내용, 전도 방식 등)을 그대로 닮고자 하는 작은 교회를 ‘짜퉁 대형교회’라고 칭하고 있다.

점이다. 겨우 3~4개 텍스트가 직접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레위기> 20장 13절과 <사사기> 19장 22절,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과 <고린도전서> 6장 9절 정도

그림 5 레위기 20장 c. 『성서와 동성애』

레위기	
20: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20:2-3	이스라엘인이든 외국인이든 자식을 몰래에게 제물로 바치는 자는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20:4-5	자식을 몰래에게 바친 자와 눈감아준 모든 자, 내(하느님)가 직접 모든 자들을 죽이겠다.
20:6-7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와 마법을 쓰는 사람에게 다니면서 음란한 짓을 하는 자 죽이겠다.
20:9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사형에 처하라.
20:10	남자가 타인의 아내와 간통하면, 둘을 사형에 처하라.
20:11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 둘을 사형에 처하라.
20:12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하면, 둘을 사형에 처하라.
20:13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면, 둘을 사형에 처하라.
20:14	남자가 아내의 어머니를 취하면, 남자와 아내, 아내의 어머니 모두를 사형에 처하라.
20:15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남자와 짐승을 사형에 처하라.
20:16	여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여자와 짐승을 사형에 처하라.
20:17	남자가 아버지의 딸이든 어머니의 딸이든 누이와 동침하면, 남자와 누이를 사형에 처하라.
20:18	남자가 율경하는 여자를 범하면, 둘을 사형에 처하라.
20:19	남자가 이모나 고모와 동침하면,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
20:20	남자가 숙모와 동침하면,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
20:21	남자가 형수나 제수를 취하면,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

에 국한된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 레위기 20장 13절

레위기 20장의 제목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로, 사형에 처할 죄명 16가지를 나열하고 있다. 그중 13절은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하는 행위’를 사형에 처할 죄라고 말하고 있다. 이 구절을 읽으며 문자주의자 개신교도들은 반동성애, 즉 동성애 혐오를 키워간다.

‘동성애는 죽여야 마땅한 죄’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일까? 얼핏 들어보면 동성애를 사형죄로 규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나, 해석을 달리하면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우선 텍스트를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하는 행위’에 대한 언급이 발견되지 않는다. 실수로 누락되었다기엔 20장의 다른 구절을 보았을 때 남자와 여자를 전부 죽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많다. 그렇다면 여자끼리의 동성애는 허용한다는 뜻일까?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기획위원장이었던 김진호 목사는 “결론부터 말하면, 성서는 동성애 문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 당시 중동 지역 전반에 흔히 일어나는 성적 행위였기 때문이

다”라고 말했다.

김진호 목사는 지방성소와 중앙성소의 제사장 간 갈등에 주목하며, ‘히에로스 가모스’라는 종교의식과 연결 지어 읽어 보이는 시도를 했다. 히에로스 가모스는 ‘거룩한 결혼’이라는 뜻으로 지방성소에서 제사장이 신의 역할을 대행하여 송배자들과 만드는 신들의 가상 결혼식이었다. 반면 중앙성소인 예루살렘 성소는 히에로스 가모스와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예루살렘예배는 엄숙하게 수행되어 사람들과의 접촉도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히에로스 가모스는 서로 얽혀 노래하고 춤추며 함께 식사하고 사람들과 신이 어울려서 벌이는 한 판의 축제였다.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의 눈에 이런 예배는 음탕하고 방만하며 타락한 우상송배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남자와 남자의 동침’을 언급했을까? 당시에는 이미 정치와 종교 지도자 중에서 여성 엘리트가 사라진 때였다. 그래서 ‘가상 결혼식’의 대미를 장식하는 ‘동침’은 남성 제사장과 남성 송배자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결국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면 사형에 처하라’는 구절은 지방성소에서 이뤄지던 ‘히에로스 가모스’를 타락한 우상송배로 간주하기 위해, 중앙성소의 예배만을 ‘성결’한 것으로 말하기 위해 법적 알리바이를 확보하려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사실 성경에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많이 적혀있다. 레위기는 식물 혼방(두 가지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지 말라 했고,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고 말한다. 선짓국이나 순댓국도 먹어서는 안 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남성이 긴 머리를 하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은 쉽게 지나치면서, 왜 유독 동성애 반대로 보이는 구절에만 극렬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그들이 주장하는 “성서에서 동성애를 하지 말라 했다”기보다는, 동성애 혐오의 근거를 성서에 끼워 맞추는 것에 더 가까워 보인다.

동성애뿐 아니라 성서를 주장으로 하는 귀어 혐오도 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구절을 말하며 하나님은 남·여 두 가지의 성만 창조하셨기에 제3의 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감리교신학대학교 유연희 교수는 미국 유대교 학자 마거릿 워닉의 견해를 빌려 ‘남자와 여자’는 문학적 대조 기법 ‘메리즘’(merism)이라고 했다. ‘저녁과 아침’이 그사이 모든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남자와 여자 사이 모든 성별 스펙트럼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그 사이의 모든 조합을 만드셨다”라는 것이다.

물론 히에로스 가모스와 같은 성서해석도 하나의 가설일 뿐, 불변의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고고학적 발견과 고대 근동 연구 결과와 많은 학자의 견해를 토대로 한 것인 만

큼, 신뢰성 없는 가설처럼 치부해버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식으로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 성서해석은 어떠한 맥락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뜻하게 된다.

그렇다면 성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좋은 성서해석이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의 저자인 마커스 보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 ‘그때 거기’에서 그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생각했을 때 ‘지금 여기’의 우리에게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2. 목사의 설교

1) 문제의 목회자들

일부 목회자들의 부적절한 설교가 개신교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 선거기간에는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는 설교를 하거나 선거개입 발언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많이 포착되었다.

○○○○○교회 원○○ 목사

<설교>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왜 중요한지는 신앙과 생활이 즉, 종교와 경제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부의 작금의 문제들인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지 결혼과 저출산 문제, 그리고 통 세금법, 차별금지법 등 이런 악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을 덮쳐 2017년 3월에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강력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 정신 위에 건립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지난 5년 동안 완전히 뒤틀려버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 교육, 종교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대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교회 전○○ 목사

<설교> 문재인 저 새끼도 끝났고, 수요일 되면 정권이 바뀌니까. 윤석열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목회자 3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당선자를 모시고 예배하려고 그래요. 예배하면서 윤석열 당선자에게 맹세를 받아내는 거예요. (중략) 자기가 왜 대통령이 됐는지 교회가 가르쳐야 해요. 당신이 왜 대통령 됐냐? 예수 한국복음 통일하라고 만든 거야. 그래야 청와대에서만 쫓겨나. 그래야 깜빡 안 간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려놓은 설계도를 모르고 청와대에 들어가면 무면허예요. 면허증이 없이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이 청와대만 들어갔다 나오면 비참해지는 거야. 왜? 이승만의 설계도를 모르기 때문이야. 민노총 저 개새끼들은 다 쫓아내 버려야 해. 노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야.³⁹⁾

위 내용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 조치 된 목회자의 설교들이다.
설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설교를 살펴보았을 때 최근 한국교회 설교가 보여주고 있는 압도적인 경향은 본문에 충실하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성경을 아예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성경을 잘못 사용하기도 하고, 성경을 남용하기도 한다.⁴⁰⁾

2) 목회자의 설교와 교인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의 보고를 보면 종교와 완전히 동떨어진 듯한, 문제 있는 목회자의 설교가 꾸준히 제보되고 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할 설교가 목회자 개인의 정치색을 당당히 드러내며 예배 시간을 개인의 주장을 펼치는 데에 쓰고 있다.

1월 4일에 유력 대선후보들이 대형교회 방문하자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장 방인성은 “어느 대선후보가 한 대형교회를 방문했는데 목사들이 우르르 가서 안수기도⁴¹⁾를 해주는 행태는 누가 봐도 종교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쓴소리를 냈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을 교인들을 배려하지 않은 행위라는 지적도 나왔다. 교회를 찾아온 후보를 지지하는 교인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인이 있음에도 담임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견해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목사들의 태도는 개신교인이면서 시민이기도 한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 강호숙 박사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최소한 예배를 마치고 하라는 것이다. 그걸 보기 싫은 신도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되지 않겠냐 했다.”⁴²⁾

공명선거감시단 단장 김디모데 목사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의 위치는 포지션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계급이 아닌 지도자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잘못된 교회는 목회자한테 과도한 권위를 부여한다. “목사가 일반 교인들보다 영적 권위가 더 높다”라는 식이다. 목사도 사람이다. 목사가 말하는 것이 당연히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과도하게 권위가 부여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닌 신의 대리자 취급을 받게 되었을 때 ‘목사의 설교가 틀리지 않는다.’는 맹신으로 갈 수가 있다.⁴³⁾

교회는 교인들의 품성 변화에 책임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품성이란 그리스도의 성품과 명령의 기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내면적 동기인데, 이런 품성 변화는 사람의 영적 성장의 바탕이 된다. 영적 성장은 말씀의 가르침에 의해 발생한다. 교회가 영적 성장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목회자들이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장로에게는 22.9%, 기타 직분 자들에게는 15.8%가 있는 것에 비해

39)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 2022. 2. 28 - 3. 6 모니터링 보고서

40) 정창균, “한국교회와 설교: 한국교회 설교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 한국복음주의신학회, 36-37

41) 상대방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또는 영력이 주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창48:14-20)

42) 김준수, <2022년 한국교회에게 바란다>, 『평화나무』, 2022.01.07

43) 김디모데, 22.03.18 인터뷰 中

목사의 책임은 36.2%나 차지하여, 그것이 막중함을 실증하였다.⁴⁴⁾

설교란 단순히 전달하는 설교자의 처지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듣는 청중의 처지에서도 생각해야 한다.⁴⁵⁾ 설교는 결국 청중들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성취되고 완성되기 때문이다.

3) 그럼 목회자들은 왜 그런대?

그렇다면 목회자들의 설교가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목회자 대부분은 설교자 역할에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미자립교회의 재정적 압박과 더불어 과도한 설교 횟수가 목회자 역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⁴⁶⁾ 한국교회 담임 목회자들의 설교 횟수는 일주일 10회 이상이다. 한국교회는 기본적으로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까지 포함하면, 구역예배⁴⁷⁾와 심방⁴⁸⁾을 제외하더라도 목회자가 감당하기엔 벅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회자는 깊은 연구가 묻어나지 않는 급조된 설교를 전하기 십상이고, 급기야는 다른 설교자의 설교를 그대로 베끼는 ‘설교 표절’의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 성경 본문에 충실하지 못한 설교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정창균 교수는 한국교회의 일그러진 얼굴 가운데 중 하나로 설교의 근거와 기초가 되는 성경 상실, 즉 ‘본문 상실의 설교’를 지적한다.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 이유는 ‘성장지상주의’라는 한국교회의 이념이 작용한 것이다. 성장지상주의를 앞세우다 보니 성경의 원리보다 교회의 번영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왜곡된 설교를 하는 경향으로 변질되고 있다.

여성신학자 강호숙 박사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너무 목사의 하나님에게 놀려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은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뻐하시지, 목사가 경험한 하나님을 답습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며 “각자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⁴⁹⁾

44) 김찬목 “품성 변화 책임 지각 수준이 영성과 교회만족도 및 교회 생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 로고스 경영학회 (2009.5) 5p

45) 박태현, “청중의 설교학: 효과적 설교 청취의 기술 - 청교도를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016, 4p

46) 박태현, “종교개혁 500주년과 한국교회 설교개혁”,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018에서재인용 (오현철, “한국교회의 설교환경과 설교배치에 관한 소고”,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004)

47) 한 구역에 사는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드리는 예배

48) 사전적 정의는 ‘방문하여 찾아봄’이라는 뜻이다. 종교적인 의미로는 목사가 신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49) 김준수, <2022년 한국교회에게 바란다>, 『평화나무』, 2022.01.07

3. 사명감

사명감의 사전적 정의는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려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개신교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보수주의 개신교도의 핵심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다. 즉,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다. 로데오사거리에서 열성적으로 전도하는 신도들, 귀어문화축제가 열릴 때마다 ‘반동성애’를 외치며 축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신도들 등 그들은 모두 깊은 사명감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행동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사명감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이유 같아 보여도 반대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촛불 집회를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민주적이고 더 좋은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라도 집회에 참여한다. 그들도 마찬가지다.

길거리에서 노방전도⁵⁰⁾만 20년을 했던 한 교인은 사람에게 지팡이로 맞아 뼈에 금이 갔고, 결국 병원에까지 가야 했지만,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야 하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이들에게 믿음을 주어 천국에 보내겠다는 사명감으로 뭉쳐있는 것이다. 즉, 개신교도들의 혐오도 사명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동성애 혐오는 동성애라는 병에 걸린 동성애자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고, 차별금지법 반대도 동성애로 창궐할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해 반대 집회를 여는 것이다. ‘반공, 멸공’을 외치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에게 공산주의는 사탄이고, 북한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이며 북한 사람들은 사탄의 나라에서 지배당하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인 것이다.

이러한 사명감에 대해서 비개신교인과 개신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종교의 사회적 기여에 관해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간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개신교인의 80%가 종교가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답하였지만 반대로 비종교인의 82%는 부정적으로 답을 하였다.⁵¹⁾ 이러한 설문조사 내용은 앞서 말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비개신교인이 보수개신교의 행동을 봤을 때는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보수개신교는 타락할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회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행동이 나쁘다, 나쁘지 않다에 대한 것은 제쳐두고서라도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 중 하나는 사명감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확신은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에서 온다.

50) 단체로 길거리에 나와서 하는 전도

51) 한국갤럽연구소 한국 종교 현황 설문조사 (2021)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니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개신교인의 사명감에 가득 찬 행동은 관점에 따라 혐오가 되기도, 구원이 되기도 하고 있다.

보수주의 개신교도들의 행동 이유는 다양하다. 담지 못한 수많은 이유들이 더 있겠지만 우리가 세웠던 세가지 가설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했다. 중요한 것은 보수주의 개신교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개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며,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보수 개신교도들은 비판받아 마땅한 행동을 해온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단순히 그들 개인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참고문헌>

논문&책

김진호, 『성서와 동성애』(오월의봄, 2020)

김진호, 『시민 K, 교회를 나가다』(현암사, 2012)

김덕기, "한국 교회의 성서해석의 폭력성",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2002

오강남, 『예수는 없다』(현암사, 2001)

박형용, "성경, 종교개혁, 그리고 한국교회의 미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021

기사

이은혜, <익숙한 것 뒤집는 '퀴어 해석' 관점으로 본 구약성서>, 『뉴스앤조이』, 2020.07.28

최승현, <'동성애는 죄지만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은 헛소리...성경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한다>, 『뉴스앤조이』, 2020.01.17.

우리가 몰랐던 개신교

1. 민주화 / 노동운동

1970~80년대 한국기독교는 권위주의 독재체제에 맞섰던 진보적 학생·노동운동의 보호막이자 협력자였다. 저항적 사회운동이 성장하게 해주었던 요람이었고 민주화운동의 결정적인 국면들을 주도하기도 했다. 민주화의 상징적인 장소는 기독교회관과 명동성당이 있다. '민주화운동의 성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장소이다.

1) 기독교회관

군사정권 시절에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대학교에서도 경찰들이 상주하고 있었고 함부로 발언하기도 조심스러웠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곳이 바로 기독교회관이었다. 1970년대 초, 기독교회관에는 현실참여 성향을 지닌 많은 개신교 단체들과 진보성향의 교단 등이 입주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⁵²⁾으로 18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이 구속되었을 때 한국 기독교회협의회에서는 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고 구속자들의 석방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구속자 가족뿐 아니라 대책위원회 활동가들도 기독교회관을 찾게 되었다.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군부정권도 종교건물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다.

당시 모임이 금지되면서 대학생과 청년들은 교회에서 소모임을 통해 토론하고 학습했다. 캠퍼스 역시 학생들의 자유로운 동아리 활동이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기독교회관을 일반시민에게까지 널리 알리게 한 것은 바로 '목요기도회'였다. 목요기도회는 이해동 목사를 비롯한 젊은 목사들의 자생모임으로 1974년 7월에 시작됐다. 목요기도회는 독재에 항거하다 구속된 많은 청년과 동료들을 위한 순수 기도모임이었다. 회를 거듭할수록 민청학련 구속자 가족들이 하나 둘 참여하면서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목요기도회는 기자들을 통해 일반시민에게까지 알려졌다. 그때부터 구속자 가족·민주화 운동세력 외에 일반시민들이 목요기도회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종교와 계층과 직업, 세대와 학력을 넘어선 범국민적 집단이 되었다. 목요기도회에 모인 사람들은 한 주동 안에 있었던 일들을 공유했고, 때로는 토론장이 되기도 했다. 기도회를 찾은 사람들은 고난 속에 홀로 서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음에 위안을 얻고 서로의 역량을 모아 난세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았다. 처음 목요기도회의 장소는 종로 5가 기독교회관의 소회의실이었지만 점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참석하면서 2층 강당으로 옮기게 되었다. 강당으로는 비좁아 복도까지 사람들이

52) 1974년 4월 박정희 정권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全國民主靑年學生總聯盟) 관련자들을 정부 전복 기도 혐의로 구속·기소한 학생운동권 탄압사건이다.

들어차기도 했다.

목요기도회는 군부독재정권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정권의 탄압은 점점 커져만 갔다. 외압에 의해 기독교회관 측은 강당 대여를 거부했고, '이번 주 목요기도회는 쉽니다'라는 광고를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구속자 가정과 교회를 전전하며 그 명맥을 잇던 목요기도회는 1976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끝을 맞게 된다.

1970년대부터 민주화 운동의 주체로 활약한 진보 개신교뿐만 아니라, 주류 보수교단도 6월 항쟁의 현장에 나오기 시작했다. 이는 보수적인 개신교인조차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창 1:27-28)라는 구절은 인간의 존엄성을 선언하는 발언이다. 보수 교단에서도 박종철의 죽음을 추모하는 예배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일상화된 인권 탄압과 고문이 하나님의 창조 의지에 반하는 크나큰 범죄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 5월 30일 서강대 학생 김의기 열사는 침묵을 강요당하던 대중에게 광주의 투쟁을 알리기 위해 기독교회관 6층에서 '동포에게 남기는 글'을 하늘에 뿌리고 투신했다. 이후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전국 도처에서 계속되었다. 당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기독교계 인사들은 정치적인 의도보다는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기독교 정신이 운동의 밑바탕이 됐다고 얘기한다.

2) 도시산업선교 (산업선교)⁵³⁾

산업선교는 1960~1970년대 한국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노동문제에 깊게 관여해 큰 영향을 미친 노동운동단체로,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산업선교회의 주요 활동은 공장의 소모임을 중심으로 예배와 성경공부를 하고 소외된 도시 빈민과 직장인, 노동자들을 위해 교양 교육, 구호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1970년대에는 노동자들의 소모임 구성, 노동조건 개선과 민주노조 건설을 지원하였다. 전태일 열사도 교회의 모임에서 근로기준법을 다 같이 공부하였다. 산업화가 본격화된 시기에 이들은 동일방직, 태양 공업, 진로 주조, 대일화학 등 많은 대기업에서 노조를 새로 조직하고 어용노조⁵⁴⁾를 민주화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나이 어린 자녀들은 하루에 16시간의 정신, 육체노동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배운 것은 없지만은 그도 사람 즉 인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각할 줄 알고 좋은 것을 보면 좋아할 줄 알고 즐거운 것을 보면 웃을 줄 아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 즉 인간입니다. 다 같은 인간인데 어찌하여 빈한 자는 부한 자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빈한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안식일을 지킬 권리가 없습니까? (전태일의 일기 中)

53) 개신교의 산업선교 단체를 총칭하여 도시산업선교회라고 한다.

54)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된 노조를 어용노조라 한다.

2. 사회 봉사 / 보이지 않는 선행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보이는 보수 개신교인들은 꼭 막혀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런 점들은 개신교전체를 일반화하는 편견이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만나보면 모든 개신교인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 초기에 가난한 이웃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 역시 개신교인들이었다. 코로나 때문에 큰 위협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노숙자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코로나 전에 노숙자들은 쉼터에 모여서 잠이라도 잘 수 있었지만 쉼터가 폐쇄되어 길거리로 쫓겨져 나갈 수밖에 없었다. 감염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먹을 것을 가져다주거나 그 사람들의 삶을 보살피는 것 대부분을 많은 개신교인들이 도와주었다. 봉사, 구제 활동을 하는 종교가 많지만 개신교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한다⁵⁵⁾.

"봉사활동을 통해서 교인 수를 확보하려는 교회의 속셈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한 '사랑을 전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다니게 하는 것이 사랑을 전하는 행동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교회를 등록하는 것하고 같지 않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

성경 구절에는 이런 말이 있다.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선행을 하되 모르게 하라. 개신교인들은 선행을 하면 다른 사람이 모르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개신교를 접하는 뉴스에서는 자극적인 나쁜 모습으로 많이 비친다. 명심해야 될 점은 모든 개신교인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3. 기후위기 / 환경 (태안기름유출사건)

부천에 위치한 지평교회는 부천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근거지이다. 매주 모여 기획팀 회의와 다양한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지평교회의 이택규 목사님은 "비종교인과 다르게 교회는 교회의 언어로 기후위기를 이겨내고 있다."고 말하였다.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 지구별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이고 그 안에 모든 피조물들(생명이 깃들여 있는 것들)과 다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라고 사람이 마지막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창조 세계를 지키는 거고 여기의 생명들을 돌보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탐욕을 부려서 하나님의 세계가 지금 파괴되고 생명들이 죽어간다. 이것을 위해서 지켜내야 된다" 이택규 목사님 인터뷰

55) 보건복지부, 분기별/연도별 봉사활동 현황(종교별), 전국민 설문조사 결과, 개신교 13.11%, 불교 6.03%, 천주교 7.67%, 기타종교 0.43%, 종교없음 45.37%, 무응답 27.38% 2013.04.04

부 中

이렇게 신앙적 이유가 동기가 된다. 이택규 목사님은 신앙심으로 시작한 일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된다고 한다.

“나는 이게(신앙심) 더 강력한 에너지라고 본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원자력발전소를 다시 더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는 효용성이 없다.’라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한다. 환경단체에서 싸움을 할 때 승리하면 좋겠지만 지면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하지만 신앙으로 시작한 일은 별로 흔들릴 일이 없다. 이런 놈도 만나는 거고 저런 놈도 만나고 그래서 고난도 있고 난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또 이끌어가는 역사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별로 낙담하지 않고 갈 수 있다.” 이택규 목사님 인터뷰 中

기후위기 시대 속에 환경 운동이야말로 진보와 보수가 만나는 지점이 될 수 있다.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에 기름을 실은 채 정박해 있던 유조선이 소형 선박이 들이받으면서 유조선 기름이 바다로 흘러나와 앞바다를 오염시켰다. 일명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한국 개신교계를 단결시키는 계기가 됐다. 한국교회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다 같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청소하자고 입을 모았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질서가 인간의 실수로 파괴된 데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서해안 살리기에 앞장서겠다.”⁵⁶⁾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조사한 ‘2019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조사’에 의하면 개신교인 94.2%는 ‘환경문제와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⁷⁾ 환경 관련된 문제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신교계는 1982년부터 이미 기독교환경운동연대를 설립해 교회 녹화, 초록 가게,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실천, 생명밥상 빈 그릇 실천, 태양광 발전소 설치, 친환경 조명 십자가 등 교회의 녹색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교회의 예배, 교육, 봉사, 운영 등 교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에서 창조질서 보전을 실천하고 있다.

56) 박찬우 기자, <기독교봉사단연과 生命의 소중함을 일깨운 검은 재앙 태안 앞바다>, 『천지일보』, 2008.09.29

57) 개신교인 94.2%와 비개신교인 92.4%는 환경문제와 기후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지앤컴리서치, “2019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조사”, 2019.10.31, 73p

4. 평화나무 / 대안 교회

1) 평화나무

병커1교회에서 설립한 평화나무는 개신교 언론사로, 병커1교회의 담임목사인 김용민 목사가 한국 보수 개신교계의 정치개입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2019년 설립했다. 또 평화나무 산하 공명선거감시단은 지난 20대 대선과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이어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를 적발하고,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개신교인들의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공명선거감시단은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⁵⁸⁾에 의거하여 활동하고 있다.

목사가 설교시간이나 기도시간에 특정 후보를 낙선하게 만들려는 행위와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교회가 많다. 그런 교회들을 모니터링해 검찰에 넘기고 있다. 이번 20대 대선 때 한 교회에서는 ‘이재명 지지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빨갱이가 누군지 아시죠?’ 이런 식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았다.⁵⁹⁾ 이번에 다가오는 6월1일 지방선거에서도 공명선거감시단은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감시단'을 출범하여 선거법을 위반하는 교회들을 모니터링 한다.

“공명선거감시단 활동은 교회를 예수답게 하려는 우리의 신앙고백입니다. 아울러 교회가 사회에 존경받고 모범이 되게 하는 활동입니다.”

2) 대안교회 / 작은 교회

최근 대형 교회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산되고 그 문제점 해결에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서 진정한 의미의 '작은 교회'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확산되고 있다. 일반적인 작은 교회는 대형교회의 짝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작은 교회는 크기만 작을 뿐 전도 방식, 메시지의 내용, 비전 등 대형 교회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작은 교회가 속속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은 교회는 아직 덜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음 자체에 의미가 있다. 작은 교회는 대형교회 식의 성장지상주의를 지양한다는 공통분모를 갖는다. 또한 많은 작은 교회들은 탈권위주의적 조직과 운영을 추구한다. 담임목사나 장로의 임기제를 도입하거나 담임목사와 장로의 중심의 운영보다는 단기 임기로 선출된 운영위원들을 통해 합의적인 교회를 운영해 나간다. 작은 교회는 감성이 얽히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 일종의 감성 공론장의 역할을

58)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 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59) 평화나무 [2022. 2. 28 - 3. 6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일주일간 16개의 교회에서 예배시간 선거개입 발언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한 설교와 기도가 다수 포착되었다.(매주 모니터링 보고서가 나온다.) / 모니터링 교회 수 : 전국 209개 교회 /238개 예배 유튜브 모니터링

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 작은 교회는 같이 포도주를 담거나 김장을 하기도 하고 독거노인의 수발을 드는 일을 함께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나아가 이러한 탈권위적인 관계는 예배 시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령 설교 직후 교인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설교나눔'을 통해 대화적인 소통을 강조하는 설교 제도를 운영한다. 한국교회는 위기 속에 있다. 이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장, 번영을 보다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자료집

기독교윤리실천연구소, 「2020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자료집」, 2020.02.07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지앤컴리서치, 2019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조사”, 2019.10.31

기사

조현, <개신교단체들, 노숙인·노점상인 생존권 보장 촉구>, 『한겨레』, 2021.10.14
이대웅, <“코로나로 더 힘들 올 겨울, 노숙인들에게 가장 힘들고 무서울 것”>, 『크리스천투데이』, 2020.11.27

도서

김용민,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 2016.05.30)
김진호, 『시민k 교회를 나가다』, (현암사, 2012.03.31)

홈페이지

laotao@hanmail.net, <도시산업선교회(都市産業宣教會)>,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1
김태승,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全國民主靑年學生總聯盟事件)>,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1
김기선, <민주주의 역사의 현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평화나무 홈페이지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 나는 종교가 이랬으면 좋겠어

1. 종교와 삶

종교는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 자신이 무교라면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종교와 인간은 떼어 수 없는 존재이다. 문화 인류학자인 로버트 래널프 마렛은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종교’라고 말하며 [호모 릴리지오수스(Homo Religiosus): 종교적 인간]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다. 종교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흔히 생각하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 등 그런 것만 종교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종교란 궁극적인 관심(ultimate concern)이라고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말했다. 이념, 사상(ism)같은 것도 유사 종교라고도 볼 수 있다. 궁극적인 관심이 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돈이 종교인 것이고, 권력이나 명예에 궁극적 관심이 있다면 권력, 명예가 종교가 된다. 하지만 종교적, 혹은 정신적인 것을 외면해버린 채 소유만을 추구하게 되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가짜 종교, 흔히 사이비 종교라고도 한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성해영 교수는 “종교란 삶의 궁극적 의문(탄생, 죽음)에 대한 해답 체계”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세계적 물리학자인 브라이언 그린도 “모든 종교는 중요한 질문(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끝나는가?, 우리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가게 될 것이며, 좋은 곳으로 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에 비슷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종교는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알려 주는 이야기와 바람직한 행동을 안내하는 지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은 강력한 존재가 바람이나 나무 위, 또는 하늘에서 날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집단의 규율을 위반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시 베링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아이들을 방에 모아 놓고 까다로운 과제를 내주고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을 알려준 후 밖으로 나간다. 대부분의 아이는 규칙을 어기고 쉬운 방법을 택했다. 그러나 일부 아이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경고했더니, 그 아이들의 대부분은 끝까지 규칙을 지켰다는 것이다. 베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자를 의식하여 충동을 자제한다고 결론지었다. 고대에도 “전능한 존재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상상하면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번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었으며, 이런 기질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수되면서 널리 퍼져나갔을 것이다.⁶⁰⁾

60) 브라이언 그린, 『엔드 오브 타임』(와이즈베리, 2021), 7장. 두뇌와 믿음-상상에서 신성(神聖)으로에서

2. 종교가 우리에게 주었으면 하는 것

종교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의미를 떠올리고 종교 본연의 영역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이것은 교회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며, 모든 종교 역시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병이 나면 종교에 갔었지만, 이제는 병원에 간다.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간다. 더는 옛날 종교의 역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종교는 종교 본연의 영역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개신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사회와 가깝다. 타 주류 종교인 불교나 천주교와 비교해보면, 어느 지역이나 있어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어렵지도 않고, 진입장벽도 낮다. 조금 더 친근하게 접근하기 쉬운 종교라는 것이다. 이런 점들은 개신교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하지만 현재의 개신교는 그러한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일으켰던 여러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고, 주류 종교 중 호감 가는 종교에서 단연 꼴찌를 차지하는 결과까지 낳았다.⁶¹⁾ 이웃과의 화합을 이야기하던 개신교가 이웃과 가장 친해지지 못한 셈이다.

종교는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 이미 종교나 교리에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 수행을 위해서 명상이나 템플스테이 등 종교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던 것들이 점점 바깥으로 꺼내져 오고 있다. 성서의 불쾌감을 주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요소를 무시하고, 모호한 내용을 시적이거나 상징적인 표현, 또는 지어낸 이야기로 해석하면 성서와 교리는 완전히 논리적인 서술이 될 수 있다. 브라이언 그린은 이것이 매력적인 이유에 이야기한다.

1. 종교의 초자연적 존재나 형이상학적 주장에 얽매이지 않으면 더 크고 총명한 이야기 속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2. 종교적 이야기를 '인간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의 은유적 표현으로 이해하면 굳이 신자가 아니어도 성서를 읽는 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3. 특정 종교의 교리와 과학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해석 체계를 개발하는 것도 흥미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종교 활동에 참여하면 삶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면서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경전⁶²⁾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믿을 필요도 없다. 위에 열거한 것은 경전의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⁶³⁾ 우리는 종교를 믿으려면 종교에서 말하는 교리 등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개신교도들은 전부 예수의 부활이니, 모세의 기적이니 하는 것들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브라이언 그린

61) [한국갤럽연구소 2021 종교 관련 인식조사] 비종교인의 호감 종교: '불교' 20%, '천주교' 13%, '개신교' 6%

62) 종교의 교리를 적은 책

63) 브라이언 그린, 『엔드 오브 타임』(와이즈베리, 2021), 7장. 두뇌와 믿음-상상에서 신성(神聖)으로

이 말한 대로라면 무신론자도 종교를 믿을 수 있다. 종교는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며 동시에 탐구의 대상도 될 필요가 있다.

이미 기독교는 바뀌어 가고 있다. 마커스 보그가 이야기하는 '새롭게 등장하는 기독교'(Newly Emerging Christianity)는 변혁, 변화가 주된 관심이라고 말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기독교는 자유주의 신학으로도 알려져 있다. 자유주의 신학은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며 정통주의 신학⁶⁴⁾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신학을 말한다. 대체로 정통주의 신학에 반대되는 용어로 쓰인다. 급진적인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은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인 신 존재 자체를 과감히 부인하거나 기독교의 본질을 사회참여에 둔다.

종교는 이제 우리와 멀어졌고, 관심 밖의 대상으로 밀려나 버렸다. 비종교인이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의 54%가 '관심이 없어서'라고 한다. 1997년에 비해 '관심이 없어서'를 꼽은 사람이 두 배가량 늘었다.⁶⁵⁾ 하지만 비종교인이라고 해서 종교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가 변했듯이, 종교도 변화해야 한다.

성해영 교수는 종교가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데 핵심적인 분야라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도덕에 대한 접근법이다. 교회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힘에 부칠 때 원동력을 얻고, 마음을 기댈 수 있는 편안한 휴식처가 되기를 우리는 바란다.

64) '올바른 신앙'을 뜻하는 용어이다. 즉,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을 성실하게 고수하는 입장을 말한다.

65) [한국갤럽연구소 2021 종교 관련 인식조사] 비종교인이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

우리는 ‘인싸’여서 살아남았다

이담 유재훈 양민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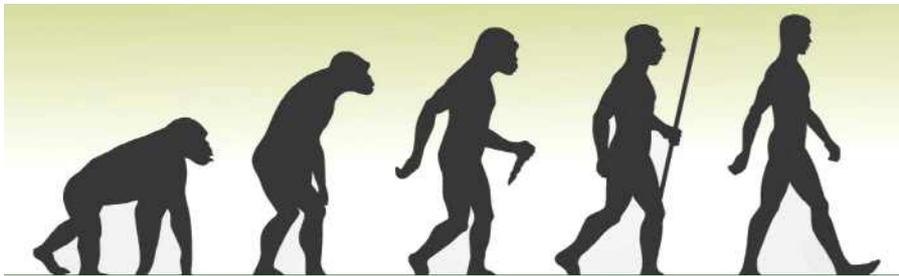
목차

- ◇ 인간의 대하여 - 45p
- ◇ 인류가 살아남은 비결 - 51p
- ◇ 협력이 만든 결과 - 57p
- ◇ 협력과 손을 잡고 - 93p

들어가며

인류는 살아남기 위해 진화를 거듭해왔다. 길고 긴 진화 속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통해 인간의 기원엔 무엇이 있었는지 파헤쳐 보면서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로 우리는 서로의 협력과 협동 끈 친화력이 발현되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의 잔재가 근대와 현대 사회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자리 잡았는지, 또한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얘기해보고자 한다.

인류 특성에 대하여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말은 어렸을 적부터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허리가 점점 펴지며 현 인류로 완성되는 위의 표도 눈에 익숙할 것이다. 위 표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단일계보는 잘못된 정보이다. 유인원에서 하나의 종이 인간으로 진화했다고 이야기하는 단일계보는 당시에 지구에 살고 있던 인류는 한 종밖에 없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래된 종들 모두가 우리의 선조였을 것이라는 오해를 일으킨다. 사실 현재 인류는 지구에 혼자 살아남기 전까지 다양한 인간 종이 ‘동시’에 살았다는 것을 정정한다. 약 2백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우리는 미처 밝혀지지 않은 종들까지 함께 한 지구에 공존하며 살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인류는 유인원과 같은 친척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가끔 우리는 원숭이나 유인원을 조롱거리로 삼곤 한다. 진화되지 않은 종은 무능력하다는 무의식중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그들에게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1. 인류의 시작

인류는 약 250만 년 전 동부 아프리카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남쪽 원숭이)로 진화되었다.

약 200만 년 전 이들은 북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의 넓은 지역에 정착했다. 인류 집단은 정착한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화했다. 더운 지방과 추운 지방 환경이 다르듯 살아남는데 필요한 성질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호모⁶⁶⁾ 플로레시엔스는 열대지방인 인도네시아에서 서식했는데 과한 햇빛에 자원이 부족하여 세대를 거듭할 수로 작은 신장과 체중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 결과 서로 다른 지역에서 여러 종이 생겨났다. 이렇듯 우리 호모 사피엔스에게 얼마나 많은 사촌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몇 만 년 전의 지구에는 적어도 최소 여섯 종의 인간이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호모사피엔스(현인류) 외의 인류 종
네안데르탈인(네안데르 동굴에서 온 사람) : ~약 4만 년 전 직후 멸종,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호모사피엔스와 살아남았던 인류 종
호모 데니소바(데니소바 동굴에서 온 사람) : 약 5만 년 전 직후 멸종
호모 솔로엔시스(솔로 계곡에서 온 사람): 약 12,000년 전 멸종.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서식. 열대지방에 잘 적응함
플로레스인(호모 플로레시엔시스): 약 12,000년 전 멸종. 석기와 사냥 가능
호모 루돌펜시스(루돌프 호수에서 온 사람): 약 12,000년 전 멸종
호모 에르가스터(일하는 사람): 약 12,000년 전 멸종
호모 에렉투스: 인류가 처음 발견된 아프리카를 가장 먼저 떠난 최초의 인류 등

2. 인간의 특징

1) 뇌

인간의 뇌는 몸집이 비슷한 다른 동물의 뇌에 비해 예외적으로 크다. 초기의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뇌는 400cc로 침팬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진화를 하고 인류의 뇌가 전체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면서 현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3.4배인 1300cc~1450cc로 커졌다.

인류의 뇌가 커지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뇌처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관은 고열량의 식사를 필요로 하는데 인류가 육식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뇌가 확연히 커지기 시작했거나, 인류가 직립보행을 시작하며 원래 써야 했던 기관의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 없게 되면서 뇌에 에너지를 더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 등 다양하다. 아직 인류의 뇌가 커지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선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호모사피엔스의 뇌는 몸무게의 2~3%를 차지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약 25~30%를 사용할

66) 호모(Homo)는 생물학적 이름으로 '사람'이란 뜻이다.

만큼 우리는 뇌의 많은 부분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다른 동물에 비해 몸이 우람 하지도 튼튼하지도 않았던 인류를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 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뇌는 인지하고 기억하고 느끼는 능력인 우리의 모든 생각을 좌우한다. 우리는 뇌로 인간의 능력을 시험하기도 하고 인간과 비인간을 판단하기도 한다. 다른 동물과 현 인류의 큰 차이점을 꼽아보라고 했을 때 대개 똑똑함과 지성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뇌는 대표적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뇌가 커진 것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 뇌가 커지면 만큼 나눠 써야 하는 에너지도 많아진다. 그렇게 뇌를 쓰는 시간이 많아졌고, 뇌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만큼 다른 신체 기관의 근육은 퇴화했다. 근육을 써야 하는 일을 하기 힘들어졌고 예전보다 식량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었다.

2) 불

깜깜한 어둠 속에 벌벌 떨며 자연의 섭리대로 순응해야 했던 인간에게 불은 그야말로 황금 동아줄이었다. 불은 빛과 온기를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격하는 적에게 겁을 주며 대항할 수 있는 좋은 무기였다. 또 불을 조심스럽게 잘 다루기만 하면 통행이 불가능하던 잡목 숲에 불을 질러 평평한 초원으로 바꿀 수 있다. 불이 꺼진 숲의 잔해 속에는 알아서 불에 타 구워진 동물과 견과류, 덩이줄기 등이 있어 큰 노력 없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불이 하는 최고의 역할은 음식을 익히는 일이다. 생식으로는 소화할 수 없는 음식이 화식을 거치면서 인간의 주식이 될 수 있었다. 불로 열을 가해 익히면 음식을 오염시키는 세균과 기생충이 죽는다. 더욱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될 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도 줄어든다. 침팬지는 날것을 씹어 먹느라 하루 5시간을 소모하지만, 사람은 익힌 음식을 먹는 데 1시간이면 족하다. 익히는 요리법으로 전보다 부드러운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인간은 몸도 진화하였다. 질긴 음식을 더 이상 씹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치아는 작아졌고, 전에 비해 부드러운 음식을 소화할 수 있게 되자 창자는 짧아졌다.

인간의 뇌가 커진 것이 화식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⁶⁷⁾ 큰 뇌를 유지하기 위해선 산소와 포도당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화식으로 얻어지는 에너지가 그것을 충족시켜준다는 것이다.

3) 직립보행⁶⁸⁾

직립보행을 하게 된 이유에는 여러 이론이 존재한다. 손을 좀 더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이거나, 오늘날 침팬지가 귀한 음식을 옮길 때 손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귀한 물품을 들고 날라야 할 때 손과 팔이 필요했다는 등 여러 이론이 존재한다. 하지만 모두 확실히 입증되지는 않다.

67) 리처드 랭엄, 『요리 본능』, 사이언스북스, 2011년

68) 뒷다리만을 이용해서 등을 꼳꼳하게 세우고 걷는 일. 인류는 팔 2개, 다리 2개인 네발로 생활하다 다리만 이용하여 걷는 직립보행을 하게 되었다.

두 발로 땅을 지탱하게 되며 쓰지 않았던 두 팔은 여러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팔의 사용이 자유로워지게 되면서 손바닥과 손가락에 신경이 집중되고 섬세한 근육이 자리 잡게끔 진화되었다. 그 결과 복잡한 도구를 만들어 쓸 수 있게 되었고, 현 인류는 손으로도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현시대에는 팔 뿐만이 아니라 손가락의 신경이 있어야 하는 작업이 대부분이기에 일상생활에서 팔을 잠시 못 쓰게 되어도 쉽게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인류가 팔을 자유롭게 쓰지 못했더라면 종이를 쉽게 넘기지도, 글을 쓰지도 못했을 것이며 이렇게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던 균형을 포기하고 직립보행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 갑자기 두 발로 걷게 되었다고 기존의 골격이 빠르게 바뀌지는 않는다. 네발로 걷는 자세에 맞춰진 말랑말랑한 골격이 변하지 못한 채 커다란 두개골을 두 다리로만 지탱해야 했다. 상태는 변하지 않은 채 약한 버팀목으로 무거운 머리를 메고 있어야 하니 건강에 많은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오늘날 현대인이 쉽게 허리가 아프고 목이 뻐뻐해졌다.

여성은 똑바로 서서 걸으려면 엉덩이가 좁아야 하므로 아기가 나오는 구멍인 질이 좁아지는데, 하필이면 인류 진화에 맞게 아기의 머리는 점점 커졌다. 몸에 맞지 않은 태아를 출산해야 했기에 여성에게 분만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되었다. 여성의 출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태아의 크기가 작은 상태인 이른 출산을 오늘날까지 선호하게 되었고, 태어나자마자 걸음마를 뒀 수 있는 다른 동물의 태아와 다르게 인간의 태아는 필요한 부분이 덜 발달한 상태로 의료에 의지한 채 태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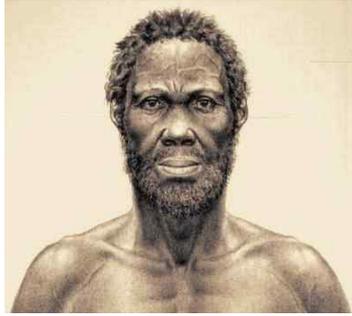
이 외에도 직립보행을 하게 됨으로써 사냥감이나 적을 찾기 쉬워졌지만 그만큼 눈에 잘 띄었다. 또 나무를 민첩하게 오르내릴 수 있었던 능력도 버려야 했다.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종은 ‘네안데르탈인’이다. 네안데르탈인은 생물학에서 항상 의문과 인기가 많은 종이다.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가 홀로 지구에 남기 전 유일하게 공존했던 인류 종이었기 때문이다.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보다 똑똑하고 힘도 좋았다. 그럼에도 네안데르탈인은 왜 멸종되었을까?

1.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특징

1) 호모사피엔스



원래는 고인류의 이름을 지을 땐 주로 발견된 지역의 이름 혹은 특징을 참고하여 이름을 작명한다. 이와 다르게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름은 라틴어로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호모 사피엔스는 지금 현대인의 종으로, 이러한 이름은 생물학자인 칼 폰 린네가 고안했다고 한다.

호모 사피엔스의 특징으로는 몸집이 왜소했고 근육이 그리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 얼굴 옆에서 볼 때 평범한 현대인의 모양이며, 두개골이 작았다. 타 종에 비해 힘도 없고, 덩치도 작았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 활동했다.

2) 네안데르탈인



네안데르탈인은 1853년 독일 뒤셀도르프 라는 지역에 네안데르 계곡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계곡의 이름을 본떠 네안데르 라는 이름과 독일어로 계곡인 탈을 합쳐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부른다. 네안데르탈인의 특징은 푹푹하고 신체가 좋았다. 두개골은 크고 얼굴 옆 모양은 삼각형을 띠고 있다. 그리고 근육이 상당히 발달하여 비례적으로 팔이 짧았는데, 이러한 신체적 조건이 유라시아⁶⁹⁾ 서부에서의 네안데르탈인을 혹독한 추위로부터 생존할 수 있게 해주었다. 네안데르탈인은 현대 사람이 보기에 '원시적으로 보일 외모'로 진화했지만, 대신 추운 날씨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체가 진화하여 잘 생존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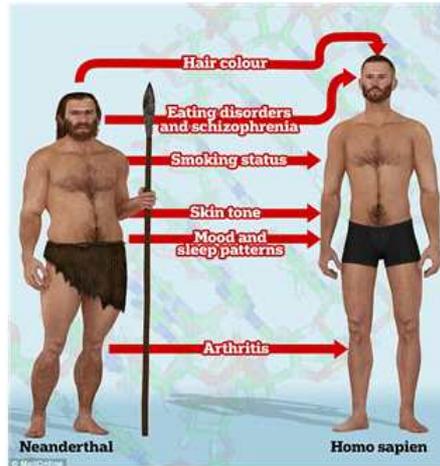
네안데르탈인의 몸이 작은 이유는 두개골 성장이 느렸기 때문이다. 인류는 다른 부위가 성장하는 대신 그 외에 근육이 퇴화하는 구조다. 네안데르탈인은 추운 지방에서 근육을 키우는 쪽으로 진화를 했으며, 이 때문에 두개골 성장이 느렸다.

네안데르탈인은 과거 덩치가 컸다는 이유만으로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존재로 묘사되었는데,

69)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로 묶어 부르는 이름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다른 종을 적대하는 인간의 마음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불안에 대응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이 진화를 겪으면서 자신(나)과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 상황에서 배타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심리적 작동으로 이어져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활동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진화하게 됐다. 하지만 오히려 편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소통을 결집시키거나, 몰라도 되는 것들을 알게 하여 비이성적 행동으로 이끌게 되었다.

3)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다른 점



(1) 무리 규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차이점으로 보는 것은 바로 무리 규모⁷⁰⁾이다. 네안데르탈인의 경우 무리 인원은 최소 몇 명에서 최대 몇십 명 정도까지 키울 수밖에 없었지만, 반면 사피엔스의 경우에는 최소 몇십 명에서 최대 몇백 혹은 몇천 명까지 키울 수 있을 만큼 단결이 좋은 종이다.

"당시 무리수가 적었던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과의 경쟁에서 밀려 멸종 위기에 처했지만,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서 사피엔스의 무리는 네안데르탈인보다 몇 백배 커졌으며, 그로 인해 네안데르탈인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사피엔스> 中

(2) 주식

네안데르탈인의 경우 추운 지방에서 주로 생존을 했기에 먹을 수 있는 식량 또한 한정되어 있다. 주식은 육식이었다. 추운 지방에서 농사는 불가능했고, 채집 또한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대형동물을 찾고 사냥해 생존을 이어갈 수 있었다. 단점은 대형동물이 멸종하면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반면 사피엔스는 따뜻한 지방에서 주로 생존을 이어갔기에 먹을 수 있었던 식량이 많았을 것이다. 농사도 가능하고, 채집 또한 가능했으며 과일나무를 찾아 쉽게 채집이나 재배를

70)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김영사 2020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피엔스가 생존에 더 유리했다고 생각한다.

교체이론과 교배이론

과거 초기 인류는 아프리카를 빠져나와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서 생존을 이어갔다. 이후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등장하고 몇 년 정도 그 지역에서 생존했으며, 초기 인류처럼 유럽으로 진출을 했다. 유럽 진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식량부족과 기후위기 때문이라는 가설이 존재한다.

호모 사피엔스 외에도 호모 에렉투스⁷¹⁾와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등 많은 인간의 종이 지구상에서 생존했으나, 지금 현재 살아남은 생명은 호모 사피엔스다. 이에 대해서 유발 하라리는 자신의 책 <사피엔스> 교배이론과 교체이론을 설명하며 호모 사피엔스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남았는지 설명한다.

1. 교체, 교배이론에 대하여

1) 교배이론

서로 다른 인간의 종끼리 교배를 하여 후손을 이어갔으며, 현재 인간은 여러 종들과 혼합이 된 종이라는 이론이다.

2) 교체이론

현재 인간은 다른 종과 섞여 있지 않고, 호모 사피엔스만의 순수한 종이라는 이론이다. 자신과 외형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전쟁과 학살을 이용해 다른 종을 멸종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몇십 년 전까지 학계에선 교체이론이 정설로 여겨졌다. 하지만 고인류의 게놈 지도⁷¹⁾가 완성되고 유전자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많아지면서 정설은 교배이론으로 교체가 되었다.

현재까지 "사피엔스가 어떤 방법(학살 등)으로 살아남았는지"에 관해서는 많은 가설이 있으나,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뭐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다. 하지만 여태까지 발견된 많은 증거들이 교배이론을 입증하고 있다.

2. 교체이론+식인 증거 목록

1) 아프리카 이동설

71) 게놈 지도: 유전체 지도

많은 학계에선 대형동물과 다른 인간 종이 멸종했던 이유가 기후변화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발 하라리는 <사스>에서 대조되는 주장을 펼쳤다. 바로 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난 것, 즉 아프리카 이동설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호모 사피엔스가 이동했다고 왜 이들이 멸종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다. 이에 아래 2개의 사례를 보면서 이 궁금증을 해소해보자.

과거 드프로토돈은 호주에서 주로 서식을 하는 대형동물이다. 하지만 45,000년 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들이 멸종해 버렸다. 만약 드프로토돈만 멸종했다면 우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드프로토돈 외에도 호주에 서식하는 많은 대형동물들이(약 90% 정도) 멸종해 버렸다. 호주에는 여러 차례의 빙하기가 있었고, 그중 두 차례가 극히 심한 빙하기가 있었는데도 드프로토돈은 잘 견디며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왜 이들은 멸종했을까?

그 외에도 북극해 랭겔 섬을 포함하여 북반구 대부분 지역에서 서식하는 매머드 또한 멸종해 버렸다. 매머드는 추위에서 잘 생존할 수 있는 대형동물이다. 하지만 이들이 멸종해 버렸다. 그것도 4만년 전에 말이다.

위 두 멸종 사례들에는 호모 사피엔스와 연관이 되었다. 호모 사피엔스는 7만년 전에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과 아시아, 호주 등에 대륙에 정착했다. 즉 사피엔스의 아프리카 이동설을 기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먼저 북반구 지역의 매머드를 먼저 사냥을 해 멸종을 시켰으며, 그 다음 호주로 가 다른 대형동물을 멸종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피엔스의 특성을 봤을 때 네안데르탈인과 그 외 인간 종들도 멸종시켰을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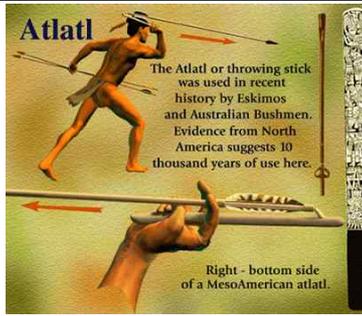
이제부터 보여 줄 증거들은 학살과 식인에 대한 교체이론 증거들이다. 이에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은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 알고 가면 아래의 증거들을 볼 때 이해가 조금 쉬울 것이다.

Tip.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무기



<사피엔스 석기>

위 사진에 나온 석기는 호모 사피엔스가 사용한 석기로, 날카로우면서도 뾰족한 것으로 봐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석기로 추정된다. 이 석기를 이용해 그냥 사용했을 수 있고, 나무와 줄기를 사용하여 창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생각이 든다.



<발사용 무기>

위 무기 또한 사피엔스가 사용했던 무기 사진으로 추정된다. 창과 분리된 손잡이를 이용해 허리와 팔에 힘만 쓰면 미사일처럼 강한 무기로 사용이 가능하다.

네안데르탈인⁷²⁾



<네안데르탈인 석기>

네안데르탈인의 석기인 경우 날카롭기 하나 사피엔스처럼 뾰족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인다. 몇몇 학자는 돌을 부셔 나온 파편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다른 학자들은 나름대로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하지만 뭐가 됐든 네안데르탈인은 사피엔스처럼 비슷한 형태의 석기를 사용했으나, 주로 창, 칼 위주로 사용했다. 쉽게 말하면 던지는 용도의 무기보다, 찌르고 베는 용도의 무기 위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2) 학살 증거

(1) 이라크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학살 증거⁷³⁾

이라크인의 네안데르탈인의 갈비뼈에서 상처가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인류학자 스티브 처칠은 이 상처를 가지고 여러 학살 시나리오(싸움, 전쟁 등 상처에 관한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면서 사피엔스의 교체이론으로 내세웠다.

시나리오 구성은 여러 무기를 가지고 인간의 피부와 비슷한 돼지에게 똑같은 상처를 내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발사용 무기로 인한 상처가 위 네안데르탈인의 뼈에서 나온 상처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2) 네안데르탈인은 그들의 시대를 위해 하이테크였! 살아있는 과학 (livescience.com) 재인용

73) 네안데르탈인을 찢린 인간, 증거는 | 제안 라이브 사이언스 (livescienc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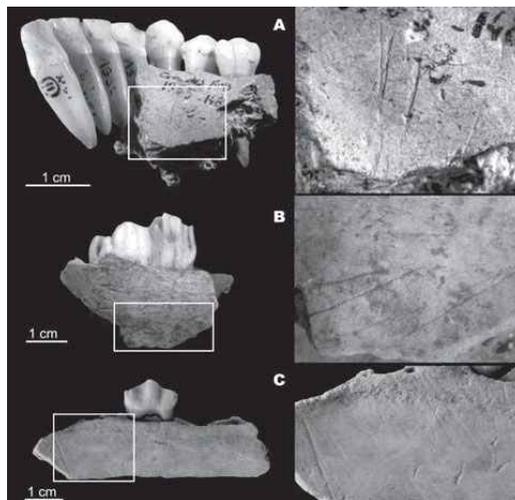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왜 많은 인간종 중 사피엔스가 범인으로 지목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발사용 무기에 관해서는 사피엔스는 발사용 무기를 개발했지만 네안데르탈인은 그렇지 못했기에 우리 연구팀은 사피엔스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 발견으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은 바로 발사용 무기로 인해 현장에서 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발사용 무기로 인해 발생한 상처가 몇 주 뒤 폐 손상으로 이어져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어느 정도의 치유가 있었다고 본다. 나는 이번 발견이 엄연히 사피엔스가 난폭, 학살했다는 것을 알리는 발견이라고 생각한다. 상처가 조금은 치유가 되었고 폐 손상으로 죽었다 한들 사피엔스의 발사용 무기로 생긴 상처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3) 식인

(1)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식인하다.⁷⁴⁾

페르난도 로지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프랑스 남서부 루레아 동굴에서 새로운 교체이론 증거를 발견했다. 그건 바로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잡아 먹었다는 것이다.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잡아먹었다는 증거, 턱뼈)

위에 뼈 사진은 네안데르탈인의 턱뼈 사진으로 오른쪽에는 뼈에 난 상처를 확대한 것이다. 이 상처들은 야생동물의 뼈에서 나온 상처와 유사하며 굉장히 날카롭고 뾰족한 무엇 가로부터 생긴 상처로 추정된다. (석기 특징 추가)

3. 교배이론+이종교배 증거 목록

1) 유전자

74) "현생 인류(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 잡아먹었다" - 조선일보 (chosun.com)

(1) 네안데르탈인 유전자 검출

2014년 1월 30일에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와 네이처가 새로운 연구결과를 보여주면서 기존의 교체이론 학설을 반박했다. 바로 미국 워싱턴대학의 벤저민 베르논 박사와 조슈아 아케이 박사가 공동으로 진행된 연구를 통해 600명의 동아시아인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1~3%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시 연구결과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안기는 동시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되었다.^{75),76),77)}

그 외에도 미국 하버드 의대 스리람 산카라라만 교수의 연구결과 또한 교배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발견이다. 산카라라만 교수는 현대 인류와 네안데르탈인에게서 머리카락, 피부 생산유전자와 결핵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똑같다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결과도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교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입증했으며, 위 연구결과와 같이 큰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이 교수는 이런 유전자로 인해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아시아와 유럽의 기후를 잘 적응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⁷⁸⁾

(2) 데니소바인 유전자 검출⁷⁹⁾

데니소바인은 알타이산맥에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된 손가락 화석을 시작으로 처음 존재를 알렸다. 최근 데니소바인의 유전자를 많이 간직하고 있는 현대인이 발견되었는데 바로 아이타 막부콘 족이다. 이 부족은 필리핀에 사는 흑인 부족(네그리토) 중 하나로 데니소바인의 유전자 5%가 검출되었다. 이 수치는 높은 수치로 과거 파푸아족보다 30~40% 더 많은 것으로 나왔다. 막부콘 족이 데니소바인의 유전자를 가장 많이 간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인류과 교류를 적게 했기 때문이다. 다른 족의 경우 여러 종과 교류를 하여 데니소바인의 유전자와 여러 종의 유전자가 섞였던 반면 막부콘 족은 다른 인류와 교류를 하지 않아 순수한 데니소바인의 유전자를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었다.

데니소바의 유전자는 필리핀과 파푸아뉴기니 사람이 가장 많이 검출되었고 그다음 아시아인에서 극히 일부가 검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유럽은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데니소바인은 주로 대륙에서 생존하기보다 섬에서 주로 생존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피엔스 혼합 종 (박종화 교수님 자문)⁸⁰⁾

75) 기사 인쇄 (khan.co.kr)

76) 비아프리카계 인류의 경우,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1~3% 섞여 있다 : MLBARK (donga.com)

77)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 과연 짝짓기 했을까 - 주간조선 (chosun.com)

78) 같은 기사 재인용

79) 데니소바인 계통을 가장 많이 물려받은 사람들 찾았다 : 과학 : 미래&과학 : 뉴스 : 한겨레 (hani.co.kr)

80) 한국인의 조상은 누구인가...학계 진실공방 - 시사저널 (sisajournal.com)

우리는 본 인문학을 준비하면서 교체이론과 교배이론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바로 어느 이론이 더 증거가 많은지다. 이에 대한 생물학자의 생각을 듣고 싶어 인터넷 서칭을 하던 더중 박종화 교수님을 알게 되었고 이분께 메일로 자문을 구하였다.

박종화 교수는 계놈과 생정보학 연구를 주로 하는 교수다. 그래서 한국인의 특이적 계놈을 분석과 동시 생정보학 기술(다중오믹스 분석, 표준계놈구축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 노화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인의 계놈 외에도 고래상어, 호랑이 등의 동물들을 대상으로 표준 계놈을 구축하고 생명현상 이해, 조절과 상용화하는 모든 영역에 걸친 연구를 하고 있다.

“우리 몸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와 데니소바인의 유전자를 일부 가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배이론을 했다고 보인다. 다만 모든 사피엔스가 교배했다고 보기보다, 유럽인들은 교체를, 동양인들은 서로 교배했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⁸¹⁾

(박종화 교수님 자문 내용 中)

이 분에 의하면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단일종이 아닌, 혼합종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과거 전 신기술을 무장한 중국 남부의 인류 집단이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종을 만났고, 그들과 서로 관계를 맺어 피가 섞였다는 것이 이분에 주장이다. 이 주장이 나올 수 있었던 연구는 바로 신석기인과 바콤노우인의 계놈 비교 연구였다. 연구결과 지금의 현대인 계놈이 신석기인과 바콤노우인의 계놈을 합친 결과가 비슷한 것을 알 있었다.

(4) 이종교배 흔적

네이처 17일 자 온라인판에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바로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이종교배 흔적을 발견했다는 보고서다. 공동연구팀⁸²⁾은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에서 10만년 전에 유해로 추정되는 여성 네안데르탈인의 유해를 발견했는데, 그 유해에서 이종교배 흔적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같은 동굴에서 발견된 인간의 뼈와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의 뼈에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위의 발견과는 다르게 이종교배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난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 모두가 이종교배를 했다고 보기보다 몇몇 지역에 사는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들끼리 이종교배를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큰 의문은 아직 그런 교배가 평화로웠는지 강제적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평화롭다는 건 두 종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며, 반대로 강제적이라는 건 학살과 전쟁을 통해 다른 종의 여성을 강제로 교배(강간)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난 이 부분에서 만약 교배가 평화로웠다면 교배이론이 학계 정설이 되고, 나도 교배이론에 찬성하겠지만, 반대로 교배가 강제적이었다면 난 교체이론에 편을 들며 학계에 정설이 돼야 할 것이다.

81) 박종화 교수님의 메일 중 일부 발췌

82) 세르히 카스텔라노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의 진화유전학부 교수팀과 이스라엘 학제연구센터와 미국 코넬대

허구의 믿음

들어가며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자신의 책인 『사피엔스』에서 호모 사피엔스는 상상할 수 있었기에 유일한 종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만져지는 종이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 실제 만질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지만 상상 속에서 글씨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했다는 것이다.

1. 호모사피엔스만의 특별한 언어

호모 사피엔스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언어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리를 내고 알아듣는 것은 다른 동물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호모 사피엔스에게만 존재하는 특별한 언어가 있다.

1) 언어 구사

우리의 언어는 유연하다. 소리와 기호를 연결해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 무한한 개수의 문장을 만들 수 있었다. 단순한 의사 전달이 아닌 한층 더 구체적인 문장을 길게 구사하여 전달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막대한 양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예시로는 『사피엔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녹색 원숭이도 동료들에게 "조심해! 사자야!"라고 외칠 수 있지만, 현대인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오늘 아침 강이 굽어지는 곳 부근에서 한 무리의 들소를 쫓는 사자 한 마리를 보았어." 이어서 그는 정확한 위치와 그곳까지 가는 여러 길들까지 묘사할 수 있다. 이 정보를 두고 그들은 무리는 강에 접근해서 사자를 쫓아 버리고 들소를 사냥할 것인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도 있다. 또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한층 더 섬세한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2) 뒷담화 능력

우리는 왜 뒷담화를 많이 하는 걸까. 게임을 하며 ‘이번 한 판만 하고 자야지’ 생각해도 쉽게 못 멈추는 것은 긴장된 나를 이완시켜 주는 게임의 심리적 쾌감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쾌감을 한번 접하면 계속 느끼고 싶기 때문에, 쾌감이 없으면 중독도 일어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지나친 뒷담화가 좋지 않은 것을 아는데도 이렇게 번성하는 것은 뒷담화에도 무언가 심리적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사회적 관계를 강화시켜 준다는 주장이 있다. 뒷담화를 나누면 쉽게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사회적 그루밍(Grooming)⁸³⁾으로 설명하기도 한

83) 그루밍(Grooming)은 동물이 자신의 털 손질을 하는 모습을 본 때 ‘차림새’나 ‘몸단장’을 뜻한다. ‘사

다. 침팬지들이 서로 털 손질 등을 해주는 그루밍 행동을 통해 적이 아닌 친구임을 확인하는 것처럼 사람의 뒷담화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동물에 비해 인간이 더 많은 숫자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실제 그루밍 보다 훨씬 효율적인 뒷담화란 사회적 그루밍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렇듯 뒷담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이야기한다. 뒷담화는 누군가에 대해 몰래 악의적으로 험담하는 능력이지만, 많은 인원이 모여 협동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뒷담화는 많은 공감대를 끌어내릴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과 빨리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오늘날에도 그렇듯이 우리는 남에게 관심이 많고 의사소통에 대다수가 남의 이야기다. 호모사피엔스는 뒷담화로 인해 더욱 긴밀하고 복잡한 협력 관계를 빨리 발달시킬 수 있었다.

2. 허구의 믿음

긴밀한 관계를 이어주는 뒷담화 덕분에 호모사피엔스는 크고 안정된 무리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뒷담화도 한계가 있다. 과학적 연구 결과, 뒷담화로 결속할 수 있는 집단의 자연적 규모는 약 150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뒷담화도 아닌 무엇이 백억만 명을 한 지구에 공존할 수 있게 했을까?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이 공통의 신화를 믿으면 협력이 가능해진다. 우리는 신, 국가, 돈, 인권, 법, 종교, 정의를 믿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물체 외에 모든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것이 된다. 우리가 당연하게 있다고 믿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집단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하라리는 이것을 ‘허구’라고 정리했다.

우리가 허구를 믿는 상상력이 있지 않은 채 실제 존재하는 사물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었다고 친다면, 우리는 국가에서 꿈을 꿀 수조차 꿀 수 없으며 지금의 세상에 살 수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 언어의 진정한 특이성은 실제로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사피엔스뿐이다.”

<사피엔스 中>

위와 같은 예를 ‘가상의 실재’라 칭한다. 이 가상의 실재가 가장 처음으로 발휘한 것이 바로 신의 등장이다. 인간은 상상력과 더불어 종교성이 있는 존재였다. 사피엔스는 환경에 적응하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였기에 더 강하면서 거대하고, 의지할 존재를 필요로 했다. 그래서

회적 그루밍’은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는 행위이다.

‘신’이라는 ‘가상의 실재’를 창조해내었고 이를 여러 인간이 마침내 ‘믿음’으로 강력하게 발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상력’과 ‘종교성’, ‘신’과 ‘믿음’에 대한 ‘가상의 실재’는 쪽 맥락을 같이 하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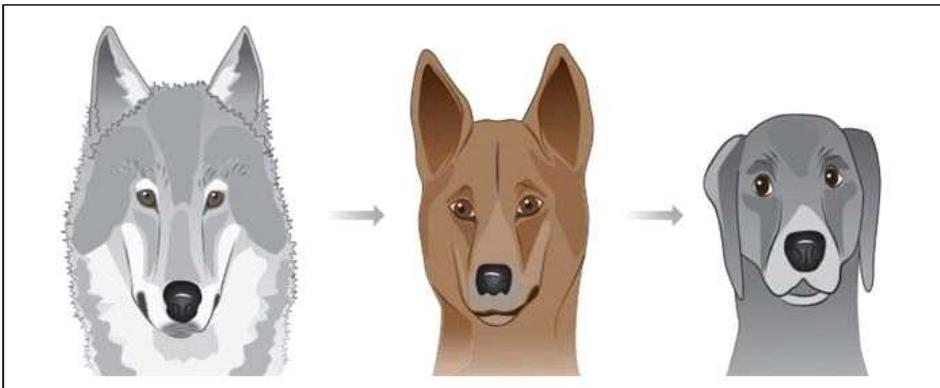
우리의 조상들이 유령과 정령을 믿음으로써 지금의 사회적 질서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가상의 인물을 믿기 시작한 뒤 현대의 사회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작동하고 있다고 해도 될 정도이다.

내 세포는 친화력

들어가며

당신 곁에 가족 이외에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뭐라 대답할 것인가? 친화력은 단순히 타인과 유대감을 쌓기 위한 것이라는 전제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존속할 수 있도록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라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 협력과 협동이 가능하게끔 움직이게 만든 방법이 무엇이었을지 자기 가축화를 통해 접근해 보려 한다.

1. 가축화의 시작



가축화가 이루어진 개

동물을 사람의 보호 아래 육종하여 가축으로 만드는 과정을 가축화라 한다. 가축화된 동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개, 소, 말, 닭, 돼지, 양, 염소 등이 있다. 가축화는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동물을 선택적으로 교배시켜 신체적 특성, 행동적 특성을 필요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젖, 달걀, 가죽, 농업, 짐, 이동수단, 전투 병기 등 식량과 노동력 등의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기원은 약 1만 년 정도전의 소위 신석기⁸⁴⁾ 혁명 때부터 사육했으며, 그 과정에 관해서는 수렵

84) 신석기 혁명: 자연을 이용하여 스스로 먹을 것을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인류는 농경과 목축이

민⁸⁵⁾이 동물무리의 이동 때마다 쫓아다녀 동물을 가축화하였다고 하는 설과 농경민이 재배식물을 먹으러 온 동물과 접촉하기도 하고, 어린 짐승을 사육하며 동물을 순화시켰다고 하는 설이 있다고 한다.⁸⁶⁾ 보편적으로 가축화는 오로지 인간을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1) 가축화가 이뤄진 은여우

러시아 이전 소련의 유전학자 ‘드미트리 벨랴예프’는 은여우를 상대로 가축화를 적용했다. 이와 같은 실험방법으로는 자연선택⁸⁷⁾을 모방한 품종개량이었는데 인간을 잘 따르는 개체들을 골라 선택적으로 교배를 반복하는 방법이다.

여우에게 먹이를 주려 접촉을 시도할 때 여우들의 반응은 각기 다른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도망치거나 공격성을 보이고 두 번째로는 접촉이 있어도 별다른 반응이 없다는 것 세 번째로는 호의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 드미트리 벨랴예프는 이 세 번째 개체(은여우)만을 집중적으로 교배시키게 된다. 이러한 실험이 6세대로 지날 무렵 앞서 말한 세 개체만이 아닌 새로운 특징을 가진 개체가 나왔다. 선택적 교배를 통해 생겨난 네 번째 개체는 사람과의 접촉에 서슴없을뿐더러 되려 관심을 끌기 위해 아양을 떨고 사람의 냄새를 맡거나 핥는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행동은 가축화되었던 개와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었다.

이 외에도 예측하지 못한 부가적인 요소들이 뒤따라오게 되었는데 습성뿐만이 아닌 외견마저도 개를 닮아갔다는 것이다. 변화를 거친 은여우는 은빛 털을 잃고 흑백인 얼룩 반점과. 가장 큰 특징인 뾰족한 귀도 개처럼 쳐지게 되었다. 또한 여우의 소리는 고양이와 비슷하지만, 가축화가 진행된 여우의 소리는 개와 비슷하다고 한다. 이후 10세대가 지나 네 번째 개체(여우)는 18%로 증가하게 되었고 20세대 때는 35%, 30~35대 때는 전체 실험 개체의 70~80%로 35대 여우들에게서는 어떠한 훈련도 받지 않은 채, 사람에게 친화적인 개체가 생겨났다. 이로써 여우는 선택적 교배로 개처럼 가축화된 여우로 자리 잡게 되었다.⁸⁸⁾

늑대와 조상이 같은 여우도 개처럼 길들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품은 채 시작된 은여우의 가축화 실험은 은여우의 성향을 인간에게 우호적일 수 있도록 만들었을뿐더러 가축화(친화력)가 외형까지 변화시키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자기 가축화

라는 생산 경제에 들어선다.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를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른다.

85) 수렵민: 사냥을 하며 생활을 이어 나가는 습성을 가진 민족

86) 생명과학대사전>, (초판 2008, 개정판 2014, 강영희)

87) 자연선택: 동종의 생물 개체 사이에 일어나는 생존경쟁에서 환경에 적응한 것이 생존하여 자손을 남기게 되는 일

88) [리 앨런 듀가킨, 류드밀라 트루트] 『은여우 길들이기』 78~79p

가축화는 앞서 말했듯 특정 종이 인간에 의해 가축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축화가 스스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 이것을 자기 가축화⁸⁹⁾라 한다. 자기 가축화의 특징으로는 공격성이 줄어들고 인내심이 증가하는 등, 인간에 의해 가축화된 동물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보노보와 사람에게는 스스로 나타났다.

1) 스스로 가축화된 보노보

오늘날 인류와 가장 닮은 종을 고르자면 아마 침팬지일 것이다. 그중 가장 흡사한 모습을 가진 종이 보노보인데 이러한 보노보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침팬지의 종에 비해 공격성이 낮다는 점이다. 이것을 곧 자기 가축화로 설명할 수 있다.

보노보 사회는 암컷의 권력이 우세하다. 그렇기에 암컷이 덜 공격적인 수컷을 선호하면서 공격성이 낮은 수컷과 암컷이 교미하게 된다. 또 외양이 어려 보이는 수컷의 공격적 행동은 암컷이 좀 더 용인하는 경향이 있기에 암컷이 대대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수컷과 골라 번식했다는 게 핵심이다. 따로 인간이 길들이지도 않았는데 공격성이 적은 새끼들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패턴 속에 보노보가 가축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⁹⁰⁾

3. 인류의 자기 가축화 가설?

앞서 말했듯 가축화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인류의 가축화는 누가 시킨 것일까? 그건 바로 인간 스스로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의 진화과정에서도 자기 가축화된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행동 변화와 신체 변화가 인간에게도 생겼다는 가설이 존재했다. 진화인류학자 브라이언 헤어 교수는 인간의 사회화 과정과 호모사피엔스 화석을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가 보인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호모사피엔스(인간)의 경우 친사회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 가축화 현상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주장은 “언어를 통한 협력적 의사소통⁹¹⁾”을 말하는데 협력적 의사소통은 인간을 제외한 다른 종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매개체(협력적 의사소통)를 통해 인간의 공격성이 줄어들었으며, 사회성이 높은 이빨끼리의 번식을 하게 되면서 다윈의 “자연선택”이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1) 인간 자기 가축화의 징후

인간의 아기는 첫 단어를 말하거나 자기 이름을 배우기 전에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

89) 자기가축화: 사회화 과정에서 공격성 같은 동물적 본성이 억제되고 친화력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과정 [리처드 랭엄, 데일 피터슨의] <악마 같은 남성> 中

90) 이웃집 과학자: “인간 가축화’설, 증거는?”

91) 협력적 의사소통: 공동의 숙고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의견을 공유 및 검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 의사결정이다.

한다. 친화력이 상승한 인간은 사회연결망을 확장했고 기술 혁신을 이루어냈으며, 개선된 기술로 더 많은 양식을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인구밀도가 높아진 집단은 또다시 기술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 우리 종은 '집단 내 타인'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범주도 만들어냈다.

(1) 집단 내 타인?



오늘날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 없어도 같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 같은 동호회 사람이면 우리 집단이라고 인식한다. 우리는 공통의 사회규범을 공유하는 타인도 같은 집단의 사람으로 여기며, 적극적으로 서로를 돕는다. '집단 내 타인'을 향한 친화력은 집단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타인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결속시킨다. 이렇게 우리 종은 집단 구성원의 정의를 확장한다.

2) 호르몬에 의한 손가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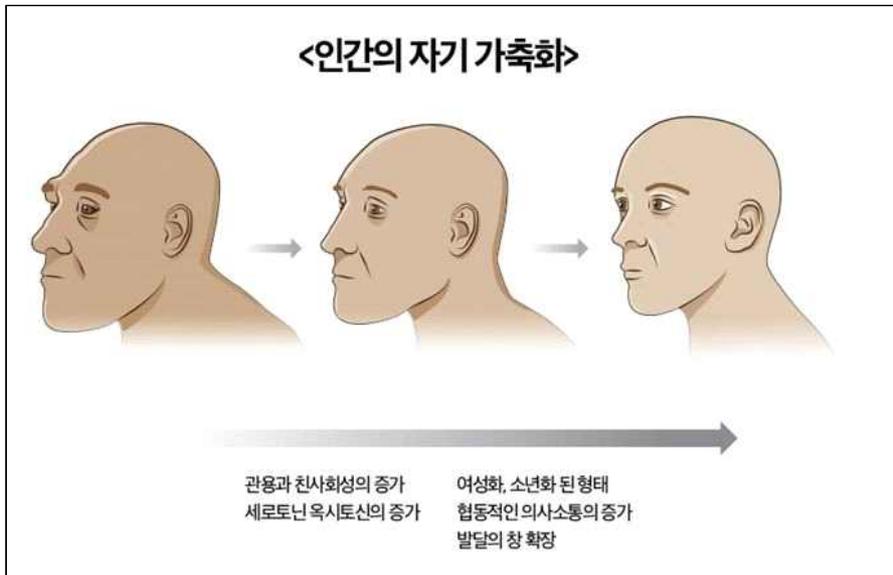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외적인 변화로는 과거 인류의 화석을 보면 이러한 증거들이 보이게 된다. 대략적 특징을 보면 현생 인류들은 구석기 시대의 인류에 비해 인내심은 많아졌고 공격성은 감소했다. 신체적으로는 남성호르몬 안드로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줄어들게 되면서 얼굴이 소년화 되었다. 또 이러한 변화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남성호르몬 수치가 줄어들게 되면서 우리의 손가락 중 검지와 약지의 손가락 길이가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자궁 속 태아였을 때, 고환에서 남성호르몬이 많이 생성될수록 약지가 검지에 비해 긴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과거 구석기인들과 비교하면 현생 인류는 약지가 검지보다 덜 기므로 우리의 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3) 가속화로 인한 외적인 변화



다른 변화로는 두개골이 둥글게 발달하면서 사회적 인지 능력과 사회성이 늘어났다. 또 한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인간도 보노보와 같은 자기 가축화를 통해 변화했다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4) 눈동자의 탈색

가축화 징후로 눈동자 결막⁹²⁾에 탈색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하얀 공막을 가지게 되어 눈동자의 움직임을 감출 수 없게 되었다. 눈동자 탈색의 특징으로는 눈에 의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는 것인데 눈을 맞추면서 자신을 이해해주기를 바라며, 포로로 잡혔을 때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

현대 인간은 두개골 용적의 감소, 여성화(어려 보이는)된 얼굴, 구형⁹³⁾의 두개골 발달, 눈동자의 탈색을 보인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높은 수준의 집단 내 음식 공유, 협동, 사회적 유대를 가지고 살아간다.

4. 무엇이 인간을 스스로 가축화하게 만들었나?

인간은 자신과 닮은 부류인 사람들에게겐 관대하고 우호적이지만, 자신과 닮지 않거나, 다르다면 곧바로 배척하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가축화가 일어났다. 자신이 속한 집단끼리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높은 수준의 인내력과 이해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기에 집단 내 사람들을 향한 공격성을 줄이면서 친사회성과 인내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가 이뤄졌고, 그 과정이 가축화로 이어졌다.

이 같은 습성은 아기들을 대상으로 찾을 수 있는데 2013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서 생후 9개월 아기를 대상으로 실험하게 된다. 실험 내용은 두 개의 인형을 두고 한 인형이 다른 인형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아기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른 인형에게 가져다주는 인형을 보고 더 선호했다. 또 자신이 싫어하는 음식을 다른 인형에게 가져다준 인형이 혼나는 걸 보고 아주 좋아했다고 한다.⁹⁴⁾

위 실험을 통해 여성의 선택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 한다. 여성들은 자신들에게 공격적이지 않은 남성을 선호한다. 이러한 점이 작용하여 덜 공격적인 남성들과 주로 자손들을 남기면서 인간 스스로 '자기 가축화'가 진행됐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보면 언

92) 결막:눈꺼풀의 안쪽과 안구의 흰 부분을 덮고 있는 얇고 투명한 점막.

93) 구형:구식 모양.

94) 버네사 우즈, 브라이언 헤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디플롯 2021

뜻 보노보와 흡사하다는 걸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증으로 보았을 때, 우리도 보노보와 같이 서로 살아남기 위해 자기 가축화를 했었고 내적 마음과 외적인 모습의 변화가 생겨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다.

1) 특별한 인간의 친화력

동물들과 달리 인간의 친화력은 특별하다. 다른 동물들의 협력은 대개 한 서식지에서 같은 무리를 이루며 사는 친족에게 한정된다. 같은 종이라도 친족이 아니면 잘 돕지 않는다. 반면, 앞서 말했듯 인간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협력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인간은 왜 그럴 수 있느냐면 무언가 공통의 정체성을 발견하면 된다. 인간은 응원하는 스포츠팀, 음식 취향, 좋아하는 연예인 등 취향이 겹치는 사람끼리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 역사와 신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거대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며 협력하기도 한다. 반대로 같은 정체성이 지각되지 않는 사람과는 쉽게 적이 될 수 있다.

5. 인간의 폭력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가축화로 인해 폭력성이 감소하는 동물들과 달리 인간의 친화력 이면에는 공격성과 혐오가 자리한다.

1) 마음이론의 작용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관용적인 동시에 가장 무자비한 종이다.” 자신의 집단을 향한 친화력 상승은 타 집단에 대한 편견을 공고히 하고, 타 집단 구성원을 배제하기도 한다. 마치 개가 자기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면 짖는 현상과도 같다. 자신의 집단, 가족에 위협이 되는 타 집단이 등장하면 우리 뇌에서는 ‘마음이론⁹⁵⁾’을 담당하는 부위의 활동이 둔화한다. 마음이론 저하로 인해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약해지면 공감 능력은 사라지고 쉽게 상대방을 비인간화할 수 있다.

마음이론의 활동이 둔해진다면 친화력이 있던 자리에 공격성과 혐오만 남는 것이다.⁹⁶⁾

2) 애착 호르몬의 영향?

95) 마음이론: 자신과 타인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으로서, 지각·의도·동기·사고·정서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추론 및 공감을 포함하며, 이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96) [주태산] 이코노믹리뷰 남과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앞서 말했듯 친화력은 공격성과 다정함이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에 있다. 개는 사람과 협력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친화력을 갖고 있지만, 자신과 친한 사람을 위협하는 외부자에게는 강한 공격성을 드러낸다. 이는 친화력과 공격성이 우리 몸의 ‘애착 호르몬’, 즉 “옥시토신⁹⁷⁾”이라는 신경전달물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포유류는 옥시토신 분비가 증가할 때 자기 식구에게 더 자상하게 행동하고 남에게 더 공격적으로 행동한다.

인간도 체내 옥시토신양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다른 포유류와 다르지 않다. 한 실험에서, 옥시토신 스프레이를 코로 흡입한 사람들은 내집단 구성원에게 더 관대해지고 외부자에게 더 공격적으로 행동했다.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단지 합리적 판단의 산물이 아니며, 의식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유전학, 신경학과 같은 생물학적 과정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3) 종교와의 상호작용?

오랫동안 종교는 인간의 친화력에 큰 빛을 지고 있다.

지난 1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개신교, 불교, 가톨릭,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이른바 ‘7대 종단’에 속하는 10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대통령이 종교계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호소하는 것은 국민 통합을 위한 종교의 역할이다. 종교는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협력하게 하는 힘이 있지만, 오히려 분열과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종교는 인간이 지닌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의 특징과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다.

6. ‘친화력’ 앞으로 어떻게 다뤄야 할까?

인간의 탁월한 친화력 이면에는 무자비한 공격성이 상존한다. 외부자가 느끼는 공포와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잔인함이 동반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잔인한 공격성은 외부자를 비인간화할 때 극대화되고 쉽게 퍼져나간다. 우리 사회의 집단 간 갈등에서 늘 겪는 일이다. 이는 도덕 교육과 계몽⁹⁸⁾만으로는 잘 통제되지 않는다. 연구자들이 발견한 가장 유력한 해법은 ‘접촉’이다. 외부자로 지각된 사람과 만나는 기회를 늘리면 잔인한 공격성이 표출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인간은 친구가 있는 집단을 비인간화하지 못한다. 선거철에는 인간 친화력의 양면성을 이용해 갈등을 조장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된다. 종교도 결부되어있는 문제다. 종교가 잔인해지면 끝이 없다.

97) 옥시토신: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8) 계몽: 지식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침.

인류는 친화력의 장점을 살려 더 나은 삶을 개척해왔다. 접촉과 만남으로 이루어낸 일이다.

결론

인류는 선사시대 때부터 끊임없는 진보를 이뤄왔지만, 혼자서 이를 수 있던 것은 극히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친화력을 통해 만들어진 집단의 협력과 협동이 오늘날까지 합동 사회를 유지해내면서 우린 민주주의라는 선택을 내렸다. 비록 현재의 협력을 다시 생각해본다면 개인의 재력과 권력이 국가라는 집단에 버금가는 진보를 이뤄내고 있긴 하다. 아쉽게도 사람 간에 협력보다 돈에 의한 협력이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결코 사람 간에 협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친화력은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함께 살아간다. 그러니 그 협력의 형태가 끝내 좋지 않더라도 친화력을 이용해 다시 함께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를 두고 친화력을 활용하길 바란다.

들어가며

친화력은 협력을 만들었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인류는 협력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협력은 인류를 생존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능력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류에게는 이 좋은 능력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협력은 다수가 뭉쳐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반대로, 소수를 쉽게 차별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호모 사피엔스는 자신이 지구에서 유일한 인류가 되자 자기들끼리 죽이기 시작했다. 혐오로 시작하여 우생학까지.

우리는 혐오하고 혐오하고 혐오했다.

들어가며

앞에서 본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에서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스스로 가축화를 하였고, 그로 인해 내집단(자신이 속한 집단)과 외집단(자신이 속하지 않는 집단)을 나누게 되었다. 내집단은 상당히 친절하고, 관용적이며 서로서로 도움을 주지만, 외집단에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배척, 증오, 혐오한다. 나는 본 인문학 캠프에서 혐오가 인간 진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문화는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더불어 혐오에 대한 대응체계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1. 정의

혐오는 싫어할 혐(嫌)의 미워할 오(惡)로 무엇을 배척, 증오하는 감정이다. 혐오란 인간에게 있어 기초적이면서 본능적인 감정으로 꼽히며 이 부분에서 무엇이든 사람이 될 수 있고, 감염병 혹은 오염물(배설물, 심한 악취, 썩은 음식과 사체 등)이 될 수 있다. 혐오의 기준은 어떠한 요소들이 나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준다면 비로소 혐오의 대상이 된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법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인간의 혐오에는 두 가지 혐오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원초적 혐오’와 다른 하나는 ‘투사적 혐오’다. 원초적 혐오는 감염병, 오염물을 봤을 때 혹은 몸으로 느꼈을 때 발생하는 혐오로, 우리가 흔히 배설물이나 쥐 같은 요소를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이 원초적 혐오다(인류의 생존의 있어 중요한 혐오감정이다). 반면 투사적 혐오는 원초적 혐오를 혹은 원초적 혐오의 감정을 타인에게서 느끼거나 투사함으로써 배척, 증오하는 감정이다. 그래서 과거 코로나 19에 대한 대책과 백신이 없던 시절 외국인 입국자, 중국인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투사적 혐오다.⁹⁹⁾ 이에 나는 “혐오는 사회적 문제다”라는 말이 투사적 혐오 때문에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혐오표현이란 인간의 혐오를 폭력과 허위 주장,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대상은 주로 소수자에게 향한다. 그렇다면 우리 왜 소수자를 혐오하는 것일까? 우리 왜 타인을 증오하고 배척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정 누군가로 인해 나 혹은 내 주변 사람이 피해를 볼 것 같은 두려움, 죽음에 이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 타인을 혐오한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인간은 타인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혐오표현 외의 방법으로 증오와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 바로 ‘비인간화’다.

99) 천관울 <혐오, 선을 넘다> 『시사IN』 2020년 02월 24일 재인용

1) 비인간화

비인간화란 타인을 자신과 같은 인간으로 인식, 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같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 즉 유인원으로 인식하고 유인원으로 대한다). 주로 타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뻔뻔하게 행동할 시 작동하는 기능인데, 그 외에도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 기능이 작동하는 것 같다. 아래 2개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1) 비인간화 사례 1 : 1906년 뉴욕 브롱크스 동물원 사건¹⁰⁰⁾

바야흐로 1906년 피그미족¹⁰¹⁾ 부원인 오타 벵가가 침팬지 우리 안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다. 피부가 자신(동물원 관람객, 주로 백인)과 다르다는 이유로, 침팬지와 같은 언어를 사용할 것 같다는 이유로 당시 침팬지와 같은 동물 취급을 받았다. 오타 벵가는 천 하나만으로 침팬지와 함께 생활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입었던 천을 세탁하는 날에는 알몸으로 나와 생활했다. 오타 벵가를 관람하던 관람객들은 벵가가 침팬지와 노는 모습을 보고 싶었으며 자신들과 같은 인간이 아닌, 동물의 취급을 받았다.

(2) 비인간화 사례 2 : 2007년 브라자빌 동물원 사건¹⁰²⁾

2007년 콩고 정부가 바카 피그미족¹⁰³⁾을 자신들의 음악축제에 초청했던 일이 있었다. 초청 받은 피그미족 부원들은 다른 참가자들과 같은 숙소에서 생활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콩고 정부는 이들을 브라자빌 동물원 원숭이 우리 안에 천막 하나 쳐주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게 했다. 당시 콩고 정부에 입장은 “피그미족이 원래 생활하던 환경과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을 편해할 줄 알았다.”였다. 이것은 변명일 뿐이고, 엄연히 이번 사건 또한 피그미족을 자신들과 신체적 혹은 문화적으로 다르다고 인식했으며, 같은 인간이 아닌 동물로 취급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두 사건 모두 비인간화에 사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비인간화의 문제는 인간을 같은 인간으로 인식하지도, 대하지도 않거나 혹은 인간의 기본적인 면서 필수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것도 있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보복이 된다는 것이다. 즉 자신들이 겪은 비인간화의 고통을 자신들보다 열등한 다른 누군가한테 똑같이 보복한다는 것이다. 이를 보복성 비인간화고 한다.¹⁰⁴⁾

우리는 특정 누군가한테 비인간화를 하는 순간 그들도 다른 누군가한테 똑같이 하며, 비인간화의 악순환 고리가 작동된다. 그 외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노예제나 전쟁 학살 등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순환 고리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전쟁과 학살을 정당화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바로 특정 누구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이다. 즉 인간 이하로 인식하는 시선, 증

100) 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우즈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디플롯, 2021) 200~201 인용

101) 피그미족: 아프리카에서 거주하는 소수민족

102) 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우즈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디플롯, 2021) 199~200p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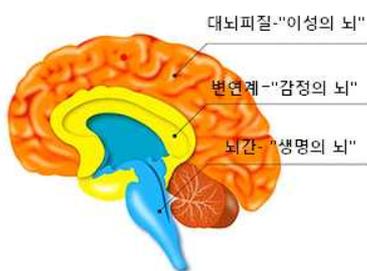
103) 바카 피그미족: 아프리카에서 거주하는 소수민족 중 한 민족

104) 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우즈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디플롯, 2021) 225~226p 재인용

오의 시선이 아닌 동정과 연민, 사랑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다.¹⁰⁵⁾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인간화에서 재인간화로 바뀌게 된다. 과거 우린 누군가를 계속 비인간화하였고, 이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인식(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과 편견이 남아있다. 또한 타인(소수자)을 계속 그런 식(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대우, 인식하는 쪽으로 인간은 진화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비인간화가 아닌 재인간화의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 같은 사례와 같은 인식, 편견이 앞으로의 사회에 남아있질 않길 위해.

나는 위 사례와 정보를 조사하면서 그리고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와 <우리는 차별하기 위해 태어났다>을 읽으면서 혐오와 인간의 뇌는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인간의 혐오는 뇌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리고 어떤 변화를 낳았을까? 다음에 소개할 뇌 Part에서 위 궁금증을 다뤄볼 것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지도 알아볼 것이다.

2. 혐오, 인간의 뇌 반응



인간의 뇌는 옆에 사진에서 보듯이 대뇌피질과 변연계, 뇌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대뇌피질은 일명 영장류의 뇌로 불리며 인간의 언어와 논리, 사고방식 등 인간이 생활 하면서 중요한 요소들을 관장하고 있는 뇌 부위다. 다음으로 변연계다. 변연계는 일명 포유류의 뇌로 감정을 관장하고 있는 뇌 부위다. 인간이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낀 감정에 대해 반응하고 인식하는 것을 맡고 있으므로

인간에게 꼭 필요한 뇌 부위다. 마지막으로 뇌간은 일명 파충류의 뇌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필수적인 뇌 부위다. 체온과 호흡, 혈압 등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요소들을 관장하고 있다.¹⁰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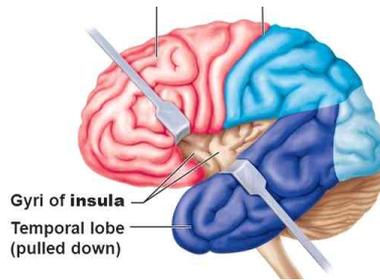
이번 본 인문학에서는 변연계를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이다. 변연계는 감정을 관장하고 있어, 혐오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연계와 동시와 인슐라(insula)라는 회로도 같이 다뤄 이번 Part를 마무리 지을 것이다.

1) 인슐라(insula)¹⁰⁷⁾

105) 김종갑 『혐오, 감정의 정치학』 (은행나무, 2017) 13p 인용

106) 안영진, <희노애라의 중심에 '뇌 변연계' 있다> 『한겨레』 2003년 03월 04일 재인용

107) 『인슐라, 우리 감정과 공감의 원천』 <https://wonderfulmind.co.kr/insula-source-motions-e-empathy/> 재인용



인간의 뇌 안에는 인슐라(insula)라고 인간의 뇌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정보와 지식을 뇌에 전달하는 전달 회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인슐라(insula)의 도움으로 오감에서 느낀 경험과 정보를 변연계에 전달함으로써 관련 감정과 상황에 맞는 감정을 표현하며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 아래의 한 실험 사례는 인슐라(insula)와 감정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1) MRI 실험 1

과거 감정표현 불능증¹⁰⁸⁾을 앓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뇌 MRI를 찍으면서 진행한 실험이 있었다. 이 실험의 결론은 “insula와 인간의 감정은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다”였다. 더불어 감정표현 불능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insula가 상당 기간 성장, 발달이 느린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위 실험에서 알려주었듯 인간이 감정을 느끼고, 반응할 때 인슐라(insula)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 혐오가 인슐라(insula)를 통해 각 뇌 부위로 전달하게 될 시 우리 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혐오가 인슐라(insula)를 통해 전달될 때 변화가 일어나는 부위는 시상하부, 편도체, 뇌섬, 조가비핵, 이렇게 4개의 부위다. 그렇게 활성화된 4개의 부위 모두 배척, 공포, 고통, 증오 등을 관장하고 있다(참고로 위에서 설명한 4개의 부위가 활성화될 시 이성과 판단을 관장하는 뇌 부위는 저하된다).

아래의 실험은 혐오표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인간의 뇌를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지 알려주는 좋은 실험사례다.

(2) 더글라스 브레머의 관찰실험 2¹⁰⁹⁾

더글라스 브레머는 외국의 병리학자로 약 10년에 시간 동안 전쟁에 참전하신 군인분들의 뇌를 관찰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브레머는 자신의 실험으로 두려움과 공포가 인간의 뇌의 크기를 바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전 군인분들의 PTSD, 일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질병이 인간 뇌의 크기를 바꾸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쟁이라는 외상 후 공포와 두려움의 스트레스가 뇌에 영향을 주며 뇌를 더 작게 만들었다(그리고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의 스트레스는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108) 타인의 감정에 쉽게 공감을 하지 못하며 이해와 말로 그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증상
 109) “뇌와 심리3_감정의 비밀1(공포 혐오 두려움) 뇌 이야기 줄거리 요약 다큐 리뷰” 9분 30초~12분 3초, 개꿀리뷰 Dr. Gaegool, 2021 재인용

위 실험을 기반으로 생각하면 배척, 증오를 당한 자와, 혐오 표현을 당한 자 모두 폭력과 언어, 배척과 증오라는 스트레스가 자신들의 뇌에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뇌가 더 작아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자신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어 일상생활을 일반인보다 제한적일 것이다.

2)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인간이 혐오하는 것을 놓고 뇌에만 너무 집중하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르몬 또한 인간의 혐오가 작동하는 것을 돕는다. 그 호르몬은 바로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다. 이 두 호르몬 때문에 우리 인간은 혐오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것이다.

(1) 세로토닌¹¹⁰⁾

세로토닌은 일명 행복의 호르몬으로, 이 호르몬이 상승하면 행복해지지만, 반대로 저하되면 불안을 겪게 된다. 세로토닌이 저하되면 불안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감정 제어 불능과 사회생활 저하가 있다. 세로토닌 외에도 세로토닌 트랜스포터라는 호르몬이 있다. 우리 몸이 쓰지 않는 세로토닌은 재활용함으로써 세로토닌 분비량을 증가시켜 인간을 관용적이며, 친절하게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세로토닌 트랜스포터의 양이 적으면¹¹¹⁾ 자신이 겪고 있는 혹은 앞으로의 일을 고민하고 신중해지는 경향이 있다.

(2) 옥시토신¹¹²⁾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으로 인간은 이 호르몬이 상승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집단과 공동체를 형성하고 내집단을 사랑하는 것이다. 집단 형성은 사피엔스가 생존할 수 있었던 생존 방법으로, 좋은 호르몬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호르몬이 심하게 상승한다면? 그때는 우리의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다. 타인과 외부집단을 혐오, 혐오표현을 하며,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도 집단 전체에 피해를 주는 사람과 그런 행동을 일삼는 사람(프리라이더¹¹³⁾등)을 혐오하게 된다.

아래의 실험은 옥시토신의 장, 단점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① 눈동자 실험 ²114)

1968년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눈동자의 색을 가지고 집단을 나눠 실험을 한 일이 있었다. 이 실험 주제자이자, 학급 반 담임이었던 재인 엘리엇는 나눠진 집단한테 정해진 시간마다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고 이 실험의 목적은 눈 색깔 혹은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험의 결과는 원래의 목적과 상당히 대조된 결과로 나왔다.¹¹⁵⁾ 이 실험의 핵심은 아

110) 나카노 노부코 『우리는 차별하기 위해 태어났다』 동양북스, 2018년 51~58p 재인용

111) 세로토닌 트랜스포터의 양은 유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112) 나카노 노부코 『우리는 차별하기 위해 태어났다』 동양북스, 2018년 35~51p 재인용

113) 무임승차 혹은 집단의 리소스(자원)를 공짜로 탐내거나, 받아가는 사람을 뜻함

114) 나카노 노부코 『우리는 차별하기 위해 태어났다』 동양북스, 2018년 47~49p

115) 이 실험의 결과는 실험을 시작하고 15분 만에 자신과 다른 집단에 아이들과 다투었다. 분명히 15

주 단시간 만에 옥시토신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이다. 즉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친구였던 아이들이 한순간 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은 변연계와 인솔라, 그리고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때문에 결국에는 혐오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뇌가 그렇게 반응하는데, 인간은 어떻게 뇌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아까는 혐오에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았다면, 이제부터 과거의 인간 역사에는 어떤 혐오가 있었고, 현재에는 어떤 혐오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혐오로 어떤 일이 있었고, 인간 진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3. 바이러스와 인간

우리 인간이 왜 감염병을 혐오하는가? 그 이유는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인간의 역사는 곧 감염병의 역사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과거부터 감염병은 지구상에 늘 존재했고,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 인류는 큰 피해를 입었다. 분명히 인간 진화에도 영향을 미쳤고, 문화에도 영향이 미쳤을 것이다. 이번 Part에선 진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문화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자.

과거 의학기술이 없었던 시절, 농업혁명¹¹⁶⁾을 할 때 우리 인간은 감염병과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로 인해 우리 인류는 많은 희생을 치렀다. 농사가 시작되면서, 식량 창고에는 설치류들이 꼬였고, 가축 근처에는 배설물로 인한 병과 인간이 즐겨 입던 가죽에서 서식하는 균들, 각종 벌레가 꼬이면서 우리는 많이 피해를 봤다. 그리고 인류가 불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추위를 날리기 위해 한 곳에 모이는데, 이 때문에 감염병은 쉽게 다른 사람에게로 전파될 수 있었고,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농업혁명 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지만, 이 궁금 사항은 <감염병 인류>에서 설명해준다. 이 책에선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 구석기 시대에 생존하던 인류 대부분은 감염병으로 죽은 일 혹은 걸릴 일은 흔치 않았다”라고 설명한다.¹¹⁷⁾

그렇다면 인간은 과거 어떻게 감염병 사태를 극복하고 현재 70억 명의 인구까지 늘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일단 이 설명의 앞서 인간의 몸에 대해 잠깐 설명하겠다.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장에는 99%의 미생물이 일정 영역을 서식하고 있고, 소화액을 생성함으로써 우리는 음식을 먹고, 먹은 걸 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우리 몸 밖에 있는 감염병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¹¹⁸⁾

인간이 감염병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바로 ‘행동 면역계’ 때문이다. 행동 면역계는 진화학적 개념으로 우리 인간이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적응을 했다는 것이다. 그

분 전에는 같이 놀며 먹고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이 눈 색깔로 집단을 나누고 나니, 자신과 다른 색의 눈을 가진 아이들은 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116) 농업혁명: 인류사회가 채집이 아닌 생산의 시대로 변한 사건을 뜻함

117) 이혜인 <[책과 삶] 인류의 진화사는 1400종 감염병과의 1만 년 투쟁사> 『경향신문』 2021년 4월 16일 인용

118) 이혜인 <[책과 삶] 인류의 진화사는 1400종 감염병과의 1만 년 투쟁사> 『경향신문』 2021년 4월 16일 인용

전에는 인간이 자신의 몸 안에 감염병이 침투된 후에 그제서야 자신의 몸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으며, 만약 감염되었을 시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감염되면 에너지 소비가 빠르며,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는 쪽으로 적응을 했으며, 집단 내 혹은 외집단의 사람 중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혹은 감염병 확진 확률이 높은 사람을 배척, 거리 둠으로 감염병을 이겨낼 수 있었다.¹¹⁹⁾ 그래서 2020년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인류사회에 큰 피해를 줄 시절 우리가 바이러스의 감염되지 않았는데도, 기침하는 사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회피, 배척하는 이유가 행동 면역계가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면역계는 과거부터 차차 진화했으며, 그 결과가 바로 행동 면역계다. 그로 인해 우리 인간은 감염 확률이 높아지면서 행동영역에선 회피를 감정 영역에선 역겨움을 보이는데¹²⁰⁾, 특히 임신부는 그런 역겨움을 유발하는 행동, 음식에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경향을 잘 보여준 예가 바로 임신부의 입덧이다. 진화학자 마지 프로팻은 임신부의 입덧이 병원성 회피 전략¹²¹⁾의 진화적 산물이라고 본다.¹²²⁾

위 내용이 보여주듯 임신부건 그냥 평범한 인간이건 난 인류가 감염병에 취약한 존재로 점점 진화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때문에 현재 사회에선 감염병 팬데믹이 일어나는 순간 인간 집단에선 <혐오에 대한 인간 반응 3단계>가 작동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인 것 같다. 자신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혐오에 대한 인간 반응 3단계>
1단계: 처음 접하는 대책없는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
2단계: 감염병 전염 확률이 높은 집단 혹은 개인에 대한 혐오
3단계: 감염병이 어느 정도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작동하는 단계로 이러한 사태를 만든 사람을 찾아 혐오하는, 일명 희생양 찾기(희생양은 대부분 그 지역 사람,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로 집계된다)

인간의 <혐오에 대한 인간 반응 3단계>는 자신들의 집단이 피해 보는 사태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첫 단계로 집단 내에서 두려움이 발생하고 그다음에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혐오가 일어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태에 주범 혹은 특정 소수에 대한 혐오와 혐오표현이 일어난다. 이때문에 많은 세계 각국에선 특정 소수에 대한 폭력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외에도 자민족 중심주의가 집단 내에서 같이 발현되며 전 세계 사람을 ‘정상과 비정상’ 혹은 ‘좋다 나쁘다’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 자민족 중심주의란 자기 민족 혹은 자기 집단 기준으로 세상, 사회를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¹²³⁾

119) 박한선 『코로나 19와 질병X의 시대: 감염병은 왜 혐오를 불러일으키는가?』 (바다출판사, 2020) 74p 재인용

120) 역겨움은 상한 음식에서부터 시작하며, 우리 인간은 아기 때부터 성장하면서 점점 역겨움의 범위가 넓어진다.

121) 병원성 회피 전략: 감염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회피하는 전략을 뜻함

122) 박한선 『코로나 19와 질병X의 시대: 감염병은 왜 혐오를 불러일으키는가?』 (바다출판사, 2020) 76p 인용

123) “[그런데] 혐오는 인간의 본능: 감염병과 혐오의 관계” 2분 10초~3분 25초, YTN news, 2020 재인용

1) 코로나 19와 인간 혐오¹²⁴⁾

2020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우리 삶을 방해하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로 우리 삶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 중 하나가 바로 혐오가 우리 일상으로 침투되는 일이 벌어진 일이다. 이젠 혐오가 우리 일상이 된 셈이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 시작하여 그다음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유럽 쪽에선 중국인에 대한 혐오, 우한주민에 대한 혐오, 동양인에 대한 혐오가 크게 불어졌다. 단지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몸속에 지니고 있을 것 같다는 인식만으로 유럽에선 많은 혐오표현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을 자민족 중심주의가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외국에서 거주하는 동양인은 하루하루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리며 생활을 이어갔다(사회적 낙인과 다음 나도 폭행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 등).

그렇지만 이러한 자민족 중심주의는 외국에서만 발현된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코로나 19 초기에 자민족 중심주의가 발현되었다. 2020년 1월 30일 코로나 19에 대한 반대 시위가 충남 아산시에서 진행되었다. 한국 정부가 전에 국내에 있는 중국 입국자들을 충청남도 아산시에 한 수용소에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산 수용소 근처 마을 주민들은 트럭을 내몰고 입국자 수용에 대한 반대 시위가 열렸다.¹²⁵⁾ 이후 중국인에 대한 혐오와 광화문 집회, 신천지 등 코로나 19사태를 악화시키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했고 이에 대한 비난이 난무했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일어난 혐오와 혐오표현은 모두 중국인을 포함한 관련 입국자 및 사태 악화 주범에게서만 일어났냐? 아니다. 우리는 평범한 시민한테도 많은 혐오표현을 했다. 그 원인은 바로 코로나 19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마스크 미착용, 대규모 파티 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들을 위에서 다룬 <혐오에 대한 인간 반응 3단계>와 엮으면 1단계가 중국인 수용 반대 시위, 2단계가 입국자에 대한 혐오, 3단계가 사태 악화 주범에 대한 혐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위 많은 사례(사태를 악화하는 사례)들 때문에 국민의 인식 또한 2019년도와 상당히 대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혐오표현이 주로 사용된 대상은

단위: %, 유경험기준 상위 5개 항목

2019년		2021년	
특정지역 출신	74.6	특정 종교집단	83.3
페미니스트	69.4	특정 정치성향	79.9
여성	68.7	중국/중국동포	76.8
노인	67.8	페미니스트	74.0
성소수자	67.7	여성	73.8

※중앙일보-엠브레인퍼블릭 대국민 인식 조사는 5월 18~24일 온라인 패널 조사. 전국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료: 중앙일보-엠브레인퍼블릭인권이

The JoongAng

124) 천관울 <혐오, 선을 넘다> 『시사IN』 2020년 02월 24일 재인용

125) 천관울 <혐오, 선을 넘다> 『시사IN』 2020년 02월 24일 인용

(혐오표현 대상 통계표¹²⁶⁾)

위 통계표와 한국에서 발생한 여러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인간은 자신들이 위협해지면 그 두려움과 불만을 희생양 찾기로 표현하며, 혐오표현의 대상은 늘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순간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2) 감염병이 바꾼 인간사회 문화

우리 인류는 과거 행동 면역계로 적응하면서 감염병에 약한 존재가 되었다고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감염병은 우리 인간에게만 영향을 미쳤는가? 사실상 인간에게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인간 문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 문화는 바로 장례문화와 종교의 음식 금기, 식문화 등이 있다. 먼저 장례문화는 원래 사람이 죽으면 수장(시신을 물에 따르려 식을 치리는 장례 행위) 혹은 자연장(시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는 장례 행위)을 하는데, 죽은 시신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산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어느 순간 시신을 땅속에 묻어 식을 치리는 장례 행위(일반적인 장례 행위) 또는 불에 시신을 태우는 장례 행위(일명 화장)가 장례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그다음으로 음식 금기 문화다. 특정 종교에선 음식이 금기하고 있으며, 그중 식물성 음식보다 동물성 음식을 엄격하게 금기하고 있다(예. 불교). 그 이유는 죽은 동물 고기를 잘 못 먹으면 죽거나 식중독 등 산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 때문이다.¹²⁷⁾

식문화는 흔히 말해 음식에 쓰는 재료에 관한 문화라고 이 부분에서 칭하겠다. 벌레에는 많은 영양소가 있다고 들은 바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영양소가 들어간 재료는 우리 음식에 쓰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TV 프로그램에서 <정글의 법칙>에서 조보아가 사구 벌레를 먹은 바 있다. 그리고 중국의 와족¹²⁸⁾ 민족 또한 쥐(쥐는 장기를 빼서 구이로 먹으면 돼지고기하고 다를 것이 없다), 벌레를 먹는 습관이 있다. 근데 왜 우리는 벌레와 쥐를 먹지 않고 오히려 혐오하는 걸까? 그건 바로 역겨움 때문이다. 위에서 우리 인간은 역겨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과거에는 우리의 조상들이 벌레를 먹으며 생존했을 수 있지만, 오늘날 역겨움 때문에 우리 현대인은 벌레와 쥐를 먹지 못한다. 먹으려면 상당한 역겨움을 이겨내야 하는데 인류는 하지 못한다(포장마차에서 파는 번데기를 아직도 못 먹는 사람이 있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¹²⁹⁾

이렇게 우리는 감염병으로 인간 진화뿐 아니라 우리 사회 문화까지도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우린 감염병을 더 두려워하고 감염 확률이 높은 집단, 사람을 혐오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중국인은 감염병을 몸이 지니고 있다)이 우리 진화에 영향을 미쳐, 차차 감염병을 두려워하고, 감염 확률이 높은 집단, 사람을 배척, 혐오하게끔 진화했을 것이다.

4. 시대별 혐오

126) 정종훈, 백희연, 편광현, 박건 <혐오, 마음을 집단 감염시켰다> 『The Joongang』 2021년 07월 18일

127) [책과 삶] 인류의 진화사는 1400종 감염병과의 1만 년 투쟁사 - 경향신문 재인용

128) 와족: 중국 남부와 베트남, 미얀마 등의 동남아시아 북부 산간에서 생활(거주)하는 소수민족

129) 박한선 『코로나 19와 질병X의 시대: 감염병은 왜 혐오를 불러일으키는가?』 (바다출판사, 2020) 77~78p 재인용

인간사회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흐름을 끊이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온 문제, 바로 인간 혐오다. 과거 인류는 집단을 형성할 수 있었기에 지금의 현대인이 호모 사피엔스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인류를 생존하게 할 수 있었던 힘이 혐오를 일으킨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옥시토신의 상승으로 집단이 형성되고 뇌에선 배신자 색출 모듈¹³⁰⁾이 기능하며 행동으로 생크션이 작동된다. 그로 인해 인간은 맛봐 서는 안될 '쾌감'을 맛보게 되었다.

1) 쾌감, 일명 도파민¹³¹⁾

생크션¹³²⁾의 최대 단점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다. 인간은 생크션을 하기 전 그 대상이 과연 나한테 보복을 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하고 낮으면 생크션을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인간은 생크션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 자기 손해¹³³⁾가 만만치 않은데도 말이다. 그런데도 왜 사람은 생크션을 하게 될까? 그 이유는 인간의 쾌감에 있다. 인간의 쾌감, 일명 도파민은 이성을 압도하는 중독성을 지니고 있다. 이 쾌감은 자신이 집단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얻는 쾌감으로, 정의에 대한 쾌감을 뜻한다. 아래의 실험은 정의에 대한 쾌감 때문에 인간은 악마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1) 스탠퍼드 대학 감옥 실험 ³134)

미국의 명문대 스탠퍼드 대학의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한 실험을 진행했다. 이 실험을 하기 위해 대학교 지하를 교도소로 만든 다음, 신청서를 내 대학생 20명을 모집해 실험을 진행했다. 모집된 대학생은 2개의 집단으로 나뉘, 하나의 집단한테 교도관이라는 역할을 부여하고 다른 하나의 집단한테는 죄수라는 역할을 부여해 2주가 생활하라고 교수가 지시했다. 처음에는 단순 역할놀이 실험으로 진행되었지만, 다음날이 되자 죄수 역할은 맡은 집단은 진짜 죄수처럼 생활했고(교도관한테 복종하며 생활함), 교도관 역할을 맡은 집단은 진짜 교도관처럼 생활했다(죄수한테 체벌을 가하며 말을 권위적으로 생활함). 그리고 날이 갈수록 죄수한테 수치심을 심하게 주고 체벌과 폭력, 권위 심해지자 6일 만에 실험이 중단되었다.

위 실험이 알려주듯 인간의 뇌 부위들과 옥시토신, 세로토닌, 도파민 때문에, 특히 '정의'라는 쾌감때문에 우리 인간은 결국 혐오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뇌가 활성화되고, 집단이 만들어지며, 더 나아가 타인을 혐오하게 되는데, 과연 인간은 여기서 무슨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래의 사례는 인간이 혐오를 왜 하게 되는지 알려준다.

(2) 쾌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남성¹³⁵⁾

130) 배신자 색출 모듈: 집단 내 배신자, 악영향을 주는 자를 찾아내는 기능

131) 나카노 노부코 『우리는 차별하기 위해 태어났다』 동양북스, 2018년 59~65p 재인용

132) 생크션: 제제하는 행위

133) 자신이 해야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나중에 미루는 등

134) 나카노 노부코 『우리는 차별하기 위해 태어났다』 동양북스, 2018년 67~69p 인용

135) 나카노 노부코 『우리는 차별하기 위해 태어났다』 동양북스, 2018년 93~96p 재인용

<우리는 차별하기 위해 태어났다>에서 쾌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은 바로 인간이라고 한다. 그중 인간 중에서 여성이 아닌 남성이 쾌감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쾌감을 얻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오는 사회적 보수와 영웅이 된 것 같은 혹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망상이 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 전쟁을 치르러 갈 때도 남성 위주로 나갔다. 그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쟁에서 패한 부족의 여성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남성은 과거부터 여성보다 쾌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로 적응(진화)했을 것이다.

우리 인간은 타인을 혐오하는 쪽으로 진화를 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남성이 쾌감을 중요시 함으로써 타인을 혐오하고 집단을 위해 먼저 행동하게끔 진화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적 보수를 얻고, 쾌감을 맛보기 위해.

과거부터 인간은 쾌감을 맛보기 위해 타인을 혐오했으며 그것이 혐오표현으로 이어지고, 학살과 전쟁의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혐오 사건이 있었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일어났을까?

2) 인간 혐오 사례

(1) 원주민 학살사건

① 샌트크리크(Sand creek) 학살사건

이는 1864년 11월 29일 콜로라도 준주 남동부의 위치한 인디언 집단의 아라파호족과 샤이엔족의 남자들이 사냥을 나간 사이 미군기병대가 무리를 침탈하여 여성과 아이(280명)를 죽인 학살사건을 말한다. 1864년 학살사건이 있던 시기에 미국은 인디언과 신사협정을 맺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당시 기병대 대장 존 치빙턴 대령은 “알을 그대로 두면 이가 되는 법”이라면서 아이와 여성을 모두 학살했다. 이 학살의 원인은 사회적 보수라고 생각한다. 이 대령이 인디언을 학살함으로써 국가, 주변 사람이 주는 보수로 승승장구하려는 것 같다.

② 운디드 니(Wounded knee) 학살사건

1890년 12월에는 미국인이 또 인디언을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살의 원인은 미국이 인디언문화¹³⁶⁾가 복종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일으킨 사건이다. 사건 당시 백인들은 1시간가량 총을 난사에 원주민 300명 이상을 학살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주동자는 무죄로 풀려났으며, 생존자 인디언들은 수용소로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어른들은 온갖 생체실험을 당했고, 아이들은 비 인디언(미국) 가정애 입양, 그리고 미국의 문화와 언어 등을 배웠다. 인디언의 정체성을 찾으려 안 됐기에 이런 일을 감행했다. 이 사건은 인디언이라는 문화가 자신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 있으나, 주동자가 무죄로 풀려난 점을 고려하면 “조금의 사회적 보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

(2) 민족과 인종 학살사건

136) 운디드 니(상처입은 무릎)이라는 성지에서 ‘영혼의 춤’이라는 의식을 거행하는 문화를 뜻함

① 히틀러 유대인 학살사건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한 후 히틀러는 유대인을 학살했다. 그가 유대인을 학살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대인은 독일에 정치, 언론 등을 쥐어 잡을 수 있으며 독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다른 이유는 나치는 아리안족을 위대한 민족이라는 차별 논리를 주장했으며, 이 주장에 반대하는 집단이 바로 유대인이었다). 이 때문에 히틀러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유대인을 마구 잡아넣었으며, 생매장 혹은 화학실험 대상, 독가스 등의 방법으로 학살을 감행했다. 이 사건의 원인은 유대인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집단인 독일이라는 나라에 피해를 준다는 두려움, 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② 미국, 중국인 학살사건

1871년 10월 24일 로스앤젤레스(LA)에서 500명의 폭도들이 중국 이민자가 거주하는 동네를 습격해 19명을 학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살사건의 가해자 폭도들은 백인들로 아시아 혐오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미국은 이민자가 많던 나라였다. 그리고 이민자 중 중국 이민자들도 있었다. 중국 이민자들은 미국으로 건너오자마자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이 찍혔고, 미국인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꼴이 되었다(중국 이민자가 발견한 금맥을 미국인에게 뺏기고, 미국인이 내야 할 돈을 중국 이민자가 대신 내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

▶ Tip: 미국이 중국인을 혐오하는 이유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 이유는 바로 중국인 이민자들로 인해 자신들의 일자리와 환경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시절 미국 경제에는 중국인 노동자가 많았다. 이 때문에 미국 주민들은 중국인 노동자에 대한 항의 운동과 이민 금지 운동 등을 했으며, 미국 남부에선 백인우월주의가 만든 KKK 단이 중국인을 혐오의 대상으로 설정한 다음 많은 학살사건이 일어났다(2년 동안 12건 정도).

③ 애틀랜타 총기사건

2021년 3월 16일 미국 애틀랜타 일대의 스파 2곳과 마사지샵 1곳에서 8명이 총으로 살해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8명 중 6명이 아시아인이었고, 그중 4명이 한인 여성이었다. 미국은 예전부터 아시아인을 바이러스를 옮기는 존재로 낙인을 찍었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 천연두가 유행할 시절 아시아인이 주범으로 지목된 적도 있었다. 이만큼 아시아인은 미국에서 바이러스를 옮기는 존재로 인식되어있다. 이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 브리핑 때 인종혐오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 아닌, 성관계 중독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언급해 가해자(가해자는 백인 남성인 로버트 아론으로 밝혀졌다)를 옹호했다.

이 사건은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아직 유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8명 중 6명이 아시아인, 4명이 한인이라는 점, 경찰이 가해자를 옹호했다는 점, 범인이 미국인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명백히 인종혐오로 인한 사건을 봐야 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 보수가 있었다고 봐도 괜찮을 것이다(인종혐오가 아닌 성관계 중독으로 결론 난 것에 대해).

(3) 동조압력¹³⁷⁾

동조압력이란 “집단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다음 혐오대상이 된다”라는 의미다. 나는 여태까지 일어났던 혐오표현 사례들을 보면 그 사건을 같이 동조한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런 사람 등 중 몇몇은 동조압력을 못 이겨 억지로 한 것으로 생각한다. 소수의 가해자가 사건의 동기를 만들고, 그다음 방관자들이 힘을 실어 학살과 전쟁, 폭력사건이 발생했으나 이들 방관자 중 몇몇은 정말로 다음 혐오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행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는 차별하기 위해 태어났다>에서 방관자 혹은 집단 눈치를 살펴 행동하는 사람이 작년에 비해 많아졌다고 주장한다. 이는 우리 인간이 점점 집단의 눈치를 살피며 행동하는 쪽으로 적응(진화)해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진화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이렇게 진화를 한 것에는 집단에 분위기 때문이다. 집단 내에는 집단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대가가 따른다는 분위기 때문에 우린 계속해서 동조압력에 시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 많은 학살사건과 폭력사건, 전쟁이 있었으며, 이 모든 사건은 소수의 가해자 때문에 발생했으며, 당시 사회의 환경, 분위기 때문에 방관자들도 어쩔 수 없이 동조했다. 그리고 그런 동조 현상은 인간 진화에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 동조압력을 하는 인간이 많아졌다. 과연 동조압력의 진화가 옳은 진화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동조압력은 계속해서 사회의 분위기(따르지 않으면 다음 표적이 된다)와 환경을 탄탄하게 강화할 뿐 인간의 진화에 좋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리고 쾌감 또한 인간 진화에 좋은 영향을 준 건 아니다. 쾌감으로 인해 인간은 쾌감에 살고 쾌감에 죽는 존재인 것 같다. ‘정의’라는 쾌감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인간의 본능이 미래의 혐오에도 똑같이 작용 될 것이다. 동조압력을 우리 사회에서, 우리 집단에서 없애려면 집단 내 구성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단 내 분위기는 전보다 좀 좋아질 것이다.

위 내용 모두 현재와 과거에 있었던 혐오와 혐오표현이 인간 진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려줬다. 그러면 이제부터 미래의 혐오가 인간한테 혹은 인간 진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과거와 현재의 혐오와 혐오표현 사례와 미래의 혐오를 우리 인간이 이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같이 알려주겠다.

5. 미래의 혐오

1) 불쾌한 골짜기

불쾌한 골짜기는 로봇공학 이론으로, 인간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를 보는 순간 친근하면서 호감을 보이지만, 반면 너무 똑같거나, 자신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는 경기에 오르면 존재를 볼 때는 호감이 아닌 반감과 혐오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에서 진행된 동물형 치료용 로봇 실험¹³⁸⁾과 반려 로봇 합동 장례식 사례¹³⁹⁾를 봤을 때

137) 나카노 노부코 『우리는 차별하기 위해 태어났다』 동양북스, 2018년 116~119p

138) 2004년 ‘파로’라는 치료용 로봇(각종 센서로 사람의 언어와 행동에 반응하면서 재롱을 부린다)이 출시되고 나서 이후 비슷한 기능을 가진 반려 로봇이 대거 출시되었다. 이에 사회심리학자인 세리 터클 치료용 로봇들을 가지고 양로원 노인들과 함께 생활하게 함으로써 관찰을 한 바 있다. 관찰 결과는 노인들

인간은 꼭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낀 로봇에게 호감과 친근함을 느끼는 것이 아닌, 그 로봇과 함께 지낸 시간과 그 로봇이 인간의 언어와 행동에 반응한다면 쉽게 호감과 친근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인간과 너무 흡사하거나 똑같다면? 우린 반감과 혐오를 하게 된다. 실제로 영화 <터미네이터> 로봇형 인간(그냥 인간)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이 로봇에 대한 거부감을 느꼈다고 한다.



영화 터미네이터(1984) 장면 中

위 사진은 1984년도에 개봉한 영화 터미네이터의 한 장면으로 T-800이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장면인데¹⁴⁰⁾, 이 부분에서 관객들이 공포감을 느꼈다고 한다. 지금 현재 로봇 개발이 한참인 가운데 앞으로 미래에 인간과 똑같은 로봇이 개발된다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귀엽고 친근한 존재가 아닌, 자신과 똑같다는 이유로 소름이 끼치며, 공포의 존재로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공포감이 나중에 혐오로 작동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2) 미래의 감염병

감염병은 지구에 숙주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 감염병 또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과거 시절 발생했던 대부분에 감염병은 아시아 위주로 발생하여 미래의 감염병 또한 아시아 위주로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의 코로나 19사태를 이을 감염병이 코로나 종식 후 바로 올 수 있으며, 다음 감염병 사태가 일어났을 시 지금의 혐오표현 수위, 사태보다 더 심한 수위와 사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유럽과 미국 사회에선 아시아인 혐오가 계속 자리 잡을 것이다.

현재 감염병 외에도 자가면역질환, 일명 알레르기 또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알레르기도 점점 늘어나고, 감염병 사태(혐오표현 수위와 사태, 규모 등)는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조치를 통해 대응할 수 있을까? 앞으로 발생하는 감염병 사태에 계속해서 국경 폐쇄와 입국 금지 등의 방법은 감염병 사태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혐오에 대한 인간 반응 3단계>도 현대 사회에 적응한 산물이 아닌 과거의 잔재라고 생각한다.¹⁴¹⁾

대부분 삶의 의지를 얻었으며, 실험이 끝난 뒤에서 로봇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했다.
139) 1999년 소니에서 강아지 반려 로봇인 '아이보'를 출시를 했다. 출시 이후 6년간 15만 대를 판매할 정도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좋았다. 하지만 2014년 소니가 "아이보에 대한 사후 서비스를 종료하겠다"라고 밝힌 이후 아이보 주인 반려동물의 사망 고지를 들은 심정으로 일본에 한 사찰에서 합동 장례식을 열었다.

140) 유튜브_Sarah Connor and Kyle Reese vs T-800 Endoskeleton | The Terminator [Open Matte, Remastered]에서 1분 11초에 나오는 장면

141) 왜냐면 과거에는 인식개선이 힘들고(집단의 뜻을 따르지 않을 시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렇지만 현대에는 다르다. 현대 사회에선 의식 개선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면서(소수자의 이해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의학기술 또한 많이 발전한 상태다.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성과 판단을 앞세워 행동한다면 감염병에 대한 치료 및 사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

과거 호모 사피엔스는 집단을 만들었기에 생존을 잘할 수 있었고, 지금의 현대인이 호모 사피엔스인 이유 또한 집단을 만들어 생존에 승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존 할 수 있었던 힘이 현재에는 혐오의 원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 이유는 집단이 만들어지고, 집단생활을 하면서 옥시토신이 심하게 상승하고 그로 인해 외부인을 혐오하게 되었다. 이게 과연 인간의 진정한 모습일까? 이것이 호모 사피엔스가 집단을 만든 이유일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 학살과 전쟁이 일어난 것에는 인식과 편견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집단 내 분위기(뜻을 따르지 않으면 다음 표적은 너로 된다) 또한 한몫했다. 하지만 난 이러한 분위기와 인식 편견은 과거의 잔재라고 생각한다(과거에는 분위기를 바꿀 수 없는 환경이 많이 조성되었고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현재는 다르다).

나는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코로나 19에 감염된 이유, 현재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이유, 학살과 전쟁을 가능하게 했던 요소 등 혐오와 인간 진화를 공부하면서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바로 면역계가 그렇게 적응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이다.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혐오는 미래에도 그래도 적용될 것이다. 감염병에 대한 혐오든 특정 소수에 대한 혐오든, 더 나아가 새로운 혐오들도 나올 것이다(불쾌한 골짜기). 난 미래 사회에 특정 소수에 대한 혐오와 새로운 혐오를 그대로 물려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와 『우리는 차별하기 위해 태어났다』를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거는 집단 내 분위기가 강했으며,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과 편견에 의존하며 살았을 거라고’ 하지만 오늘날 집단 내 분위기는 강할지 모르지만, 소수자와의 접촉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점에서 우리 과거의 잔재를 버리고 새 삶(진정한 평등과 평화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혐오의 대응체계는 내가 제시하는 대응체계는 외에도 많은 대응체계가 있겠지만¹⁴²⁾, 본 인문학에선 위 주제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대응방안과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와 『우리는 차별하기 위해 태어났다』를 읽고 느낀 점을 알려주면서 본 인문학을 마치겠다.

1) 모두가 할 수 있는 일

(1) 인식개선¹⁴³⁾

때문에),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못한 시기라, 학살, 전쟁, 회피 등으로 감염 전파 가능성을 낮췄다.

142) 그 외에도 형사법적 대응과 비 형사법적 대응이 있다.

143) 『[김유민의 사회칼럼] 혐오표현, 해결방법은 무엇일까』

<https://www.goeonair.com/mobile/article> 재인용

첫 번째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식과 편견으로 혐오가 작동하고 혐오표현이 일어난다. 2019년도 국민 인식조사에서 언론이 가장 많이 인식과 편견을 조장하며 자신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고 집계되었다(언론에서 나온 기사를 통해 자신들의 인식과 편견이 달라지거나 생긴다). 그리고 따옴표 저널리즘¹⁴⁴때문에, 한 언론에서 나온 인식과 편견이 널리 전파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근거 있는 주장을 신뢰하며 언론사와 광고에 쉽게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식과 편견이 바뀔 것이다.

(2) 대항 표현¹⁴⁵)

대항 표현은 혐오와 혐오표현에 맞대응함으로써 혐오를 없애는 방법이다. 한국의 헌법상으로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¹⁴⁶ 엄연히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 한국 헌법은 말하고 있다. 대항 표현의 예시는 혐오표현이 일어나면, 캠페인, 시위 등으로 혐오와 혐오표현 대응하는 것이다. 이 대응체계는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대응으로, 혐오표현 피해자와 같이 공감, 연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3) 접촉

우리 인류는 과거부터 인종, 민족, 국가에 대한 특정 소수에 대한 인식과 편견 때문에 서로 간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대에서도 그런 접촉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인에 대한 혐오가 사회에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난 우리나라의 정책이 한몫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선 많은 정책이 있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 난민에 대한 정책 등. 이러한 정책이 특정 사람에 개성과 다양성을 무시한 채 난민이라는 집단 안에 묶어놓고, 다문화가족이라는 집단 안에 묶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인식(그런 정책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그 집단은 가난한 집단이라는 인식 등)이 있고 편견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런 정책에 대한 인식, 사회에 대한 인식과 편견을 소수자와 접촉함으로써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래 2개의 사례는 접촉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한다.

① 별지 전투 사례¹⁴⁷)

군대는 인종 간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미국은 별지 전투에 참전할 흑인 군인 2,500명을 모집했다. 그리고 모집한 흑은 군인들과 함께 싸우는 군인은 다름 아닌 남부¹⁴⁸ 출신 백인들이다. 하지만 이상하게 배타적인 성향이 남다른 백인이 별지 전투가 끝난 뒤 흑

144) 아무 주장과 근거 없이 똑같이 받아적는 행위를 뜻하며, 한 언론에서 나온 기사를 그대로 가져와자

신들의 기사로 속여 널리 전파 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혐오 인식과 편견이 계속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 또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45) 『[김유민의 사회칼럼] 혐오표현, 해결방법은 무엇일까』 <https://www.goeonair.com/mobile/article> 재인용

146) 헌법 21조 4항: 표현이 자유라 할지라도, 그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와 명예, 사회윤리, 공중도덕을 침해할 수 없다.

147) 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우즈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디플롯, 2021) 261~262p 인용

148) 미국 남부는 남을 배척하는 경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심한 지역이다.

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했다.

② 뜻밖에도 이루어진 주거지 인종통합 사례¹⁴⁹⁾

세계 2차대전이 끝난 뒤 미국은 주택 공급 부족으로 백인과 흑인이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백인 주거지, 흑인 주거지가 따로 있었고, 인종 간 인식과 태도가 좋지 않았다. 그렇지만 거주지가 인종통합이 되고, 흑인과 대하를 나눴던 백인 주민들은 흑인 주민들에게 점점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종통합에 더욱 지지하는 경향이 발생했다(그리고 장래에도 인종통합을 한 주거지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지금 현대인은 인간의 최종진화가 아니다. 우리 언제든지 진화할 수 있고,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종이다. 과거 사회의 문화와 분위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에 맞는 종으로 적응을 했고 많은 혐오표현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지금부터 행동한다면 미래의 사회의 문화와 분위기는 바뀌고 우리 그에 맞는 종으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149) 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우즈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디플롯, 2021) 262p 인용

완벽한 인간

들어가며

지금 시대에 누군가를 대놓고 차별하는 것은 너무나 창피한 일이다. 어떤 사람이든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주어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한번도 해치지 않았던 적이 없었을까?

우생학이라는 말은 너무나 생소하다. 잊고 싶은 과거였기에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우생학은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었을까?

1. 우생학

우생학은 잘난, 좋은, 우월한의 뜻을 가진 그리스어 eu와 태생의 의미를 지닌 genos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eugenics는 글자 그대로 '잘난 태생에 대한 학문'을 뜻한다.

우생학이라는 단어는 [종의 기원]의 저자이자 진화론에 큰 영향을 미친 생물학자 찰스 다윈의 사촌, 프랜시스 골턴이 만들었다. 그는 우생학을 통해 우수한 남녀 간의 선택적인 결혼을 몇 세대만 수행해도 우수한 인종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골턴은 우생학을 좋은 혈통의 재생산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포지티브'(증대, 양산 +)와 정신적, 도덕적으로 부적합한 종자의 재생산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는 '네거티브'(감소, 제거 -)로 나누었다. 무엇이 되었든 우월한 종이 많아져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생학에서 말하는 정신적, 도덕적으로 부적합한 종자들이란 정신적·신체적 장애인, 광인, 뇌에 질병을 가진 환자 등을 말한다. 나중에는 백인 외의 인종, 범죄자, 빈곤층, 노숙자, 지능이 낮은 사람들까지 포괄하였다.

인간의 진화론에 큰 영향을 준 적자생존¹⁵⁰⁾이나 사회진화론¹⁵¹⁾도 완벽하다고 볼 순 없어도 '우월한 인간이 살아남는다'의 전제를 두고 있다. 현 사회에서 많이 등장하는 능력주의¹⁵²⁾도 좋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처럼 같은 맥락이다.

2. 우생학의 시작

우생학이라는 명칭은 19세기 말에 정해진 것이지만 우생학의 본질은 옛날부터 존재해왔다. 수렵채집인들은 가끔 무리를 따라오지 못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버리거나 심지어 죽이는 일이 있었다. 유아와 장애 아동의 살해는 고대 로마 때부터 존재해 왔다고 알려져 있다.

20세기 전환기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과 미국은 상당한 사회적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 정신없던 와중에 자본주의 성장은 산업의 불안을 야기했고 도시 빈민가를 만들어 냈다. 영국은 많아져 가는 빈민들을 보며 국민 체위 저하와 인구 퇴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경제

150)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되어 멸망하는 현상을 말한다. 영국의 철학자 스펜서가 처음 사용하였지만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관련된 단어로 많이 알려져 있다.

151) 우월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지배하는 것을 자연의 법칙으로 주장하였던 이론이다.

152)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주어지는 사회를 추구하는 주의이다.

적 불황 때문에 많아지는 빈민을, 빈민이 많아지는 탓에 경제적 불황이 심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사회 타락이 부적합자에 의한 것이라는 두려움은 합리화되어갔다.

이러한 빈민을 포함한 부적합자들이 사회에 좋지 않다는 생각을 보편화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한 실험에서 10명 중 9명은 미리 고용된 사람들로 무조건 같은 오답을 말하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한 명의 피험자는 앞서 들은 9번의 같은 오답을 듣고 자신이 생각한 정답을 이야기해야 했다. 문제의 정답이 너무 뚜렷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험자의 75%가 오답인 줄 알면서 다수의 오답에 정답이라 이야기하였다¹⁵³⁾.

또 다른 실험에서는 피험자는 오답을 말하는 사람에게 전기충격을 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실험의 책임은 피험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시작되었다. 실험에선 먼저 피험자들이 전기충격을 받게 되어있는 사람의 상태를 엿듣게 했다. 놀랍게도 피험자들은 예리하다거나 이해력이 좋다는 사람에겐 약한 강도의 전기충격 주었고, 썩어 빠졌다거나 짐승 같다는 사람에겐 2배에서 3배까지 높은 전기충격을 주었다. 이처럼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은 사람에게 해를 가했을 때 피험자 스스로 자신을 면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사람이 고통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높은 충격을 가해야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피험자들은 믿었다.¹⁵⁴⁾

두 실험에서 보았듯 인간은 쉽게 사람들의 말에 휩싸이며 언제든지 잔인해질 수 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는 도덕적 배제는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심리이다. 이 심리를 이용하여 우생학자들은 쉽게 부적합자들과 적합자들의 집단을 나눌 수 있었다. 시민들은 우생학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기도 전에 옆 이웃의 행동을 보며 우생학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너무나 보편화된 우생학에 반대되는 입장을 펼칠 시 자신에게 돌아올 보복이 두려워 쉽게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옛날의 경험을 떠올려 보았을 때 왕따를 당하는 친구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따돌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비슷한 심리일 것이다. 내가 포함되지 않는 집단을 배제하게 되는 순간 차별을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없었을 것이다.

때마침 이 시기에 과학자들은 과학을 전문적인 학문으로 만들고 싶어 했으며, 과학이 대학에서 제도화되었다. 생물학자들도 일부러 어려운 실험 기법과 기계론적 설명을 하며 높은 지위를 얻고자 했다. 의학도 같이 발전되면서 과학자들과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인 믿음과 지위가 높아져 갔다.

1) 학회

최초의 우생학 운동 조직인 영국우생학회는 1907년에 설립되었다. 처음엔 비전문가 회원이 주를 이뤘지만 점점 전문직 중산 계급으로 전환되었다. 얼마 되지 않아 협회 회원에는 학계 엘리트가 포함되었고, 엘리트 집단에서 우생학은 더 폭넓은 인기를 끌게 되었다. 미국도 다양하게 존재했던 우생학 단체들이 뭉쳐 1923년 미국우생학회가 만들어졌다. 영국우생학회와 같이 미국도 중산계급 전문직 회원들이 주를 이뤘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1933년 당시 유명 인

153) 솔로몬 애쉬, “동조실험” (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우즈,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2021, p213)

154) 밴듀라, “비인간화 실험”, 2017 (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우즈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2021, p215)

사와 의학·과학자들은 조선우생협회를 설립하여 활동했다. 이처럼 우생학은 하위 계층과 비주류들의 입장은 완전히 배제한 채 논의되었다.

그렇게 우생학은 주류들을 거쳐 많은 사람에게 인기있는 학문이 되었다. 지배층의 압력과 소속되고자 하는 마음에 너무나 쉽게 인정되어버린 것이다. 1914년 미국에서는 44곳의 대학에 우생학 과정이 존재했는데 15년이 지나자 그 수는 376개로 늘어났다.

2) 홍보

영국우생학학회는 부적합자의 분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다. 장애인이나 정신박약자¹⁵⁵⁾, 범죄자에게 강제적 단종수술을 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이끌었다. 1935년이 되자 26개 주에 그러한 법률이 존재하게 되었고 10개 주는 법률 제정의 완료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너무나 쉽게 강제적 단종수술이 합법이 되어버렸다.

미국의 학회는 가장 우월한 아이들이나 가족들의 우열을 가리는 우량아선발대회, 건강가족경진대회와 같은 여러 캠페인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3) 시설

처음엔 정신 질환자들을 위한 병원과 학교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런 시설들의 목적이 점차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닌 일탈자¹⁵⁶⁾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일탈자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으로 변해갔다. 나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나누었고,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해야 할 이유를 찾지 않았다. 그렇게 사회는 부적합자들과 분리되어 생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우생학이 등장하고 부적합자들이 시설에 분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부적합자들에게도 교육의 권리가 존재하며 그들에게 맞는 교육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주류들의 호소에 시설은 정당화되었다. 사실은 부적합자의 장애가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의 분리를 요구하는 호소였다.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여겨진 사람들에게 대한 대규모 시설 수용이 시작되었다.

시설 대상자들은 소두증, 뇌전증, 다운증후군¹⁵⁷⁾을 가진 정신 질환자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시력이나 청력이 안 좋은 사람들, 왼손잡이도 진단의 대상이 되곤 했다. 범죄성도 유전된다는 생각도 존재하여 미국에서는 정신병원이나 교도소 같은 시설들이 확대되기도 하였다.

그렇게 시설에 들어간 사람들은 외부 방문자들과의 접촉이 차단되었다.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실험이나 연구 조건 대상으로 만들어져 사용되었다.

3. 우생학 속에선

155) 정신박약자, 정신 지체인으로 불렸지만 호칭이 부적당하다 하여 2007년 보건복지부에서 지적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156) 사회에서 정해진 범위나 규범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여기선 범죄자나 비행 청소년을 포함한다.

157) 염색체 질환으로 지적 장애, 신체 기형, 성장 장애 등을 일으키는 유전 질환이다.

1) 나치

역사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우생학은 나치즘이라고 볼 수 있다. 유대인 학살로 잘 알려져 있지만 나치는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장애인들을 먼저 차별하고 학살하며 시작되었다. 우생학은 히틀러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실제 나치당에는 우생학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나치당이 독일을 집권하게 되며 우생학은 더 정당화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

우생학이 등장한 뒤, 나치가 독일을 집권하게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정신병원을 하나 짓는 데 600만 마르크가 들고 주택 단지에 집을 한 채 짓는 데 1만 5000마르크가 든다면, 정신병원 하나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으로 얼마나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실제 학교 교과서에 나왔을 만큼 장애인은 사회에 불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계속 강조되어 왔다. 나치의 총통인 히틀러는 ‘병자, 약자, 기형아들을 죽음 속에 내던지는 것이, 가장 병적인 대상조차 보존하기를 추구하는 오늘날의 가련하고 어리석은 짓보다 훨씬 품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천배는 더 인도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애인이 가져오는 경제적 부담에 관한 나치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존재로 생각했으며 그것을 돈 낭비로 간주하였다. 그 당시 독일 사회에서 장애는 도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된다는 관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1) 단종수술

나치가 독일을 집권하게 된 이후 부적합자들의 단종수술을 허용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었다. 법률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부적합자들의 개념은 상황에 따라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었다. 유전성이나 정신질환은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사람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심사자인 의사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동시에 중요했다. 우생학을 옹호하는 심사자라면 대상자의 외모나 행동만을 보고 정신질환의 특성을 판단해 단종수술대로 보낼 수 있었다.

나치는 유전될 수 있는 다양한 이상을 이유로 약 37만 5000명에게 단종수술을 실시했다. 그 당시 독일 전체 인구의 무려 5%가 그 수술을 받았던 것이다. 단종수술에 피해자의 37.3%는 동의했지만 24.1%는 본인이 아닌 법적 후견인에 의해서 동의가 이루어졌고, 38.6%는 강제로 수술받았다. 이렇게 어디에서나 비주류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치는 단종 수술 외에도 부적합자들을 제거하는데 강박적으로 집착하고 있었다. 단종 수술 받은 성인들은 이미 자손을 생산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제하고 살해하였다. 어쩌면 나치는 부적자들의 재생산을 막는 것이 아닌 더 이상 부적합자들의 생존을 없애는 것이 목표였다.

(2) 안락사

정신의학은 계속 새로운 약물과 기법을 만들어 냈다. 나날이 발전되는 의학은 치료될 수 없는 환자와 치료될 수 있는 환자들의 대조를 더욱 극명하게 만들었다. 정신과 의사인 알프레

트 호혜는 장애인들이 사회에 가져오는 경제적 부담을 강조하면서 ‘자비로운 살해’를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그들에게 자살은 하나의 인권이며, 따라서 그것이 불법화되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한다. 치료될 수 없는 정신박약자의 삶은 목적 없는 삶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들의 외적인 모습만 본 채 이들에게 죽음은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고 그것이 정당화되었다.

성인 안락사 프로그램은 1939년에 히틀러의 개인적 명령으로 시작되었다. 안락사 정책이 국내 외에서 상당한 반대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임을 히틀러는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는 자기 비서실 내에 별도의 비밀 부서를 설치하고 사적인 편지 형식으로 비밀스레 안락사를 명령하였다. ‘환자의 이상을 세심하게 평가한 후, 치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는 자비로운 죽음을 부여할 수 있게 하라’는 말이 그의 편지에 적혀 있었다고 한다.

나치의 유대인 청소로 유명한 가스실에는 1933년에 지적 장애인들이 먼저 들어갔다. 이것이 장애인 멸절 작전인 T4작전(티어가르텐 4번지에서 일어난 작전)이다. 대상자들은 지적 장애인을 포함해 우울증, 왜소증, 뇌전증 같은 이상을 이유로, 때로는 비행, 성적 미달, 알코올 중독자들로 선정되었다.

그들은 탈의를 당한 상태에서 샤워하기 위한 것이라고 안 채 가스실로 줄지어 들어갔다. 모두 죽음에 이를 때까지 10분의 시간이 걸렸다. 가족들은 전염병의 위험성 때문에 시체는 즉각 화장이 이루어져야만 했다는 통지를 받아야 했다. 죽을 이유가 없었던 안락사에 대한 해명은 일반적으로 뇌종양, 편도선 농양, 맹장염, 폐렴 같은 진단명을 동원해 이루어졌다. 히틀러에게 1941년 8월 T-4 프로그램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때까지 최소한 7만명의 사람이 가스실에서 살해되었다.

아동들은 가스실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다를 것 없이 안락사되었다. 팔다리, 머리, 척추의 기형, 뇌성마비와 그 밖의 신체 마비, 왜소증, 맹과 농, 다양한 뇌 기능 이상을 지니고 있는 아동들이 포함되어 안락사되었다. 병원 구석에 위치한 특수 병동에서 치사 주사를 넣거나 매일 제공되는 약물의 과잉 투여에 의해 살해되었다. 어떤 시설에서는 아동들은 굶겨 죽이기도 하였다. 최소한 5000명의 아이들이 살해되었다.

나치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부적합자들의 생산을 절대적으로 막았다.

2) 소록도 한센병

일제 강점기인 1916년, 한국에서 한센병¹⁵⁸⁾환자들을 감염과 전염으로부터 예방한다며 작은 섬인 소록도에 격리시켰다. 우생학의 시초와 같은 맥락으로 환자들이 사회의 인식을 낮춘다는 이유에서였다.

더 이상의 전염병이 유전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이유로 환자들에게 단종수술과 낙태를 실시했다. 환자들이 항의하거나 도망치면 죽이거나 몸을 망가트렸다. 환자가 죽으면 사망 원인을 알아낸다는 명목으로 해부했다.

광복한 뒤에도 가해자만 바뀌었을 뿐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 2007년이 되어서야 피해자들

158) 피부나 눈에 발진과 딱지가 생기는 만성 전염병 질환이다. 한센병 환자들이 꾸준히 많아 유전병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유전병이 아닌 것을 밝혀졌다.

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우생학이 어떤 사건들로만 존재했던 것은 절대 아니다. 꾸준했던 우생학 시대에서 두각이 드러나는 사건이 있을 뿐이다.

강제적 단종수술은 우생학이 인기 있던 1900년 초반에 시작되어 놀라울 정도로 최근까지 계속되었다. 부적합자들의 생산을 막자는 포지티브 우생학의 목적으로 단종수술은 너무나 보편적으로 시행되었다. 단종수술은 어떠한 사건이나 집단에서 허용되는 것만이 아닌 병원에서도 제안할 정도로 개인적으로 쉽게 시행될 수 있던 수술이었다.

네거티브 우생학을 앞장서서 요구했던 것은 의사들이었다.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실패를 설명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신과 의사들이 우생학에 동의하였을 것이다. 정신과 의사가 아닌 안과나 외과 의사, 내과 의사들도 부적합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대한 단종수술을 합법화하자는 우생학 운동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실제로 의료 전문가들이 없었다면, 단종 수술의 광범위한 실행은 가능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은 1907년 인디애나주를 시작으로 부적합자들에게 단종수술을 할 수 있는 단종법을 통과시켰다. 1931년까지 단종법을 통과시킨 주는 30개로 늘어났다. 미국 주 1947년 단종법이 폐지될 때까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6만 5천여명의 장애인이 강제로 단종수술을 당했다. 독일과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우생학을 긍정하고 단종법을 시행했다.¹⁵⁹⁾ 영국에서 1968부터 1년 동안 1만 545명의 여성이 단종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이 단종수술의 남용을 막기 위한 어떠한 제정법도 발의되지 않았다. 단종수술의 주 대상은 약자인 가난한 여성들, 그중 흑인들이었고 단종수술의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복지급여가 중단된다는 협박을 들어야 했다.

수술이 시행될 때 당사자의 의견은 어디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의견을 듣는다는 조치를 취하여도 피해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의 결정에 맡겨졌다. 부적합자들은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이며 생각도 보잘것없을 것이라는 사회의 인식이 당연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단종법에 반대하는 세력이 커지자 단종 수술은 쇠퇴하였지만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단종수술은 자발적 선택이라는 허울 하에 몇 개의 국가들에서 1970년까지 계속되었다.

4. 변해가는 우생학

우생학은 윤리적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주장이었다. 우월한 유전자만 고르는 것이 불가능하며 우월한 유전자가 그대로 유전된다는 사실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우월함은 사회와 우생학자들이 정한 기준일 뿐 정확히 어떤 것이 우월한 것인지 판단 내릴 수 없다.

주류 우생학이 누렸던 국제적 인기는 대부분 1930년대에 쇠퇴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이유는 변화된 정치적, 경제적 상황 때문이었다. 시간이 지나 복지가 확대되었고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 이런 평등주의적 세계에서 극빈 계급은 사라졌다. 그렇게 우생학도 원래의 형태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우생학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아져 가장 극단적인 이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이들이 우생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기존의 우생학은

159) 홍성욱, 이상욱, 장대익, 이종원, 『과학으로 생각하다 : 과학 속 사상, 사상 속 과학』, 동아사이, 2007

극단적 인종주의와 인지도 없는 학회들로 분리되어 남게 되었다.

극단적이었던 기존의 우생학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었을 뿐이지 우생학은 생활 속에 스며든 채 계속 존재해왔다. 학문으로서 우생학은 좀 더 주변을 의식한 채 개혁우생학¹⁶⁰⁾이나 인류유전학¹⁶¹⁾, 의료유전학¹⁶²⁾으로 변형되어 영향을 주었다.

유전학에서는 우생학과 유전학이 완전히 다른 학문이라며 분리한다. 지금의 유전학이 우생학과 비슷한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유전학의 여러 분야가 자리를 잡으며 우생학에 영향을 받았고 생물학 전문가 중 우생학에 동의했던 전문가들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생학과 유전학을 전혀 다른 학문으로 구분 지은 채 우생학을 옛날에 있었던 일로만 간주하며 무관심하고 안일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 현재의 과학과 유전학을 보며 우생학의 어떤 부분이 참고 됐는지 계속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1) 산전검사¹⁶³⁾

우생학이 쇠퇴된 뒤 유전학은 발전되었고 생물학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유전학이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됨에 따라 유전자와 염색체에 관한 지식이 점점 늘어났다.

유전학적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보편화된 것처럼 태아의 유전적 정보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산전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태어나기 전부터 태아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의 발전이 결과적으로 보면 태아의 결함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고, 상태에 따라 선별적으로 낙태할 기회를 주게 되었다. 부모의 환경적, 개인적 사유에 의한 낙태가 아닌 태아의 상태에 따른 낙태가 가능해진 것이다. 장애를 가진 태아를 골라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바라보자면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하지 않기 위해 시도된 단종수술과 겹쳐 보이기도 한다.

의도하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낙태로 인해 장애에 대한 차별은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하지 않으려 하게 되면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는 불행하다는 생각이 사회 전반적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알려고 하지 않은 채 불쌍한 사람으로 치부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소수의 사람과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우생학의 가치와 언제 연결될지 모른다.

이렇게 산전 검사와 같은 편리한 의료 복지만으로도 언제 우생학에 포함되어 커져 나갈지 모른다. 이처럼 발전되어 오는 사회에서 우생학 같은 위험 요소들을 바로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과거의 우생학과 현재의 유전학 사이에 깔끔한 경계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 그 초점이 단종수술이나 안락사보다는 낙태 쪽으로 이동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접근법 간에는 종이 한 장 차이만이 존재할 뿐이다.’¹⁶⁴⁾

160) 우생학이 쇠퇴하고 변한 새로운 우생학을 말한다. 개혁우생학, 신우생학으로 부른다.

161) 인류의 유전자 또는 염색체를 연구하는 학문.

162) 유전학을 의료에 적용하는 의학 학문.

163) 임신 중에 태어나 산모의 상태를 살피는 검사.

164) 앤터, 톰 셰익스피어, 『장애와 유전자 정치』, 그린비, 2021, p237

2) 맞춤 아기

맞춤 아기는 특정 유전자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학과 기술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선택된 유전자로 만들어진 아기를 이야기한다. 희귀 질환이나 불치병 등 유전 질환을 가진 아이가 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치료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최초의 맞춤 아기는 2000년 미국에 탄생했다. 희귀 질환에 걸린 형제를 치료해줄 공여자가 되기 위해 시험관 수정을 통해 선별되어 아담이 태어났다. 그러니 아담은 형제를 치료해 주기에 적합한 태아였다. 형제의 어머니는 일치하는 골수를 얻기 위해 시험관 수정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임신, 출산 과정을 거쳤다.¹⁶⁵⁾

2016년 멕시코에서는 세 사람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세 부모 아기'가 태어났다. 당사자는 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변이 유전자로 두 자식을 모두 잃자 유전자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후에 맞춤 아기 낳았다. 아담의 사례에선 여러 개의 배아 중 결함 없는 하나의 배아를 선별해내는 수준이었지만, 세 부모 아기에게 이용된 기술은 난자나 배아에 직접적으로 생식세포나 배아의 일부를 변형하는 수준이었다.¹⁶⁶⁾

2018년 말 과학자 허젠쿠이는 유전자 편집을 통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저항성을 지니는 건강한 쌍둥이 맞춤형 아기를 출생했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맞춤 아기는 임신 초기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유전적인 질병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앞으로의 위험을 방지하는 식으로 개발된 맞춤 아기였다. 전에 정해 놓은 국제적인 합의를 존중하지 않고 태아를 출생한 문제에 큰 논란이 일었다. 개발자 허젠쿠이는 이후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추었다.¹⁶⁷⁾

국제적으로 유전자 편집 아기는 치료법이 없는 심각한 질환이나 매우 제한적인 연구를 제외하곤 금지되고 있다. 제한을 풀어놓게 되었을 때 어디까지 아기가 편집되어 오남용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맞춤아기가 사회에 적용될 시 인간의 균형이 무너지고, 맞춤아기에 대한 정체성 문제가 생긴다. 인간 편집은 어디까지 세상을 바꿔 놓을지 모른다. 인간을 편집할 수 있게 되면 세상은 더 완벽해진 인간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우월한 종의 생산을 늘리려는 포지티브 우생학과 다를 것이 없으며, 또 다시 완벽해지지 못한 사람들을 필요 없는 존재로 각인할 것이다.

하지만 비밀리에 연구와 기술 개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유전자 편집 아기는 금지된 조항이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일종의 연기 상태의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마치며 : 뒷문으로 이어지는 우생학

우생학은 인간의 잘못된 협력이 얼마나 큰 잔인함을 불러오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례일 것이다. 역사에서 끔찍했던 사건들은 우생학의 목적과 닮아 있었으며 우생학은 학문으로까지 남겨졌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마음은 너무나 쉽게 연결이 되었고 결국 당연하다시피 정당화

165) 김명균, 김동균, "맞춤형 아기와 인간의 존엄성, 피코의 '마이 시스터즈 키퍼'를 중심으로", 신영어영문학, 77집, 2020년

166) 구정은, <엄마 둘 아빠 하나 '세부모 DNA' 가진 아기 탄생>, 『경향신문』, 2016.09.28

167) 오철우, <맞춤아기 충격 한달... '미끄러운 경사길' 우려 깊어져>, 『한겨레』, 2018.12.23

되었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미워하는 순간 그 협력은 절대 좋은 협력이 될 수 없다. 이런 협력은 우리를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 능력이라고도 볼 수 없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모두’와의 협력에서 온다.

우리는 ‘우월함’이 너무 중요해진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시대에 똑똑한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지며 나의 능력은 학력에 의해 평가된다. 모두가 경쟁해야 하는 사회 안에서 우열을 나누고 순서를 매긴다. 우생학의 세상 속에서 ‘열등한’, ‘우생학적’이라는 용어들이 삭제되었을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피라미드 안 계급 속에서 살아간다.

가까운 생활 속에서 우생학은 곳곳에 숨어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나이와 학력을 알아야 비로소 그 사람이 그려질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겉으로만 보이는 특징만을 가지고 판단하며 스스로의 계급을 규정해 놓을 때가 너무나 많다. 모두의 평등과 안전을 바라는 국가에서는 장애인들을 전혀 보호해주지 않는 법률이 존재하며, 병원에서는 산전검사가 쉽게 실행되고 있다. 또 현재의 인종차별은 과거의 우생학과 너무 닮아 있다. 여전히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채 전세계적으로 인종을 향한 차별은 너무나 심각하다. 우생학이라는 단어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생활 속 어디에서나 우생학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의 사회는 기술이 너무나 빨리 발달되고 있다. 이미 인간을 복제하거나 개량할 수 있는 기술들이 존재한다. 언제 어떻게 변질될 지 모르기에 제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이 또한 다시 우생학으로 연결되고 사람들의 동의를 얻게 될 수 있다. 점점 발전해가는 시대에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춰 조절해 나갈 것인지는 앞으로의 인간이 생각해야 할 숙제일 것이다.

미국 사회학자 트로이 더스터는 우생학에서 변형된 신우생학을 ‘뒷문으로 이어지는 우생학’이라고 말했다. 우생학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 적도, 쇠퇴한 적도 없다. 언제 어디서 뒤에 숨어있다 커져 나올지 모른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 방향을 바라볼 때 혼자 형평성을 갖춘 채 다른 방향을 둘러보기는 너무 어렵다. 그만큼 사회에서 협력은 가까우면서 무서운 힘이다. 우리가 가진 이 좋은 능력이 예전과 같은 방식처럼 되풀이되면 안된다. 계속 확인하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진화하는데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힌트는 지나온 역사뿐이다. ‘진화는 목적 없는 과정이다.’¹⁶⁸⁾

협력과 손을 잡고

인류에게 협력이 항상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앞에서 본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좋은 협력은 존재했고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문화도 많이 변하고 인식도 바뀌며 점차 사회도 바뀌어 나갔다.

1.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¹⁶⁹⁾

168) 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우즈,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디플롯, 2021, p312

169)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

정혜규 <1587만 촛불이 독재자 박근혜 탄핵했다> 『민중의 소리』 2017-03-10

김새봄 <‘박근혜 퇴진’ 190만 촛불...국민 항쟁의 역사 새로 쓰다> 『뉴스스타파』 2016-11-27



비폭력 시위인 촛불 집회가 2016년 한국에서 일어났다.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의 탄핵 요구를 더불어 사회 문제 개선 등을 위한 시위로 시작되었다. 첫 집회를 시작으로 19차 집회까지 연인원 1587만 명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시위에선 주로 촛불을 들고 연설과 노래를 부르며 함께 행진했다.

평소 비폭력 집회는 자주 있었지만 차벽¹⁷⁰⁾과 물대포가 없는 집회는 드물었다. 집회마다 시민과 경찰의 공권력은 자주 충돌했었다. 아무리 평화로운 마음으로 시위에 참여하여도 정신없는 상황에서 서로의 목표에 집중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찰이 생기고 마음이 상한다. 하지만 이 시위는 정말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시위에 참여했을 당시 모두 흥분된 있는 상태이긴 하였지만, 질서는 유지되었고 과격한 충돌은 없었다. 1587명이 참여한 이 촛불집회에서 폭력은 신고되지 않았다. 연행자는 경찰이 해산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다 연행된 23명뿐이 이었다. 폭력은 없었던 평화시위에서 대통령 탄핵이란 목표를 이뤄냈다.

2. 미국 인종차별 시위



2020년 아프리카계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는 길을 지나가다 위조지폐 사용 혐의로 순찰 중이던 백인 경찰에게 의심을 받아 강압적 체포를 당했다.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은 채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목을 졸라 의식을 잃고 사망하였다.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의해 무자비하게 사망한 후 세계 각 구에선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연대 시위가 일어났다. 한국, 영국, 벨기에, 일본 독일 등 코로나19 사태와 겹치는 바람에 집회, 시위가 금지되는 나라에서도

170) 차벽: 집회나 시위를 할 때 펜스를 대신하여 차로 벽을 치는 행위

연대 시위가 진행되었다. 조지 플로이드 건 이후 사람들은 경찰 예산 삭감(삭감한 예산으로 지역을 활성화하자)을 주장했지만, 당시 대통령인 트럼프는 이에 반대했다. 민주당도 경찰 예산 삭감에 반대했지만 경찰 개혁을 주장했다. 실제로 2021년 바이든은 경찰개혁을 촉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하원은 이미 조지 플로이드 법(치명적 물리력은 최후수단이며, 목 조르기, 기습적 영장 집행 등을 금지하고 있는 법안이다)을 통과시켰다.

결론

비폭력으로 이뤄지는 평화 시위가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독재나 무기를 통한 폭력 시위보다 평화 시위의 성공률이 2배 더 높으며, 폭력적 국가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은 4배가 더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평화 시위에 참여하는 인원이 폭력 시위에 참여하는 인원보다 평균 15만 명이 더 많다.¹⁷¹⁾ 저항운동에 지속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인구의 3.5%를 넘는다. 5,000만명이 넘는 우리나라 인구 중 거의 200만 명, 미국이라면 무려 1천만이 넘는 숫자다.

또한 폭력 시위는 성공률이 낮다. 도로 봉쇄나 기물 파손, 폭력 행사 같은 극단적인 시위 전술은 언론과 대중의 주의를 끄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실제 운동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이 뜻을 합쳐 좋은 협력을 한다면 변하지 않는 건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비록 단시간 안에 변하지는 않지만, 장기간으로 봤을 때 분명 언젠가는 변화할 것이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부터 우리 인류가 뜻을 모아 협력을 한다면 앞으로의 사회와 문화는 바뀔 것이다.

친화력과 협력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 인류에게 친화력이 생기고 ‘협력’이 가능해진 이유는 스스로 가축화를 하였기 때문이다. 즉 자기 가축화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우리 발제의 바탕인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에서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자기 가축화를 통해 우리 사피엔스는 집단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내집단과 타 집단을 나누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기에 협력과 친화력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인간은 스스로 가축화를 하였기 전에 동물을 가축화하였다. 자신의 삶에 맞는 동물 혹은 자신에 일을 도움을 주는 동물이 되기 위해, 동물들을 가축화를 하였다. 그로 인해 인간의 손을 거친 소, 돼지, 개 등의 동물들이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동물이 될 수 있었고 인간에게 복종하게 되었다. 반면 손을 거치지 않는 동물들, 예를 들어 늑대, 여우 등의 동물들은 오늘날 멸종 위기라는 운명을 만나게 되었다. 이 부분에서 인간은 동물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존재라

171) 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우즈,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2021, p273

고 생각한다. 가축화를 한 동물과 하지 않는 동물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인간 자신도 마찬가지다. 호모 사피엔스 외에 다른 인간의 종이 지구상에 생존해있었다. 하지만 네안데르탈인 같이 자기 가축화를 거치지 않은 인간 종은 멸종에 이르렀고, 자기 가축화를 거친 호모 사피엔스만이 생존했다. 인류 멸종에 관한 교체이론과 교배이론도 자기 가축화로 인류를 내집단과 타 집단을 나누었기 때문에 생겨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는 협력과 친화력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바로 내집단에 관용, 친절을, 타 집단에는 배척과 증오를 하게 만들었다. 그로 인해 혐오가 작동하면서 감염병과 오염물에 대해 혐오하고, 자신의 집단에 피해를 주는 타 집단을 혐오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종, 민족, 정신 질환자를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제거하는 우생학으로 연결되었다. 특정 집단의 사람을 배척, 증오, 제거하는 우리의 혐오감정은 폭력과 언어로 표현하면서 전쟁과 학살을 일으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건 바로 이제부터 인류의 친화력과 협력을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친화력으로 인한 협력이 인간을 해치는 무기가 되었다면 미래의 협력은 인간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접촉과 인식개선, 대항 표현으로 우리 사회와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화한 우리를 돌아보고 자신의 능력을 깨달으며 그에 맞게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친화력과 협력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며 미래에는 비로소 인간의 친화력과 협력, 집단형성이 옳은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참고문헌>

<인류의 특성에 대해>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김영사 2020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김영사 2020

<교체이론과 교배이론>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김영사 2020

<허구의 믿음>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김영사 2020

<내 세포는 친화력>

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우즈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디플롯, 2021)

<완벽한 인간>

앤 커, 톰 셰익스피어, 『장애와 유전자 정치』, 그린비, 2021

김명균, 김동균, “맞춤형 아기와 인간의 존엄성, 피코의 ‘마이 시스터즈 키퍼’를 중심으로”, 신
영어영문학, 77집, 2020년

<우리는 혐오하고 혐오하고 혐오했다>

나카노 노부코 『우리는 차별하기 위해 태어났다』 동양북스, 2018년

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우즈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디플롯, 2021)

대안교육 제 이름 되찾기

김송새봄 조상현

목차

◇ 대안학교가 맞닥뜨리고 있는 일곱 가지 문제점 - 100p

part.1 - 101p

part.2 - 111p

◇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였을지도? - 123p

◇ 대안교육의 진화를 상상하며

: 앞으로의 대안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 - 144p

< 대안학교가 맞닥뜨리고 있는 일곱 가지 문제점 >

여는 글

6년 동안 대안교육을 받으며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 사회로 나가기 위한 발걸음을 코앞에 두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정작 우리가 받고 있었던 교육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인문학 캠프라는 기회를 통해 지난 시간 동안 몸소 느꼈던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되짚어보며 대안교육이 놓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불안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사회에 나가서 대안학교 졸업생으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 이런 막연한 질문들에 대한 뾰족한 이유를 우리의 시선과 언어로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싶었다.

대안학교가 숙명처럼 떠안고 가야 하는 여러 가지 '시대적 대안'의 정립과 구현이라는 모호하고도 무거운 숙제가 그 주체들의 마음을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는지 모른다.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무척 힘들기 때문에 그동안 애써서 만들어놓은 과거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게 생기고, 그럴수록 흔들리는 것이 두려워지기 마련이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이만하면 됐다' 하며 현재에 안주하기 쉬워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기에 '대안교육 위기론'이 등장하고, 그 어느 때보다 대안교육이 전체적으로 침체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와 같은 시점에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분석은 매우 값진 자료이며 앞으로의 새로운 시대적 대안을 만들어갈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근거 없는 비난이나 개인적인 신세 한탄이 되지 않기 위하여 사전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과장 없이 다양하게 담아내려 노력했다.

이 사전 인터뷰는 대안학교 입학 과정, 학교를 다니며 느낀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제천간디학교 재학생, 자퇴생, 졸업생, 선생님, 타 대안학생 총 27명이 참여하였다.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위기와 문제점들을 제대로 직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여전히 남아 있을 사람들에게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part.1

첫 번째. 사회적 편견

그동안 정부는 대안교육의 ‘대안’ 을 공교육 대체제로 여겨왔으며, 일반 사회에서 대안교육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우리의 시선과 확연히 다름이 느껴진다. 이런 차이는 국가주도 외 어떤 교육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선입견에서 비롯된 간극이다.

- 우리는 문제아인가요?

이러한 간극으로 인해 대안학교라 하면 흔히들 비행청소년이라고 부르는 문제아, 일반학교 부적응아들이 모인 학교라는 오래된 사회적 편견이 만들어졌다. 공부를 하기 싫어해서, 친구들과 관계에 문제가 많아서, 술·담배나 폭력 등의 말썽을 일으키고 공교육에서 거부를 당해서 등, 모종의 부정적인 이유들로 인하여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안학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재학 중인 대안학교에서는 그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는 것이 더욱 어렵다. 차별적인 시선을 조금만 거두고 잘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전부터 대안교육에 관심이 많으셨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대안교육에 발을 내딛게 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대안교육 팀에서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였던 재학생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지인 혹은 부모님의 영향 및 권유로 대안교육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 대안학교 졸업생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만일 이렇게 극단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적 차별과 소외감은 대안학교에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보았을 것이다. 공교육을 통한 상급 대학 입시만을 한 가지 정답으로 두는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교육 체제 (초등 6년+중등 3년+고등 3년+대학 4년)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남들과는 다르게 보는 시선이 파다하다. 그런 시선은 단순히 제도적인 체제 속에서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 속에서, 나의 주변에서 더욱 깊이, 또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자주 느끼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명절이나 가족 모임 등 많은 어른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커서 뭐가 되려 그러니?’, ‘아무리 그래도 공부가 제일 중요하지.’, ‘그럼 너 대학은 어디 갈 거니?’ 따위의 이야기들을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듣는 일들을 예로 들 수 있다. 결국 이런 사회적 편견은 사회에서 0.1%도 안 되는 극소수의 존재인 대안학교 학생들을 더욱 더 위축시킨다.

‘졸업 이후 출신 학교를 이야기하기가 부끄럽거나 꺼려진다’ 같은 실제 졸업생들의 후일담 또한, 줄곧 반복적으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이 담긴 말들을 여러 곳에서 이미 수차례 들어왔기 때문일 것이리라 짐작해볼 수 있다.

경쟁 중심, 입시 위주의 공부에서 벗어나려 대안교육에 발을 들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학력 없는 대안학교 졸업생으로써 사회에서 인정받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제도 속에 속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불안감을 계속 느끼게 된다.

사람들이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대안학교를 졸업하였음을 밝히면 이상하게 보거나 혹은 특별하게 볼 때가 이따금 존재합니다. ‘학창 시절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가?’, ‘공부를 못했나?’, ‘집이 굉장히 잘 사나 보다’ 등 이러한 편견을 마주할 때 **마치 학교 혹은 대안교육의 변호인이라도 된 듯 설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귀찮습니다.

- 09학번 졸업생 인터뷰 中

어디 고등학교 졸업했냐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부끄러워요. 그리고 남들 다 대학 갈 때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아주 가끔 듭니다. 대학교 갔을 때 동갑내기 친구 없을까봐 불안해요.

- 15학번 졸업생 인터뷰 中

두 번째. 학비와 재정 및 교사의 수급 문제

오래 전부터 대안학교가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이다. 특히나 국가 기관의 재정적인 지원이 없는 비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학부모들의 학비 납부와 CMS 후원, 각종 지원 사업 등 자체적으로 모든 자원을 충당하고 해결해야 한다.

- 학비 때문에 대안학교 못 보내겠습니다!

그렇기에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학비가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앞서 이야기한 이유들로 인해 비인가 대안학교는 학비가 비교적 높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우리가 재학 중인 비인가 대안학교인 제천간디학교 학비는 기본 학교비¹⁷²⁾ 월 47만원, 생활관비¹⁷³⁾ 월 35만원으로, 학비와 생활관비를 합한 총액은 월 82만원이다. 이는 가정 상황이나 형편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일반학교나 인가 대안학교와 비교해 보았을 때 결코 적지 않은 비용임은 사실이다. 만약 제천간디학교에 두 아이를 보낸 가정이라면 매달 164만원이 학비로 지출되는 셈이다.

대표적인 인가 대안학교 이우학교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본 결과 학비가 중고 모두 일반학교와 동일하였는데, 중학교는 의무교육 시기이므로 무상교육을 받고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 똑같이 분기마다 수업료 342,900원, 학교운영지원비 73,860원을 포함한 416,760원이라는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우리 학교에서 1개월마다 내는 학비 (82만원) 가 일반 고등학교나 인가 대안학교가 1분기마다 내는 학비 (41만원) 보다 두 배나 비싼 것이다.



‘제천간디학교’ 검색 연관 키워드 - 출처: 구글

위 사진은 구글에 ‘제천간디학교’를 검색해보았을 때 보이는 연관 키워드이다.¹⁷⁴⁾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제천간디학교를 검색하면 황소윤이나 새소년¹⁷⁵⁾ 보다도 ‘학비’ 라는 키워드가

172) 학교에서 교사진을 운용하고, 교육과정과 시설 설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

173) 식비, 간식비, 숙박비(난방, 전기 등), 생활관 시설관리비 등을 포함한 학생들의 생활에 드는 비용.

174) 2022년 3월 기준

175) 새소년은 2017년 데뷔한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소속 인디밴드이다. 당시 제천간디학교 졸업 선후배였던 황소윤 (10학번) 과 강토 (06학번) 가 주축이 되어 결성되었다.

가장 먼저 뜬다. 이는 대안학교 입학 전 정보 수집 과정에서부터 학부모가 자녀의 입학에 있어서 가장 크게 고려하고,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다른 아닌 학비 문제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 다른 자료를 보자. 위의 사진은 작년에 금산간디고에 재학 중인 한 고등학생이 금산간디고등과정 및 대안교육연대 소속 대안학교(고등과정) 학생 5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내용 중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¹⁷⁶⁾ ‘대안학교에 진학하기 전 가장 고민이 되었던 점’에서 가장 많은 표를 차지한 문항은 거주지와 먼 거리도, 졸업 이후의 진로도 아닌 ‘비싼 학비’였다. 이 문항은 전체 응답자의 무려 50%를 기록했다. 학비를 납부하는 주체인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닐 학생들 또한 입학 전부터 자신이 다니게 될 대안학교의 학비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사실, 학비 문제는 자칫하면 소위 ‘귀족학교’, ‘그들만의 리그’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게 될 우려가 동반되기도 한다. 학비가 높을수록 취약 계층 가정의 경제적 진입 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대안교육 안에서도 부의 양극화, 즉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가정에서 선호하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학교는 점점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대안교육 진영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전망을 재정 관점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¹⁷⁷⁾

176)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윤지영, 우당탕 대안학교 학생의 ‘대안 교육’ 탐구일기

177) 염병훈, 『대안교육 20년을 말하다 (양극화 사회, 대안교육은 대안이 되고 있는가?)』 (민들레, 2020) 41p

- 교사의 임금과 현실적인 어려움

이는 교사의 수급 문제와도 연결된다. 특히나 비인가 대안학교인 우리 학교는 2022년 기준 학생 107명에 교사 22명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의 규모라면 공교육에서는 연간 32억 ~ 35억 정도의 예산 운영이 필요하지만 우리 학교는 연간 11억이라는 세 배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중 1억은 제천시의 식비 지원, 장학회 운영으로 충당되고, 남은 10억 중 6억 정도가 교사들의 임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를 평균값으로 내보면 일반학교의 절반 수준밖에 못 미치는 정도이다. 대안학교 교사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감수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다. 교사의 임금을 인상하고 노동환경과 복지를 개선하는 방법은 학비 인상이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학비 또한 대안교육의 문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더 나은 교육환경과 교사에 대한 복지를 함께 이룰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세 번째. 너무 좁은 학교

- 집 가는 데 시간은 다섯 시간, 교통비는 삼 만원이 드는 학교가 있다?

한국의 대안학교는 기숙형 학교들이 많고, 기숙형 학교들은 대부분 시골에 자리잡고 있다. 도시형 (통학형) 대안학교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산골짜기 제천시 덕산면에 위치한 우리 학교에서 서울이나 경기도권, 혹은 충주 외 타지역으로 이동하려면 학교에서 덕산, 또 덕산에서 충주를 거쳐 버스를 하루에 총 세 번이나 타야 하고, 버스의 배차 간격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단 몇 대¹⁷⁸⁾ 뿐이기에 재학생들은 외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잡은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은 사회와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더욱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다양한 외부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물론 시골만이 주는 좋은 점도 많지만 앞서 말한 거리의 제약과 이동수단의 한계로 인해 학생들이 받게 되는 불편함도 그만큼 매우 컸다. 교통편이 불편해 배우던 것을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경우도, 사회와 동떨어지는 기분이 든다는 경우도, 차비가 부담되어서 쉽게 외출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냥 단순하게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봐도 외부로 나가려고 할 때 차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학교 위치 상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 해도 정말 큰 맘 먹고 한 번 날 잡아서 나가야 하는 그 상황들이 굉장히 귀찮기도 해서 잘 안 나가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사회와 너무 동떨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학생들에게는 우리 학교가 너무 하나의 세계인 거죠.

외부와 너무 심하게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어찌면 우리 학교에서만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현상일수도 있겠다 싶어요.

- 재학생 인터뷰(A) 中

분명 입학 전부터 해왔던 것들이 있고 중학교 초반 때까지 계속 이어서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꾸준히 레슨을 받으려면 주말마다 집에 두 세시간씩 걸려서 가야 했고, 이외에도 그런 거리의 제약이나 이동 수단의 불편함 때문에 그만두게 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재학생 인터뷰(B) 中

- 우물 안 개구리

이러한 문제는 지리적인 '외출 거리'의 제약뿐만 아니라,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 속 소수의 인

178) 학교에서 덕산으로 나가는 버스는 하루에 5번, 덕산에서 충주로 나가는 버스는 하루에 3번 운행한다.

원들로만 이루어진 생활에서 한계가 나타난다는 문제점도 함께 동반되었다. 외부와의 소통이 거의 없이 100명 남짓한 인원들끼리 매일매일을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학교 특성상, 학생들에게는 우리 학교가 하나의 세상이자 전부였다. 인간관계도, 고민도, 생각도, 미래도, 가치관도. 모두 학교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학생들이 그 속에서 받는 영향과 스트레스 또한 매우 한정적이고 공통적이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문제점은 너무 학교 안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물 안 개구리 같은 느낌이에요. 학생들끼리 학교 안에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별 것도 아닌 일에 크게 반응 했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사회에서 바라봤을 때 저희 학교는 정말 작은 집단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때는 제 모든 게 다 학교를 중심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관계, 생각, 행동, 제 미래 등등 모두 다요.

- 자퇴생 인터뷰 中

사회생활 해보니 학교에서 받았던 가르침이랑 다르더라고요. 사회 나가서 너는 어떻게 생활하라고 학교가 얘기해 준 것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추상적으로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민주적으로, 주체적으로 ...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추상적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저는 그래서 그냥 남들처럼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고 있는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더 약간 죄책감이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졸업생 인터뷰¹⁷⁹⁾ 中

학교를 자퇴하고 스스로 지난 시기들을 돌아보니 학교라는 작은 집단 안에만 한정된 ‘우물 안 개구리’ 같았다는 자퇴생의 이야기와, 졸업 이후 사회생활을 해보니 학교에서 받았던 추상적인 가르침과 달라 죄책감이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는 졸업생의 이야기에는 중요한 시사점이 담겨 있다. 보다 더 넓은 세상으로의 시야 확보와 현실적인 사회 학습,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아주 중요한 중고등학교의 시기에 우리 학교 학생들은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인원들과 특정한 생각만을 하며 생활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이런 특징들은 학교 사람들끼리 6년간 서로서로 돈독한 관계맺음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기에 당연하게 행해왔던 것들,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 또한 실은 익숙함이 불러온 착각일지도 모른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목차인 ‘가치 추구 교육으로 인한 맹목적인 믿음’과 2부 발제 중 ‘공

179) 이병곤, 「제천간디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 2016

동체라는 착각' 파트에서 다루겠다.

네 번째. 가치 추구 교육으로 인한 맹목적인 믿음

각각 다른 이념을 가지고 설립되었을지라도, 대부분의 대안교육 공간들은 기존의 가치가 사라지고 경쟁만이 횡행하는 기존의 공교육을 비판하고 자유, 평화, 생태, 협력 등이 살아 있는 교육을 실천하고자 한다. 우리는 그 속에서 가치지향적인 교육을 받고, '앞'이 '삶'이 되도록 노력한다. 이는 내가 배운 것들을 나의 삶 속에서 몸소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뜩이나 좁디좁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가치를 지니고 생활하다 보니 사상적인 다름을 발견하기가 힘든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특정한 지식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받아들인다. 그러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 정말로 그것이 당연한 것인가 고민해볼 기회는 부족하다. 반론이 쉽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가 있기에 공간을 만들고 교육과정을 설립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건 교사와 부모들일 수밖에 없고, 학교는 가치지향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아이들이 이러한 가치를 품고 성장했으면 좋겠다' 는 어른들의 신념 속 대상이 되기 쉽다. 어쩌면 어른들은 자신이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하여 아이들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투영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의 철학이나 교육목표를 확고히 추구하는 학교에서 배운다는 것은 대안학교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고 상당히 의미 있는 경험이지만, 답이 없는 학문에 대해 마치 한 가지 답이 있는 것처럼 가치 교육을 받는 건 학생들에게 어쩌면 스스로의 가치관을 확립해나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처음 대안적 공간을 만들 당시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가치를 무조건적인 '선'의 위치에 두면, 그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존재는 아직 깨우치지 못한 자, 혹은 '우리'가 구축한 선을 방해하는 악으로 설정될 수 있다. 악을 제거하려는 시도, 이를테면 합의되지 않은 가치나 원칙을 규칙으로 만들어 강제하거나, 다수결을 민주주의와 등치시키는 일 등은 악을 닮은 모습으로 실행될 수밖에 없다. ... 그러므로 모두가 동일한 신념과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일성의 오류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일상의 혼란을 제대로 겪을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 김민진,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활동기상청, 청소년 자립패 활동가

학교에선 당연하게 옳은 것만 배우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가치를 지니고 생활하다 보니 옳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조금 맹목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 10학년 졸업생 인터뷰 中

대안학교에서는 너무 좋은 것, 건전한 것만 가르치고 경험시킨다. 평화, 생명존중 같은 대안적 가치를 강조하다 보면, 강요 아닌 강요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적어도 대안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면...' 이라는 생각 끝에 대안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압박마저 생기기도 한다. 나 역시 대안적인 삶을 살고 싶고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며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이런 생각들도 대안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모르게 생긴, 스스로 생각하기보다 어쩌면 깊게 세뇌되어버린 생각들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 송OO, 비인가 대안학교 졸업생

교육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의 설계는 사실 그것을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어떤 방식으로든 학생들의 사고 틀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학생들이 차후에 느끼는 감정은 자신들이 어떤 '특정한' 교육을 받았고, 그것이 학교 이후의 삶에서 차이가 있게 될 경우 피해의식 혹은 타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육이란 것은 어떤 의도된 방향을 가지되, 그 의도된 방식에 얽매어서도 강조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라는 공간은 결국은 어떤 가치지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양단의 모순을 어떤 식으로 잘 풀어내갈 수 있을지가 항상 화두입니다.

- 교사 인터뷰 中

학교에서 배워 온 가치들이 틀린 것 혹은 잘못된 것이라고, 다른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이것만이 옳은 삶'이라는 맹목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왜 옳은 것인지를 명확히 알기 위해 의심을 해 볼 필요도 있고, 또 그러한 가치들이 스스로의 삶에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검증하고 생각해보는 과정은 분명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게 무엇이든, 나에게 너무도 당연했기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는 것은 스스로에게 아주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 이후, 나 스스로 옳다고 느끼게 된 가치들을 앞으로의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입학 이래 자연스레 옳다고 느끼고, 당연하게 믿어왔던 가치나 교육은 무엇이 있을까? 조금 더 시야를 넓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안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철학들 중 객관식으로 재학생들에게 설문을 돌린 결과 아래와 같은 네 가지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었다.

* 대안학교의 공통적인 키워드
- 개인의 특성을 중시한 자발적, 자기주도적인 맞춤형 학습 - 생태, 자연 친화적인 삶 (농사 수업, 푸세식 화장실, 유기농 식단) - 작은 규모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치 추구 -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 (마을 공동체)

학생들은 이러한 네 가지 철학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배워왔을까? 이것은 이후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줄까?

이것은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였을지도?’ 발제로 이어진다.

PART.2

다섯 번째. 미래와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아이들은 일찌감치 비주류의 불안감을 경험한다. 물론 삶을 살아가는 그 누구에게나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이 있지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을 걷거나 새로운 길을 스스로 내면서 가야 하는 이들이 겪는 불안감은 배가 된다.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지 못하고 졸업하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들은 대안학교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깊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학교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진로 때문이었다. 간디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경험도 하고 새로운 사람도 많이 만나고 다양한 배움을 가진다면 이 학교를 졸업할 즈음에는 나에게도 분명한 관심사가 생겨 진로를 잘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학교를 절반 정도 다닌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학교 교육과정의 방해가 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도움이 된 적도 없는 것 같다.

- 재학생 인터뷰(A) 中

그러나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도 모르겠고, 공부가 아닌 자신만의 특별한 진로 찾기를 원하는 교육과정에서 할 것 없는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떨기 바쁘다. ‘대안학교에서의 삶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는 학생에게는 그 길을 잘 닦아 나갈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 될 수도, 아무것도 하고 싶은 길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공부도, 진로 찾기도 하지 못한 채 정말 놀기만 하다 졸업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재학생들과 자퇴생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양날의 검’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실제로 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문제점이었다. 고학년이 될수록 자기주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진로에 대한 활동을 이어나가야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속에서,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길이 정해지지 않으면 뒤쳐질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고 나와는 다르게 자신의 진로를 갈고닦아나가는 친구를 보며 ‘난 왜 하고 싶은 게 없을까?’ 라는 자기검열에 시달린다. 적어도 대안학교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남들 다 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팬시리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한다.

주변에 무언가 하나에 딱 꽂혀서 쪽 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뭔가 나도 이런 거 하나쯤은 준비를 해야 하나. 그게 아니라면 그냥 기본적인 공부라도 미리 해 놔야 되는 건가... 그런 불안감이 들곤 했다.

- 재학생 인터뷰(B) 中

일반학교와 다르게 대안학교는, 제천간디학교는 정말 자신이 하기 나름이다. 뭐라도 한다면 뭐라도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제천간디학교라는 공간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한 분야에 파고들고, 미칠 수 있는 공간이다.

- 재학생 인터뷰(C) 中

내가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걸 스스로 찾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었던 간디학교의 일상과 분위기가 자퇴 이후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자유롭게 느껴졌지만 무방비하기도 했던 학교 안에서의 제가, 학교를 나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뭐라도 하자' 며 발버둥을 치며 정말 뭐라도 했거든요.

- 자퇴생 인터뷰 中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라면, 그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는 불안도 함께 이겨내야 한다. 주류사회는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남들처럼 살 수 있는 삶' 에 대한 끊임없는 유혹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대안학교가 가져야 할 가장 최소한의 역할은 사회에 나가기 1-2년 전, 진로 체험학습의 기회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일찍이 차근차근 진로 탐색과 실현 과정에서의 배움에 지금보다 더 열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여섯 번째. 민주적인 학교?

- 가족회의, 정말 '가족' 같은 회의 맞나요?

“많은 대안학교들이 아이들을 배움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참여민주적 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형식적 민주주의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욕구와 욕망을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성찰이 요구된다. 개개인의 왜곡되거나 흔들리는 욕망까지 전부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 욕구와 욕망을 솔직하게 꺼내놓고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논의로 풀어내본 경험이 많지 않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배움, 더 나아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 그 과정에서 각자의 욕구와 욕망이 거리낌 없이 표출되는 장이자 조정되고 합의되는 공간이 공동체이고, 그 과정을 비로소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다. 대안교육이 지나치게 선악을 미리 정해놓고 아이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가두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 하태욱, 건신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학과 교수

대안학교는 기존 학교에 비해 좀 더 민주적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학생, 교사 등 공간의 구성원이 발언할 수 있는 더 많은 절차와 통로들을 확보하고 있고, 이를 반영해 운영하려 노력한다. 가족회의, 식구총회 등 학교마다 그 이름은 다양하나 공통된 특징은 학교 안에서의 의사 결정 절차와 과정을 민주화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절차와 통로가 열려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실질적인 민주성을 보장하진 못한다. 학생들은 우리 학교 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의 크기 차이를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제천간디학교는 마치 작은 공화국 같은 느낌이었어요. 국가에는 정치하는 사람 따로, 일하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그 안에 기득권자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국회의원들은 썸들이고 대통령은 이사회? 저학년들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고, 고학년들은 부르주아. 그런 기득권을 전 느꼈어요. 그런 격차에서 말의 힘, 즉 파워가 나오는 거지. 권력이 생기는 거고. 교사들 사이에서는 신입 교사, 혹은 말 잘 못하는 젊은 선생님들 파워가 떨어지고. 경력이 10년~20년 넘은 썸들은 힘 있고. 설령 저학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학교를 단번에 바꿀 수는 없지요. 개들이 혁명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 졸업생 인터뷰¹⁸⁰⁾ 中

학교 내 토론장에서 권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주로 다수라는 포인트와 연장자라는 포인트이다. 다수가 채택하고 있는 가치의 논리와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이들은 줄곧 소수의 자리에 위치하기 쉽다. '의견을 내도 소용이 없다' '소수라서 안 들어줄 게 뻔하다' '특정 집단의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의견이 잘못된 의견 취급 당하거나 묵살된다' 는 학생들의 답변에서 다수가 말하는 쪽의 의견과 다를 때 자신의 생각을 공론장에서 쉽사리 얘기하

180) 이병곤, 「제천간디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 2016

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결국 선생님들의 의견 위주로 결정된다’ ‘저학년 입장에서 선배들이 의견을 강하게 내면 더 이야기하기 어렵다’ ‘마음에 안 드는 규칙이 있지만, 그 규칙을 바꾸기 위해 해야 하는 장시간의 형식적인 회의가 싫어서 의견을 내지 않게 된다’ 는 학생들의 말은 스스로 연장자의 의견과의 말의 힘 차이를 느낌과 동시에 무기력과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적인 연결성을 보여준다. 공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도 모르는 나만의 ‘특별한’ 의견을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까지 해서 제시하려는 학생은 없다. 다수가 가진 의견이 목소리를 한 번 내면 끝날 문제니까. 나보다 높은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의 의견이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으니까. 나이와 경력은 어디에서나 권력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세련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이들은 공론장에서 큰 영향을 발휘하기 어렵다.

저희 학교에는 일부 힘 있는 특정 세력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집단의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의견이 잘못된 의견 취급을 당한다든지, 들은 척도 안 하고 묵살된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의견을 내 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의견을 낸다 해도 소수라서 안 들어줄 게 뻔하니까 안 내게 되는 느낌.

- 재학생 인터뷰(A) 中

민주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회에서도 만연하게 있는 그런 권력관계들은 우리 학교에도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 재학생 인터뷰(B) 中

설령 내가 견해를 이야기 한다고 해도 바뀔 것 같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의견을 쉽게 못 내는 것 같아요. 늘 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과반수를 따르는 형태에서는 소수의 의견이 묵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 재학생 인터뷰(C) 中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오래전부터 자주 거론되는 것은 중·고 분리이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적어도 가족회의 때만이라도 중, 고를 나누어 더욱 활발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이에 따른 사소한 리스크에 대한 방안은 추후에 더 생각해보아야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진지하게 우리 학교의 민주주의에 대해, 가족회의 중·고 분리 체계에 대해 고민해볼만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사소한 것 결정할 때도 교사의 영향이 큼니다. 회의 때 "동의하십니까?" 이러면 다들 "예." 하면서 넘어가는 거고. 통과되고. 거기에 대해서 중학교 1, 2학년이 이상한 얘기하거나 그러면 보이지 않는 눈초리들을 느껴요. 저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가족회의에서 처음 말을 꺼내봤습니다. 그 전에 3년 동안 회의에 들어갔지만 한 번도 손 들고 발언한 적 없었습니다. 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거든요. 가족회의는 중, 고가 분리돼야 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여 학생들만 참여하는 전체 회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졸업생 인터뷰¹⁸¹⁾ 中

사실 제천 이주 당시에도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었다면 중고분리를 하고 싶었다. 옛날에는 이 정도의 등록금을 가지고 교사를 분배해서 배치하고 건물을 나누기까지의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었고, 그래서 설립 당시 '중·고 분리를 하는 게 맞겠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 실현을 못 시킨 것이다.

현재는 아무리 통합 학급반 운영을 한다 해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시선과 생각은 차이가 너무 큼을, 그리고 그렇기에 오는 문제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발달 정도도 너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도 다르다. ... 적어도 가족회의 정도는 중, 고를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양희창 (제천간디학교 초대 교장, 대안교육연대 전 대표) 인터뷰 中

이 문제점은 타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였다.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특성화 대안학교 '이우학교'에 재학 중인 한 재학생은 "(대안교육에) 기대한 점이 있는데 생각과는 달라 실망한 부분이 있다면?" 이라는 인터뷰 질문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이러한 대안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발판 삼아 대안을 실천하고, 대안적 교육공간을 꾸려가는 데 학생들이 얼마나 동등한 주체로서 있는지, 민주주의가 얼마나 생활 속에 자리잡아 있는지 자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 특성 때문에 이우에 10년 이상 근무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다. 경험이 많다 보니 교사회끼리 판단하고 이야기 나누는 상황이 많이 일어난다. 학생들의 의견이나 목소리가 잘 공론화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때가 꽤 있다.

- 타 대안학교 (이우학교) 인터뷰 中

181) 이병근, 「제천간디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 2016

- 교사의 경우?

“교사들 사이에서는 신입 교사, 혹은 말 잘 못하는 젊은 선생님들 파워가 떨어지고. 경력이 10년 ~ 20년 넘은 쌤들은 힘 있고...” 라는 앞선 졸업생 인터뷰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이것이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님이 드러난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연장자, 즉 경력이 오래된 교사일수록 대화의 장에서 실질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크고,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신입 교사일수록 쉽사리 주장을 펼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학생교육뿐만 아니라 교사교육에서도 ‘말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했다. 특히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교사들의 경우 지적받는 게 두려워 발언을 멈추거나, ‘결국은 내가 미숙해서 벌어지는 일이니 내가 극복해야 되는 일’이라 느낀 경험을 갖고 있었다.

- 박민진,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활동기상청, 청소년 자립팜 활동가

‘민주적’임을 추구하고 늘 운운하는 학생-교사-학부모 삼주체가 동등하게 주체성을 나눠가지고, 나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학생, 교사 따지지 않고 모두가 말이다.) 학교에서 누구나 균등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실질적인 문제인 만큼,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일곱 번째. 공동체라는 착각

- 관계에 대한 지침

대안학교는 교육공동체다. 어린 나이에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을 적절히 사용하는 게 서툴러 개인시간이 부족하고 에너지를 충전할 틈이 없다. 특히나 기숙사형 대안학교의 경우 빈틈없이 24시간 동안 100명 남짓한 사람들과 계속해서 부딪히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지칠 때가 많지만 그에 반해 쉴 수 있는 개인 공간과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받을 권리는 온데간데없는 현실이다.

저는 혼자만의 공간이나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 저에게 모두가 모여 사는 기숙사는 즐겁기도 했지만 그만큼 많이 힘들었던 장소이기도 해요. 각자 저마다 청결의 기준이 있고, 혼자 생활할 시간이 필요하고, 싫은 사람은 멀리 하고 싶는데 기숙사는 그것들이 불가능해요.

홈스테이라는 선택지가 있지만 가능한 인원이 적었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과 24시간 내내 얼굴 봐야 했고, 누구와 같은 방을 쓰는지에 따라 방의 청결도가 극과 극이었어요. 복잡복잡한 기숙사에서 혼자 있을 시간도 물론 없었고요.

- 자퇴생 인터뷰 中

나는 공동체 생활을 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운 것 같다. 그렇지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의무적으로 함께해야하는 것들도 많을 것이고, 특히 한창 관계에 대해 고민이 많은 저학년 때는 대다수가 개인 공간과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관계에 집중하기 바쁘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보장 받지 못할 때도 많고. 자는 시간 빼고 거의 매일 똑같은 사람들과 붙어있다 보니 거기서 나오는 스트레스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재학생 인터뷰 中

또 치열하게 관계 맺기를 요구받는 학교생활은 스스로에게 휴식이 필요한지 생각할 여유가 없게 만든다. 우리 학교의 경우는 기숙사형인 데다가, 3년 교육과정이 아닌 중고통합 6년제 교육과정이라는 점도 크게 한몫을 한다. 똑같은 사람들과 6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같은 공간에서 지내야 한다는 사실에 관계맺음으로부터 부담감을 느끼고, 사람들과의 완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알아서 잘 살아남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떨어져 지내는 것에 불가능하고, 매일매일 똑같은 사람들과 24시간 마주하며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야 한다. 보이지 않지만 일반학교에서보다 더욱 더 관계 맺기에 아등바등 목매고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학생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어온 것

교육 뿐 아니라 관계 등 여러 지점에서 공동체라는 이름에 묵인됐던 문제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 적도 있는 거 같아요.

- 10학번 졸업생 인터뷰 中

우리 학교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느끼는 우리 학교에서 말하고 있는 공동체는, 공동체 안의 '개인'은 무시되는 느낌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가족들보다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가족끼리도 그렇게까지 간섭하지 않는다. 지금보다 좀 더 '개인'에 대한 견해가 존중 되어야 된다.

- 재학생 인터뷰(A) 中

사실 저는 '공동체 안의 개인이 사라진다고 느꼈을 때'의 대표적인 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 사적인 외출이 힘들었다는 점 같은데, 나에게 분명 소중한 것들은 각자가 다른 거잖아요. 그 외출이 누군가에게는 공동체의 어떤 활동보다 중요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같은 학교의 공동체로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더 중요시해야 하는 걸 학교에서 정해버릴 때 굉장히 개인이 많이 희미해진다고 느껴요.

- 재학생 인터뷰(B) 中

학교에서는 단체 생활과 공동체 정신을 중요시하다 보니, 나에게 더 소중한 것,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공동체의 활동이 무조건적으로 우선시되고는 하는데 학생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공동체 속 개인(나)이 사라진다' 라고 느끼기도 한다. '도대체 공동체가 뭐길래 개인의 자유까지 침범하며 지켜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현재 학생들에게 공동체라는 단어가 주는 역할이 본래의 본질, 교육목표에서 벗어나 '규칙이나 시스템으로 작용될 때의 쓰임'에만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그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들춰보면 '공동체'라는 이름에 갇혀 우리 사이에서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묵인되어온 부조리한 것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먼저, 작년부터 현재까지 활발하게 토의가 진행 중인 가족회의 고백 제도 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누군가 공동체가 함께 정한 규칙 (먹거리, 전자기기 등) 을 어긴 사실이 발각되면 어김없이 고백합시다 시간에 올라가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다 같이 정한 공동체의 약속인데 저의 책임감 없는 행동 하나로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려 죄송합니다.”

제천간디학교는 규칙을 어기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모두의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한다. 그렇다면 잘못을 뉘우치고 책임지는 행동이 왜 공개 사과일까? 아마 ‘공동체’라는 단어가 쉽게 떠오를 것이다. “공동체가 함께 정한 규칙을 어기고 순간의 안일한 판단으로...” 사과문에 단골로 등장하는 문장이다. 이 같은 문장을 봤을 때 공개 사과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동체가기 때문’이다. 함께 정한 공동체의 약속을 저버렸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실망을 안겼기 때문에 공동체(모든 학생, 교사) 앞에서 잘못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공동체’라는 가치는 특정한 때와 장소에서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가 공개 사과다. 공동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운 적도, 얘기해본 적도 없는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걸까? 어쩌면 공개 사과를 해야 할 마땅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 공동체라는 적절한 핑계를 댄 것은 아닐까? ‘공동체’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 좋은 방법이 된다. 동시에 구성원들의 숨통을 조이는 채찍이 된다. 토론되지 않는 가치가 전수되기만 할 때 그 가치는 허상이 되어버린다. 공동체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부족한 우리가 특정한 때와 장소에서 계속 공동체를 언급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¹⁸²⁾

고백합시다에 올라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고 반성해 말 그대로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형식상 법무부의 절차대로 올라가는 느낌이다. 고백합시다란 간디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자리이기보다 그냥 단순하게 겁주기용 제도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족회의의 절차라고 생각한다. 이런 방식이 계속 반복된다 보니 규칙을 어기는 학생은 계속 어기게 되고, 공동체의 약속을 가볍게 볼 뿐만 아니라 고백합시다에 올라오는 학생과 고발자, 법무부 부원 간에 갈등도 적지 않게 보인다. 공동체라는 명목 하에 규칙을 어긴 사람의 죄를 단정하고 100여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져 형식적인 사과문을 읽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이젠 문화라는 틀에 박힌 너무나도 무감각해진 방식에 조금씩 의문이 든다.

- ‘고백제도를 고발합니다’ 재학생(A) 의견 글 中

공동체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나는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다. 공동체는 계속해서 나에게 모호한 것이었다. 어느 정도 형태는 잡히지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스태프회의와 공개사과, 핸드폰을 3번 끄지 않으면 가족회의에서 사과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공동체가 뭐길래 우리가 이러는 거지?’ 라는 평범한 의문을 가졌다.

- ‘고백제도를 고발합니다’ 재학생(B) 의견 글 中

182) 「고백제도를 고발합니다」 발췌.

더불어 이와 관련된 또 다른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스탓회의¹⁸³⁾다. 우리 학교에서는 스탓회의의 구조나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점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되어오고 있는 중이다. 가장 최근에만 보더라도 2020년에는 한 3학년 학생이 논문 과정으로 남자 기숙사의 도난과 집단 심리, 불합리한 스탓회의 구조에 대해 실화 기반 소설¹⁸⁴⁾을 쓰기도 하였으며, 2021년에는 신규 학생회 부서로 ‘도난부¹⁸⁵⁾’가 새롭게 개설되었을 정도로 학생들의 스탓회의에 대한 회의감은 늘 끊이지 않았다.

공동체에는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권리는 별로 없어요. 가족회의를 해서 정한 규칙을 어기거나 어떤 사건만 터지면 전교생이 한 자리에서 끝날 때까지 얘기를 합니다. 기숙사에서 도난 사건이 터졌다 하면 물건 훔친 사람이 고백해 줄 때까지 끝장 회의를 하고, 때론 단체로 굶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학교가 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이잖아요. 문제는 이런 일을 지향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의 선택권이 없단 말이죠. 제가 싫으면 자퇴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학교 안에 있으려면 그런 일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제 가치관에 잘 맞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 졸업생 인터뷰 中

내가 도난 사건이 일어난 날, 그 시간에 기숙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끌려와서 계속 앉아서 쪽지 돌리면서 다음 날 일정에 지장이 갈 때까지 새벽까지 스탓회의를 하니깐 난 자고 싶은데 왜 이려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 개인으로써 존중받지 못한다는 기분이 들었다.

- 재학생 인터뷰 中

도난 스탓회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붙들고 매일 반복되는 의미없는 시간들을 하염없이 보낸다는 것이다. 물론 스탓회의를 통해 사건이 명확히 잘 해결될 수만 있다면야 아주 좋겠지만, 우리가 현재까지 해왔던 스탓회의는 본래의 방향성을 잃은 지 오래다. 스탓회의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사건 설명을 듣고, 누군지도 모를 범인의 사과 쪽지를 받기 위해 수십명이 익명쪽지를 돌린다. 빈 쪽지를 들고 방에 들어가서 한 사람씩 범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작성하거나, 자신이 범인이라고 고백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당연하게도 그렇게 해서 범인이 바로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고백쪽지 돌리기는 ‘언제나 늘 그렇게 해 왔기에’ 의례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행위에 가깝다.

183) 도난, 폭력 등 공동체에게 공유되어야 하는 사건 (주로 8할은 도난이다.) 이 일어나면 전교생 모두가 각자 하던 일을 멈추고 한 자리에 모여 하는 회의.

184) 허찬술, 『절대다수』

185) 도난에 관련된 방지 캠페인, 사건 해결 과정, 스탓회의 진행 등을 도맡아 한다.

결국 범인의 사과를 받지 못한 우리는 또다시 등글게 모여앉아 한 명씩 돌아가며 ‘제발 나와주세요.’,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싫어요.’ 같은 말들을 똑같이 반복하다가 이 사건에 대해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길고 긴 새벽을 보내고는 한다. 6년간 이 틀에서 벗어난 도난 스탓회의를 겪어본 적이 없을 만큼 과정과 결론은 모든 스탓회의가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겨운 회의를 매일 반복하다가 가정학습이나 방학이 오면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흐지부지가 되며 마무리된 사건도 한 둘이 아니다.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언제 끝날지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회의를 새벽 서너시까지 반복하는 일은 모두에게 폭력적이고,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지만 ‘공동체’ 라는 이름의 명분이 붙는 순간 스탓회의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 이 되어버린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부조리함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도난 사건이 과연 우리 공동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취하고 있는 대처방식은 옳은가? 명백한 범죄 행위를 공동체라는 이름에 묵인시켜가며 가벼이 보고 있는 것은 아니었나?

분명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을 같이 해 나가는 게 좋지만, 가끔은 우리 내부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도 공동체라는 이름에 묶여 너무 우리끼리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떠한 잘못된 행위 자체가 되게 가 법계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 만약 성 사건 같은 게 일어났을 때, 큰일임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숨겨야 되는 일처럼 여겨지거나 덮고 가려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느꼈어요.

사회에서 범죄라고 불려지고 있는 사건들조차 우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좀 많이 문제가 있다고 느껴요. 그건 해결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냥 쉬쉬하고 덮어버리는 것 아닌가. 솔직히 죄를 제대로 물어야 할 것들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재학생 인터뷰 中

오래전 학교 학생이 주변 마을 집을 전부 다 털었던 적이 있었다. 우리 집에도 상습적으로 몰래 들어와서 돈을 다 털어가기도 했다. 그건 단순한 도난이 아니라 도벽이라는 병이다. 호기심에서 시작한 행동이 상습이고 악질이 되면 전과자가 된다.

그 때의 우리에게겐 한시라도 빠르게 경찰 개입이 필요했던 것 같다. 지금 돌아보면 우리 공동체 내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을 가지고 왜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지 모르겠다. 스타트업 회의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굉장히 폭력적이다. 성폭력 문제나 도난 사건은 절대 우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상습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의 개입(전문가의 상담, 경찰 조사 등)을 필요로 해야 한다.

- 양희창 (제천간디학교 초대 교장, 대안교육연대 전 대표) 인터뷰 中

양희창 선생님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붙잡고 있었음으로 인해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회고한다.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때와 달라진 것을 찾기 힘들다.

앞선 학생들의 사례는 '공동체성'이라는 이름의 '억눌림'을 개인이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를 잘 전해준다. 한 교사는 '개인이 공동체에 존속되는 것은 아닐지 돌아보아야 한다' 라며 교사들 사이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공론화시킨 바가 있다.

기숙사 생활의 어려운 단면에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안에서의 정 사이에 도사리고 있는 긴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녹아들어 있다. 결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숙제이다.¹⁸⁶⁾ 다만 우리가 맞닥뜨린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공동체,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는 무엇인지 확립해가는 과정 자체만으로 우리는 한 발짝 더 옥 더 '공동체로써'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에게 필요한 공동체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일까? 공동체 없는 개인은 있을 수 없고, 개인 없는 공동체는 불가능하다. 역설적이게도 공동체와 개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처럼 늘 함께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공동체는 함께 살고자 하는 이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동의 가치와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함께하는 공간과 개인적 공간, 상호간의 거리에 대한 감각, 그리고 이에 대한 깊은 통찰이지 않을까. 함께 사는 새로운 사회성을 만들어내면서도 각 개인의 자유와 권리들이 보장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한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이익 사이를 잘 조정해가며 앞선 문제점들을 묵인하지 않고 말뿐만이 아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그때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라는 열린 울타리를 만들어내고, '나'를 위한 공간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는 만남과 거리와 공간에 대한 이야기이다.

186) 이병곤, 「제천간디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 2016

<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였을지도? >

여는 글

공교육에서 벗어나 간디학교에 처음 발을 디딘 아이들은 처음 경험하고 처음 배우는 것 투성이이다. 실제로 대안교육 팀에서 제천간디학교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모든 학생들이 부모님, 아니면 지인의 영향으로 학교에 입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결정했다하더라도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벗어난 “비주류”의 인생을 이룬 나이에 경험한다는 것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못했으리라 생각한다.

각각의 이유로 기존 공교육을 거부하며 온갖 불편함을 겪어지면서까지 입학한 간디학교에서는 공교육보다 더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경험하게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해서 교육과정과 학교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재점검하며 하나하나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간디학교에서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점 (당연하다고 교육해 왔던 가치들) 들이 20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도 가치가 있는지 교육과정을 한 번 더 검토하고, 그런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과연 예전과 바뀐 세대의 학생들은 학교의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발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재학생들이 당연하다고 배워왔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몇 명이 있는지 재학생을 81명을 대상으로 객관식 투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Q. 간디학교를 다니면서 당연하게 맞다고 배운 것과, 당연하게 맞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지역사회 (마을공동체) 35명

공동체 68명

자발성 / 자기주도적 학습 50명

친환경, 생태적인 삶 42명

학생들이 설문에서 응답한 4가지의 가치들에 대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느끼는지 각 파트마다 다르게 구성된 a 그룹과 b 그룹을 나누어 각각 2명씩 인터뷰를 하여 알아 보았다.

1.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 (마을 공동체)

1) 우리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배워왔는가

지역사회와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는 입학한 직후 바로 경험하게 된다. 이제 갓 입학한 1학년들은 마을 주민분들께 떡을 돌리는 문화가 이어져 오고 있다. 단순히 마을에 먼저 거주하시던 주민분들께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전통에 의해 행해지는 단순한 행위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을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서로 공존하는 문화를 배우는 첫걸음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문화를 배우는 방식은 매년 이루어지는 마을 대청소¹⁸⁷⁾도 포함된다.

본격적으로 지역사회와 마을공동체를 심화로 배우는 교육과정은 4학년(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경제교육이 있다. 경제교육은 지역사회뿐만이 아닌 협동조합, 다양한 사회적 기업(해외 사회적 기업 등등)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쌓아가며, 그러한 지식과 이해를 하고 작업장 교육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몸소 느끼게 해준다. 따라서 이는 이후 있을 작업장 교육과 진로활동을 하기에 앞서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마을이 곧 학교이고, 마을이 세계를 구할 것이라는 간디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을공동체 속 학교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덕산면에는 졸업생, 재학생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한 귀농, 귀촌인 모임 <마실>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지역 내 <농촌공동체연구소>는 졸업생들이 이끌 어가는 '누리마을 빵카페'를 운영합니다. 학교는 이 단체들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나가며 배움과 환대, 돌봄, 나눔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마을 공동체와 대안적인 삶의 공간들을 찾아 볼 수 있는 교육과정(5,6학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교소개자료집 제천간디학교 기본 특성 중

2) 학생들은 어떻게 느끼는가

위와 같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사실 같은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모두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각자의 삶이 있고 역사가 있다. 무엇을 배웠고, 그러한 교육의 경험 속에서 무엇을 느끼는가는 오로지 본인의 영역이며 그것만은 교육이 강제할 수 없다.

본격적인 지역사회, 지역공동체에 대해 배우는 4학년 이후 5학년 때부터 진행되는 진로 활동(개인무빙¹⁸⁸⁾, 인턴십)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지역사회 교육이 학생들의 진로 활동에 미치는

187) 전교생이 구역을 나누어 도끼, 기숙사 가는 길, 저수지 가는 길에 쓰레기를 치우는 활동이다.

188) 고등학교 2학년 때 진행되는 교육과정이다. 학생들이 각각 외부 단체에서 3주 동안 일하는 과정이다.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4, 5, 6학년 교육과정을 경험해본 6학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 질문을 a 그룹과 b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2명씩 인터뷰를 진행했다. 첫 번째 그룹은 개인무빙이나 인턴십을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것을 주제로 다녀온 6학년, 졸업생을 인터뷰하였고, 두 번째 그룹은 반대로 지역에 불편함을 느껴서 인턴십 지역을 서울로 다녀왔던 학생을 인터뷰하였다.

(1) 지역/도시로 진로활동을 하게 된 동기

나는 학교와 집 모두 지역이라서 지역에서의 삶이 익숙하고, 지역에서 사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다. 하지만 막상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당연하게 '도시에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도시에 모든 인프라가 모여있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지역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해서 지역에서 살아가는 나의 미래가 잘 안 그려졌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래서 지역에서 사는 청년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a 그룹 인터뷰 中

개인무빙 단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서울에 몰려있다고 생각했다. 지역(지방)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매우 한정적이라는 걸 깨닫고, 지방 거주자로서 억울함이 조금 생겼다. 언젠가 서울에서 일할 텐데 개인무빙까지 서울에서 하지는 말자고 결정 내렸다.

지역을 고를 때는 아무래도 지낼 곳이 보장된 집 근처로 알아봤다. 충북권에서 단체를 찾다가 지역은 교통편이 없으니 충주로 좁혀 단체를 찾았다. 충주에 살지만 덕산보다도 낯선 동네였기에 '충주를 내 지역으로 만들자!'라는 나름의 포부도 있었고, 내가 사는 곳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인연을 맺고 싶기도 했다. 수도권에서 3주 동안 지낼 곳을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 a 그룹 인터뷰 中

지역에서 진로 활동을 했던 학생들도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본인이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자신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인연을 맺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했으며,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학교와 집이 지역이다 보니 도시에서 개인무빙, 사회체험학습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매우 컸던 것 같다.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지역에서는 못 하는 것을 도시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도시로 가고 싶었던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다. 문화생활도 컸다.

- b 그룹 인터뷰 중

반면 b 그룹의 학생은 거주지와 학교가 모두 지역이기에 도시에서 진로활동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컸다.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지역에서 하지 못 하는 일들을 도시에서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2) 학교의 지역사회 교육과 본인의 진로활동의 연관성

사실 학교에 다닐 땐 끼워 맞추었던 것이 더 크다. 개인무빙 보고서를 들춰보면 '마을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청년들은 더 나은 삶의 방식에 대해 모색하고 이에 걸맞은 활동들을 이어 나간다. 청년들을 비롯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마을과 함께 연대하며 더불어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나간다.'라는 답을 냈다. 더불어 행복한 삶을 꿈꾼다는 것, 함께 어울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고민한다는 점에선 학교 가치와 닮아있는 점이 있다. 한편으로는 학교가 말하는 가치에 맞추기 위해 별수 없는 연관을 지었나 싶기도 하다.

- a 그룹 인터뷰 중

아무래도 학교 교육과정이고, 개인무빙은 특히 학교 철학과 관련된 곳을 권장하는 면이 있어서 연관이 없진 않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가치를 배우고 그것을 통해 지역을 정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생태, 지속가능성 같은 가치와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학교에서 지역사회와 관계 맺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거나 경험한 것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 a 그룹 인터뷰 중

단체를 정할 때 학교에서 배운 가치를 고려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무의식중에 '지역에서 사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학교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배워왔고, 그래서 무조건 도시로 나가는 것보단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 a 그룹 인터뷰 중

딱히 학교에서 교육된 것으로 나에게 무언가 연관성이 있지는 않다. 그냥 학교 살면서 시골이 너무 불편해서 사소한 것이라도 인프라를 원했다. 하지만 교육으로 인한 영향보단 그냥 오랫동안 덕산이라는 지역에서 살아보니 정은 많이 있는 것 같다.

- b 그룹 인터뷰 中

a 그룹과 b 그룹의 학생들 모두 학교의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이 학생들의 진로 활동에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3) 지역에서 활동하며 느낀 점

“지역에도 이런 단체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개인무빙 간 단체에서 서울에서 진행하는 장터에 참여했을 때 “역시 서울은 규모가 다르구나.” 싶었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평균연령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소년 단체나 청년 단체는 수도권 아니면 정말 큰 도시에만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근데 지역의 평균연령이 높다는 건 새롭게 확실히 확인했다.

- a 그룹 인터뷰 中

지역에서 살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에서 살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또래 청년이 없어서 심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편견과 달리 금산에서 본 청년들은 매우 바빴고, 관계망이 넓었으며,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던 ‘공동체’를 실현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덕분에 지역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졌고, 지역에서 청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지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a 그룹 인터뷰 中

(4) 도시에서 활동하며 느낀 점

인터뷰를 위해서 도시로 갈 때, 단체들의 대부분이 도시에 몰려 있기 때문에 단체의 접근성은 좋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도시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고, 지역은 아무래도 좁고 할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

- b 그룹 인터뷰 中

확실히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더할 나위 없이 만족했다. 교통편도 잘 마련되어있어서 굉장히 편했다. 지역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만족했다. 하지만 숙소를 정할 때 비용적인 부분에서 서울은 유난히 비싸서 많이 부담스러웠다.

- b 그룹 인터뷰 中

서울의 몰려있는 많은 단체들의 접근성과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만족했지만 서울의 비싼 집값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 그래서?

인터뷰 결과 학교의 지역사회교육이 진로 활동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 학교의 교육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니고 있었던 자신의 가치관에 가까운 것이다. 실제 인터뷰 결과 자신의 미래와 지역사회에 대해 연관을 지어보았을 때 우호적인 의견을 냈던 학생들은 모두 수도권에서 거주 중이 아닌 지역에서 사는 학생들이었다.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분명 학교에서부터 시작된 교육이 학생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인터뷰 답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 한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으로 인한 형성된 가치관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오랜 시간동안 지역에서 살아오며 형성된 가치관이 진로활동에 있어서 끼치는 영향이 컸다.

그렇다면 지역사회, 마을공동체 같은 교육이 왜 이렇게 학생들에게 와 닿지 않는 것일까? 첫째는 현재 지역이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에 비해 학교에서 진행되는 지역사회 교육이 다른 사회 문제들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실제 학교에서 새롭게 배우게 되는 가치라고 하면 학생들은 친환경, 기후 위기, 페미니즘, 동물권 등을 떠올리는 게 대부분이고 학생들의 관심도 그쪽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는 학교와 학생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문제를 공유하는 것처럼 영상이나 다양한 미디어 매체들을 접하는 게 중요하며, 그 외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둘째는 학생들의 외면이다.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상당수가 뽑은 대안학교의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너무 좁은 학교”이다. 이는 즉 앞선 ‘대안학교가 맞닥뜨리고 있는 일곱 가지 문제점’ 파트에서 발제한 것처럼 학생들은 진로 활동과 생활에 있어서 시골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제천간디학교에서 보내는 6년 동안 시골에 살면서 시골의 단점을 생활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며 학생들은 더욱 도시의 인프라를 갈망하게 된다. 지역사회의 청년 부족, 고령화 등 지역의 사정을 알고 있고, 이것이 바뀌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도, 지역에 대한 불편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은 도시를 갈망하게 되며 지역을 외면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학교 차원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이 수도권 지역에 몰리지 않고 지역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적으로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메리트가 있어야한다. 학교 차원에서도 덕산이라는 지역에 대한 다양한 교류와 활동을 지속해서 이뤄 나가야하며 학생들이 덕산이라는 지역이 자신의 지역으로 인식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 생태, 자연 친화적인 삶

1) 우리는 어떻게 생태적인 삶을 실천해왔을까

친환경, 생태주의는 학교가 지향하는 가치 중 학생들의 활동과 관심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치 중 하나이다. 학교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제로웨이스트, 비거니즘, 기후 위기와 같은 자연 친화적인 분야들의 관심과 마케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자주 접하는 젊은 세대인 학생들은 생태주의를 많이 접할 수밖에 없다.

(1) 기숙사 생활

기숙사에서는 규칙 목록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제품을 쓰지 않으며 세제 및 미용용품(샴푸, 린스, 비누, 치약 등)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일반제품을 쓰지 못하고, 대부분 자연드림, 초록마을, 비누공장 등 환경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기업의 제품을 사용한다.¹⁸⁹⁾

(2) 학생회 (환경부)

학생들의 자연 친화적인 생활과 분위기를 끌어내기 위해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학생회 부서인 환경부¹⁹⁰⁾를 필두로 많은 친환경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만든 친환경 제품리스트, 유해성분 리스트를 홍보하며, 기숙사 내에서 일반제품을 검사하는 활동을 지속해서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친환경 제품(샴푸, 치약, 대나무 칫솔, 친환경 스크럽 등)을 공 구하기도 한다. 이외에 환경주간 캠페인, 방학 때 진행되는 ‘슬방보(너의 슬기로운 방학생활을 보여줘¹⁹¹⁾’ 등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한다. 기후 위기의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기후 위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기후 위기 비상 행동 집회를 다녀오기도 하였다.

(3) 친환경 먹거리

제천간디학교는 친환경 먹거리를 지향한다. 학교 식단에서 볼 수 있듯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식자재를 사용하며 수입산 식자재, 인스턴트 식품은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학교, 기숙사에서는 개인적으로 구매한 과자류는 섭취할 수 있으나 라면과 배달, 포장음식은 섭취할 수 없도록 규칙으로 명시되어있다.¹⁹²⁾

189) 간혹 일반 샴푸를 몰래 사용하는 학생들은 환경부의 관리 하에 잠시 압수하고, 1주일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어서 집에 갈 때 스스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190) 환경부는 집행부 소속으로 학생들과 함께 지속해서 트렌드에 맞추어 다양한 활동을 이끌어내는 부서이다.

191) 방학 중 제로웨이스트(생활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운동)를 실천하고 있는 간디인의 모습을 메신저로 공모받아 환경부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방식의 프로젝트.

192) 금지된 일반식품을 섭취 할 시에는 책임수행을 하게 된다.

(4) 생태 화장실 ~2021

제천간디학교 개교 이후 2021년까지 재래식 생태 화장실을 사용해왔다. 잘살아보세¹⁹³⁾의 관리하에 매주 똥 푸기 당번을 정해 매일매일 똥푸기¹⁹⁴⁾를 하게 되며 한 학기에 전교생이 모두 똥 푸기를 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는 생태화장실의 구조적인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되었다.

2) 생태주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역사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인터뷰에서도 평소 환경과 기후 위기에 관심이 많은 학생은 a 그룹으로, 반대로 학교의 생태교육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학생들을 b 그룹으로 나누어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 a 그룹 >

(1) 입학 이전의 삶

입학 전 초등학교 때는 환경이라기보다는 '유기농 식품 같은 제품을 먹어야 한다' 약간 이 정도였다. 그냥 학교에서 유기농 식품이 계속 점심으로 나오니까 그 정도만 알고 있었고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 완전 조금 알고 있었다.

- a 그룹 인터뷰 中

시골에서 살기도 했고 내가 살던 마을의 공동체라든지 주변 분들도 다 유기농 농사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생태가 중요했고, '제로웨이스트 같은 삶을 살아야 해'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그런 생태적인 삶이나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다.

- a 그룹 인터뷰 中

a 그룹의 학생들은 입학 이전에도 학교에 의해서든 주변 환경에 의해서든 생태적인 삶을 실천해왔던 학생들이었다.

193) 학생회 부서 중 하나이다. 학교청소와 학생회물품을 관리하는 활동을 한다.

194) 생태 화장실 아래 배변이 쌓여있는 똥통을 비우고 청소하는 활동

(2) 새롭게 알게 된 점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살면서 저절로 알게 됐던 것 같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여러 문제에 맞닥뜨리는 건 학교를 통해서였던 것 같다. 동물권도 있고 페미니즘이나 케어 같은 것들도 조금 다양하게 알게 됐는데 ‘사실 학교가 직접 나한테 가르쳐줬나?’ 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건 없었다. 결론론적으로 학교가 한 건 없지만 사실 학교라는 역할 자체가 이런 거를 이어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학교에 와서 이런 거를 접할 수 있었고 학교가 이런 인연을 맺어 준 거고 그런 게 대안학교의 장점 같은 게 아닐까 싶다.

- a 그룹 인터뷰 中

학교에 들어와서 청소년 기후 위기 행동을 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한 강의를 듣고서 이런 기후 위기가 문제라는 걸 알게 됐고 이어서 청소년 기후 위기 행동의 활동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학교가 교육과정으로 생태적인 삶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그 교육과정을 따르면서 실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테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예민하다.”라고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학교에서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a 그룹 인터뷰 中

학교가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강의와, 활동을 진행 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아쉬운 점

우리 학교가 설립된 지 오래됐는데 그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단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가 있어서 그동안 고수해오던 것들을 쉽게 바꾸지 못한다든가 그런 면에서는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나아가 더 무엇보다 생태적인 삶을 중시하면서 정작 학생들이 학생들의 먹거리 문화나 아니면 급식에서 고기가 많이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생태적일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

- a 그룹 인터뷰 中

학교가 환경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뭔가 수업을 연다던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 생활 속에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만든 부분이 크다. 그런 환경 부분에 있어서 생태 화장실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생태 화장실이 축소되면서 뭔가 환경 교육에 이런 빈 공간이 너무 크게 생겼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열고 내가 이걸 교육받았다.' 라는 느낌보다는 '실생활에 녹여 있는데 티가 안 나고 공감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커서 이런 환경 교육에 있어서는 학교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거기다가 생태 화장실 까지 없어졌으니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는 학교가 잘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

- a 그룹 인터뷰 中

a 그룹 학생들은 현재 학교에 생태교육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환경을 더 생각하며 학교 생태교육이 발전해야한다고 생각했다.

< b 그룹 >

(1) 새롭게 알게 된 것, 달라진 관점

학교에 오기 전에는 아예 몰랐다. 아무래도 이런 학교에 오다 보니까 기후 위기나, 환경 파괴에 대한 걸 많이 접하게 되니까 뭔가 쓰레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사실인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좀 불안하기도 했다. 이게 내 몸으로 좀 느껴지기도 하니까 더욱 그랬다. 옛날에는 별다른 생각이 안 들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계절 온도 차가 너무 심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했고, 이대로 가면 뭐 내가 돈을 많이 벌든 뭘 하든 나중에 가면 다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 b 그룹 인터뷰 中

환경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 초등학교 때는 탄소배출 이런 게 뭔지도 몰랐는데 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웠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떻게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우리가 생태적인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실현 가능할지 배워나가는 것 같다.

- b 그룹 인터뷰 中

학교의 생태교육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던 b 그룹의 학생들도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환경,

기후 위기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의 자신의 미래에 어떻게 해야 생태적인 삶이 녹아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봤다고 한다. 학교 생태교육에 부정적이라고 해서 환경 문제 자체에 대하여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2)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진짜 생각해 보면 선배들의 영향이 좀 큰 것 같다. 특히나 먹거리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다. 저학년 때 선배들이 학교에 먹거리 규칙을 엄청 싫어해서 항상 욕을 했었다. 나는 “저게 맞나보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도 욕을 했었다. 그런 선입견들이 쌓여서 생태적인 인식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오히려 생태 화장실이나, 친환경 샴푸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너무 생태적인 삶을 몸소 실천하게하려고 하고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크니까 오히려 반감이 생겼다.

- b 그룹 인터뷰 中

사실 우리가 먹고, 사용하는 것들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고 있고 잘 실천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강요하는게 너무 많아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먹거리, 세면도구 등등 학교에서 강제로 시키고 어기면 책임수행 시키고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럽다. 각자 자신이 스스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일단 시키고 본다.

- b 그룹 인터뷰 中

b 그룹의 학생들 전체가 자신이 생태교육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학교의 강제적인 부분 때문이라고 답했다. 학교의 먹거리 규칙, 일반 세면도구 규제 등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반감을 불러온 것이다.

3) 그래서?

인터뷰에서도 볼 수 있듯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과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활동에서 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온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학교의 생태교육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던 b 그룹의 학생들을 인터뷰한 결과 입학 전에는 환경이나 기후 위기에 대해 전혀 몰랐던 학생들도 학교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학생회에서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캠페인이나 환경부 발표를 경험하며 높은 수준의 환경, 기후 위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오로지 학교의 교육방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며 환경, 기후 위기 등 학교의 지향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았다.

평소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고 다양한 활동을 해오던 a 그룹 학생들은 지역사회 a 그룹과 마찬가지로 입학 이전부터 환경, 기후 위기에 관심이 있던 학생들이었다. 이전부터 환경에 대

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학교의 교육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들로 이루어진 커뮤니티로 인해 다른 학생들과 소통하며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여러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학교가 한 건 없지만 사실 학교라는 역할 자체가 이런 거를 이어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학교에 와서 이런 거를 접할 수 있었고 학교가 이런 인연을 맺어준 거고 그런 게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학교의 장점 같은 게 아닐까. 장점이 있는 특징 같다.”

재학생 인터뷰 中

인터뷰에서도 볼 수 있듯 학교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무언가를 접목하게 도와주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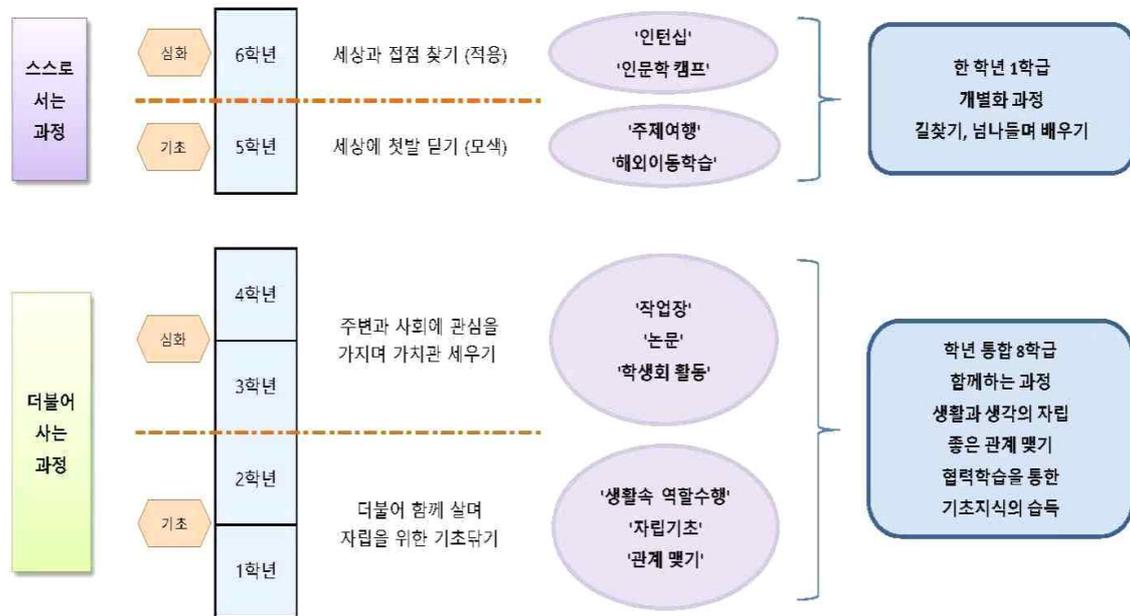
많은 학생과 소통해보고, 이외 몇 명의 학생들을 인터뷰해본 결과 학교의 생태교육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이유는 학교의 강제성이었다. 학교에서 생태적인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에 불만을 느끼는 것이다. 환경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곧바로 실천에 옮기기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입학 전에는 당연하게 삶에 녹아 들어있던 것들이 입학 후 한순간에 규제되는 것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학교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들어오는 학생은 지극히 드물다. 무작정 규제를 하기보다는 먼저 환경에 대해 이해시키고,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앞으로의 학생들에게 삶에 있어서 생태적인 부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앞으로의 생태교육의 방향에 대해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영상물 공유와 다양한 캠페인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더욱 생태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커뮤니티를 이루며 소통하는 문화는 학교에서 추구하는 생태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는 학생들이 서로 느끼며 얻는 배움이 훨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자발적, 자기주도적인 맞춤형 학습

1)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해왔을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 중 스스로 선택하는 선택수업과 성교육을 제외한 교육들은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 논문, 개인무빙, 인문학, 인턴십 등등 학년별 대표적인 교육 과정들에서 선생님의 역할은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멘토의 역할을 하게 된다.



위 학년별 교육과정 구성에서 볼 수 있듯이 중등 심화과정부터 진행되는 논문, 학생회를 시작으로 주제여행, 인문학, 인턴십으로 연결되며 학년 별 대표적인 교육과정은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2) 학생들은 어떻게 느끼는가?

이번 파트에서는 따로 그룹을 나누지 않았다. 학교에서 더욱 오랜 시간 교육을 받으며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은 고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자신의 성장에 있어서 영향을 끼쳤나요?

아무리 일반 학교가 좀 많은 분야를 가르친다고 해도 만약 일반 중, 고등학교에 갔다면, 매일 공부를 하며, 저녁에는 학원으로 가야 하는 중복적이고, 같은 패턴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진로와 관심사를 배우고, 생각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고. 하지만 이 간디학교를 다님으로써 나의 진로와 관심사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 외에는 나의 인생의 절반을 일반 학교 가지 않아서 이루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

- 재학생 인터뷰 中

내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자료를 찾고, 도움 요청을 해나가는 과정을 배우는 것 같다. 스스로 직접 부딪히면서 실패하는 과정을 배우고 실패해도 기반 자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실패의 과정을 배운다.

- 재학생 인터뷰 中

개인무빙이나 인턴십을 정하면서 단체와 연락하며 까이는 과정에서 거절 당하는 게 두렵지 않게 되었다. 개인무빙에서 의견을 말했을 때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도 다시 고민해나가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의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이 우리 학교의 장점인 것 같다.

- 재학생 인터뷰 中

각자의 관심 분야를 찾았으며 그 분야를 스스로 공부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큰 배움을 얻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 자기주도적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교육과정은?

논문 과정이 가장 만족스러웠다. 내가 원하는 주제를 깊게 파고들고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서 만족감을 크게 느꼈다. 지금은 다 까먹긴 했지만, 무언가에 몰두했던 경험과 자신이 논문이라는 긴 글을 작성함으로 인해 글쓰기 노하우도 많이 성장했다.

- 재학생 인터뷰 中

논문으로 한글과 ppt 등 여러 프로그램을 만지며 배울 수도 있고, 관련 직종 사람들과 처음으로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게 해주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 재학생 인터뷰 中

개인 무빙이 좋았다. 각자의 진로와 하고 싶은 분야에 3주 동안 가서 배우고, 일도 하며, 사회의 맛을 조금 짚어 먹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작업장 다음으로 만족을 한 프로그램인 것 같다.

- 재학생 인터뷰 中

가장 기억에 남는 교육과정 역시 논문이다. 평소 좋아하던 분야를 더 전문적으로 깊게 파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끈기가 부족했던 나로서는 하나의 주제를 1년 동안 공부하고 정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큰 용기를 얻었고,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다.

- 재학생 인터뷰 中

결과적으로 가장 내가 가장 성장했다고 느낀 부분은 논문 과정이다. 1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벽을 느끼며 스트레스도 받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한글 프로그램과, 피피티를 주로 사용하면서 엄청 익숙해졌고, 선생님과 소통하고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만나며 무척이나 성장한 자신을 볼 수 있었다.

- 재학생 인터뷰 中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성장했다고 느끼는 교육과정 중 논문을 뽑았다. 발췌한 인터뷰 이외에도 더 많은 학생들이 논문을 뽑았다.

(3) 아쉬운 점

교육과정에 대한 사전공부가 전혀 없어서 오히려 고생 많이 하는 것 같고, 개인 무빙이나 인턴십도 자기소개서를 처음 보내는 건데 쌤들은 너무 그냥 '각자 알아서 해라' 이게 강해져서 자기 소개서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른 채 그냥 일단 무조건 알아서 각자 보내. 이렇게 되니까 퀄리티도 좀 많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선배들의) 자기소개서를 찾아봐서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좀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 재학생 인터뷰 中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전지식을 채워 줄 수업이 없으니 오히려 자기소개서 같은 처음 해보는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학생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각자 스스로 관심 분야를 찾고,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장을 느끼며 큰 쾌감을 얻는 것을 볼 수 있다. 관심 분야가 없던 학생들도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어떻게든 자신의 분야를 찾게 되고, 스스로 목표 의식을 가지며 목표를 이루게 된다. 자신의 성장에 대한 쾌감에 더해서 자신이 스스로 해냈다는 것의 쾌감은 배가 된다.

학생들이 3학년에 진행되는 논문 과정에서 큰 만족을 느끼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자신이 처음 한 분야에 대해 깊게 파고들고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으며 목표를 이룬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중등 1, 2학년 때는 자립기초, 관계 맺기 등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기초과정을 교육받는다. 그 과정을 겪은 다음 곧바로 3학년 교육과정의 핵심인 논문 과정을 필두로 배움이 이루어진다. 1, 2학년 때와는 다르게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학생들은 큰 어려움을 느낀다. 각자 작품, 연구, 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고, 본문을 쓰는 과정에서 글쓰기 실력도 단숨에 상승하게 된다. 그와 동시에 한컴오피스(한글), 파워포인트(피피티)를 배우고 직접 사용하며 이후 이와 같은 기본적인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히는 것은 이후 학교의 교육과정과 사회로 나가서까지 큰 도움이 된다.

고등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중3 때 통과해야 하는 논문 과정이 자기 주도 학습으로 전환하는 전환점과 같다고 공통으로 말한다. 논문 작성과 발표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학생들도 있었으나 그렇게 증언한 학생 역시 논문 과정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그와 동시에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논문 작성에 도움을 주는 관련 교

과목들이 하나씩 폐강되거나 사라지는 데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평소에 글쓰기,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인터뷰 정리하기, 사회의식 갖기 등에 필요한 지식관련 교과목을 익혀두지 않으면 막상 중3 때 논문 작성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말했다. 즉, 고등과정 학생들은 중학교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 지식교과목과 그 밖의 다른 교과목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비록 중학교 시절에 추상적 지식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감이 높고, 흥미가 떨어진 다 해도 몇 년 후에 닥칠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꼭 필요한 공부라는 것이다.¹⁹⁵⁾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만족을 하더라도 자기주도 학습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일곱 가지 교육 미신”의 저자 데이비 크리스토폴루의 말에 따르면 무언가를 공부하기에는 그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하며 그러한 지식은 가능한 학교가 제공해주는 게 이후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자기주도적으로 운영되는 교육 과정에도 학생들에게 배움을 얻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 배경지식을 교육해야 한다. 학생들이 무언가를 배우는 것에 앞서 그 교육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기반이 잘 다져져있지 않다 보니 아이들의 당장의 경험을 통한 만족도는 높지만 그에 받쳐주는 사실적인 지적 토대가 영클어져 있고 너무나도 빈약하다. 빈약한 지적 토대 위에 올려져 활동하면서 느낀 사실로만 구성된 신념이나 가치관은 그리 오래 유지되지 않는 거라 생각한다. 교육과정이 그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까하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앞서 그 교육과정에 대한 사전지식을 교육받으며 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실제 학생들을 인터뷰해본 결과 개인무빙, 인턴십 과정에서 기본적인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로 곧바로 교육과정에 뛰어들게 되다보니 자기소개서, 이메일 예절 등등 다양한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느낀다.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처음 써보는 개인무빙의 경우 선배들의 자기소개서를 받아서 참고하며 배우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학교 차원에서 교육과정에 앞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준다면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195) 「제천간디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 (2016)」, 이병근

4. 작은 규모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치 추구

학교가 지향하는 가치인 공동체라는 시스템에도 분명 오류가 존재하고, 그러한 모순으로 인해 공동체라는 지향점에 의문을 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다. 그러한 모순과 학생들이 느끼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후 진행되는 “대안학교가 맞닥뜨리고 있는 일곱 가지 문제점 part.2”에서 다룰 예정이다. 때문에 이번 파트에서는 학생들이 느끼는 공동체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발췌가 주를 이룰 예정이다.

온전한 전인(全人)은 튼실한 개인적 자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 자아'를 균형 있게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아주 성실하고 듬직한 사람이라 해도 역사 인식을 올바로 갖추지 않았을 때 빛어지는 재앙은 아주 큼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연관되어 있는 자신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적 인간이란 이처럼 '역사와 사회 속에서 책임성'을 갖는 사람을 뜻합니다.

진실한 교육은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변화의 주체가 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공동체의 가치를 자기 신념으로 받아들이려면 학교생활 전반을 통해 민주주의적 생활양식 이 학생 개개인에게 스며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가족회의 참여, 생활관 생활,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자치활동, 스스로 만들어가는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공동체 교육이 자연스레 이뤄질 것입니다.

- 학교소개자료집 공동체교육 5p

1) 지금까지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했나

공동체는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가장 먼저 경험하는 가치이다. 제천간디학교라는 공동체라는 사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에 맞는 책무를 수행하고, 전교생과 함께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루어진다.

입학 후 곧바로 기숙사에서 살게 되며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감을 잡게 된다. 다른 학생들과 같은 방을 쓰며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고, 친구, 선배들과 어떻게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지 자연스레 배우게 된다. 일요일마다 남, 여 따로 진행되는 기숙사 회의를 통해 안전과 건의 등을 진행하며 기숙사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회의를 한다.

생활관은 단순히 집을 떠나 머무는 곳이 아니라 생활 속 배움의 현장이자 공동체 교육의 마당입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이 대신해주시던 많은 가사노동을 직접 실행합니다. 생활과 관련된 수많은 결정들 역시 생활관 공동체가 협의하여 꾸려나갑니다. 이를 돕기 위한 남·여 생활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지냅니다. 1주일에 한 번씩 남·여 각각 회의를 갖습니다. 자신의 삶과 가장 밀접한 영역의 일들을 동료 학생들과

함께 결정하고 책임져 나가는 일. 거기에서부터 공동체 교육이 시작됩니다.

제천간디학교 소개 자료집 - 기본특성 2p

매주 이루어지는 가족회의는 학교 내 의사결정기구인 집행부¹⁹⁶)에 의해 진행되며, 전교생과 선생님들 전부가 모여서 다양한 안건들에 대해 의사결정을 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학생회 부서들 중 한 곳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각자의 역할에 맞는 활동을 하고, 각 부서의 대표들은 집행부에 소속되어 학생들을 이끌어나간다.

동아리 활동은 각자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동아리를 꾸리며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활동이다. 춤, 제빵, 커피 등등의 다양한 분야들의 동아리 종류가 있다. 동아리 부원들과 협력하여 축제에서 공연을 하거나, 부스를 열어 수익사업을 하며 서로 간에 이익과 배움을 얻는다.

2) 공동체를 경험해본 학생들은 어떻게 느끼는가

(1) 공동체에서 성장한 부분

관계로 인한 성장이 큰 것 같다. 아무래도 몇 달 내내 계속 같은 사람들과 붙어있으니 서운한 점들이 계속 쌓이는데 그런 것들을 항상 대화로 풀어나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도 될 수 있고 또 내가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을 상대에게 듣고 나에게 부족한 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점이 좋았다.

- 재학생 인터뷰 中

솔직히 말해서 나는 공동체 생활을 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운 것 같다. 그렇지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의무적으로 함께해야 하는 것들도 많을 것이고, 특히 한창 관계에 대해 고민이 많은 저학년 때는 대다수가 개인 공간과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관계에 집중하기 바쁘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보장받지 못할 때도 많고. 자는 시간 빼고 거의 매일 똑같은 사람들과 붙어있다 보니 거기서 나오는 스트레스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일들을 직접 겪고 함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내가 성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느껴지진 않는다.

- 재학생 인터뷰 中

196) 6개의 학생회 부서의 대표들이 소속되어있는 학교내에 의사결정기구이다 가족회의에 안건을 수렴해 올리고, 회의를 진행한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성장을 얻은 것 같다. 가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면 인간관계에서 친구들이 보인다. 말속에 상대방의 심기를 신경 쓰지 않는다던가 조금 자기중심적인 발언들이 추가 되어있다. 우리 학교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느끼지 못한 부분들이었다. 내 말투를 제 3자의 입장에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학년 때 나의 말투와 행동을 생각해보면 많이 성장한 것 같다.

- 재학생 인터뷰 中

공동체 구성원들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을 하면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되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관계에서 성장을 이룬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그래서?

입학 후 6년 동안 매우 밀접한 거리에서 100명 남짓한 학생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면서 학생들은 인간관계에서 많은 배움을 얻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스트레스도 크지만 그만큼 인간관계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많이 배운다. 공동체 구성원들과 많은 갈등이 생기지만 6년간 함께 지내려면 관계를 풀어야하므로 때문에 이후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학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과 원만하게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학생들은 100명이 넘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매우 밀접한 거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기숙사에 자리와 개인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는 결국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고통을 겪는 만큼 성장한다.”고는 하지만 꼭 학생들이 얻는 배움에 고통을 동반할 필요는 절대 없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고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사춘기인 학생들에게는 생활관이 설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하며 개인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간디학교의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수업에 국한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닌 6년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고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들(기숙사 생활, 동아리활동, 각종 회의 등). 꼭 해야 하는(필수교과, 무빙스쿨, 작업장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과정이 제일 만족스러운 교육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가지게 되는 삶을 대하는 태도, 가치관이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나타내며 일생에 있어 6년의 간디학교 생활은 이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 졸업생 인터뷰 中

< 대안교육의 진화를 상상하며 >

: 앞으로의 대안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

1. 교사 양성에 힘쓰기

대안교육 교사는 당대의 시대정신을 함께 호흡하는 지성인이다. 자신의 교육적 행동이 가진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스스로 규정하고, 지금은 없는 길을 열어가는 실천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갖기 위한 개인적, 집단적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

- 이병곤, 제천간디학교 교장, 전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사가 필요하다. 뜨거운 가슴과 열린 태도를 가진 교사,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와 소통에 재능을 가진 교사,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함께 탐색하고 모색할 줄 아는 교사, 모든 교육적 가능성에 열려 있어 사소한 일상에서도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포착해 낼 줄 아는 교사, 그 기회를 확장시키기 위해 주변의 다양한 자원들을 연결시킬 줄 아는 네트워크로서의 교사, 연결된 다양한 자원들을 협주하고 변주하여 교육 프로젝트로 구성할 줄 아는 코디네이터 교사, 교육의 역사적 가치와 사회적 실천을 학습함으로써 변하지 않는 가치와 유연한 태도를 겸비한 교사, 그리고 이런 교사를 길러내고 성장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새로운 대안교육의 핵심적 요소일 것이다.

- 하태욱, 건신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학과 교수

대안학교의 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하고 있는 학급 반 이외에도 위원회, 동아리, 논문교사, 무빙담당, 각종 수업진행 등등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된다. 하지만 교사부족으로 인해 교사 한 명마다의 역할이 많아지고 이는 곧 학생과의 소통부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교사들은 업무량이 많아서 매일같이 바쁜 일과를 소화한다. 한 교사는 "교사들 사이에 '최소한 점심시간만큼은 일에서 자유롭게 보장해 주자'는 약속을 해 보지만 실제로는 그조차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일이 많다." 라고 말했다. 서구 선진국 학교에서는 교사 소진을 막기 위해 일정한 시간이나 요일을 정해놓고 학생들을 만나지 않도록 배려하는 '비접촉 독립시간제(Non-contact Time)'를 시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제천간디학교처럼 학생들과 부딪혀야 하는 일은 많고, 교사 수는 부족한 환경에서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¹⁹⁷⁾

따라서 현재 대안학교는 열정을 가진 많은 신입교사들이 절실하다. 하지만 대안학교 교사는 공교육의 교사보다 더 많은 양의 헌신과 학생에 대한 관심을 요구한다. 학생의 대한 사랑만으로 대안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기란 매우 고되며 공교육에 비해 월급도 적다. 공교육에서 일하

197) 이병곤, 「제천간디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 2016

다가 대안학교 교사로 전향을 한다는 것은 웬만한 대안학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지 않고서야 매우 힘든 일이다. 그만큼 기존의 삶에서 포기해야 할 것들도 많다. 실제 공교육에서 교사를 하다가 대안학교 교사로 일하는 경우 너무 가까운 학생들과의 거리와 그 외의 업무를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오랫동안 대안학교에서 일한 교사들의 경우, 학교에 대한 애착과 자기동일시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 실제로 자기 시간의 대부분을 공간에 대한 헌신으로 채워온 것 같았고, '예전만큼' 공간에 애정을 갖지 않는 신규 교사들을 조금은 답답하게 혹은 안타깝게 느끼고 있는 듯했다. 반면, 새롭게 진입한 교사들은 이러한 교사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터였다. 공간을 '사유화' 한다고 느낄지도 모를 일이다. 표면적으로는 경력교사와 신입교사 사이의 갈등처럼도 보이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닐 것이다. '무엇이 우리 모두를 외롭게 만들고 있는가.' 이것을 사유할 수 있는 언어를 이 공간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 분들이 갖추게 되길 바란다.” 고 『대안교육 20년을 말하다』의 한 저자¹⁹⁸⁾는 이야기한다.

대안학교에서 부족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안학교 졸업생이 다시 대안학교에 돌아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안학교의 교육 특성상 교사는 각자가 맡은 분야의 뛰어난 전문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먼저 일반학교 교사를 생각해 봤을 때 각 시간별로 자신의 과목을 일정시간 교육을 하는 게 주가 되는 반면, 대안학교의 교사들은 24시간 학생들을 케어해야 하며 학부모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한다. 6학년 교육과정의 경우 담임교사가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사회체험학습 단체에서 올바른 배움을 받고 있는지, 부당하지 않은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지역을 돌아다녀야한다. 그 외 학급반에서 학급활동이나 자연체험으로 학생들과 2박3일 정도의 캠핑을 다녀온다고 가정하면 학생의 인솔과 안전을 책임져야한다. 학생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교사들은 더욱 헌신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지식인으로 성장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학생들이 온전한 개인적 자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 자아'를 균형 있게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교육 측에서 일했던 전문성을 가진 교사보다 대안교육을 실제로 받으며 성장해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학생들의 입장을 경험해본 대안학교 졸업생이 교사로서 학교에 다시금 돌아오는 것은 대안학교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대안적인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교사들의 하루는 바쁘고, 빠르게 지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사유와 성찰의 언어는 '잠시 멈춤'의 시간이 불현듯 찾아온다. 너무 익숙해서 내 몸 같아진 조직 공간일수록 일부러 거리를 뒤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 방향을 잃은 발걸음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처음 대안을 꿈꿨던 그때처럼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동료들과 함께 살필 수 있는 시간의 틈새가 그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열리길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

- 박민진,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활동기상청, 청소년 자립패 활동가

198) 박민진,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활동기상청, 청소년 자립패 활동가

2. 세상과의 연결

대안학교가 맞닥뜨리고 있는 첫 번째 문제점 ‘사회적 편견’ 발제에서 살펴보았듯, 대안학교를 바라보는 외부인들의 시선과 대안학교를 찾아온 학부모의 시선, 그리고 대안학교를 만들고 꾸려온 운영 주체 사이에는 확실한 입장 차가 있다. 그 간극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좁혀나가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대안교육은 ‘대안교육 위기론’, 혹은 ‘그들만의 리그’라는 인식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많은 대안학교 담당자들 또한 현 시점에서 대안교육이 놓쳐버린 점으로 가장 먼저 세상과의 간극 좁히기를 언급하고 있다.

팽창기에서 안정기에 이르는 10여 년은 상승하는 기세로 자발적인 에너지가 넘쳐나고 대규모 동원이 가능했던 시기였다. 대안교육한마당 행사는 대학을 통째로 빌려서 이틀간 진행했으며, 프로그램마다 수백 명이 몰려들었다. 이때 왜 도약을 못 했을까? 세상은 변하고 있었는데 대안학교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사회로 눈을 돌렸어야 했는데, 오히려 내부에 갇히고 말았다.

이 때 교육철학을 아이들에 맞춰서 재점검하고, 철학과 교육과정 사이에 벌어진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교서 처우 개선에 힘쓰고, 2세대 새로운 리더를 양성하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춰서 사회적 실천과 소통에 나섰어야 했다. (중략) 대안교육이 최정점에 올랐을 때 시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법제화에 기대를 갖고 의존하면서 자생력이 약화되었다.

- 이철국, 불이학교 교사 (푸른꿈고등학교·고양자유학교 전 교사)

대중들은 언론과 정부 정책이 생산해내는 담론에 의해 대안교육을 소비하고 있을 뿐 대안교육이 무엇인지, 그것이 혁신교육이나 기타 공교육 개선 정책들과 어떤 공통점과 차별성을 갖는지 알지 못한 채 선입견으로 기피하거나 동일선상에 놓고 선택한다. 그러다 보니 교육적 관점에서 대안교육을 바라보기보다는 경제적 관점이나 기타 부수적이거나 왜곡된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 현재 많은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겪고 있는 신입생 부족의 ‘위기’ 현상은 실제 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대안교육의 실천이 대중과 정책에 닿지 않으면서 생겨난 문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노력 없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는다. 대안학교 내부의 소통은 물론 사회와의 소통으로 관심과 활동을 넓혀 나가보자.

이와 더불어 제천간디학교 이병곤 교장은 끊임없는 국가 차원의 교육지원을 위한 요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말했듯 비인가 대안학교의 현실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재정적 이유에서 나오는데, 더 이상 비싼 학비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만 마련될 것이 아니라 대안교육이 가진 시민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인정받고 지자체나 지역교육청을 통해 제정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와의 인식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한 소통이 더욱 더 절실히 필요하겠다. 또한 시대와 세대에 맞춰 발 빠르게 변화하고, 현 시대가 추구하는 시대적 대안은 무엇일지 고민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3. 교육목표, 교육과정 재점검하기

1) 가치와 철학이 스며들게 하기

학교라는 것은 어떠한 가치지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어떤 학교이든 교육철학과 가치는 추상적이거나 상징성을 띤 언어로 표시된다. 다만 그것이 ‘언어로만 굳어진 가치’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통해 그것을 학생들의 마음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식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나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큼은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나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규칙화만으로는 학생들에게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형성시키기 어렵다. 오히려 규제로 인한 반감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간혹 가다 한 번씩 먹거리 철학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애초에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일회성 교육으로 그러한 가치들을 학생들의 의식에 자리 잡아주기까지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학교의 교육목표와 교육철학이 교육과정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다. 상징적인 언어로 ‘명시’ 되어있지만 한 학교철학의 의미나 가치는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학교철학의 본질적 내용이 교육활동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교육과정으로 구조화시킬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그것이 다시 학생들의 의식, 태도, 지식으로 연결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보아야 한다. 학생들의 흥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치 세뇌교육’이 되지 않도록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자연스러운 삶의 교육이 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어려운 숙제일 수도 있겠지만 당장 좁게는 학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나 철학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지, 학생들의 삶 속에 얼마나 와닿아있는지 가장 먼저 검토하고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 순서일 것이며, 넓게 보아서 그러한 학교의 철학들이 전반적인 ‘대안’으로써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지 현 시점에서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가 추구해가는 방향성은 새로운 환경 변화와 시대적 요청에 맞춰 재해석되어야 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 내용을 풍부하게 구성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가치지향적인 학교를 내세우는데,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가치의 내용이 적으니까 사실상 가치가 그냥 규칙이 돼 버린 것이 아닐까 자문해요. 학생들도 가치에서 비롯한 규칙들이 왜 있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 요청합니다. 철학적으로. 하지만 그런 설명은 우리도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중략) 교사들의 의식 속에서 학교가 표방하는 교육적 가치가 더 풍성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 교사 인터뷰¹⁹⁹⁾ 中

2)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문제점 해결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하기

제천간디학교에서는 지난 2018년 대대적인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졌다. 1~4학년 통합 학급반을 구성하고, 5,6학년은 개별적인 학년반 체제를 이루도록 하여 전에 없던 아주 큰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4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이러한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얻고자 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였는지, 어떠한 부분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아가야 할지 제대로 돌아보고 있었는가 성찰이 필요하다. 매 학기 기말간담회 때 마다 필수로 1~4학년 통합 학급반에 대한 평가 자리를 만들어 학생들의 지속적인 불만을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항상 언급된 치명적인 단점과 문제점들은 해결되다시피 한 것이 아예 없다. 학생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힘들어하는지, 미처 생각 못 했던 것은 무엇인지, 어떠한 부분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더 깊이 고민하고 뾰족한 개선 방안을 연구해야 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그저 바쁜 나날들에 쫓겨 당장 해야 할 일만을 우선으로 두고 근본적인 문제를 한참 뒤로 미뤄놓았던 것은 아닐까.

매번 나오는 가장 현실적인 개선 방안인 ‘1학년 분리, 2~4학년 학급반 운영’ 아이디어는 시범기간 운영을 통해 한 번쯤 시도해볼만 하였음에도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조차 학생들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다. 이 밖에도 고학년의 전체적인 하향 평준화, 단계별 지식 쌓기 체계 무너짐, 얇은 관계 생성으로 인한 선·후배·동급생간 기본적인 예의범절과 선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 등 재학생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귀 기울임과 깊은 고찰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는 아무리 통합 학급반 운영을 한다 해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시선과 생각은 차이가 너무 큼을, 그리고 그렇기에 오는 문제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발달 정도도 너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도 다르다.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도움을 주기보다는 고등학생들이 평균 하향화되고 있다. 담임 선생님들도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힘들어진다. 처음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분리를 해서 그 안에서 통합반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

- 양희창, 제천간디학교 초대 교장, 대안교육연대 전 대표

199) 이병곤, 「제천간디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 2016

3) 지식교과와 다른 교과 사이의 균형 맞추기

(1) 지식교과의 역사

현재 제천간디학교는 기본적인 정규교과목이 모두 사라진 상태이다. 2000년대에는 정규교과목이 활발히 이루어져 2000년대 후반에는 영어, 수학, 고등과학 등 정규교과목과 교양과목들이 서로 균형이 맞게 자리잡고 있었지만. 2010년대부터 교양과목들의 다양화로 학년필수, 주제프로젝트, 자립기초, 해외이동학습, 작업장, 인턴십 과정 등등 교양과목들이 정교하게 체계화 되며 자연스럽게 정규교과목은 학생들에 관심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이르러 정규교과목은 완전히 사라진 형태로 시간표가 구성이 되어있다.

요일 시간 학년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08:30-08:45	교사모임																																																																					
08:45-09:15	아침열기																																																																					
09:15-09:30	청소																																																																					
1																																																																						
09:30-10:15	주말 여는 시간																									사회					해외의 만남(필)					해외의 만남(필)					대수2 고등1 고등2					술술 쉬운 논술 문화철학(5년)					농서 심화(4시간) 활약하는 하루살이					학급활동														
2																										대주제 프로젝트(필)					대주제 프로젝트(필)					대수1(필)					대수1(필)					고급문법및독해2 시쓰는 허수아비 팝송으로 그리는~ 기타작곡 및 홈레코딩					가족회의																			
10:15-11:00																																																																						
3																																																																						
11:15-12:00	고급문법및독해1 우리말 바로쓰기 설명																									고급문법 및 독해1 역사속에서 주요정점(토론)					생활과 과학 눈으로 보는 민주주의 영어(필)					대주제 프로젝트(필)					영어(필)					문화 철학 사회참여					전쟁과 평화 물리					신나는 체육(필)					고급문법및독해2 시쓰는 허수아비 팝송으로 그리는~ 기타작곡 및 홈레코딩					동아리				
4																										대주제 프로젝트(필)					대주제 프로젝트(필)					영어(필)					영어(필)					신나는 체육(필)					고급문법및독해2 시쓰는 허수아비 팝송으로 그리는~ 기타작곡 및 홈레코딩					동아리														
12:00-12:45																																																																						
점심																																																																						
12:30-14:30																																																																						
5																																																																						
14:30-16:00	농서 기초(4시간) 영색과 준비노즐																									그림여행 시시야 놀자 영색과 준비노즐					음식 기초 등산교실					등산교실					일본어 기초 기초 수화 회화강상					경도심화					기타 드럼 힙합					힙합					목공 기초 탁구 기타 기초					사진3 탁구				
6																																																																						
16:15-17:45	사진1 개인프로젝트																									음악강상 개인프로젝트					장구기초					해외제 원학습 준비					검도기초					일본어 심화 소묘여행					간케스트라 공예					간케스트라 공예					요가					목공 심화 요가				
저녁																																																																						
17:30-18:00																																																																						
19:00-19:45																																																																						
19:45-20:00																																																																						
20:00-22:00																																																																						
기속사	취침준비																																																																					

< 2007년도 시간표 구성 >

시간	일	화	수	목	금	
아침	08:30-09:00					교사 회의
	09:00-09:15					아침 장소
	09:15-09:30					쉬는 시간
	09:30-09:45					아침 열기
	09:45-11:15	주말 여는 시간	학급활동	말린 수요일	학급활동	학급회의
2교시	11:15-12:45	전도와 김수자 (6학년) (소강당) 하타요 가 송민혜 (소강당) 도예기 조김우 연 (도예실) 재봉기 조유주 (재봉실) 눈문쓰기 임정호 (수업2) 미술 진보예전체 (미술실)	학급활동	말린 수요일	그 시대 의 이야기 이문정 (멘토반) 제헌지 역 동기를 찾아서 (멘토반) 100년 전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수업2) 근대 가자온 변화 (수업2) 양정호 김수자 (수업2) 안재형 김수자 (멘토반) 안재형 김수자 (멘토반)	가족회의
		점심	12:45-14:45			
3교시	14:45-16:15	제빵기 조유주 (재봉실) 영어 들은 시간 (수업1) 스마트 폰에서 프리미 어로 할 수 있는 상항 등극하기 오정호 (전산실)	실예 힘 되는 노동인 관 이필수 (수업2) 피아노 코드와 반주법 중민혜 (수업1) X-카아 리버트 의 별 강지혜 (수업1) 직조 생 활 강지혜 (수업1) 사진 III 강윤하 (합설) 24만 무 에 당피와 장장 강희석 (합설)	말린 수요일	피아노 코드와 반주법 중민혜 (수업2) 작업장	말보재 / 오록도 회의
		3-4 (도예실, 옷실, 재봉실, 비누공장, 목공실, 생활기술, 수업1)	몸살림 박영란 전체 (강당) 농구 박경수 전체 (수업1) 가야금 가재희 전체 (수업2) 서예 정숙 전체 (수업2)	말린 수요일	3-4 (도예실, 옷실, 재봉실, 비누공장, 목공실, 생활기술, 수업1)	
저녁	17:45-19:00					
독학	19:00-22:00					독학
취침	22:45-07:00					잠

< 2018년도 시간표 구성 >

위 2007년도 시간표와 2018년도 시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불과 10년 만에 정규교과목이 수업에서 전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정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면, 정규교과목과 학교철학 교과목으로 구분해봤을 때 정규교과목은 점점 변주하여 필수로 자리잡았다가 해제되고 논문, 주프, 무빙, 작업장 등의 과목은 점점 체계화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해야지? (정규 교과목) vs
대안학교인데 이런 것은 해야지? (학교철학, 자립 교과목)”**

제천간디학교의 한 교사는 ‘둘 다 해보려다 교사 학생 모두 지쳐감에 따라 "대안학교인데 이런 것은 해야지?"가 승리하였다’ 고 교육과정 변화의 흐름을 표현하였다.

(2) 그렇다면?

제천간디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 (이병근, 2016) 에서 진행된 재학생 인터뷰에 따르면, 수학, 외국어, 과학 교과와 같이 일반 학교에서 '지식교과'라 부르는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인터뷰 도중 자주 등장했다. 중등학생들은 이들 교과목에 대한 필요를 덜 느끼는 것 같았지만 고등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지식교과'의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나길 바랐다.

지식적인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아서 그렇기도 한데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것이 많습
니다. 생명프로젝트, 평화프로젝트처럼 말이죠. 저는 개인프로젝트를 많이 신청했습니다. 거의 항상
개인프로젝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역사, 영어, 수학 교과목이었어요. 이처럼 제가 원하는 수업이
개설되지 않았을 때 혼자 공부를 했던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들을 실제로 해볼 수 있게 선생
님들이 많이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공부를 하고 싶다면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추천
한 영상을 보면서 영어 말하기 수업 같은 것을 한 적 있어요. 역사는 조선왕조에 관심 있는 친구
들과 함께 했어요. '영화로 보는 역사'란 수업이 있었다 없어져서 그 수업을 다시 해달라고 부탁
했던 적도 있고, 철학수업 비슷한 걸 해본 적 있고, 그냥 많아요. (학생E 인터뷰)

- 제천간디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 中

인터뷰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지식교과목에서 원하는 수업이 열리지 않았을 경우 담당교사
와 함께 개별적으로 개인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개별화 교육이 이어졌다.

제천간디학교는 신입생을 모집할 때 입시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선을 긋는다. 하지만
입시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식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지식교육
은 입시를 위한 정규교과목 공부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 교육과정에 있어서 지식교
육은 개인프로젝트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듣는 수업은 음
식, 체육, 음악, 자립교과 등 예체능 과목으로 매우 한정되어있는 상황이다.

흔히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을 '두 마리 토끼'로 비유하지만, 지성을 기르는 교육과 인성교육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 지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인간관계에서도 현명하게 처신하기 힘들다. 인성과 지성은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으로 봐야 한다.²⁰⁰⁾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일곱가지 교육미신」의 저자 데이비 크리스토틀루의 말에 따르면 우
리가 무언가를 배우거나 경험을 할 때 관련된 배경지식이 없으면 잘 배우지 못하고, 관련된
배경지식이 있으면 잘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더욱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듯 사실적 지식과 교
과과정에서 배우는 것들 역시 우리는 배경지식을 쌓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한다.

학생들의 진로와는 관계없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지식교과는 필요하
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알파벳을 알아야 하고, 곱셈을 배우기 위해서는 숫자를 먼저 알

200) 「오늘의 교육 - 대안학교와 대안적 진로 (2021)」, 현병호

아야 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배경지식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해 검정고시를 공부하게 된다. 검정고시 공부나 각자의 진로의 맞는 공부를 함에 있어서 학교에서 배운 기본적인 배경지식의 유무가 크게 작용될 것이다. 또한 무언가를 공부를 함에 있어서 노력의 과정을 통해 공부하는 요령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에 10시간씩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고 정해진 내용을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는 시간낭비이자 폭력적인 경쟁방식이지만 중요한 것은 과정과 경험이다. 일반학교 학생이 '매일' 10시간씩 공부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으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국가에서 정해주는 일상생활에서 크게 필요없는 정보라고 답할 수도 있겠지만, '꾸준함' 또는 '노력'이라고 답할 수도 있다. 이유와 목표가 무엇이든 꾸준함과 노력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꾸준함과 노력을 갖기는 힘들다.

- 재학생 인터뷰 中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생 개개인이 앞으로 스스로 공부해나갈 분야를 대비해 어떠한 방식이든 지식과목이 아예 없는 지금보다 교양, 예체능 과목과 지식과목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식교과와 그 밖의 교과 사이에 어느 지점에서 균형을 맞출 것인가 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 자료

- / 김희동 외 9명, 『대안교육 20년을 말하다』 (민들레, 2020)
- / 이슬아 외 21명, 『우리, 잘 크고 있는 거 맞아요?』(민들레, 2011)
- / 데이지 크로스토틀루,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일곱가지 교육미신』 (페이퍼로드, 2018)
- / 성유진, 『민들레 71호』 : 자신의 언어를 가진 대안교육을 바란다 (민들레, 2010)
-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 / 제천간디학교 블로그 [세상읽기]
- / 제천간디학교 소개자료집 (2021).
- / 『오늘의 교육』: 대안학교와 대안적 진로, 현병호
- / 『오늘의 교육』: 공교육의 안티테제를 넘어 교육의 본래 자리를 묻다, 이병곤
- / 윤지영,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우당탕 대안학교 학생의 '대안 교육' 탐구일기
- / 제천간디학교 재학생, 자퇴생, 졸업생, 선생님, 타 대안학생 (총 27명) 자체 인터뷰 자료
- / 이병곤, 「제천간디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 2016

검찰을 검사한다

김동현 안희 방연우

목차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검찰 이야기 - 155p

◇ 그래서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 196p

◇ 변화를 위해선 - 201p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검찰 이야기>

우리는 왜 검찰개혁을 주제로 잡았는가?

검찰, 그리고 검찰개혁, 뉴스를 틀면 대부분 검찰의 얘기가 한번씩은 나오고 요 몇 년간 꾸준히 ‘핫’한 단어이다. 국민들의 찬반 격론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막연하게 검찰이 가진 거대한 권력을 약화시키자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 성향이나 지지하는 인물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도 있다. 검찰의 권한은 어떤 것이 있고 왜 말이 많은 것이며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걸까? 검찰개혁과 우리는 무슨 상관일까? 검찰개혁은 왜 필요하며 검찰을 어떻게 바꾸자는 건지, 그로 인해 형사사법체계²⁰¹⁾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 것인지 궁금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인문학 캠프’라는 기회를 이용해 그 궁금증을 풀어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며 함께 얘기하는 장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들어가며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 권력기관인 검찰이 가진 권한을 살펴봤을 때 마음만 먹으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권한들이 집중되어 있다.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Power tend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는 영국의 액턴 경(John Dalberg-Acton)의 표현에 대해 반박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1. 검찰이란?

검찰은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으로서,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과 사회 및 국가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일부 사건에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며, 공소(公訴)²⁰²⁾를 제기·유지하고,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직무를 총칭하여 검찰사무라 하고, 검찰사무를 담당·집행하는 공무원을 검사라 하며, 검찰사무를 통괄하는 기관을 검찰청이라 한다. 검찰청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의 3종이 있고, 각각 사법부인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되고 있다. 검찰청은 행정부에 속해있는 법무부 산하의 기관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행정은 미리 정립된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하는 법치주의원칙에 의거하는 국가이다. 범죄자를 법원에 넘기는 권한은 국가가 독점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검

201) ‘형사사법 체계’에서 ‘형사’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인 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사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작용 중 하나로 어떤 문제에 대해 법을 적용하여 적법성과 위법성 등을 확정하여 선언하는 것이다. ‘형사사법 체계’는 범죄에 관하여 국가가 처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202)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사가 법에 따라 공소권을 행한다.

이러한 형사사법체계를 꾸린 나라에서는 국민의 인권과 사회의 공익을 위해 수사기관의 권력 분산을 통한 상호견제가 필수적이다.

검찰의 등장 배경을 알기 위해 조선 시대부터 살펴보면, 조선 시대의 행정과 사법, 재판은 조직적·기능적으로 엄격히 분리되지 않았다. 하나의 기관에서 죄를 묻고 판결도 하는 체제였으며, 왕은 최고의 재판기관이었고, 지방의 재판기관은 사또²⁰³⁾였다. 중앙과 지방의 기구는 각자의 고유한 기능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군부독재 시대를 지나 근대화²⁰⁴⁾ 과정을 거치면서 판결의 중립성과 피의자²⁰⁵⁾·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력의 분산을 위하여 형사사법체계를 수사·기소·재판으로 기능을 나눠 경찰, 검찰, 법원에 분산시켰다. 그리하여 검찰 조직은 공소권과 더불어 경찰과의 상호견제(수사과정에서의 불법, 영장 통제 등)를 위해 법무부 산하의 외청²⁰⁶⁾으로 설치되었다.

2. 현재 검찰이 가진 권한

1) 수사권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부여받은 수사기관의 권리이다.

수사기관이 범죄와 범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수사권은 이처럼 수사기관이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말한다. 즉 범인을 체포해 구속하거나, 고소·고발사건을 조사하고, 혐의유무를 밝히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한이 수사권이다.

검찰은 모든 수사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주요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명시되었다.

2) 공소(기소)권 : 기소독점주의

공소권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이다.

기소독점주의는 공소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는 주의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²⁰⁷⁾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인 검찰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기소독점주의는 공소권을 가진 검찰의 고유한 권한이라 볼 수 있다.

3) 기소재량권 : 기소편의주의

203) 중앙 정부가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 파견한 관리

204) 정치·경제·사회·문화·가치관 등의 모든 면에서 전반적으로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어 후진적인 상태에 서보다 향상된 생활조건을 조성해 가는 과정. 최근에는 개혁 또는 발전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205)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

206) 국가의 행정 조직에서, 원·부·처 등에 설치되나 그 내국의 계통 밖에 있고 양적·질적으로 특수성을 가지는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통계청, 국세청, 기상청 따위가 이에 속한다.

207) 범죄의 수사와 재판 절차를 규정한 법

검사에게 기소·불기소의 재량의 여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검찰이 필요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기소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기소편의주의는 공소를 하고 난 후에도 제1심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며,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범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편의주의는 검사가 어떠한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반면에 검사의 자의나 독선²⁰⁸⁾으로 흐르거나 권력의 압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엄중한 경계를 요구한다.

기소독점주의에 기소편의주의가 더해져 수사권과 함께 검찰 권력의 핵심을 이룬다.

4) 헌법에 명시된 독점적 영장청구권

영장주의는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강제처분, 즉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과 같은 강제적인 것이 필요할 때는 법원이나 법관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주의다. 다른 선진국과 한국 역시도 영장주의를 따르고 있다. 즉, 강제처분을 함에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과는 독립된 사법부 소속의 법원 또는 법관의 사전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독립된 사법부 소속의 법원이나 법관은 객관적인 시선에서 법률에 따라 영장을 심사해야 한다.

영장은 법관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대상자(자)의 출입과 물건의 압수, 수색, 구속을 허가하는 뜻을 기재한 문서이며 영장에는 처분의 대상, 시각,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영장 발부에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 체포가 객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필요하고, 영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²⁰⁹⁾이 발부한 것이어야 한다. 검찰에 비해 경찰은 영장 청구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로지 검사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검사만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방해가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208)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일.

209) 법원을 구성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각국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검사의 수사권	수사권	○	○	○	△	×	×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	△	○	△	×	×
	자체 수사 인력	○	△	×	×	△	×
	검사조서, 경찰보다 우월적 효력 인정	○	×	×	×	×	×
	검찰 영장청구권 헌법규정	○	×	×	×	×	×
검사의 기소권	수사종결권	○	△	○	△	×	×
	기소독점주의	○	○	○	×	×	×
	기소편의주의	○	○	×	○	○	○
	공소취소권	○	○	×	×	○	○

CHEONG WA DAI

그림 25 개정 형사소송법(2021.1.1. 시행) 시행 전 검찰 권한

우리나라에서 검찰은 아주 특별한 권력이다. 일단 수사와 기소라고 하는 형사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수사,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수사를 통해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할 권한이 있으며 그에 더해 자신들의 재량으로 법정예까지 사람을 세워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권한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범죄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기소를 위한 수사가 되기 쉽고, 본인들의 잘못이나 어떠한 사건에 대해 본인들의 선택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덮어버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이다. 또 정식재판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도 ‘구속 기소²¹⁰⁾’라는 방식으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소독점주의나 기소편의주의는 그 특별한 권력을 완성시켜주는 장치가 된다. 검찰 조직이나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는 막강한 재량권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검찰은 막강한 권한인 수사권, 공소권, 공소취소권, 영장청구권,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재량권(기소편의주의) 등을 독점적으로 보유하여 사회적 이슈를 일거에 장악하고 정치권과 사회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권력을 키웠다. 검찰 제도는 애초에 ‘법률의 수호자’라는 명분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이용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 부정부패의 유혹을 떨쳐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210) 사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치소에 수감한 상태에서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



그림 26 2019.10.17. MBC 뉴스 보도

정리해보자면 한국의 검찰은 형사사법 절차의 전반에서 가장 능동적이며 영향력 있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검찰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한국 검찰의 권한과 영향력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강력하다. 한국 검찰의 문제점은 검찰 권력이 지나치게 커져 있고 정치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그것을 적절히 통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철저한 상명하복²¹¹⁾과 폐쇄적인 조직 문화, 권위주의²¹²⁾와 엘리트주의, 검찰 만능주의, 정부에 대한 종속성, 정치적 편향성 등도 늘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검찰 사법’,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은 한국 형사사법의 특징과 검찰권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단적으로 표현한다.

3. 검찰 권력이 거대해진 이유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막강한 대한민국 검찰 권력의 탄생 배경에는 ‘일제강점기’와 ‘군부독재’라는 특수한 시대가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조선 백성을 쉽고 간편하게 통제하기 위해 검찰에 권력을 집중하려 하였고 그 뜻대로 식민지 형사사법은 백성 위에 군림하였다. 검사 독점적 수사구조는 인권 침해적인 법률의 대표사례인 조선형사령²¹³⁾이 그 뿌리이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조선인을 탄압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찰과 검찰에게 무제한의 강제수사권한을 부여했다. 이러한 강제수사권한은 효율적인 식민 통치를 위해 경찰에게 영장 없는 구속과 압수, 수색 등 판사 권한의 일부를 행사하게 했다.

앞서 말한 ‘영장주의’는 객관적으로 범죄를 판단하기 위해 독립된 사법부 소속의 법원과 법관이 영장을 심사하고 최소한의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영장 없는 구속과 압수, 수색이라는 뜻은 누구든 객관적인 전문가의 판단 없이 인권 침해적인 수사과정을 겪게 될

211)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에서는 복종한다는 뜻으로, 상하 관계가 분명함을 이르는 말.

212) 어떤 일에 대하여 권위를 내세우거나 권위에 순종하는 사고방식 또는 행동 양식.

213) 조선의 형법이 아닌 일본의 형법을 사용하고 초전 총독의 명령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법.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권한은 일단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한 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백을 받아 내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이른바 ‘강제수사’ 방식으로 검찰과 경찰의 권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발전했다. 해방 후에는 군사정권 산하의 검찰과 경찰도 이 시대의 악습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독립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년 10월 31일 권승렬이 초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검찰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7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 세월은 역동적이었고 파란만장했다. 한국 현대사는 검찰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검찰이 현대사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다. 법, 그리고 법 집행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상식이자 갈등을 조정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검찰의 법 집행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겠다.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 후 극심했던 정치적 혼란기와 한국전쟁의 비극적인 시기를 거치며 제대로 된 형법을 만들지 못했고, 일제 시기의 형법을 그대로 사용해 왔다. 광복으로 맞이한 수사구조개혁의 기회가 있었다. 미 군정은 일제의 비민주적인 형사사법제도를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영미식 구조를 도입하려 하였다. 한국 역시 일제강점기의 잔재인 사법체계를 극복하고 검찰에게 집중된 권력을 축소, 분리해서 강제수사 등을 제한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형사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부분 공감했다. 당시 형소법²¹⁴⁾ 제정 때 국회에서 나온 발언으로 엄상섭 검찰 출신 국회의원은 “...그러나 장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고, 한격만 검찰총장은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에게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은 법리상으로는 타당합니다만...”이라고 발언했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면 경찰이 해당 업무를 맡아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경찰이 ‘인권을 보장하는 수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뢰의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제국주의에 부역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던 조선인 순사들이 해방 후에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조직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제 시기에 자행했던 강제수사나 피의자 고문의 역사를 알고 있는 국민은 경찰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당장 혼란스러운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기존의 법체계를 고스란히 이어받는 것을 선택했다. 일제가 심어놓은 검사 독점적 수사구조이지만 사회 안정을 위해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²¹⁵⁾

그 결과 이승만 정권하인 1954년 9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 최초의 <형사소송법>에는 검찰의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검찰이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²¹⁶⁾, 경찰의 강제수사에 대한 검사의 영장 통제 등을 규정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검찰에

214) 형사소송법의 줄임말.

215) 전찬희, 이병근, (2018)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독점적 검찰 권력의 견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이론실무학회) 56, 68, 69쪽

216)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가 법정에서 반박하면 효력이 없어지지만,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반박이 불가능한 명확한 증거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검찰이

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경찰의 능력을 걱정하고 의심하는 차원에서의 취지였다.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 기소편의주의, 무제한의 직접수사권과 총괄적 수사지휘권 까지 보유한 막강한 검찰 권력은 이런 과정을 통해 처음 탄생하였다. 시대적인 상황에 따른 임시적인 조치로 탄생한 검찰 권력은 형사소송법 초안이 만들어지고 70년이 넘게 지난 지금 까지도 약간의 권력분산이 이루어졌을 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이어 5.16쿠데타 후인 1961년 9월 1일 박정희 군부독재 정권하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영장의 청구 주체를 검사로 한정하고 그 권한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을 하였다. 이것은 5.16 이후 정권을 잡은 군부세력에 의해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명시된 순간이었다. 이로써 입법부인 국회의 힘으로도 영장에 관한 검찰 권한을 통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4. 고삐 풀린 검찰

일제강점기와 군부독재 시절에 검찰은 정권의 손발이 되어 권력을 유지하고, 동시에 강하게 통제받으며 지냈다. 시민의 항쟁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로 바뀐 뒤에는 이미 집중된 검찰의 권력을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게 되었다. 고삐가 풀린 것이다. 그로 인해 나라는 민주주의는 진전되었지만, 검찰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뜻과는 멀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현재 검찰의 구성원이 모두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검사 개인은 얼마든지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이며, 개혁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검사 개인은 검찰 조직의 성격을 규정할 수는 없다. 검사의 본분을 지키는 검사가 있더라도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검찰 조직이 정권의 하수인이었다는 시대 규정을 바꿀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검찰의 지위와 역할, 권한에 관한 시스템이지, 검사 개인의 특징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봐야 민주사회에서 성장한 검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찰이 민주사회와 가까워지지 않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근대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탄생한 헌법 정신의 핵심은 3권분립의 원칙이다. 3권분립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국가 권력을 분립하고 국가 권력을 서로 다른 기관이 행사하게 하여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세워진 원칙이다. 이것은 수사-기소-재판이라는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도 중요하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이 일부 축소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약화되었으며,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으로 기소독점주의에도 균열이 생겨 검찰권에 대한 견제가 일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검사제도는 여전히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등 형사사법구조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게다가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조금 지났지만 차기 정부 인수위²¹⁷⁾에서는

피의자에게 가하는 압박이나 인권침해가 심해지는 결과를 불러온 측면이 있다.
217)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의 인수를 통한 원활한 업무를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언젠가 검사 독점적 수사구조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수사권 구조조정, 검찰 권력 약화 등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최종 목적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다.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검찰은 그 수사를 법률적인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이 최종 재판을 맡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 검찰이 기소, 법원이 재판, 이 과정이 제도적으로 완성되어야 수사기관이 서로 협력과 견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지키며, 사회의 공익도 가져다줄 수 있다.

출처

책

- 김인회, 『문제는 검찰이다』, (오월의 봄, 2017)
김두일,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1, 2권, (차이나 랩, 2020)
이연주,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포르체, 2020)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역사비평사, 2010)

논문

- 박근용, 한상희, 이호중 외 2명, "검찰 60주년,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과 세계, 2008, 1p
전찬희, 이병근,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독점적 검찰 권력의 견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이론 실무학회, 2018, 56p, 68p, 69p
오재록, 황문규, "관료제 권력과 민주적 통제: 검찰의 경우", 한국경찰연구학회, 2015, 초록 인용
문준영, "한국적 검찰 제도의 형성", 내일을 여는 역사, 2009, 20p

인터넷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2019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자료 인용

5. 노무현

1)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 입장

*“여러분 왜 법무부 장관의 지휘하에 검찰을 두느냐
검찰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권력기관에 대한 문민 통제를 두기 위해 법무부 장관을 둔
겁니다. 그동안에 한국에 통제를 받아야 될 검찰이 법무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인사권 넘기라 하니 대통령으로서 화가 많이 납니다.”*

*“검찰의 중립은 정치인들이 보장해주는 게 아닙니다. 검찰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언론 자유라는 건, 흔히들 피 흘린다고 합니다. 감옥 가고 구속되고 해직되고 싸워서
지켜냈습니다. 검찰의 독립도, 검찰 스스로 품위를 가지고 지켜나가십시오. 제가 그걸 못 지켜
만큼 강압적으로 하진 않겠습니다.”*

위 이야기들은 노무현이 계속해서 해온 이야기들이다. 이러한 노무현의 발언을 통해 노무현이 검찰개혁을 원했고, 외부의 힘이 아닌 검찰 내부의 힘으로 개혁해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노무현 정권 내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했다.

2) 임기 동안 진행된 정책들

(1) 강금실 법무부 장관임명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 검찰개혁을 위해 첫 번째로 한 일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임명이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임명은 당시 충격과 논란을 불러왔었다. 여성, 법관, 변호사, 낮은 기수 출신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검찰 내부에서 강조되어 오던 검찰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문화, 사법고시 합격 기수를 중심으로 위계질서가 있는 문화, 남성이 중심이 되는 문화가 깨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사는 사람들에게 검찰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충분한 자질과 검찰개혁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한 지휘·감독을 올바르게 한다면 검찰개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강금실 법무부 장관임명에 대해 “검찰이라는 무지막지한 집단에 강금실 한 사람만 낙하산에 태워 떨어뜨려 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강했지만, 조직적인 차원의 준비가 없었다. 어찌 보면 한 사람의 인사만으로 검찰개혁이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었던 것이다.

(2) 전국 검사와의 대화 (2003.03)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한 지 2주도 되지 않는 시점인 2003년 3월 9일 전국 검사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전국 검사와의 대화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임명과 검찰 인사²¹⁸⁾을 통해 검찰개혁의 의지를 밝힌 노무현 정부에 검사들이 반발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내놓은 해결책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들과 직접 만나 토론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다.

하지만 기득권이었던 검사들은 서로 뭉쳐 검찰개혁에 대해 반발했고, 해당 자리에서 검사들은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인사권을 검찰에게 넘기라는 내용의 말만 반복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말도 오고 갔었다. 모욕적인 이야기 중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내용도 몇가지 있었을 정도로 선을 넘는 대화들이었다고 한다.

허상구 / 대통령께서 저희가 인식하기에는 토론의 달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검사들을 토론을 통하여 제압하시겠다면 이 토론은 무의미하지 않나

노무현 / 여러분들 ‘제압할 수 있다’라는 이 전제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잔재주나 가지고 여러분하고 대화해서 여러분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인품의 사람으로 비하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욕감은 느끼지만, 토론에 지장 없게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2003년 3월 전국 검사와의 대화

이후 문재인 또한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은 묻는다』를 통해 “그들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사고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세력들이 고졸 출신 변호사였던 대통령에게 ‘학번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식으로 거만했다. 기득권적 사고를 버리지 않았던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검사와의 대화가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것과 함께 ‘음지’에서 활동해오던 검찰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해당 자리에서 진행된 이야기들을 생중계로 보여줌으로 인해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3) 로스쿨 도입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싼 법조계의 논란은 19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²¹⁹⁾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왜 로스쿨이 필요할까. 사법시험은 그동안 ‘개천에서 용 나는’, ‘계층 상승에 사다리’ 등으로 불리며 모두에게 공평한 이른바 ‘신분 상승’의 기회로 불려왔다. 이런 사법시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무엇일까.

사법시험을 통해 검사가 되던 시절 검찰에서는 사법고시 합격 기수문화가 강했다. 검찰 내에서 기수에 따른 위계질서가 있었던 것이다. 또 로스쿨에 비해 문이 좁은 사법고시를 통과했다

218) 검찰개혁을 위한 움직임 중 하나로 이전에 요직을 거쳤던 특정 지역 출신의 검사들을 중앙에서 밀어내는 인사발령을 했다. 검찰개혁을 위해 이전의 정치검사들을 청산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었으나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섬세하지 못한 인사’라는 평을 하기도 하였다.

219) 로스쿨은 인가 기준에 따른 3년제 법학전문 대학원으로 운영된다. 입학생은 최소 6학기 이상을 이수하면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기존의 사법시험과는 달리 응시 횟수가 제한된다.

는 특권의식이 강해 '정의로운' 검사가 되지 못했다.

로스쿨 도입은 이처럼 기수문화와 특권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법조인을 단판 승부의 시험이 아닌 정규의 교육을 통해서 양성한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교육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법시험이라는 단판 승부를 위해 청춘을 바쳤으나 실패한 사람들이 사회문제가 되었고, 법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도 출세의 신기루를 따라 신림동 고시촌으로 몰리면서 대학의 교육은 황폐화되었다. 대학에서의 법학 교육과 학생들의 시험 준비가 서로 철저히 분리됐다. 이런 기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로스쿨이다. 이후 로스쿨은 2007년 7월 관련 법률 통과로 2009년부터 도입되었다.

하지만 로스쿨의 학비 부담 때문에 고소득자만 진학할 수 있어 불평등하다. 합격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의견도 나오기도 했다.

또 변호사시험 준비에 치중하느라 기초법학 분야와 다양한 전공 교육이 미흡한 상황이다. 선택과목도 원래의 기대와 달리 학생들이 자신의 실제 관심 분야로써 선택하는 과목이 아니라, 시험 합격에 가장 유리한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함으로써 특정 과목의 쓸림현상이 두드러지기도 했다.

(4) 국민참여재판(배심제)

국민참여재판은 시작 초기 국민들로부터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았다. 시민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함으로써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고유영역에 시민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또 법조계 내의 비리를 방지하고 일제강점기부터 내려오던 인권 침해적인 수사를 방지하는 효과들을 기대했다.

형사재판에서 배심원이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는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으로 사법부는 '전관예우²²⁰⁾', '무전유죄 유전무죄²²¹⁾'의 오명을 씻고 사법 영역에서 국민주권을 실현시킬 기회를 얻게 됐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공판중심주의²²²⁾의 토대를 마련한 것도 노무현 정부의 업적이다.

기사에서도 이러한 평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기대와 관심을 가졌지만, 현재를 생각해 보면 그 기대에 반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시민들도 많을뿐더러 배심제에서 배심원들의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배심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국은 배심제 재판할 때 배심원들의 판결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되며 판사는 진행자의 역할을 한다. 또 검사만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배심원들이 기소할지 말지 정하는 대배심도 있다. 미국은 법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알리는 수단으로 배심제를 사용하고 있고 그만큼 배심제가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그 힘 또한 크다. 하지만 한국은 기소는 검사의 고유 권한이며 배심제 또한 배심원들이 해당 재판을 보고 유·무죄를 판결해도 판사는 배심원들의 결정을

220)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

221) 힘이 있으면 죄가 없고 힘이 없으면 죄가 있다는 말이다.

222) 재판에서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형사소송에서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집중시켜 공판정(공판 기일에 심리를 하는 법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심판하는 원칙

참고만 할 뿐 결국 판결은 판사의 몫으로 돌아간다. 그렇기에 시작하기 전 예상했던 기대만큼 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3) 대표적인 검찰 비리 사건

(1) 박연차 게이트

이 사건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진행되었던 사건은 아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깊은 연관이 있어 넣었다.

국세청이 태광실업의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던 중 농협 로비 사건이 떠오른다. 농협 로비 사건은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돈이 오갔고 세종증권 주식투자를 통해 시세차익을 크게 남긴 태광실업의 박 회장이 로비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또 농협의 자회사인 휴캠스를 시세보다 헐값에 인수한 혐의가 나와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했다.

이때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해주는 대가로 홍기옥 세종캐피탈 대표가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50억 원의 뇌물을 전달한다. 동시에 세종캐피탈의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기 정화상씨와 둘째 형 노건평 씨에게도 접근한다. 결국, 정대근, 홍기옥, 정화상씨는 11월에, 노건평 씨는 12월에 구속된다.

검찰은 3월 31일 태광실업의 홍콩 현지법인인 홍콩 APC의 비자금 계좌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법인에서 500만 달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 씨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여기에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100만 달러가 흘러들어갔다는 정황도 포함됐다. 검찰은 4월10일 연씨를 체포하고, 추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이어 4월11일에는 권양숙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장남 노건호씨를 4월12일 조사했다. 이제 남은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였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은 4월 30일 검찰에 출석했다. 주요한 쟁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돈의 존재를 알고 있었냐는 점이었다. 하지만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돈 문제에 대해서 퇴임 후에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은 검찰수사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에서도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노무현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뇌물수수 혐의자로 앉아 있는 거다”라고 말한 사람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쓴 책 《운명이다》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다.

‘검찰에 도착했다. 이인규 중수부장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차를 한 잔 내놓았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 중수1과장(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조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차분하게 최선을 다해 꼬박꼬박 답변했다. 대통령의 절제력이 놀라웠다. 검찰의 조사를 지켜보면서 검찰이 아무 증거가 없다는 걸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조사 이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인 노정연 씨뿐만 아니라

라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택순 전 경찰청장, 최철국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같이 노무현의 주변 사람들을 향한 강한 수사는 결국 파국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고야 만 것이다.

이 사건은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검찰이 검찰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정권에 반발하며 죽음으로 내몰고 간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검찰이 자신의 의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수사 기소권을 적극 이용해 괴롭힐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었다.

4) 평가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전반에 걸쳐서 검찰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다. 이는 이후 정권들과 비교를 해보아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대통령과 일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지금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아무도 지금의 검찰이 그때보다 나아졌다고 하지 않는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원했던 검찰 스스로의 개혁은 불가능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초기 검사들의 인사를 통해 정치검찰을 쳐내고자 했던 것 말고는 검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개혁 정책들은 진행시키지 않았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참여 재판이나 로스쿨을 도입시켜 기본적인 사법 틀을 바꿔나가며 검찰 자체의 독립성을 보장시켜주었다.

하지만 오히려 검찰은 이 시기를 통해 정권에 휘둘리는 이전의 검찰이 아닌 검찰 스스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더욱 정치적으로 나아가며 부패했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이후 노무현은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가운데, 검찰은 임기 내내 청와대 참모들과 대통령의 친인척들, 후원자와 측근들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추진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런데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검찰 자체가 편향되어 있으면 독립을 보장해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면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내팽개쳐버렸다.”²²³⁾라고 후회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개혁을 시도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검찰의 본질적인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나올 이명박 정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검찰개혁을 추진했음에도 검찰은 정권이 바뀌자 원래의 정치적이고 부패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몇가지 부분에서 개혁은 이루어졌으나 공안부²²⁴⁾가 다시 강화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남용되는 등 퇴행적인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6. 이명박

223)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에서 재인용

224) 대검찰청의 공안부는 공안 관련 사건을 다루는 부서로 대공·선거·노동·학원·집단행동 관련 사건 등의 수사를 수행하였다.

1)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이 자리에 법무부 (장관)도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있다. 사회 구석구석에 많은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과 경찰개혁도 큰 과제이다. 성범죄를 잡는다는 경찰이 성폭행에 가담하는 일이 나오고, 물론 예외이긴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믿어야 할 경찰을 믿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검찰 스폰서 문제도 그렇다. 검찰 일부에서는 해당되는 검사들이 정말 자성하고 통탄하고 있겠지만 일부는 속으로 ‘내가 이권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개인 친분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는가’ 생각하는 그것이 더 잘못된 것이다. 검찰·경찰은 모범이 돼야 한다. 검찰·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을 만한 확고한 자세를 확립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더 이상 검찰을 정치검찰 논란에 휘말리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검찰이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검찰개혁에 대해 이명박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고쳐나가야 할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후 청와대를 검찰의 고위인사들로 구성한 것을 보면 당시 시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 보여주기식으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인사시점	민정수석비서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2008. 2.	이종찬	김경한	임채진
	연수원 2기	연수원 1기	연수원 9기
	경남 고성/ 삼천포제일고/ 고대 법대	안동/ 경북고/ 서울대 법대	남해/ 부산고/ 서울대 법대
	전 서울고검장(2008.2 퇴임)		전임 정부에서 유임
2008. 6.	정동기	상동	상동
	연수원 8기		
	서울/ 경동고/ 한양대 법대		
	전 대검차장(2007.11 퇴임)		
2009. 9.	권재진	이귀남(8월 임명)	김준규
	연수원 10기	연수원 12기	연수원 11기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전남/인창고/고대 법대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전 서울고검장(2009.7 퇴임)	법무부차관에서 이동	전 대전고검장(2008.6 퇴임)
2011. 8.	정진영	권재진	한상대
	연수원 13기	연수원 10기	연수원 13기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서울/ 보성고/ 고대 법대
	전 인천지검장(2010.7 퇴임)	민정수석비서관에서 이동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이동

2) 임기 동안 진행한 정책들

(1) 경찰의 수사 개시권²²⁵⁾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독점적 기소권, 기소 재량권, 형 집행권 등 법률로 정해진 권한만 해도 막강하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수사 개시권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1년 6월 30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명시하고, 검찰청법상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대한 명령·복종 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이와 양립하기 힘든 ‘모든 수사’에

225)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명시하여 검사 독점적·일방적 수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아직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경찰 수사 개시권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수사권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따랐다. 경찰의 수사 개시권 자체는 실질적으로 좋은 영향을 가져오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11년을 기준으로 치안고객 만족도의 차이가 난다. 2007~2010년의 평균 만족도는 66.9점이지만, 2012~2018년 평균 만족도는 77.6점이었다. 아직 70점대 이긴 하지만 평균 10점가량 늘어난 셈이다. 또 경찰이 3개월 이상 끄는 장기수사하는 사건의 비율 역시 평균 43.8%(2007~2010년)에서 평균 17.6%(2012~2016년)로 26.2%나 줄었다.

검찰과 정권 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수사 개시권이 인정되었다는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²²⁶⁾, 나아가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시대의 흐름임을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경찰의 온전한 수사권 보장까지 가지 못하고 일부 수사권 조정에서 그쳤다.

3) 대표적인 검찰 비리 사건

(1) 다스(BBK)

2020년 이명박의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가 인정되며 구속이 되었다. 이명박과 다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사건인 걸까?

이명박이 어떻게 다스를 통해 비자금을 횡령했는지 알려면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우선 14년 전 이명박은 현대건설에서 강남 도곡동의 땅을 구매한다. 이후 지하철이 들어서며 땅값이 10배 이상 된다. 당시에 이명박은 현대건설의 사장이었다.

여기서 두 개의 회사가 등장한다. 다스와 BBK이다. 다스는 투자회사인 BBK에 190억 원의 돈을 투자한다. 여기서 문제는 당시 다스는 연 수입 3억 원 순 자산 157억 원대의 회사였다.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시작한 특별한 실적이 없는 회사에 자신의 순 자산보다 높은 금액을 투자한 것이다.

BBK에는 다스와 함께 삼성생명, 장로회 신학대학, 심텍 등 총 600억 원의 투자금을 모으게 된다. 이렇게 모은 투자금으로 BBK는 옵셔널벤처스라는 회사를 설립한다. 이때쯤 주식 시장에는 옵셔널벤처스에 외국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이명박이 실소유주라는 소문이 돌게 된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액만 300억 원에 다다랐다. 그런데 이때 회사 대표 김경준 씨가 회삿돈 384억 원의 돈을 횡령해 도망간다. 이 사건이 BBK 주가 조작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으로 자살하신 분들도 많았다고 한다.

226)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 김경준 씨는 미국에서 잡힌다. 미국에서는 김경준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열리고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도록 판결이 난다. 당시 스위스에 있던 돈은 미국이 동결시키게 된다. 2007년 김경준 씨는 한국으로 송환된다. 송환된 이후 “이명박도 공범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후 BBK의 세금계산서, 명함 등에서 이명박의 이름이 나오고 2000년 10월 17일에 광운대 강연에서 BBK를 본인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영상 또한 발견된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은 진작에 다른 길을 갔다는 주장을 하고 검찰 또한 무혐의 처분을 한다. 이후 이명박이 당선되고 BBK 주가 조작사건의 피해자들은 보상받지 못한 채 사건은 묻힌다.

그런데 스위스에 동결되어있어야 할 돈이 어느새 다스에 가 있었다. 미국이 스위스에 동결시킨 돈을 풀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이때 미국이 돈을 가져오기 위한 소송의 비용을 삼성과 현대가 대줬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가져온 돈은 다스와 자회사를 통해 비자금으로 횡령되었다는 혐의가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이명박은 구속되지 않았다. 그렇게 묻혀가던 다스 혐의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내걸고 나오며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 이후 10년 만에 재수사가 진행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의 비자금 조성, 횡령 혐의가 인정되고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0억 원을 삼성이 대납했다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다스 사건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과 대통령 시절에는 계속해 무혐의 처분이 나오다가 정권이 바뀌자 그제야 증거가 나오고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4) 평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 정권이 검찰을 악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그 장담이 무색하게 여러 사건에서 검찰수사에 앞서 수사에 영향을 줄 만한 발언을 거침없이 토해냈다. 촛불시위와 관련해 “일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시위는 정부 정책을 돌아보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만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해 검찰수사에 영향을 줄 발언을 삼가지 않았다. 검찰 또한 지난 정부 때와는 달리 아무 저항 없이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따르고, 평검사들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말없이 복종할 뿐이었다. 그렇다 할 정책 진행도 없었다.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준 것 만이 그나마 진행된 정책인데 이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진행된 정책이며,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전 국민적으로 공감하던 때였기에 시대적 요청에 의해 진행된 정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명박 정부는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을 곁에 둬으로써 검찰을 가까이하며, Mb 검찰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 낼 정도로 정부와 검찰의 유착이 강했다. 우스갯소리로 이명박 정부가 한 일 중에 가장 큰 공은 ‘대중들에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알린 것’이라고 할 정도이다.

이명박 정부 5년은 검찰이 스스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전 방위로 보여주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이 나서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허물어뜨리기도 하고, 검찰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온 몸을 던진 5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중-

7. 박근혜

1)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 생각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설특검과 중수부 폐지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 공약들은 검찰개혁에 대한 공약이라기보다는 이명박 정부 때 이미 개정된 검찰청법을 따른 것이고 사실 상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발언은 따로 하지 않고 다음으로 소개할 공약들이다.

박근혜는 모호한 검찰개혁을 들고나와 검찰의 마음을 얻었지만, 인사를 어떤 식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졌다는 다짐은 보이지 않았다. 조직개편, 기구 창설이 끝이다. 그 지점이 박근혜와 검찰의 타협점이다. 이제 우린 5년 동안 박근혜와 검찰이 함께 가는 모습을 지켜볼 일이다.

2) 임기 동안 진행된 정책들

(1) 상설 특별검사제도 도입

상설 특별검사, 도대체 뭘까? 상설 특별검사를 알기 위해선 우선 특별검사제부터 알아야 한다. 특별검사제란 독립된 변호사가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을 독자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특별검사제는 공무원인 일반검사가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할 경우 혹시 모를 부당한 간섭이 생길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특별검사제는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 기반이 되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개별 사건에 대해 진행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국민에게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진배없는 치욕 그 자체였다. 이러한 특별검사제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은 바로 검찰의 공정한 신뢰성에 대한 가장 확실한 경고음이자 검찰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이다.

그렇다면 상설 특별 검사제도는 뭘까?

상설 특별검사제도는 2014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생기며 국내에 들어왔다.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장관이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 수사 대상이 된다는 점, 수사 기간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 준비 기간을 가지고 최대 90일간 수사를 완료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

검찰총장의 명령을 직접 받아 수사하는 대검찰청의 부서이다. 검찰의 부서 중에서도 특별한 조직으로 지칭된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 옷로비 사건, 대우 사건, 한보 사건, 주혜란 사건 등을 성역없이 수사, 처리하여 대검찰청 내에서도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부서로 통했다.

1961년 중앙수사국으로 출범한 이래 52년 만에 대형 권력형 비리에 법의 칼날을 들이댄 영광과 죽은 권력에는 강하고 산 권력에는 약하다는 오명이 나란히 역사 속으로 묻히게 됐다. 폐지 전 5년간 중수부에서 기소한 사건의 1심 평균 무죄율이 9.6%로 일반사건(0.36%)보다 26.7배 높게 나타났다. 대법원에서의 무죄율은 24.1%까지 상승한다. 기소권을 남용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또 중앙수사본부가 그동안 정치권의 사건들을 맡아왔지만, 막상 정치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비리는 전대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논란에서도 알 수 있다. 후보 시절과 대통령 시절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지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자 그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중수부 폐지 방침은 오래전부터 국민적 요구가 있었음에도 논란만 무성했던 '검찰개혁'의 본격적 출발의 신호탄이라고 여겼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 국민적 논의에 부쳐질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개혁 과제가 순탄하게 풀려나가길 기대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특수부에서 이름을 바꾼 반부패수사부가 있고 이 부서가 중수부의 길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3) 법무부 파견 검사 감축

검찰은 법무부의 산하 기관이다. 법무부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권 (공식 부처들) 중 검찰을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공식 부처이다. 따라서 검찰을 견제, 감시하면서 개혁하기 위해서는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있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 또한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되어있다.

법무부는 이렇듯이 검찰을 관리, 감독하고 견제하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문제는 검사들이 법무부의 고위직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모든 고위직은 검사만이 담당하거나 혹은 검사가 다른 공무원과 함께 담당할 수 있게 되어있다. 여기에 더해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은 대부분 검사 출신이 임명되었다. 사실상 검사가 전체 법무행정을 장악하고 있다.

법률상에는 이를 보장하는 규정도 있다. 검찰청법 제44조는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중 보수가 더

많은 직위의 보수를 받으며, 그 검직 검사의 주는 제36조 검사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검사의 법무부 파견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힘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 감축을 진행했다. 하지만 법무부 파견 검사는 초기에는 10명 정도 감소했다가 다시 늘어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졌다. 실패한 것이다. 또 법무부 파견 감축은 검사가 법무부의 주요 고위직 등을 장악하도록 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인데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에 대한 개정 노력은 전혀 없었다. 결국, 박근혜 정부 또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한 보여주기식 움직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3) 대표적인 검찰 비리 사건

(1) 흥만표 변호사 (정운호 게이트)

흥만표 변호사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이다. 흥만표 변호사는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이 연루된 한보그룹 비리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한 박연차 게이트 등 크고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온 검사였다. 그러다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며 돌연 사표를 낸다. 이후 개인 사무실을 차리는데 검찰 내에서 신망이 두터웠기에 많은 거물급 피의자들이 흥만표를 찾게 된다.

흥만표가 사무실을 개업하고 2013년 1년 동안 수입료로 벌어들인 돈은 91억 2000만 원에 달한다. 그러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정운호 대표 사건을 만나게 된다. 여기서 두 가지 혐의가 생기는데 첫 번째로 흥만표 변호사가 정운호 회장에게 수입료를 받고 그 일부를 검찰에 청탁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흥만표는 5년 넘게 전관예우의 특혜를 누리며 같은 분야의 업계 중 매출 1위를 찍을 정도로 꾸준히 엄청난 수입을 거둬들이는데 이 과정에서 10억 원 가까이 탈세를 했다는 것이다.

재판 결과 1심에선 청탁과 탈세 혐의 모두 인정되어 징역 3년을 받았으나 이후 2심에서는 탈세 혐의만이 인정되어 2년을 확정받았고 대법원에서도 2심과 같은 결과로 최종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흥만표 변호사는 출소해 한류 AI 센터에 고문으로 있다.

이 사건은 그저 한 변호사의 탈세 사건으로 보기에 흥만표 변호사의 ‘검찰출신’이라는 타이틀이 사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애초에 ‘검찰출신’이 아니었다면 거물급 피의자들이 찾아올 이유도 개업 1년만에 해당 업계 매출 1위를 할 만큼의 돈을 벌어들이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검사는 검찰을 나와서도 검사의 특혜를 누리며 산다.

4) 평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검찰은 청와대에 장악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신 시대 때부터 기득권층에만 서 있었던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출신 김기춘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2013년 8월부터 검찰은 급속히 청와대에 장악되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 박근혜 대통령은 민정수석

비서관에 서울고검장 출신의 홍경식을 임명하였고, 정부 출범 초기부터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과 함께 '김기춘-홍경식-황교안'라인을 구축해, 소신 있는 검사들은 압박하며 검찰을 장악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다. 2014년에 홍경식의 후임으로 대검 강력부장 출신의 김영한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하고, 민정비서관에는 검찰 출신 우병우를 앉혀 '김기춘-홍경식/우병우-황교안' 라인을 통해 검찰을 더 빈틈없이 장악했다. 박근혜 정부 또한 이명박 정부와 다르지 않았다. 두 정부 모두 검찰을 권력 아래에 두고 움직였던 것이다.

중수부 폐지와 법무부 파견 검사 감축 또한 검찰개혁을 위해 분명히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결국 원 상태로 돌아오거나,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은 형태로 돌아와 더 건드리기 힘든 일이 되어버렸다. 결국 달라진 건 없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 4년간의 검찰을 다음과 같이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 ▷ 권력에 굴종함으로써 권력부패의 공범이 된 검찰
- ▷ 청와대에 완전히 장악된 검찰
- ▷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개혁된 게 없는 검찰
- ▷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했던 검찰로 평가하였다.

8. 문재인

1)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다음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내보인 대통령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개혁에 대한 공약을 통해서도 노무현 정부가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을 완성 시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게 담겨있었다.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2) 임기 동안 진행된 정책들

(1)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중앙정보부 댓글 조작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중앙정보부 여론 조작사건을 조사하다 윤석열 검사가 좌천당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사이가 좋지 않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앉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할 생각이었다. 윤석열을 검찰개혁으로 내세우기 위해 많은 지지를 쏟아부었고 무사히 검찰총장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에 예상대로 이명박과 박근혜의 조사와 처벌이 잘 이루어졌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검찰의 위세가 올라갔다. 그러다 검찰개혁에 뜻을 가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다. 이때 윤석열은 다른 검찰들과 함께 검찰개혁에 반대하며 조국과 조국 가족에게 소위 말하는 '먼지털기식 수사'를 한다. 검찰의 압박 수사를 견디던 조국도 가족에게까지 검찰의 손이 뻗어 나가자 결국 사퇴를 하게 된다. 이는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명백한 반발이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

관과의 갈등²²⁷⁾ 후 검찰을 떠나고 국민의 힘 대선 후보로 돌아온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은 이제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가장 큰 적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선 정석 검찰 코스를 밟아온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긍정적일 리 없었고 초반 예상과는 다르게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혀 적폐청산을 한 것이 촛불혁명 이후 개혁대상이었던 검찰을 정의의 검으로 둔갑시켜 목적을 흐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다.

▼ 공수처 수사 대상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대통령②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③ 대법원장 및 대법관④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⑤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⑦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⑧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⑨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⑩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⑪ 검찰총장⑫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⑬ 판사 및 검사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⑮ 장성급 장교⑯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⑰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p><가족>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대통령의 경우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p>

▼ 공수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수처장(1명)<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7명)<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위원으로 국회의장이 임명·위촉

227) 2020년 11월 24일 언론사 사주와 재판부 사찰, 감찰 방해 등의 6가지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한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은 항의하고 법원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정지시킨다.

- 차장(1명)
 -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차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임기는 3년, 중임 불가, 정년은 63세
- 인사위원회(7명)
 - 수사처 검사의 임용, 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설치
 - 처장이 위원장,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위원으로 구성(처장, 차장 처장이 위촉한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 위원의 임기는 3년,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수사처 검사(25명)
 -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음
- 수사처 수사관(40명)
 -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

공수처에 대한 이야기는 1996년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²²⁸⁾ 입법청원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19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2021년 1월 출범하여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다. 검찰과 별개의 기관에서 검찰은 물론 대한민국 내 권력자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오히려 예전의 중앙정보부 수사 방식을 답습하며 기존 목적대로 잘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정권의 새로운 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일 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인 12월 말 공수처는 통신 조회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공수처가 국회의원부터 일반 시민까지 무작위로 통신 조회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수처는 “유감이다”라는 말을 전했다. 통신 조회는 어떠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번과 같이 무차별적인 통신 조회는 민간인 사찰로 변질 위험이 크고, 통신 조회의 목적이나 계획도 뚜렷하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 사건조사 또한 공수처가 인지 수사²²⁹⁾를 하여 입건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으며, 기존에 조사가 진행됐던 내용을 다시 조사하거나 다시 검찰로 사건을 재송치하는 등 업무능력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아직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지 않아 정비가 안 되어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성급했다고 할 수 있다. 수사를 감당할 충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출범하다 보니 수사업무를 수행할 역량을 키울 기회조차 놓쳐 버린 것이다. 목표 없이 접근했고 실력을 키울 기회를 상실했던 게 공수처 1년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내부적으로 수사 역량을 함양할 기회를 상실하고 외부적으로는 전문 수사기관인 검찰 및 경찰과의 협조체제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수사 성과를 제대로 내지도 못했다.”

228) 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패 행위를 근절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
 229)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 또는 범죄의 단서를 직접 인지하여 조사하는 일.

(3)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노력은 모든 정권에서 공약으로 거는 등 국가 개혁의 중요한 개혁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법적, 제도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건 2011년부터이다. 그전까진 검찰이 공소권, 수사권,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수사 종결권 등의 권한을 갖고 경찰과의 관계에서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아닌 상하 관계로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경찰은 검사의 허가 없이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할 수도, 끝낼 수도 없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검경수사권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안으로 검찰 권력의 일부 분산에 성공한다. 2018년 6월 21일,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수사권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등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뿐 아니라 종결권을 갖도록 했다.

또 검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부패(뇌물 등), 경제(사기, 횡령, 기업 경제 비리), 선거, 공직자,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에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모두 경찰로 보내도록 했다. 하지만 주요 6대 범죄에 들어간 범죄들이 검찰의 부패와 비리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엔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예상이 많았다. 추가로 검사와 경찰이 동일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우선권이 주어지도록 했고, 경찰이 영장신청을 한 범죄 사실에 대해선 경찰이 우선권을 갖도록 했다. 아울러 검찰이 사건을 송치 받은 후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정부안은 헌법에 규정된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일단 유지시켰으나,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으면 고등검찰청 산하 영장심의위원회²³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영장심의위는 검찰이나 경찰 중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이 법안은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많은 논란 속에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국회 본회를 통과했으며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일부 분리하면서 기존 검경 관계와 거대했던 검찰의 권력을 조금이나마 분산시켰다는 상징성과 함께 일대의 전환이 이뤄지게 되었다

물론 문제점도 있다. 올해 사건처리 평균 기간이 건당 61.9일로 전년(53.2일) 대비 8.7일이 늘어났으며,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하면 12.4일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사 인력 증가로 1인당 사건 접수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보유 기간이 늘어나고 처리 시간도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옴다가는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아직 조정된 지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 안정화를 거쳐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230) 사법경찰관 신청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이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기구

3) 대표적인 검찰 비리 사건

(1) 99만원 불기소 세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 옥중에서 라임사태²³¹⁾수사를 대비해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폭로를 했다.

술 접대는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는 김봉현 전 회장과 술자리를 주선한 이 변호사, 그리고 검사 세명이 참석했고 총 536만 원을 썼다고 한다.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을 했었는데, 검찰 수사 결과 일단 술접대 자리는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술접대가 있었던 7월 18일, 저녁 9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술자리가 이어졌다고 한다.

문제는 검찰이 내놓은 신박한 '검사 술접대 계산법'이다. 검찰은 당사자들에게 뇌물죄가 아닌 김영란법을 적용했다. 뇌물죄는 직무의 대가로 얻는 모든 부당한 이익을, 김영란법은 1회 100만 원 이상의 접대·선물 등을 위반으로 보는데 김봉현 회장이 라임 사태의 수사를 대비해 접대했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검찰 내에서 라임 사태의 수사팀이 꾸러지기 전이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의 술 접대 계산은 이렇다. 술 접대 자리에서 함께 참석한 5명 중 검사 2명이 밤 11시쯤 자리를 떴다며, 그 이후 사용한 55만 원, 그러니까 접객원과 밴드를 부른 비용은 빼야 한다는 논리다. 그렇게 검사 2명은 96만2천 원어치의 접대만 받았다는 이유로 검찰 기소에서 빠지게 되었다.

불기소	기소
 검사 2명	 김봉현 검사 술자리 주선 변호사
$[536\text{만원} - 55\text{만원}] \div 5$ = 96만2천원	$96\text{만}2\text{천원} + [55\text{만원} \div 3]$ = 114만5천원

이 사건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표본을 보여준다.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분명히 죄가 있어도 가벼운 죄를 적용해 최소한의 벌을 받게 도와주는 것이다.

4)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야심 차게 검찰개혁 완수를 걸고 나온 정권이였다. 임기 중에도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며 검찰개혁 공약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의 저항은 강렬했다. 또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내밀었던 윤석열마저 검찰개혁에 반발하다 대통령까지 된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완수가 아닌 시작에 불과했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231) 라임자산운용 주가조작사태

고려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장영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최순실 사건에 대한 검찰의 능력 수사, 박주기 수사였어요.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 안 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이따위로 수사하는 검찰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게 국민적인 공감대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시작부터 검찰개혁 하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박수쳤어요. 그런데 방향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인사권을 통한 개혁. 이걸 틀린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검찰을 만들어야 하는데 인사권자가 결국 권력자 아닙니까. 그런데 인사권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개혁이라는 게 개혁일 수 없거든요. 결국, 그 결과 지금의 검찰이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검찰개혁 자체가 실패라고 보는 거고요.”

9. 정권별 비교/평가

노무현부터 문재인까지 총 4번의 정부를 거치며 나아간 부분도 나아갔다 후퇴한 부분도 오히려 퇴보한 부분들도 있다. ‘지금까지의 검찰개혁이 모두 실패했다.’, ‘대한민국은 검찰에게 장악당했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뜻이다. 하지만 만족하고 안심하기에는 대한민국의 검찰은 아직도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제 조직이다. 많은 시민이 오랫동안 갈망했고 4번의 정권 중 2번의 대통령 또한 검찰개혁을 원하고 개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하려 할 때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며 더욱 끈끈히 뭉쳤고 개혁할 의지가 없는 정부는 검찰을 자신들의 칼로 휘두르고 검찰은 기꺼이 응했다. 이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청와대 인사 구성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역대 청와대 민정수석

역대 정부	성 명	출 신	출신 학교
김대중 정부	김성재	비법조인	한신대 신학과
	신광옥	검사	고려대 법대
	김학재	검사	서울대 법대
	이재신	검사	서울대 법대
노무현 정부	문재인	변호사	경희대 법대
	박정규	검사	고려대 법대
	문재인	변호사	경희대 법대
	전해철	변호사	고려대 법대
이명박 정부	이호철	비법조인	부산대 법대
	이종찬	검사	고려대 법대
	정동기	검사	한양대 법대
	권재진	검사	서울대 법대
박근혜 정부	정진영	검사	서울대 법대
	곽상도	검사	성균관대 법대
	홍경식	검사	서울대 법대
	김영한	검사	연세대 경제학과
	우병우	검사	서울대 법대
	최재경	검사	서울대 법대
문재인 정부	조 대 환	검사	서울대 법대
	조 국	법학자	서울대 법대
	김조원	감사원 관료	영남대 행정학과
	김중호	감사원 관료	서울대 법대
	신현수	검사	서울대 법대

그동안 검찰 출신들이 청와대를 많이 채울수록 정부는 더욱 친 검찰의 성향을 띠었다. 하지만 이제는 검찰 출신이 청와대의 주인이 되었다. 앞으로 검찰개혁은 어떻게 될까,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검찰과 청와대는 어떻게 나아갈까..

출처

사이트

정책위키: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894>

기사

김은지, <노무현이 남긴 숙제 10년 만에 진행 중> 『시사인』 2019.5.29.

반기웅, <검사와의 대화, 그 후 18년> 『경향신문』 2021.3.13.

곽희양, <‘검사와의 대화’ 이후 15년... 노무현의 ‘검찰개혁의 꿈’, 문재인이 이룰까> 『경향신문』 2018.6.21.

한상진, <정교한 방법으로 단호하게> 『뉴스타파』 2017.5.25.

한상진, <반성 없이 개혁 없다> 『뉴스타파』 2017.7.13.

황문하, 서보학, <‘권력의 시녀’ 검찰 vs ‘권력의 충견’ 경찰> 『뉴스타파』 2017.5.31.

김새봄, <조국은 모르는 ‘떡검’ 이야기> 『뉴스타파』 2019.9.11.

박성국, <1990년대 YS때 로스쿨 추진...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사시 폐지> 『서울신문』 2015.12.4.

노경진, <사법시험 역사 속으로> 『시사매거진2580』 2017.7.15.

권용태, <법률가 출신 노무현 대통령의 법조계 업적> 『법률신문』 2009.5.28.

박성국, <[박근혜 정부시대 정책 분석] (7·끝) 검찰개혁> 『서울신문』 2012.12.28.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개혁이 출발점> 『한국일보』 2013.2.21.

<윤석열: 추미애가 내세운 윤석열 직무배제 6가지 이유> 『BBC코리아』 2020.11.25.

이동현, <박근혜 정부 어떻게 달라지나-경찰·검찰 개혁> 『중앙일보』 2012.12.26.

송원근,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잔혹사> 『뉴스타파』 2021.12.30.

박진석, <검찰 수사 어떻게 “대선 자금 수사 아니다” 일단 선 그은 중수부> 『중앙일보』 2012.4.24

이현정, <‘역대급 법조비리’ 어떤 게 있나> 『매일경제』 2016.6.20.

여현호, <‘몰래변론’ 흥만표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한겨레』 2017.11.9.

유지안, <‘노무현 자살’로 막 내린 ‘건국 이래 최대 게이트’> 『시사저널』 2016.12.26

손효숙, 류호, <노무현 정권서 흐지부지 된 검찰개혁, 문정부 에서도 ‘난제’로> 『한국일보』 2019.5.24.

연운정, <“여전히 검찰개혁은 미완성, 검찰 권력은 철옹성”> 『매일노동뉴스』 2021.6.10.

이하나, <특별검사제도의 이해> 『충청신문』 2017.1.31.

장필수, <검·특검 4번의 수사 끝에... ‘다스 실소유주’ 13년 논란 이정표> 『한겨레』 2020.10.30.

김태규, 김정필, 황춘화, <“4년전 BBK특검, 다스 100대 비자금 알고도 덮었다”> 『한겨레』 2012.12.9.

안희, <검찰 ‘다스 120억 의혹’ 수사팀 별도 편성... “신속수사”> 『연합뉴스』 2017.12.22.

이승현, <경찰 ‘수사권 독립전쟁’ 20년... 이번엔 성공할까?> 『이데일리』 2017.4.10.

김경택, <한류 AI센터, 황교안 라인 흥만표 전 검사장 영업 소식에 급등> 『매일경제』 2019.2.13.

[사설] <로스쿨 도입 10년, 존재 이유와 목적 되새겨야> 『법률저널』 2018.5.11.

이재근, [칼럼] <중수부 폐지는 검찰의 자업자득> 『참여연대』 2012.12.6.

김정곤, [논담] <공수처 살려면 검찰견제보다 권력 비리 수사에 집중해야> 『한국일보』 2022.2.10.

<다시 주목받는 노무현의 ‘검사와의 대화’> 『YTN』 2019.9.20. 방송

<‘친정’ 검찰 칼끝 앞에 선 흥만표 변호사는 누구?> 『YTN』 2016.5.11. 방송

<‘특별검사’... 무엇이 특별할까?> 『YTN』 2021.4.21. 방송

<상설특검 vs 별도특검... 무엇이 다른가?> 『YTN』 2016.10.28. 방송

<‘첫 검사 사건’ 또 검찰이 기소... 공수처 기소·구속 0건> 『KBS』 2021.12.28. 방송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6.10. 방송

보고서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참여연대 2013.6

「박근혜 정부 4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참여연대 2017.4

「문재인 정부 4년, 검찰 보고서」 참여연대 2021.6

논문

황문규, “개정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수사개시권 및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내용과 한계” 형사정책연구 제22권 3호 2011

권순일, “대한민국 사법개혁 현황과 전망” 사법발전재단 2017

김배원, “차기 정부의 사법개혁 과제” 법연 2012.12

권순민, “국민참여재판의 신청과 배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14.12.19

책

김희수, 서보학, 오창익, 하태훈, 『검찰 공화국, 대한민국』 (상인, 2011) 135P, 114P

문재인, 김인회,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오월의봄, 2011) 107P~142P

김인회, 『문제는 검찰이다』 (오월의봄, 2017) 159P~170P

검사? 대통령? 그의 정체성

10. He's life

1) 학생 시절

윤석열의 공약을 듣기 전 그가 유년시절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검사가 된 후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그의 이런 공약들이 어떤 이유에서 나왔는지 이해하는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그의 삶을 조사해보았다.

(1) 유년기

1960년 윤석열은 서울 보문동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대학교수다. 부유한 집안이다. MBN에서 만든 '윤석열, 국민이 부른 내일의 대통령'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다. 윤석열의 고등학교 친구 말에 따르면 그는 어느 무리에 있던 카리스마가 있고 포스 있는 큰형님 같은 이미지였다고 한다. 그는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국민학교 때까지만 해도 장래희망이 목사였다고 한다.

(2) 대학생

윤석열은 검사에 대한 꿈은 없었다고 한다. 그는 자기 부친처럼 경제학을 하거나 다른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부친이 경제학은 너무 구름 잡는 이야기가 많다면 구체성이 있는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어떻냐고 권했고, 결국 윤석열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1979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이때는 한창 민주항쟁을 하고 있던 '서울의 봄'²³²⁾이라 불리는 시대다.

대학 진학 후 4학년에 광주민주화항쟁이 일어나기 10일 전인 1980년 5월 8일에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반란을 주제로 궐석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이때 윤석열은 재판장의 역할을 맡아 당시 국무총리였던 고 신현확 총리에게는 사형을 선고했고, 전두환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 후 9일 뒤인 5월 17일에 보안사령부에 근무하는 먼 친척이 집에 전화를 걸어 곧 큰일이 있을 거라며 피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강원도 강릉에 있는 외가 친척 집으로 석 달간 피신했다는 얘기가 있다. 여기서 큰일은 광주민주화항쟁을 뜻한다.

초등학교 절친의 부친이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²³³⁾ 간부로 있었기에 윤석열이 전두환 정권을 부정하는 시위에 참여할 리는 없었을 것이며, 부친 또한 기득권층이기에 일반 학생들과는 결이 다른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대학 시절을 보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관은 청소년기에 대부분 형성된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중고등학교

232) 1979년 10·26 사건(1979년 10월 26일) 이후부터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1980년 5월 17일) 전까지의 정치적 과도기를 지칭한다.

233) 박정희정권 붕괴 후 등장한 신군부가 통치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

때 그런 생각을 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 대학 시절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당시 서울대에 가기 위해 오로지 공부만 했던 지방 출신 학생들은 서울대에 와서야 세상에 눈을 떴고, 민주주의를 배웠으며, 독재정권에 맞서 싸웠다. 반면에 부모와 함께 지내는 서울 출신 학생들은 서울대 입학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겪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부모가 보수 성향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윤석열 X파일> 열린 공감 TV 中

2) 검사

윤석열은 사법고시 9수 끝에 합격했다. 34살이라는 나이에 검사가 되었으며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첫 발령을 받았다. 늦은 나이에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의 친구들은 이미 중견검사가 되어있었다. 하지만 그중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 올라 가본 사람은 윤석열뿐이었다. 윤석열은 어떻게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갔으며 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을까.

- 경력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년 2월.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4년 3월~1996년 2월.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1996년 3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1997년 3월~1999년 2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1999년 3월~2001년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01년 8월~2002년 1월.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02년 1월~2003년 2월.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2003년 2월~2005년 2월.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005년 2월~2007년 3월.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2007년 3월~2008년 1월. 대검찰청 검찰연구원
2008년 1월~2008년 3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범죄혐의를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실 파견검사
2008년 3월~2009년 1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2009년 1월~2009년 8월.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2009년 8월~2010년 8월.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2010년 8월~2011년 9월. 대검찰청 중앙 수사2과장
2011년 9월~2012년 7월. 대검찰청 중앙 수사1과장
2012년 7월~2013년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1부 부장검사
2013년 4월~2014년 1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2014년 1월~2016년 1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2016년 1월~2016년 12월.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2016년 12월~2017년 5월. 국정농단의혹사건수사특별검사팀 수석 파견검사

2017년 5월~2019년 7월. 제59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19년 7월~2021년 3월. 대검찰청 검찰총장
 2021년 7월.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2021년 11월.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당선

윤석열의 경력이다. 저 많은 경력 중 윤석열의 검사 생활에서 중요했던 사건들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다(사건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닌 그 사건에서 일어났던 비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 BBK 사건

윤석열은 2007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에 있다가 2008년 1월 이명박의 도곡동 땅과 다스 및 BBK 실소유 의혹으로 BBK 특검(특별검사)²³⁴의 일원이 된다. 팀에는 판사 출신 정호영 특별검사 지휘하에 조재빈, 윤석열, 유상범, 신봉수 등 열 명의 검사들이 파견되었다. 정호영 특검 팀은 다스에서 130억~150억 원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 실제로 당시 수사에 참여한 복수의 관계자들은 '2008년 초 특검 수사에서 다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 추적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2003~2008년까지 5년 동안 130억~150억 원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한지 않았다'고 밝힌 적이 있다.

정호영 특검팀은 2008년 2월 수사 결과 발표 때 다스에서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비자금 조성 책임자를 찾아냈지만 기소하지 않았다. 수사과정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계속해서 검찰이 끝까지 수사하도록 요청하지도 않고 사건을 묻어버렸다.

백억 원대 규모의 비자금 조성은 횡령과 탈세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만약 당시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하여 진실을 밝혔다면 이명박이라는 희대의 사기꾼 대통령은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당시 특검팀은 이전 검찰의 부실수사와 다를 것 없는 결론을 내리며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심지어 이명박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뿐이었다. 특검팀 수장인 정호영과 이명박이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며 2시간 만에 마쳤다.

이때 당시에는 특검의 봐주기 수사로 이명박의 도곡동 땅과 다스, BBK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그대로 묻혔고, 특검팀이 참여했던 검사들은 승승장구했다. 다행히 이명박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 재수사를 받아 다스가 이명박의 것이라 밝혀졌고, 349억 원 횡령과 삼성전자의 미국 소송비 119억 원 대납 등이 사실로 밝혀짐으로써 징역 17년이 확정되었고, 현재도 수감 중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08년 당시 이명박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특검팀에 윤석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 수장 정호영의 지시 아래 일을 했겠지만 이런 사건들을 통해 부

234)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

패검사의 라인을 탄 것이다.

-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이 사건은 2011년에 일어난 일이다. 윤석열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주임검사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도 이 사건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화천대유'²³⁵⁾에 1조 원대로 추정되는 엄청난 수익을 안긴 출발지는 '씨세븐'²³⁶⁾이라는 부동산개발 시행사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본래 LH 주도의 공영개발로 추진 중이었으나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주축이 된 성남시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어 씨세븐 주도의 민간개발로 넘어가게 된다. 민간개발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지주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씨세븐은 이를 위한 자금으로 부산저축은행이 주도하는 11개의 저축은행으로부터 2009~2010년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805억 원을 대출받는다. 여기서 문제는 씨세븐이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알선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점이다.

부산저축은행 회장 박연호의 친척 중에는 타운하우스 사업을 하는 조우형이라는 사람이 있다. 씨세븐과 관련된 회계사 정영학(대장동 사업 전체의 밑그림을 그린 자로 추정)이 조우형을 씨세븐 대표 이강길에게 소개하고, 씨세븐이 조우형을 통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10억 3천만 원의 알선 수수료가 오간 사실이 밝혀졌다.

부산저축은행은 부실대출로 인해 경영 악화에 빠져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사인 대전저축은행은 2011년 2월 17일에, 부산2저축은행과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은 2월 19일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9월 대신증권에 인수된다. 대검 중수부의 수사는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직후인 2011년 3월부터 시작되었고 동원된 수사 인력만 133명에 이렀다고 한다. 단일 금융 비리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였다.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불법 대출 등 금융 비리, 횡령 등 기업 비리, 고위층 로비 등 권력형 비리, 지역공무원 청탁 로비 등 토착 비리의 성격을 모두 갖는 비리의 종합판임을 규명했다'라는 평가를 하였다.

그런데 씨세븐 대출 건은 수사 결과에서 빠져있었다. 부산저축은행에 영업 악화를 초래한 부실대출이 집중적인 수사 대상이었음에도 1800억 원이 넘는 씨세븐 대출 건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 넘어갔다. 대출 만기가 2010년 12월인데 영업정지 처분을 2011년 2월까지 자금을 상환하지 못했음에도 2011년 3월에 시작된 수사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심지어 거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긴 조우형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음에도 참고인 조사만으로 끝내버렸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이렇다. 당시 조우형의 변호를 맡은 사람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검사로 이름을 알린 박영수였다. 조우형은 검찰의 소환 통보

235) 자산 관리 업체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돈을 엄청 벌었다.

236) 대장동 개발 사업에 처음 뛰어든 부동산개발 시행사

를 받은 뒤 <머니투데이>의 법조전문기자 김만배(화천대유의 대표)를 통해 박영수를 소개받았다고 한다. 당시 수사팀의 핵심인 윤석열은 박영수와 중수부 선후배 사이로 서로 각별했다고 한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이 꾸려질 당시 한직²³⁷⁾인 대전고검에 있던 윤석열을 수사팀장으로 발탁한 사람도 박영수이다. 한마디로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다.

-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2012년 대통령 선거기간 중 국정원 소속 심리정보국(현재는 폐지된 부서) 요원들이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김으로써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사건을 말한다. 윤석열은 당시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국정원장 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조직을 사랑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이 탄생한다. 뒤가 없는 수사로 인해 윤석열은 직무배제 및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대구고등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기며 좌천된다.

2016년 윤석열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사건’을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팀장으로 합류하며 다시 이름을 알린다.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구속한 장본인이 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직을 맡게 됐다.

윤석열의 정의로운 검사 이미지는 위에 두 사건을 통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2017년 2월 10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의²³⁸⁾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상돈 전 국민의당 의원의 ‘국정원 댓글 수사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외압에 항명하다 징계를 받고 좌천된 윤석열 검사가 특검에서 맹활약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황교안은 ‘윤석열 검사는 지금 말씀하신 사안으로 좌천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다른 부적절한 이력이 있었다. 그것으로 징계를 받은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은 보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윤석열이 징계를 받을 당시 황교안은 검찰 징계권자인 법무부 장관이었다. 징계 사유는 ‘항명’²³⁹⁾과 ‘재산신고 누락’이었다. 항명은 중앙지검장의 지시를 위반하고 보복 및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집행한 점이고, 재산신고 누락은 2013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배우자 명의의 토지 등 총 9건(5억여 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점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정의로운 일을 하다 좌천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체를 파헤쳤을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징계 이후 대구고등검찰청과 대전고등검찰청 등 한직을 떠돌던 윤석열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윤석열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박영수 특검팀’이라 불리는 팀 수사팀장으로 복귀했다. 당시 특검팀의 핵심인물인 박영수와 윤석열은 보

237) 한가한 직위나 직무.

238) 어떠한 안건을 심의·심사하는 과정의 한 단계로 제안자·보고자에게 의제가 된 안건에 의문점을 묻는 자리

239) 명령이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반항함. 또는 그런 태도.

통의 관계는 아니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당시 수사의 핵심이었던 윤석열은 대출 알선 브로커 조우형을 참고인 조사만 하고 입건조차 하지 않았었다. 이유는 조우형의 변호를 맡은 자가 대검 중수부장 출신 박영수였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대검 중수부에서 한솥밥을 먹던 사이였다. 한마디로 윤석열은 전관예우로 조우형을 사건에서 덮었고, 보답으로 박영수는 윤석열을 팀으로 꽂아준 것이다.

그렇게 금의환향에 성공한 윤석열은 과거 자신을 물 먹인 사건에 대해 복수를 시작한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재소환하여 두 명의 희생자가 나온다. 정치호 변호사와 변창훈 검사가 그들이다. 조사받던 중 두 사람은 숨진 채 발견되거나 투신 사망을 하였다. 변창훈이 국정원에 파견된 것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기 보름 전이라고 알려진다. 그 사건과 큰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사는 무자비했다. 해당 사건에 중심의 있는 윤석열이 재조사의 주체가 된 것부터가 문제라는 언론 비판도 있었다.

- 조국 사건

조국은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2017년 5월 11일 민정수석으로 발탁되었다. 민정수석으로 있던 2년 2개월 동안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앞장섰다. 2019년 7월 26일 조국은 민정수석 자리에서 퇴임하였고, 같은 해 8월 9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다. 조국은 비검찰 출신의 법학자로서 검찰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국민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검찰에게 조국은 모든 권력을 잃게 만들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서 끌어내려야만 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수많은 비리와 말도 안 되는 수사가 이뤄졌다.

수사를 진행하며 무려 100여건 이상의 압수수색 수사를 진행했다. 일반 가정집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다른 압수수색 사건을 보면 YG 엔터테인먼트 사옥 5시간, 삼성바이오 9시간 대한 항공 9시간 등 딱 봐도 엄청난 크기 차이지만 일반 가정집에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의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는데 그에 비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46건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한 시간 전 정경심 교수(조국의 아내)를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했고, 이런 수사들 이외에도 수많은 먼지털이 수사가 진행되었다. 사건에 대해 자세한 부분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는 조국 사건 당시 윤석열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해보겠다.

윤석열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박근혜 정권과 대립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도 거른 채 국정원 직원들을 전격 체포했다가 항명 파동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특히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선언과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그에게 강직한 검사의 이미지를 안겨 주었다. 이로 인해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자신을 검찰총장에 앉혀 줄 것이라 굳게 믿었다고 한다. 기대한 대로 2017년 5월 정부 출범과 동시에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했다.

2019년 문무일 검찰총장이 퇴임할 무렵 후임 검찰총장으로 몇몇 후보가 물망에 올랐다. 윤석열은 청와대 인사 관련자들에게 ‘검사로서 나의 정체성은 국정농단 사건이다. 그런 내가 문

재인 정부에 등을 돌릴 일이 있겠느냐'고 설득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검찰총장이 되어 국정농단 세력의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다고도 한다.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수차례 '윤석열 불가' 의견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윤석열은 결국 검찰총장으로 지명된다. 전임자인 문무일(18기)보다 5기수 아래였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파격이었고 한직을 떠돌던 몇 년 전을 떠올렸을 때 벼락출세라 볼 수 있다.

검찰총장으로 오른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영원히 충성하겠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의 총장 임명을 반대했던 조국과 청와대 민정팀에 대해서는 극도의 반감을 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분노했고, 법무부 장관이 되기도 전에 조국에 대한 보복에 돌입하여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소권, 수사권 남용을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릴 일이 없다는 윤석열은 총장이 되자마자 조국 사건을 통해 등을 돌리게 된 것이다.

3) 정치

검찰개혁의 일환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던 '검찰주의자' 윤석열은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전격 사퇴한다. 윤석열은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사퇴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를 향한 날 선 비판이자 사실상 정계 진출을 선언했다. 약 3개월이 지난 2021년 6월 29일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윤석열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2022년 3월 9일 윤석열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어 대한민국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당선으로 귀결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라는 명제는 문재인 정부와 같지만, 그 명제에 이르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 그가 구상한 공약은 검찰 조직의 독립과 권력의 복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개혁의 '후퇴'를 넘어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11. He's pledge

1)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이 내걸고 나온 공약이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악용될 기회를 차단해야 한다"가 그 이유이다.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 조항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당시부터 14조에 명시됐다. 입법자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수사지휘권 조항을 검찰청법에 포함했다. 모든 검사는 행정부처인 법무부 소속인 만큼,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검찰은 법무부의 행정부처 중 하나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어있다. 정확히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한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대통령이 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들으면 법무부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전까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해 왔다. 2005년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이 유일한 사례였다.

그러다 2021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직무 정지·징계 청구를 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하면 검찰을 제재할 수 있는 요소는 사라진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없으면 검찰은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다. 그럼 이제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검찰개혁은 다시 퇴보하게 될지도 모른다. 검찰이 가진 권력의 크기는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까지 우려의 글을 쓰게 한다.

하지만 오병두 소장(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검찰개혁 시도 이전으로의 '완전 회귀'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여러 정권을 거쳐오며 검찰 권력 자체에 대한 국민의 비판의식이 형성되어 있고, '검찰권 독립'보다 '검찰권 통제'에 방점을 둔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가 높기 때문이다. 이어 "오히려 구체적이고 확실한 개혁방안과 제도 모색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임기응변적 부실한 대응보다 원칙을 갖고 더 구체적으로 제도를 차근차근 개선할 수밖에 없다. 대안 없이 통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권력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그렇게 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렇지만 안심할 수도 없다. 성남주민연대의 취재 파일을 보면 국회에서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가지고 있고, 위에서 오병두 소장이 말한 것과 같이 시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 높아서 처음부터 '정치검찰'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다음 총선을 노려 '조국 사건'처럼 여론을 움직이기 좋은 사건들을 찾아내 민주진영에 흠집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자신들이 권력을 가져오기 좋은 사건들을 터뜨려 여론을 조작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을 찍어누를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검찰이 형식적으로 완성도 높은 사건을 만들어 내면 법원도 검찰을 견제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했다.

위에 나온 어려운 말들 다 빼고 간단히 생각해보자.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국가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고 법무부는 행정부에 속해있다. 검찰은 법무부 안에 속해있는 기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당연하고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다. 검찰을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이상 이 공약은 검찰의 권력을 더

욱 높이기 위한 공약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2) 검찰독립 예산편성권

검찰의 독립된 예산편성권은 검찰내에서 꾸준히 나온 말이다. 현재 검찰 예산은 법무부에서 편성한다. 그러나 관세청과 경찰청을 포함한 17개 외청 중에서 독립된 예산권이 없는 청은 검찰청뿐이다. 2019년 국회가 법무부로부터 예산권을 떼어내 검찰에 주려고 했으나 법무부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반대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검찰과 국회의 '직거래' 가능성 때문이다.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이 주어지면 검찰총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예산안을 발표해야 해서 진행 중인 수사에 압박과 회유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과 예산을 용인해주는 방식으로 교감할 수도 있다. 2004년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는 '외국도 검찰 조직의 예산편성은 법무부에서 관장한다'고 밝히며 검찰에 예산편성권을 주는 것에 사실상 반대했다.

“행정부 내에서 민주적 통제를 받고 개별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두 가지 원칙을 잘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장치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건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검찰을 삼권분립의 법원(독립기관)처럼 만들겠다는 말처럼 들린다. 헌법 원리에 맞지 않는다.”(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3)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개혁

윤석열 당선인은 공수처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가 말한 정확한 공약은 공수처법 제 24조를 폐지한다는 공약이다.

공수처법 제24조

- ①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의 목적은 '정권 눈치 보기' '제 식구 감싸기' 등 검찰의 수사 비리를 없애버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런 조항으로 인해 공수처가 정치화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의 뒷받침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2021년에 있었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다. 검찰은 “공수처 외의 수사기관이 김사의 고위공직자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²⁴⁰해야 한다”라는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아직 수사팀 구성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었기에 봐주기, 몽개기, 수사 공백 등의 논란이 생기는 것보다 이 사건을 공수처가 아닌 검찰로 재이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재이첩했다. 근데 공수처는 사건을 단순히 이첩하는 것이 아닌 '기소 유보부 이첩'²⁴¹⁾을 한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공수처가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든지, 검찰에 사건을 넘기려면 기소 여부 결정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검찰은 공수처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 사건을 기소했다. 공수처는 사건 사무규칙을 만들며 기소 유보부 이첩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지만, 법원은 '잠정적으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하다'라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게 기소 유보부 이첩 관련 조항이 삭제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개선을 시도했다가 안 되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안철수는 공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공수처 폐지는 국회의 동의를 얻기 힘든 상황이라 했다. 국회의원 300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172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안철수는 공수처 폐지법이 민주당에 장악된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공수처에 예산을 최소한도로 배정해 수사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 검경수사권 재조정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진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경찰이 1차 수사를 맡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건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게다가 경찰과 검찰이 서로 '사건 떠넘기기'도 발생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은 '책임 수사제'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되었을 때 다시 경찰로 넘기는 것이 아닌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경 협력 관계가 검찰의 직접수사 강화로 다시 수직관계로 회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

12.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대한민국은?

윤석열이 당선되고 1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짧은 시간이지만 세상은 이미 청와대 이전 문제 등으로 시끄럽다. 윤석열의 임기가 시작되고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되는지 검찰 권력 중심으로 얘기해보겠다.

임기 시작 후 다음 총선까지 크게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다. 현재 국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절반 이상은 차지하고 있기에 검찰 권력 강화를 위한 공약, 법안들은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껏해야 공수처의 예산을 최소한도로 배정하여 공수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240) 받은 공문이나 통첩을 다른 부서로 다시 보내는 것.

241) 공수처가 검찰 등으로 사건을 이첩할 때 기소권을 제외하고 수사권만 보낼 수 있다는 것으로 수사를 마치면 기소 여부는 결정하지 말고 다시 사건을 되돌려달라는 뜻.

것으로 예상한다.

총선 후에 절반 이상의 국회 의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할 경우 위에 나온 공약들이 모두 실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정한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이다. 지금의 검찰도 무소불위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모든 공약이 통과된다는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민주적 통제 방안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①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법무부의 ②예산편성권과 ③인사·조직에 관한 권한이다. 저 중 1번, 2번을 없애는 것이다. 검찰은 인사, 조직에 관한 권한 말고는 다 가진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검찰개혁에 관한 관심이 더욱 극대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사독재 정부가 아닌 검사독재 정부에서 살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처

사이트

1.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2. Youtube: “[더초이스 2022] 이재명 vs 윤석열”, <뉴스타파>, (2022. 2. 23.)
https://www.youtube.com/watch?v=NERlcbEC2nc&list=PLtZnhRoQo2Pwl_-r-mIPusW-os6mfG_0T&index=9
3. Youtube: “[제20대 대선 특집 다큐] 윤석열, 국민이 부른 내일의 대통령”, <MBN News>, (2022. 3. 10.)
<https://www.youtube.com/watch?v=uENMqT5Ew6s>

기사

- 하주희, <사진으로 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대기>, 『월간조선』, 2022.03.10.
박희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걸어온 길>, 『시사매거진』, 2022.03.14.
문동주, <윤석열·박근혜의 질긴 악연(?)...그 시작은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뉴스1』, 2022.03.26.

책

열린공감TV, 『윤석열 X파일』, 열린 공감TV, 2022

<그래서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1. 그래서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검찰의 무소불위(無所不爲)²⁴²한 권력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발제문을 읽는 사람과 우리의 발표를 보는 사람 중 살면서 검찰 조사를 받아본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후자인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의 권력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었길래 사람들은 검찰개혁을 외치는 것일까.

2.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

<꼬리에 꼬리는 무는 검찰 이야기>에서 재벌, 언론, 정치인 등 검찰의 권력형 비리가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가 재벌도 아니고 언론 쪽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닌 데다 정치인도 아니기에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으로는 와닿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검찰에게 피해받은 사건들을 조사해보았다.

1) 비리 경찰 사건

이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으로 하루아침에 ‘비리 경찰’이 된 사건이다.

위 형사는 2005년 순경으로 시작해서 1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해온 베테랑 형사이면서 3명의 아이와 아내가 있는 사람이었다. 경위로 진급하고 벌어진 일이다.

위 형사가 없는 아내와 막내 아이만 있던 집에 검사 3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다. 아무 것도 모르던 아내는 이 상황이 당황스러워 검사가 돌아가자마자 위 형사와 통화를 했다. 그때만 해도 위 형사는 “나는 아무 죄가 없다. 걱정하지마라. 조사만 받고 금방 돌아가겠다”며 아무 일 없을 거라는 생각에 변호사 선임도 거절했지만 그게 출소 전 마지막 통화가 됐다.

사건은 이렇다. 2017년 위 형사는 자신의 정보원들로부터 마약 사범이 위 형사에게 뇌물을 줬다는 소문을 들었다. 혹시 몰라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를 해본 결과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위 형사는 검사실에 전화를 걸어 조사받을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위 형사는 체포가 됐고, 사유는 자신의 사건을 검색해 수사 상황을 인지했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현재 수사 상황을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는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체포한 것이다.

공소장에는 뇌물수수, 직무유기, 범인도피, 부정처사후수뢰, 공무상비밀누설. 총 5개의 죄명이 적혀있었다. 위 형사를 제보한 사람은 2014년경 위 형사가 사건을 맡았던 마약 사범 유모 씨다. 유 씨가 2016년 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일이 시작됐다. 유 씨는 제보 의사를 밝혔고, 2016년 11월 수원지검 369호 정정욱 검사실에서 유 씨를 소환했다. (마약

242) 하지 못하는 것이 어디에도 없음.

은 제보가 없으면 수사가 안 되는 영역이다. 그래서 제보를 하는 사람한테는 형량을 줄여주는 선처를 해준다. 그렇기에 거짓 제보가 정말 많다.)

유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위 형사가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눈감아줬고, 그 대가로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또, 자신이 위 형사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을 구치소에서 알게 된 마약 사범인 정모 씨가 차 안에서 지켜봤다고 했다. 유 씨가 돈 주는 것을 봤다고 한 3월 23일에 정 씨는 이미 수감되어 있었다. 그러자 돈을 줬다는 날짜는 1월 25일로 바뀌었다. 날짜가 맞지 않아 말을 바꾼 것이다.

유 씨는 2월에도 돈을 건넸다고 했다. 유 씨는 '송파에 있다가 위 형사의 전화를 받고 신림사거리 쪽으로 갔는데, 가는 중에 정 씨에게 돈을 빌려 갔다'라고 진술했다. 유 씨의 휴대전화 위치에 따르면 유 씨는 송파구에서 출발하고 36분 뒤 신림동에 도착했다. 송파에서 역삼동을 들러 신림까지 36분 안에 가는 것이 가능한지 PD수첩이 유 씨의 이동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 본 결과 소요 시간은 총 58분, 36분 안에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위 형사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다. 진술에 나온 시간대에 동료 형사들의 카드 결제 내역을 수집하는 등 현장에서 증거를 모았다. 마약 사범의 진술을 거짓으로 만드는 증거들을 제출했는데도 크게 변한 것은 없었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유 씨가 정정욱 검사실에 불려간 횟수는 68회. 유 씨의 핵심 증언들이 바뀌면서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검사는 아랑곳하지않고 그대로 기소했다. 손병호 변호사는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진술 간의 모순이 있으면 증거로서 가치가 없으므로 그 진술은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하지만 사건 담당인 정정욱 검사는 원칙을 무시한채 위 형사를 기소한 것이다.

다행히도 2018년 위 형사의 동료인 최 형사는 유 씨로부터 '진실이 왜곡된 것을 밝히면 위 형사님께 무죄가 선고되는지요' 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유 씨가 거짓제보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다른 재소자의 증언도 이어졌다. 결국, 위 형사는 2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PD수첩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정정욱 검사에게 입장을 물었다.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질문에 정정욱 검사는 진술이 일부 변경됐지만 중요한 부분에서는 일관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위 형사는 아무 일 없이 잘 살아온 사람이다. 검사의 무리한 조사로인해 억울하게 기소도 되고 구속까지 됐다. 남의 일이라 생각하면 별 생각 없이 넘길 수 있지만 이런 사건이 자신의 일이라 생각해보자.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행하면서 평화롭던 일상을 보내던 중 누군가의 거짓 제보로인해 조사도 받고 압수수색도 당하고 구속까지 당했을 때 어떤 기분일까. 자신이 만약 이 사건의 피해자라면 어땠을지 생각해보면 좋겠다.

2) 부장검사 불기소 사건

지난해 7월 8일, 서울 올림픽대로 진입과정에서 현직 부장검사가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은 수사 이후 검찰에 기소를 바란다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두달 전, 같은 곳에서 같은 사고에 대해 부장검사와는 다르게 기소하여 벌금형을 받게 했던 것이 드러났다.

사고 차량은 4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차선을 바꾸기 위해 안전지대를 가로지르다 옆 차선에 서 주행하던 차량과 부딪혔다. 안전지대를 넘어 길가 쪽 차선으로 끼어들려 하다가, 직진하던 피해 차량과 앞 부분끼리 부딪힌 것이다. 전치 2주 부상을 입은 피해 운전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검사의 안전지대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고 한 달 뒤 기소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두 달 전인 5월 8일, 비슷하게 올림픽대로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차선을 바꾸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현직 변호사는 “안전지대 밖이든 안이든 관계없이, 안전지대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안전지대 침범 사고에 해당됩니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검찰의 고유 권한인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이용해 제 식구를 감싸는 비리의 여지가 충분하다. 법을 집행하는 검사가 비슷한 사건에 대해 적용하는 법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검찰 조직의 악습인 ‘검사동일체²⁴³⁾’ 원칙과 현재 부패의 척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지만, 그 부상을 입힌 주체는 사라졌다.²⁴⁴⁾



그림 30 안전지대



그림 31 안전지대

3. 검찰 권력은 눈감고 총 쏘기

검찰의 권력 남용이 우리의 삶과 관련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살면서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가 되는 일은 현저히 적을 것이다.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일은 더 적을 것이다. 하지만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무소불위한 검찰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243) 검찰권의 행사에 있어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복종관계에 있다는 원칙. 즉, 검찰 조직의 피라미드형 계층구조 원리를 말함

244) 2022.4.07일 MBC 뉴스 보도

것은 방관이지 않을까. 위에 나왔던 사건들처럼 검찰이 정치인과 힘을 합치면 법을 개정할 수도 있고, 재벌과 힘을 합치면 경제적인 비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언론과 힘을 합치면 수많은 가짜뉴스로 피해 보는 사람이 생길 것이며 아무 죄 없는 일반인, 곧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구속할 수도 있다. 검찰 권력은 눈감고 총 쏘기와 비슷하다. 언제 어디서든 총알이 나에게 올 수 있다. 나한테 생긴 일이 아니라 해서 내 삶과 관련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돌아올 여지가 있다.

출처

인터넷

Youtube: “그는 어떻게 '비리 경찰'이 되었나”, <MBC PD수첩>, 2021.12.29.

<https://www.youtube.com/watch?v=yC5J3G-XeCA>

기사

김민형, <같은 장소 · 비슷한 사고인데.. 부장검사만 ‘불기소’?>, 『mbc 뉴스데스크』, 2022.04.26.

<변화를 위해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검찰 이야기’ 파트와 ‘그래서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파트를 통해 검찰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걸 알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검찰은 문제가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검찰이 바로 서면 나라도 바로 선다. 하지만 검찰이 바로 서기 위해선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조금이나마 해답을 찾기 위해 다른 나라는 어떤 사법 체제로 운영이 되고 어떤 방법을 통해 권력을 통제하는지 확인해보려고 한다.

1. 독일

독일 형사소송법의 수사 절차상 검사는 수사권과 경찰 수사에 대한 영장 통제 등 우리나라의 수사체계와 닮아있다. 다른 점 중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소법정주의는 기소편의주의의 반대말로 기소에 대해 검사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으며, 법으로 정해진 범죄의 기준을 충족하면 무조건 기소를 해야 하는 주의다. 기소법정주의는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 기소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가지지만 어떠한 상황도 고려하지 않는 기계적인 기소라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국민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과 기소독점주의에 폐단을 방지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독일에서 경찰은 초동수사권²⁴⁵⁾을 갖지만,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 범죄 수사에 있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직적·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협력을 한다. 검찰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검찰 내 ‘자체적인 수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경찰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제196조에서 ‘검사의 지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독일의 수사 구조상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설명하는 형사소송법에는 ‘촉탁과 위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것은 검사가 경찰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경찰의 고유영역인 집행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독일의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거나 경찰의 수사에 개입하기보다는 경찰 수사에 대한 법적 통제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찰은 사실상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사의 법률적 조언을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독일 형사소송 절차상 검사에게만 영장 청구권이 부여되는 이유는 검사가 사실상의 수사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에 대한 법률적 통제 도구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검사는 수사의 지휘자 임무를 수행하지만, 검사와 경찰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협력관계가 유지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는 독일의 수사체계는 우리나라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서 보이는 특징과 뚜렷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독일은 재판절차에서 참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참심제란 형사사건 등에서 일반인이 참심

245) 사건 발생 직후에,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긴급 수사 활동

원²⁴⁶⁾ 신분으로 법관과 합의체를 구성, 판결에 참여하는 제도로, 참심원이 재판부와 함께 유무죄평결 및 양형, 법률해석 등에 관여한다. 참심제의 특징은 유무죄평결과 양형 결정까지 함께하는 것이다.

독일의 시스템과 우리나라의 시스템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범죄의 조건이 성립되면 무조건 기소해야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기소편의주의와 반대되지만 뭐가 더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 서로의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기소편의주의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기소법정주의의 도입 역시 생각해 볼 점이 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검찰은 독일과 달리 자체적인 수사 인력을 보유하고, 이 수사 인력을 통하여 주요6대범죄에 한해 자체적인 직접수사를 수행할 수 있지만 독일은 수사 인력이 부족하여 자체적인 수사가 어렵다. 그렇기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 신청의 심사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통해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고 수사의 오류를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독일은 검·경의 갈등 관계보다는 협력관계가 더 부각 되고 있다.

또 독일은 참심제를 통해 민주주의의 국가로서 형사사법체계 속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 있고 권력 분산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있다.

2. 미국

미국은 다민족이 결합 된 지방분권²⁴⁷⁾적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연방제²⁴⁸⁾ 조직으로 되어있다. 미국의 검찰 조직은 연방 국가로서 연방 검찰과 주 검찰, 카운티 검찰로 나뉘어 있으며 엄격하고 철저히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연방 검찰은 주 검찰의 상부 기관이 아니며 연방법무성(법무부)에 소속된 별개의 기관이다. 따라서 모든 주에는 연방 검찰청과 주 검찰청이 설치되어 있다. 대부분 범죄에 대한 관할권은 주 검찰에서 가지고 있으나 마약 범죄와 같은 국가적인 차원의 범죄는 연방 검찰이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검사는 연방 범죄사건, 지방의 검사는 주의 제정법이나 보통법상의 범죄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모든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장급 이상의 인사들은 모두 대통령이나 시민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직이다.

- 미국 검찰의 권한

미국의 검사는 기소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기소편의주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과 공소 유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국 검찰의 권력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수사절차에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독일과 닮아있다. 원칙적으로 경찰이 범죄 수사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범죄 수사의 주체로 활동을 하며, 구속 영장을 제외한 체포, 압수수색 영

246) 참심제에서, 국민 가운데에서 선출되어 법관과 함께 재판의 합의체를 구성하는 사람.

247) 통치의 권능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분배를 인정하는 제도

248) 각각의 나라가 모여 하나의 나라를 형성한 구조.

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청구권을 가진다. 검사는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만 담당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 활동에 대한 통제는 검찰이 아닌 전적으로 법원의 임무이다. 경찰의 수사 개시부터 양 기관은 기소를 위해 긴밀한 협의와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공소권만 행사할 수 있으나 조직범죄나 경제범죄 등 기타 사회 구조적 범죄 등의 수사에서는 예외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미국 역시 검찰 내의 수사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경찰과 상호협력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 미국의 기소 절차와 배심제²⁴⁹⁾

중죄의 형사사건을 재판으로 진행하게 되면 기소는 서면으로 공식화한다. 이때 두 가지 종류의 서류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약식기소와 정식기소이다.

약식기소는 피의자가 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처벌을 청구한다는 검사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류이다. 미국은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며 정식기소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집단인 대배심²⁵⁰⁾의 결정에 의해 처벌을 정하는 서류이다. 대배심은 중죄에 있어 검사의 기소가 법률 요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피의자가 범행하였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범죄에 대해 정식기소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검사는 사건을 대배심에 먼저 제출하지 않고서는 진행 시킬 수 없다. 피의자에 대해 대배심원들이 타당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대배심은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고 소송 절차는 끝나게 된다. 대배심에 의한 절차는 일방적이고 비공개로 진행되며 피의자나, 변호인, 어떠한 시민도 참관이 되지 않으며 대배심원, 검사, 증인만이 유일한 참석자이다.

이렇듯 미국 역시 독일과 비슷하게 검찰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는 있어도 고위 검찰 인사들의 선출이나 경찰의 구속 영장을 제외한 영장 청구권, 배심제 등 검찰의 편파적 기소 방어와 검·경의 권한 분배를 통해 수평적 협력관계를 잘 이루고 있다.

3. 프랑스

우리나라의 경우 삼권분립에 원칙에 따라 행정부, 입법부와 사법부가 있다. 사법부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부의 여러 부서 중 법무부가 있고 그 밑에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이 속해있다. 반면 프랑스에는 사법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법무부 내에 법원이 소속되어있다. 법원은 기능 분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는 검사, 수사는 수사 판사, 재판은 재판 판사 등으로 분리되어있다. 검사는 국가 형사정책을 집행하는 자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판사는 법무부 장관에 대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면서 업무를 행한다. 또 법원 내에 검찰은 별도의 기관이 아닌 여러 부서 중 하나의 개념으로 소속되어있다.

특이하게 프랑스에는 흔히 수사 판사, 예심판사, 예심 수사 판사 등으로 번역 되는 제도가 존재한다. 법원의 판사 중 일부는 재판법원의 판사로서 일반적인 재판절차를 담당하고 일부는

249)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회 인사(배심원)들이 재판 또는 기소에 참여하여 사실문제에 관한 평결을 하는 제도.

250)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배심제의 한 종류. 보통 16~23명 정도의 사람들로 꾸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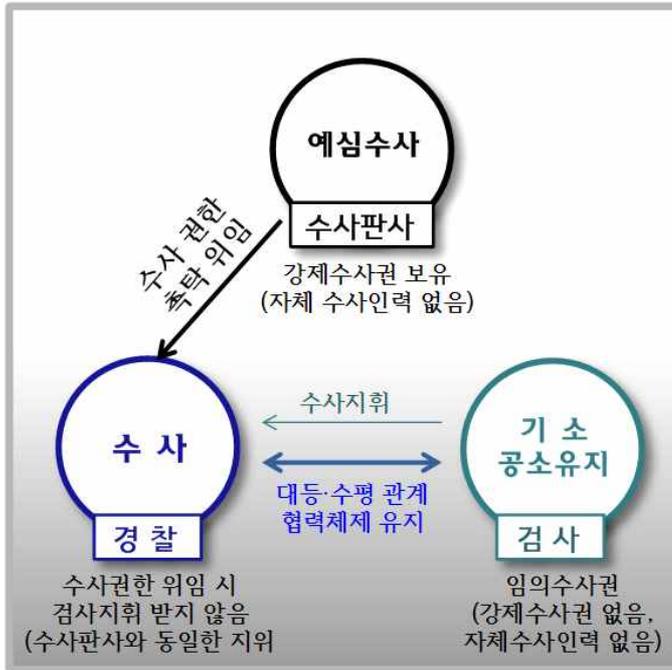
수사 판사로서 예심절차 또는 예심 수사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예심절차란 사건이 재판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미리 검토하여 재판법원으로 이송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하고, 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사 판사가 사건에 대해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가짐과 동시에 판사로서의 결정권을 갖는 제도다. 하지만 수사 판사가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예심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수사 판사에게 예심 수사를 청구한 사건만을 담당한다. 프랑스에서는 범죄를 그 법정형에 따라 중죄(무기 징역형 또는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경죄(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750유로 이상의 벌금형), 위경죄(3,000유로 이하의 벌금형) 세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중죄 사건의 경우 예심절차가 의무적이므로 검사는 중죄 사건에 대해서 수사 판사에게 예심 수사를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중죄 사건이 아닌 경죄 사건이나 위경죄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예심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 판사에게 예심 수사를 청구하게 된다. 검사가 수사 판사에게 예심 수사를 청구했을 때부터는 그 사건의 주재자는 검사가 아닌 수사 판사가 된다. 그렇기에 검사는 사건을 넘기기 전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 수사를 넘긴다. 수사 판사는 프랑스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의 권력을 갖기 때문에 최고사법관회의의 동의,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기소권과 임의수사권²⁵¹⁾을 가지고 있고, 수사 판사는 강제 처분권과 예심 수사를 맡고 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자체 수사 인력이 없기에 거의 모든 수사는 경찰로 넘어간다. 수사 판사가 경찰에게 수사를 넘기는 경우에는 수사 권한 축탁²⁵²⁾과 위임의 개념으로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된다. 그때부터는 수사 판사와 동일한 지위로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지휘를 하게 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경찰과 검사는 수평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체제를 유지한다.

프랑스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수사 판사도 결국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서로 해야 하는 일이 다르고,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기에 서로 협력을 해야 하고 서로를 견제해야 한다. 그렇기에 수사, 기소, 재판의 과정에서 비리가 생기는 일도 많이 없을뿐더러 모든 사법관은 정치적인 장치로 사용될 수도 없고, 사용될 이유도 없다.

251)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인 조사에 의한 수사.

252) 일을 부탁하여 맡김.



끝으로 우리나라와 다른 점을 정리해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

- 첫째는 검찰과 수사 판사의 자체 수사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과 수사 판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경찰보다 많지만, 자체 수사 인력이 없기에 경찰에게 수사를 위탁하는 입장이다. 그렇기에 경찰과의 수평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봤자 검찰 쪽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리거나 수사 종결을 할 수 있다. 애초에 검찰에는 자체 수사 인력이 많기에 수사를 경찰에게 위탁할 이유가 없다. 검찰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가야 하기에 경찰과의 협업보다는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경찰과 검찰은 절대 수평 관계가 될 수 없다.
- 둘째는 예심 수사가 있다는 점이다.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모은 자료나 증거들을 수사 판사가 본 재판에 올리기 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한 자료는 더 모으고 불필요한 자료는 버리는 과정이 있기에 재판과정에서 어이없는 결과가 나오거나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줄어든다.
- 셋째는 재판을 참심제로 하는 것이다. 유무죄평결과 양형 결정을 재판부와 참심원이 함께 하기에 정치에 영향도 자본가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판사를 매입하거나 검사와 변호사가 짜고 재판을 끌고 갈 수 있지만, 프랑스는 참심원이 있기에 불공정한 재판이 나오지 않는다.

프랑스는 권한 분리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제도가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권력이 강한 곳에 어떤 페널티를 주거나 본 재판에 들어가기 전 한 번 더 확인하

는 예심재판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검찰의 비리와 정치 권력화가 최소화되어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민주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4. 영국

영국 검찰(국가기소청)은 경찰의 광범위한 업무로부터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생겨난 기관이다. 영국 검찰은 그 의미에 있어 우리나라의 검찰과 많은 상이점을 보이는데 그것은 수사 주체인 경찰이 기소 업무까지 수행하는 데 따른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되어 기소(주로 공소 유지)를 전담토록 하기 위한 기구로서 권력기관이라기보다는 국민과 경찰·피해자를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소유 법률회사의 성격이 짙고 승소의 가능성을 최우선 고려대상으로 삼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경찰과 피해자들로부터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자주 듣기도 하였다.

- 검찰 견제장치

영국은 검찰 자체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혹시 모를 기소권 남용을 위해 검찰 내에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 먼저 '법무 총장'이라는 직책이 있다. 법무 총장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검찰총장을 감독하는 역할이다. 또 영국에는 치안법원²⁵³과 형사법원²⁵⁴이 있다. 검사는 치안법원에 출두할 수는 있으나 형사법원에는 출두할 수 없고 이런 경우 법무 변호사²⁵⁵들에게 공소 유지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 경찰관서 내 검사파견 제도

범죄 기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의무 중 경찰의 요구에 따라 조언을 해주는 것이 있다. 이는 처음부터 잘 실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1997년 발표된 나레이의 논문에 의하면 치안판사법원에 회부²⁵⁶되는 사건은 줄었으나 사건을 경찰에서 재판까지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늘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경찰과 검찰이 분리된 채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에게 소추²⁵⁷에 대한 조언을 저녁과 주말에도 제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검찰이 경찰에게 조언을 필요에 따라 제공하게 된다면, 검찰을 설립할 때 예상했던 각자 독립되어 있지만 협력하는 이상적인 사법 체제를 완성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게 '조언'이 아닌 수사지휘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경찰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심지어 검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할 능

253) 치안법원은 영국의 치안판사가 재판하는 1심 법원이다. 영국 전역에 360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다. 모든 형사사건은 치안법원에서 시작한다. 일부 민사사건, 즉 가족법 사건도 재판한다. 영국의 형사사건의 95%는 치안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된다..

254) 경범죄는 치안법원에서 재판한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강간, 살인 사건도 치안법원에서 심리한 다음 영국 형사법원으로 이송한다.

255) 검찰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변호사

256) 재판에 사건을 넘김·돌려보냄

257)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발의하는 일

력도 부족하니 검사의 조언이 필요하고, 이 조언을 경찰이 듣지 않았을 경우 검사가 기소 단계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속력이 있는 '지휘'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파견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검사의 조언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경찰을 지휘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다. 영국의 법규²⁵⁸⁾에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경찰과 밀접하게 일하지만, 그들로부터 독립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찰을 포함한 다른 사법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명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는 검찰과 경찰이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고 어떠한 이유로도 서로 지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검찰이 경찰에게 조언하는 것은 온전히 협력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영국은 경찰에 비해 검찰의 역할이 적고 검찰 또한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려고 하지 않는다. 또 경찰에 검찰을 파견하여 조언하는 제도는 대한민국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료된 후 문제로 거론되는 사건 접수부터 재판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좋은 참고 예시라고 생각한다.

5.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좋은 사례

이렇게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의 사법 체제를 살펴봤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분도 너무나 다른 부분도 존재했다. 그렇다면 각 나라 중 일부분을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검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1) 정치검찰 벗어나기

- 검찰 인원 축소

위 나라들의 가장 주된 특징은 검찰 내에 수사 인원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인원이 적어 수사 권한이 있어도 이를 할 여력이 되지 않아 경찰과 협력해야만 사건처리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경찰은 수사, 검사는 기소라는 권력분립이 이루어진다. 이는 나중에 한 집단이 권력을 악용하려고 해도 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만 경찰, 검사, 판사 모두를 포섭해야 하니 사실상 다른 집단이 사법 체제를 휘두르지 못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검찰의 수사 인원을 축소하는 방식은 사법 체제가 검사에게 모두 몰려있고 정치 권력에 휘둘러 '정치검사'라는 말이 나오는 우리나라 사법 체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기본적인 권력 분할이 되어있는 것이 전제되었을 때 도입 가능한 일이다.

2) 공정한 기소를 위해선

258)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 규범

- 예심 제도

예심 제도란 위에서 설명하듯이 사건을 기소하기 전 이 사건이 기소될 사건이 맞는지, 기소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리는 없었는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하는 재판이다. 우리나라는 무분별한 기소권 남용이 정말 심각하다. 약간만 의심되도 기소를 할 수 있고 의심이 아닌 누명 씌우거나 사회의 관심 돌리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무분별한 기소권 남용은 정말 많은 피해자를 만든다. 아무 죄 없이 기소되어 많은 돈과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된다. 또 기소 후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주변의 시선을 견디는 것 또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로 남는다. 기소권 남용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이 문제들을 예심재판을 통해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다.

- 대배심 제도

대배심은 예심 제도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주로 진행되는 대배심은 배심제를 통해 배심원들이 해당 사건을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검사는 기소하려면 대배심을 통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방법을 통해 검찰은 기소권을 이용해 국민을 압박하는 것이 아닌 국민에게서부터 권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 바로 설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지 않다. 법 상에 명시만 되어있을 뿐이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정치인, 검찰, 재벌이 주가 되고 있고 검찰은 국민이 대표로 뽑은 대통령을 '5년짜리 공무원'으로 생각하며 무시하는 상황에 다다랐다. 지금의 대한민국 검찰개혁은 권한이 권력이 되지 않고 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검찰개혁을 통해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도 있다. 대배심 제도는 이런 목적을 가장 잘 이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독일, 미국 출처

논문

허황, “독일에서의 수사구조론- 특히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중심으로 -”, 2018, 초록 인용

김무형, “독일 경찰과 검찰의 상호관계”, 2018, 초록 인용

전찬희, 이병근,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독점적 검찰 권력의 견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이론
실무학회, 2018, 56p, 68p, 69p

박노섭, “독일검찰제도의 탄생과 그 시사점”,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130p~131p

프랑스 출처

사이트

imagistrat: <http://imagistrat.blogspot.com/2016/09/blog-post.html>

전문잡지

한상훈 <외국의 검찰제도와 한국의 검찰개혁>, 『내일을 여는 역사』, 2009년 9월, 132p~155p

기사

손진석 <사르코지 법정 세운 프랑스 '수사 판사'란>, 『조선일보』, 2019년 10월 4일

논문

김택수 “프랑스 검찰제도의 생성과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2005, 98p~125p

영국 출처

한상훈 “외국의 검찰제도와 한국검찰 개혁에 대한 시사점” 법과사회이론학과 2009

최대현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의 원칙과 한계: 영국 검찰 제도의 발전과정과 시사점” 경찰대
학 2012

이기수 “영국 국립 기소청 설립 이후 경찰과 검찰 관계의 변화 연구”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2010

처방전

‘검찰을 검사한다’ 발제의 마무리 단계이다. 지금까지 알아본 문제점이나 다른 나라의 사법 체제 등 앞선 내용을 종합해본 뒤 우리가 검찰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대해 처방전을 내려보려 한다. 다른 중요한 것들도 차고 넘치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들을 제도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으로 뽑아봤다.

1. 제도적 개혁

1)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권 되돌리기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수사권 구조조정, 검찰 권력 약화 등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최종 목적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다.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검찰은 그 수사를 법률적인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이 최종 재판을 맡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법원이 재판, 이 과정이 제도적으로 완성되어야 수사기관이 서로 협력과 견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지키며, 사회의 공익도 가져다줄 수 있다. 제도적으로 완성한다는 것은 법의 개정이기 때문에 입법부인 국회의 임무이며 진보당과 보수당, 여당과 야당이 함께 이뤄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함께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아진다.

2) 법무부 탈검찰화

법무부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정치권이 검찰을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중앙부처다. 검찰을 견제, 감시하며 개혁하기 위해서는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는 법무부가 검찰의 상위 부서이고 검찰청은 파생된 조직이다. 법무부의 종합적인 법무행정 중 하나로 검찰 행정이 있다. 검찰 행정을 통해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검찰 인사권, 예산편성권 등을 통해 검찰을 통제한다.

법무부는 국가의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곳이므로 최고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무, 교정,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등 검찰 행정이 아닌 곳까지 모두 고위직 검사가 담당해왔다.

법무부의 모든 고위직은 검사만이 담당하거나 혹은 검사가 다른 공무원과 함께 담당하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대부분 검사 출신이 임명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검사가 법무부의 전체 법무행정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를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상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은 극도로 취약해진다. 법무부 파견 검사들이 자신의 임기인 1~2년 있다가 다시 돌아갈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무부의 전문성은 검사의 파견 근무로 약화 현상이 일어난다. 파견 검사들은 1~2년 근무하고 다시 검찰로 돌아가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업무에 전문성을 갖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그 책임자가 정보를 모으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나가야 하지만 단

기 근무에 검사가 검찰의 부족한 부분을 바꾸기에는 그럴 수 없는 구조이다. 검찰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강화하려면 장·차관뿐만 아니라 법무부 고위직에 비 검사 출신의 비율이 훨씬 높아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비 검사 출신 법률 전문가의 수가 매우 부족하여 법무 행정을 전문화하는데 장애 요소다.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며 개혁적인 의지와 함께 남은 과정을 천천히 밟아나가야 한다.²⁵⁹⁾



- 대순 : 67대
- 성명 : 추미애(秋美愛)
- 재임기간 : 2020.01.02 ~ 2021.1.27
- 학력 : 2013.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박사(수료)

약력 자세히보기 >



- 대순 : 66대
- 성명 : 조국(曹國)
- 재임기간 : 2019.09.09 ~ 2019.10.14
- 학력 : 1997.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로스쿨 법학 박사

약력 자세히보기 >



- 대순 : 65대
- 성명 : 박상기(朴相基)
- 재임기간 : 2017.07.19 ~ 2019.09.08
- 학력 : 1987.괴담컨대대학교 법학 박사

약력 자세히보기 >



- 대순 : 64대
- 성명 : 김현웅(金賢雄)
- 재임기간 : 2015.07.09 ~ 2016.11.28
- 학력 : 1992.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 취득

약력 자세히보기 >



- 대순 : 63대
- 성명 : 황교안(黃弼安)
- 재임기간 : 2013.03.11 ~ 2015.06.17
- 학력 : 2006.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 취득

약력 자세히보기 >



- 대순 : 62대
- 성명 : 권재진(權在珍)
- 재임기간 : 2011.08.11 ~ 2013.03.10
- 학력 : 1972.대구 경북고 졸업 / 1976.서울대 법학과 졸업

약력 자세히보기 >

2. 문화적 개혁

1) 검찰 내 조직 문화 탈출과 개혁 의지 다지기

검찰이 아무리 올바르게 사회와 연결되어 일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의지를 보이고 바꿀 수 있는 길은 검찰 조직, 그 자체가 변하는 것이다.

현재 검찰은 철저한 상명하복과 기수문화, 사회와 단절된 패쇄적인 조직 문화,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 검찰 만능주의 등 이런 문화들은 민주적인 문화와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관료주의적·권위주의적 검찰은 민주주의에 기초한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검찰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검찰을 가속화 시켰으며, 이는 검찰의 민주적·정당성·공정성·객관성·투명성과 보편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줌으로써 결국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고조시켰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 이연주가 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에서 설명하는 검찰 조직의 문화이다. “조직 문화란 일상적으로 숨 쉬는 공기와 같다. 구성원에게 서서히 스며들어 그들의 행동과 사고, 의식을 형성한다. 그렇다면 검사들이 숨 쉬는 공기, 놓고 있는 물은 어떨까? 검찰 교제인 『수사감각』에는 ‘상부는 결국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인사권자는 자신을 거스른 사람

259) 김인회, (2017) 『문제는 검찰이다』, 오월의 봄

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인사권자는 반드시 보복을 한다. 인사권자는 사정이 허락하면 즉시,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반드시 보복은 한다'라는 내용이 쓰여있다. 검찰이 무슨 피의 복수를 하는 조폭 집단이라도 되는 걸까. 저 이야기가 차마 부끄러운 이야기라는 감각조차 없어진 것 같다. "우리 검사들이 정권의 편에서 사건을 수사해줬더니 이제 와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라는 식의 발언은 검사들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준다. 그래서 검찰 내의 썩은 공기와 폐수를 피해 누군가는 검찰을 떠나거나 누군가는 안에서 싸우거나, 누군가는 체념하고 그 공기를 마시며 사는 등 너무나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이다."라는 글이 기고되어 있다.

이 조금의 글만 봐도 현재 검찰의 조직 문화를 바꾸지 않고서는 어떤 개혁을 하든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렇기에 검사들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된 문화 속에서 깨우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완전한 검찰 개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2024년 22대 총선

2024년에는 제22대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입법 과정을 책임질 국회의원을 뽑는다. 어느샌가부터 검찰 개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임에도 이 보수당은 검찰 개혁 반대를, 진보당은 검찰 개혁 완수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총선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발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공약을 살펴보았을 때 검찰권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현재는 300석인 국회의 의석 중 과반수인 170석 이상을 진보당이 차지하고 있기에 국회 본회의에 공약과 관련된 법들이 올라와도 어느정도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의 사법 공약을 살펴보면 입법부인 국회의 통과를 받아야 하는 법 개정이 많기 때문에 총선에서 검찰 개혁 반대를 외치고 있는 보수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면 정말 검찰은 시대를 역행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다음 총선은 검찰 개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4. 시민으로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검찰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속 박영민 간사님께 물어봤다.

"시민이 검찰 개혁에 참여하는 게 막연하다고 많이들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사건이 터지면 시민단체들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뉴스를 보고 '내가 시민이지'라는 걸 자각하고 사건을 찾아도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에는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참여할 수 있는 것들로는 검찰 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을 후원할 수도 있고 단체에서 서명운동이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을 때 함께 해주고 주변에도 sns를 통해 알려주는 것도 큰 힘이 된다. 모든 사람이 다 직업 활동가가 될 수는 없으니 항상 자신이 시민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결과적으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견제'와 '관심', 그리고 '지지'이다.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사라진다면 정부는 동력을 잃

게 된다. 이 인문학 캠프를 통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그 필요성을 느꼈다면 대한민국의 시대적 소명인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힘 있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기 바란다.

출처

단행본

이연주, (2020)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포르체, (2020)

김인회, (2017) 『문제는 검찰이다』, 오월의 봄, (2017)

무심코 던진 말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이종은 최은솔 임조은

목차

- ◇ 언어 더 월드 - (탄생과 세계공용어) - 217p
- ◇ 누구를 위한 언어인가? - 230p
- ◇ 무슨 말인지 1도 모르겠습니다 - 239p

언어 더 월드 - (탄생과 세계공용어)

1. 언어의 탄생과 분열

탄생

지금으로부터 약 15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까지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인종이 살고 있었다. 이 인종은 키가 150cm로 땅딸막하고 누가 봐도 멍청해 보이는 외모지만 두뇌는 현대인보다 더 컸다. 네안데르탈인은 아주 독특했다. 그들은 옷을 입고 도구를 만들고 사회 활동에 참여했다. 시신을 묻고 무덤을 표시했는데 이는 결국 그가 어떤 식으로건 종교적 제의를 갖추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부족을 형성하고 소규모 전쟁에 참여하는 것 등을 보아 그들에게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안데르탈인 멸종 이후 그 자리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는 인종이 채우게 된다. 이들은 1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나타나 근동으로 퍼져나가면서 나중에는 유럽으로까지 들어선다. 이들이 바로 크로마뇽인이다. 크로마뇽인은 그전까지 모든 인류와는 다르게 음식을 먹다 질식할 수 있었다. 후두를 목구멍으로 좀 더 깊숙이 넣은 사소한 진화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질식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정교하고 분명히 발음되는 말을 할 가능성까지도 얻었다. 현대인의 경우 처음부터 그렇게 낮은 자리에 후두가 위치해 있는 것은 아니다. 보통 출생 이후 5개월에서 세 살 사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내려가게 된다.

네안데르탈인은 이보다 높은 위치에 후두가 있어 알파벳 'i'와 'u'의 발음을 내뱉지 못한다. 즉 그들의 말은 비음이 많이 섞이는 바람에 아마 상당히 불분명하게 들렸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그들의 언어소통을 크게 저해했을 가능성이 높다.

선사시대의 가장 큰 수수께끼는 넓은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비슷한 시기에 각기 다른 언어 능력을 발전시켰는가 하는 점이다. 20개 남짓 되는 주요 어족에 해당하지 않는 민족들도 저마다 상당히 독자적인 언어를 발전시켰다. 인도 남부와 스리랑카 북부의 드라비다족 언어나 시베리아 동부의 루오라웨틀란어가 그런 경우다. 또, 이보다 훨씬 더 낮은 아이누어는 일본 홋카이도 지방에서 사용되는데 우연의 일치지만 이는 유럽의 여러 언어와 분명한 유사성을 띠고 있다.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언어들 사이에도 생각보다 훨씬 많은 관계가 있다고 보여주는 증거가 늘고 있다. 불어의 'tu'와 영어의 'thou', 히타이트어의 'tuk'이 모두 '너'를 뜻하는 것처럼, 2가지 이상의 언어에서 철자와 의미가 유사한 단어를 가리키는 동족어 연구를 통해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은 언어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발견됐다.

그렇지만 지역마다 언어가 어떻게 거기 있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이누어와 매우 밀접한 일본어도 수수께끼이긴 마찬가지다. 사실 문자체계뿐만 아니라 어휘 가운데 일부까지도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그것만 제외한다면 일본어 역시 기존에 알려진 어떤 언어와도 상당히 다르다. 이는 한국어도 마찬가지다.²⁶⁰⁾

분열 이후

현재 지구상에 쓰이는 언어는 약 7,000여 개라고 한다. 그중에서 3,500개의 언어는 더는 말해지지 않고, 우리 세대가 죽고 나면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매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한다면, 이 멸종사태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위기를 인식하기는커녕,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다. 왜 그럴까?

인류학자 웨이드 데이비스의 연구에 따르면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 3,500개의 언어 중 600개 이상의 언어는 100명이 채 되지 않은 극소수 원주민들이 쓰고 있는데 이 수 또한 점점 줄고 있다. 이 원주민들의 삶과 생태계의 위기가 직결되기 때문이다.

반면 가장 많이 쓰이는 10개의 언어는 번성하고 있다. 여기서 번성의 의미는 그 언어를 배우고 쓰는 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는 뜻이다. 이 10개에 해당하는 언어는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힌디어, 벵갈리, 분자비이다.²⁶¹⁾ 이 10개의 언어를 쓰는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전체 인구에 80%는 7,000개 언어 중 단지 83개의 언어만을 쓰고 있다.

아마 한글은 83개의 언어 중 하나에 속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글을 쓰는 한국인은 다수에 속한다. 강자 언어인 10개에 속하지는 않지만, 한글은 전 세계 인구 대다수가 쓰는 83개의 언어에 속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인 중에 인류의 절반 이상이 쓰는 강자 언어 10개의 언어를 배우고자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은 영어 교육을 필수적으로 배우기 시작한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경험을 했던 우리 조상들은 좋은 일본말을 배워야 했고, 조선 시대 양반들은 모두 한자를 배워야 했다. 10개 언어 중 영어를 포함해서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는 유럽 제국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수백만 제국주의가 끝났어도 강자 언어로써 우리 삶을 지배한다. 나머지 6개의 언어는 모두 아시아 대륙에 속한 언어로 변화하는 21세기의 현실과 인도, 중국의 경제 성장을 잘 반영한다.

한국어가 비록 강자 언어는 아니지만, 다수의 언어에 속한 것임은 분명하다. 동시에, 한국인으로서 한국어 이외 강자 언어를 할 수 있고, 배우고 있기에, 우리는 다수자로서 상실, 언어 소멸문제에 무감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언어의 상실과 다수의 힘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소수를 대변하는 언어의 다양성, 언어의 독특성이 사라질 때

260) 빌 브라이슨, 『언어의 탄생』 (유영, 2021)

261) <https://www.babbel.com/en/magazine/the-10-most-spoken-languages-in-the-world>

벌어질 일을 상상해 보자. 왜 신은 인류가 한 언어만을 쓰게 하지 않고 각기 다른 언어를 쓰게 해서 우리를 불편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결정을 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²⁶²⁾

2. 세계어 공용화 사건

영어의 국제화

1) 영어 국제화까지의 과정

오늘날 영어는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점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언제부터 영어가 국제어로 통용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선 다소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1919년 베르사유 조약 이후 영어 사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우선 영어 국제화의 정치적인 배경을 살펴보려면 옛 영국의 식민지배 국가들의 언어 사용인구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 이미 17세기부터 영국은 인도, 아메리카, 아프리카 대륙의 지역을 식민지로 갖게 되었고 그런 지역에서 영어는 공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런 나라들은 독립 후에도 영어를 사용했으며 20세기 중반부터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미국은 영어 사용자들을 ‘흡수’하기까지 이른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미국과 소련은 정치적으로 대립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뉜 세계에서 전자의 노선을 따르는 국가들은 제1외국어로 영어를 채택하게 된다.

또한, 2차대전 이후 유럽을 빠져나오려는 유대인을 대거 받아들이며 NIW제도(미국의 경제, 사회, 의학, 과학, 예술 등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를 노동허가서, 고용주 없이 신청자의 자격 요건만으로 일자리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의 발판을 만들었다. 이런 정책은 미국을 새로운 과학 강국으로 만들었으며 많은 학술논문이 영어로 작성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대중문화의 급성장도 한몫한다. 코카콜라, 로큰롤, 할리우드 영화 등은 전 세계의 10대들에게 미국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영어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현재 영어가 누리는 지위는 어쩌면 고대의 그리스어나 라틴어 등 과거의 주류 언어들보다 막강하다고 볼 수 있다. 고대와 비교하면 현대 사회에서 한 국가의 경제력은 더 큰 영향력을 가지며 경제 대국의 언어를 자발적으로 배우게 만든다.²⁶³⁾

2) 국내 영어 공용어화 논쟁

(위 배경은 2000년대 초반부 배경으로 현재 배경하고는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

262) 김혜란 “바벨탑 무너뜨리기” 제3시대그리스도연구소, 2018

263) 김광현 “국제화로서의 영어에 대한 고찰” 대구대학교, 2008

논쟁의 시작은 1998년 7월 조선일보에서 복거일의 『국제화 시대의 민족어』라는 저서가 소개되고부터였다. 복거일은 민족어를 버리고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주장을 갖고 전문가들의 찬반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1998년 7월 한 달 동안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 벌어졌던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제안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는데 이미 1996년에 복거일은 영어가 1세기 안에 지구의 공용어가 될 것임을 언급했다.

복거일 외에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고 제안한 예로는 고종석을 들 수 있다. 그는 저서 『감염된 언어』(1999)에서 언어가 단순히 도구만이 아니지만 편리한 도구로서 공유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영어가 공용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1999년 말에 교육 방송 텔레비전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토론이 벌어졌다. 교육 방송 여론조사 결과는 62.4%가 영어를 공용어로 한다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찬성론자들은 이러한 논쟁들이 한국어 한 걸음 나아갈 좋은 기회가 되어주었다고 한다.

복거일을 비롯하여 영어 공용화 찬성론자들의 대응해 이런 문제들에 저서를 통해 반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여럿 보였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론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1) 민족주의 붕괴

복거일의 『국제화 시대의 민족어』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민족주의를 버릴 것’을 주장하고 있고 두 번째는 ‘민족어를 버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론자들은 복거일의 글에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현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구 제국’ 시대, 이 시대는 영어가 공용어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구 제국’ 시대에 중심부로 들어가기 위해선 영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에 비해서 민족주의나 민족어 개념은 현 지구 제국 시대에 불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이는 대단히 용감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여러 부정적인 민족주의의 형태를 지적하면서 이제는 민족주의를 버릴 때가 됐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관계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둘 사이에서 약한 나라는, 그래서 둘 사이의 분쟁에서 훨씬 손해를 크게 입을 나라는 우리다. 아쉬운 쪽은 일본이 아니다.” 그가 우리 사회에서 민족주의를 버릴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소국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가 주장한 우리 사회의 감정적인 민족주의의 위험성에 일면 동의하면서도 그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민족주의 죽이기'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지구 제국'을 다룬 파트에서 알 수 있다. 두 번째 부분은 '민족어를 버리고 영어를 모국어로 삼으며 지구 제국 시대에 중심부로 올라가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지구 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 수는 없으나 공용어인 영어만 잘하면 그 나라의 중심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천박할 뿐이다. 또한,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으로 보는 생각도 단순하고 위험하다. 그가 배척하고 있는 민족주의자들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영어를 공용어로 보고 국어까지 내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가 어떻게 하여 국어 속에 들어와 있는 '쓰리, 와이로, 히야카시' 같은 일본어 찌꺼기를 되살려 쓰자고 주장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정시호는 단일 민족 단일언어를 쓰면서 영어 공용화론을 주장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외에는 없다고 말하며 영어 하나만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입장에 반대하고 있다. 북한 동포들을 고려해서라도 영어 공용화는 있을 수 없으며 영어를 잘하는 계층과 영어를 못하는 계층 간의 심각한 갈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도 제기한다.²⁶⁴⁾

(2) 언어 교체론, 영어 구사 실현 가능성

한학성은 영어 공용화는 궁극적으로 모국어를 영어로 바꾼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엄밀한 의미에서 언어 교체론임을 지적하였다. 영어교육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영어 공용화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즉 단지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만 하면 모두가 갑자기 영어에 능통하게 될 것 같이 말했다면 이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보았던 교육 방송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이 이러한 점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찬성 측으로 여론이 몰리는 상황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찬성표를 던진 사람 중 상당수는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준다는 전제를 깔고 영어 공용화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했을 것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영어교육의 획기적인 개혁 없이는 영어 공용화가 실현되기 어려울 거라는 점이 강조되었다면 찬성하는 비율은 현저히 낮았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한학성은 영어 공용어를 채택하지 않고도 일반인들이 영어를 쉽게 구사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했다.

(3) 외국어 남용

김영명은 우리나라에서 영어가 공용화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영어가 공용어가 될 수 있을 만큼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영어 잘하는 사람을 늘려 영어를 공용어로 삼으려면 엄청난 비용과 희생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

264) 남영신 <세계화 위해 민족 버리자니...천박한 과잉 세계주의> 『조선일보』 1998. 07. 06

어를 공용어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바뀐 말임을 지적한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공용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잘해서 공용어가 되는 것인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영어가 공용어가 될 리가 없다는 것이다.

김영명은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이 공용어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봤다. 그들이 생각하는 공용어의 형태는 공용어가 아닌 단지 외국어 남용일 뿐이라는 것이다. 영어를 쓰다 보면 필연적으로 한국어가 영어에 물들어 병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4) 세계가 공용어를 대하고 있는 자세

공용어라는 것은 다언어국가에서 필요한 개념이다. 다언어국가는 여러 언어가 사용되는 국가를 가리킨다. 세계의 많은 나라가 다언어국가다.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인 미국은 인종 전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여서 다양한 언어들을 쓰고 있다. 러시아도 워낙 큰 나라여서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토가 큰 나라만 다양한 언어가 쓰이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 타이, 캄보디아 등에도 다양한 언어가 쓰이고 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은 대단히 특이한 나라에 속한다. 예로부터 한국은 단일민족국가였다. 단일민족국가이기 때문에 단일언어 국가였다. 즉 한국어만이 사용되기 때문에 한국어가 곧 공용어였다. 그래서 표준어 성립 문제 말고는 여러 언어 사이의 문제가 없었다. 물론 한국도 예외적인 시기가 있었다. 일본의 침략으로 식민지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한국어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광복 후 일본어 세력은 쇠퇴해져 가고 점차 한국어로 복구되어 왔다.

국문학자 조동일이 분류한 세계 모국어, 공용어 분류법을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단일 모국어의 국어이고 공용어인 경우 : 한국

(나)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모국어를 국어로 지정해 공용어로 사용하고 그것과는 다른 지역어나 소수 민족어는 배격하는 경우 : 터키, 이란, 영국, 프랑스 등

(다) 비슷한 비중을 가진 모국어의 여러 공존해 그 어느 것을 국어로 하지 못하고 각기 공용어로 하는 경우 :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키프로스

(라) 공존하고 있는 여러 모국어 가운데 어느 하나를 국어로 지정했지만, 공용어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해 모국어의 아닌 외국어가 사실상의 공용어 노릇을 하는 경우 : 케냐, 인도, 필리핀

(마) 공존하고 있는 여러 모국어 가운데 하나는 국어로, 다른 몇 가지는 공용어로 지정했지만, 그것들은 모두 무력해서 모국어는 아닌 외국어가 사실상의 공용어 노릇을 하는 경우 : 싱가포르

(바) 여러 모국어 가운데 어느 하나를 국어나 공용어로 지정하지 못해 사실상의 공용어만 있는 경우 : 미국

한국에서 영어 공용화를 할 경우 (가)~(바)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은 고유적인 모국어(한글)가 이미 한국어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한국에서 영어를 공용화시킨다는 점이 얼마나 인위적인지 알아볼 수 있다.

다음은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국가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시아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오세아니아

나우루 뉴질랜드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오스트레일리아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팔라우 피지

유럽

몰타 바티칸 아일랜드 영국 키프로스

아프리카

가나 감비아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리셔스 보츠와나 세이셸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 탄자니아

아메리카

가이아나 그레나다 도미니카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대부분의 나라는 영국이나 미국의 식민지배를 당했던 나라거나 태평양 부근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섬나라들이다. 특히 유럽 국가 대부분은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유럽의 각국도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제안에 대해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벨기에, 스페인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 반해 스웨덴, 핀란드 등은 상당히 호의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²⁶⁵⁾

에스페란토

1) 역사

265) 김세중 “공용어의 개념과 영어 공용어화 논쟁” 국립국어연구원, 2001

에스페란토는 19~20세기 폴란드의 안과 의사 라자로 루드비코 자멘호프(Lazaro Ludoviko Zamenhof, 1859~1917)가 창안해 발표한 국제 공용어다. 자멘호프는 유대인으로 러시아 영토에 살고 있었다. 당시 러시아에는 전 세계 유대인의 절반 정도인 4백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자멘호프 또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탄압을 경험했다. 그가 태어난 비알리스토크는 전체 주민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유대인을 비롯해 폴란드인, 러시아인, 독일인, 벨라루스인 등이 각기 자신들의 민족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민족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살고 있었다.



라자로 루드비코 자멘호프 (출처:네이버 블로그)

이러한 환경에서 에스페란토가 창안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 자멘호프는 러시아 에스페란티스토²⁶⁶)에게 보낸 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런 도시에서는 다양한 언어의 공존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행을 다른 어느 곳보다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때문에 언어의 다양성이 모든 분야에서 인류를 분열시키고 적대적으로 나누어 버리는 유일한 또는 적어도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멘호프는 “내가 어른이 되면 이 불행을 반드시 제거해야겠다고 결심했다.”라고 편지에 썼다.

1896년에 공개된 이 편지는 초기 에스페란티스토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에스페란토의 창안자인 자멘호프가 민족적 적대감을 뛰어넘어 상호이해를 도모한 박애주의의 투사였으며 그의 꿈이 존경할 만한 겸손함과 이상으로 충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편지와는 달리 1905년, 프랑스 에스페란티스토에게 보냈던 다른 편지는 거의 40년간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이 편지에서 자멘호프는 자신의 모든 이상이 자신의 출신지로 연결되어 있음을 단호하게 밝혔다. 만일 자신이 유대인 집단거주지에서 살지 않았으면 중립적 언어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한동안 고대 언어들을 일상어로 재도입시키자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러다가 막연하게 새로운 인공어의 창안을 꿈꾸게 된 것이다.

266) 에스페란토를 사용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러나 자멘호프의 이런 열정적 활동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인류 전체의 문제는 외면하면서 오로지 자신이 속한 민족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매진하는 것에 대해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주 어린 때부터 항상 ‘인간’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내 민족의 불행한 상황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종종 ‘애국심’이 깨어났고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인간’이라는 단어와 치열하게 투쟁했다.”

자멘호프의 ‘인간’과 ‘애국심’ 사이에서의 갈등은 1887년에 ‘인간’ 쪽으로 마음을 굳히게 되었다. 이때부터 자멘호프는 유대인 영토 확보를 위한 자신의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고 ‘에스페란토 박사’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언어문제에 전념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간 증오를 해결할, 전체 인류를 위하면서도 중립적인 언어에 관한 생각이 자멘호프를 지배했다.

여러 개의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 등을 지적하면서, 사람들이 두 가지 언어, 즉 모국어와 새롭게 제안된 중립적 공용어를 사용하면 얼마나 유용할 것인가 하는 점을 입증했다. 자멘호프는 언어의 다름이 민족 간의 차별과 적대감을 낳는 요소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양한 언어를 쓰는 국가에서는 특히나 중립어(공용어)가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어려웠던 민족 상황이 이러한 이상주의적 사고를 하게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어주었다고 밝혔다.

에스페란토가 현재까지 생명력을 지닐 수 있었던 더욱 중요한 요인은 자멘호프의 실용주의적 생각 덕분이었다. ‘공용어도 민족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산이므로 저자는 영원히 이 언어에 대한 모든 개인적인 권리를 포기한다.’ 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이 언어의 창안자가 아니라 ‘선구자’이길 바랐고, 에스페란토가 모든 민족어와 같은 법칙에 따라 존재하고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언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창안자 개인의 권위와 관계없이 집단적 사용에 의해 공용어가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멘호프는 에스페란토의 유지 및 발전의 과제를 인류사회와 일상적 활용의 몫으로 남겨두었다.²⁶⁷⁾

2) 공용어 가능성, 비판

흔히 국제 공용어라고 해서 언어의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주장들이 많다. 하지만 에스페란티스토는 모든 언어를 이로 통일하자는 입장이 아니다. 1인 2언어 체제로 모국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과 소통할 경우에는 에스페란토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에스페란토는 영어나 불어를 비롯한 강자 언어가 국제화되어 타 언어 손실에 영향을 주는

267) 올리히 린스 『위험한 언어』 (갈무리, 2013)

현상을 비판하여 언어의 평등을 지향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인공어이다. 다만, 에스페란토 탄생 배경이 인도, 유럽 쪽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부분에서 한계점이 있다. 이에 근거해 에스페란토에서 말하는 평등이란 인도, 유럽 쪽 사용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에스페란토가 만들어진 당시 19세기 자멘호프의 배경 상황을 고려하면 비 유럽권 국가를 고려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유대인으로서 차별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유럽 중심의 언어라는 비판이 자멘호프를 향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시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한계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에스페란토가 모두에게 제1외국어가 된다면 현재 영어가 하는 역할을 에스페란토가 대체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또 다른 언어적 권력이 되지 않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에스페란토가 다수 언어, 국제적 공용어가 된다면 이와 동시에 에스페란토를 반대하는 세력 또한 생겨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또 그에 대항할 인공어들이 주목받게 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이런 경우 1인 2언어를 지향하고 있는 에스페란토 특성상 모국어가 다른 에스페란티스토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은 자연스럽게 에스페란토를 습득할 것이다. 하지만 학교와 사회 등 주변 환경을 거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모국어를 주로 사용하게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면 에스페란토를 습득했다고 해도 에스페란토가 모국어를 완전히 이기지 못하고 강자 언어는 여전히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EU에서 에스페란토를 공용어로 채택하자는 주장은 ‘세계 에스페란토 협회’에 의해 비교적 최근에 제기되었다. EU가 법적으로는 모든 가입국의 언어를 인정하기 때문에 통역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각기 언어마다 표현의 범위가 다른지라 오역 문제도 자주 발생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립적인 에스페란토를 공용어로 채택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후 20% 정도가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실현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현실적으로 세계인들이 기득권을 쥐고 있는 영어를 비롯한 강자 언어를 익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현재 사용인구가 많지도 않은 에스페란토를 공용어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만약 사용인구가 많아져서 지정된다면 이 또한 그저 ‘강자 언어’의 불과하지 않냐는 주장이 많다. 에스페란토 탄생 배경이었던 20세기 초반 무렵 당시에는 하나의 언어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를 장악하지 않았다. 현재는 영어가 국제 공용어가 되어가고 있다는 부분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데 대체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EU에서 공용어 사용을 가능하게 해도 오히려 번역해야 하는 수를 하나 더 늘려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에스페란토를 대표 언어로 지정해놓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U에서 활동하는 외교관 정치인 중 상당수는 불어, 영어에만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지 에스페란토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예상한다.

3. 토론

세계공용어, 필요한가

주제에 바탕이 되는 세계공용어의 기준은 한 국가의 보유 언어가 아닌 인공어를 나타낸다.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언어 공용화의 허가를 인정했다는 전제를 깔고 토론을 진행한다.

장점

1) 사회적 권력의 붕괴

언어, 특히 다언어 민족의 국가들은 식민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강대국들은 지배국을 넓혀나가면서 그 나라 언어의 세력 또한 확장 시켜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로 인해 현재까지 강자 언어의 장악과 권력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강대국의 속해있는 세계인들이 강자 언어의 속해있지 않은 특정 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비난하는 행위 또한 난무하는 상황이다. 세계공용어가 생기게 되면 강자의 언어가 세계의 기득을 잡고 있는 사회, 언어 간의 불평등함이 사라지고 모두가 같은 언어를 구사하면서 언어로 인한 서로 간의 비하적인 태도가 사라지고 국가적 평등에 한 발짝 도달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줄 역할을 할 것이다.

2) 언어 갈등 문제 해결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언어 간 소통 문제는 일상 속에서도 존재한다. 타국인과의 소통 문제는 외국인을 직접 접하거나 해외로 나갔을 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끼친다. 또한 인터넷을 많이 접하게 되면 외국어 해석에 대한 문제 또한 겪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공용어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직접 외국인과의 소통이 가능케 됨으로써 늘 어려웠던 대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보다 부담감 없이 해외를 오갈 수 있게 된다.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언어 사용 빈도가 적은 한국어 사용자들은 더욱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인터넷에 대한 전망이 좋게 커가고 있는 현시대에서 다양한 민족들과 언어를 쉽게 구사할 수 있게 된다.

특히나 한 나라에서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다언어국가에 더욱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 내에서도 언어문제로 인해 서로 간의 차별과 다툼이 잦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점에서 세계공용어는 민족 화합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국제 외교 활성화

통역 문제는 현재 세계적으로 국제 교류의 큰 문제점 중 하나다. 보통 나라별 통역사를 통해 소통을 전달하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국제 인사들 간의 원활한 소통이 어려울 우려가 크

다. 세계공용어가 실현되면 이러한 우려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장점이 있다. 그로 인해 국제적 외교문화가 한층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단점

1) 민족어 소멸

첫 번째로는 민족어 소멸문제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 말했듯이 현 세계에는 약 7,000여 개의 언어가 존재한다. 이것은 그만큼 지구에 수많은 다양성을 띠고 있는 민족들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언어가 사피엔스 인지혁명 발전에 큰 기반을 두고 있었던 만큼 여러 민족의 역사적 민족 문화 또한 각기 다른 언어들의 고유적인 형태로 인해 더욱 부각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언어를 하나로 통합하게 된다면 이러한 언어의 매력이 소멸한다는 점이 크다. 수천 년 동안 세계적인 민족 발전에 큰 기여를 이뤄왔던 언어를 단순히 이보다 나은 소통을 위해 한순간에 세계공용어를 규정짓게 되면 그동안 쌓여왔던 민족주의를 붕괴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또 그동안 쓰여왔던 역사적인 언어들이 사라지면 앞으로의 역사 연구의 문제점도 생길 것이다.

2) 언어 교육

언어를 공용화시킨다고 해도 온 세상 사람들이 한 번에 다 같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에 따른 언어 교육도 더욱 깊이 주입시켜야 한다. 전 연령에게 언어 교육을 시키게 된다면 그에 따른 엄청난 비용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온 국민이 비슷한 시기에 언어 구사 능력을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언어 교육 또한 귀족 중심으로 가게 될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공용어를 배우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3) 언어 구사 실현 가능성

세계에 많은 종류의 언어가 존재하는 만큼 가지각색의 언어 특징들을 하나의 언어로 나타낸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안에서도 분명 더 많은 단어를 주로 수렴한 언어들과 그렇지 못한 언어들 나뉘어서 결국 하나의 불평등함을 만들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 내용에서 말했듯이 세계 모든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한 번에 공용어를 구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세대가 교체되면서 선천적인 주변 배경으로 인해 결국에는 민족어를 쓰게 될 것이다. 세계공용어는 다른 언어들과 다르게 지역, 민족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공용어를 사용하는 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연스럽게 공용어를 습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아이가 약 10여 년 뒤에도 공용어를 쓸 가능성은 미지수다. 주변 사람들의 공용어 습득 여부에 따라서 아이의 배경 또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즉 상류층, 하류층 모두 동시적인 공용어

교육을 실행하지 않는 이상 세계공용어가 현실로 다가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빌 브라이슨, 『언어의 탄생』 (유영, 2021)
올리히 린스 『위험한 언어』 (갈무리, 2013)

논문

김혜란 “바벨탑 무너뜨리기” 제3시대그리스도연구소, 2018
김광현 “국제화로서의 영어에 대한 고찰” 대구대학교, 2008
김세중 “공용어의 개념과 영어 공용어화 논쟁” 국립국어연구원, 2001

참고기사

남영신 <세계화 위해 민족 버리자니…천박한 과잉 세계주의> 『조선일보』 1998. 07. 06

누구를 위한 언어인가?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다. 시간이 흐르고 문화가 변하면 그에 맞는 언어가 새로 생겨나거나 사라지기도 한다. 언어에는 시대별로 추구하는 가치와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언어가 사회적 약속이라면, 그 약속에는 누구의 관점이 담겨 있을까? 너무 당연해서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언어 속에는 어떤 권력이 작용하고 있을까?

이 발제에서는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1. 권력의 도구가 된 언어

1)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던 언어, 한자

조선 시대에는 한자가 언어 권력을 상징했다. 서민은 글(한자)을 배우지 못했으며, 오로지 양반만이 서당에서 글을 배울 수 있었다. 지식을 얻기 위한 책,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시험도 모두 글을 통해 이루어졌으니 조선 시대에서 권력을 가지기 위해 글 즉, 한자를 아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한자가 지배계급의 언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글을 모르는 서민들이 대다수 존재했기 때문이다. 서민은 글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방법이 없었다. 서당에 다닐 수도 없고, 글을 모르기에 책을 통한 학습도 불가능했다. 조선 시대는 신분제였던 만큼 부모를 통해 글을 배울 수도 없었다. 따라서 양반은 글을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권력을 얻었고, 기득권을 가진 양반들은 자신만의 언어인 한자를 사용해 권력을 유지했다. 이처럼 지배계급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신들만의 언어로 소통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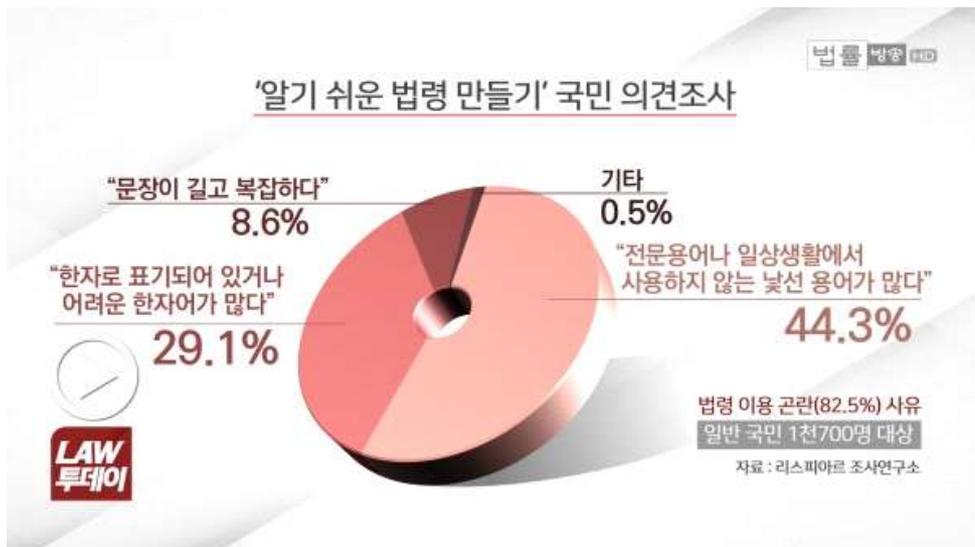
세종대왕이 글을 몰라 피해받는 서민들을 위해 훈민정음을 만들 때, 지배계급인 양반들이 이를 반대했다. 그동안 글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왔는데 모두가 쉽고, 편하게 배울 수 있는 언어가 생기면 권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분제가 해체된 이후에도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한글을 여성들에게는 가르치지 않았다. 이때 글은 남성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었다.

2) 그들만의 언어, 전문 용어

현재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다. 하지만 기득권자들이 자신들만의 언어로 소통하며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하다. 과거에는 글을 안다는 것 자체가 권력이 됐다면, 요즘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어려운 한자어와 예전에 사용했던 권위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일반인들이 법조

문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2017년 여론조사기관에서 1천 700명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법령을 이해하기 곤란한’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낱선 용어와 어려운 한자어가 많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심지어 변호사와 같은 법률 관련 종사자도 10명 중 6명 가까이 법령을 이해하기 곤란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²⁶⁸⁾



법령을 이해하기 곤란한 이유 설문조사 통계 (출처 : 법률방송뉴스)

의료계 용어에도 일반인이 알아듣기 어려운 영어가 많다. 의료가 점차 환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지만, 간단한 처방전에도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왔다. 환자 스스로 어떤 병을 가졌는지, 왜 아픈지를 이해해야 하는데 의사가 환자에게 전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의사와 환자 간에 소통이 차단되는 것이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의학 계열 신입생들에게도 용어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의학 계열 신입생들에게 의학용어 100개를 제시하고 읽게 하는 시험을 봤을 때 평균 정답률이 30%였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²⁶⁹⁾

전문어와 일상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일반인들의 정보 접근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정보 접근성이 낮아지게 되면 일반인과 전문가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커지면서 두 집단 사이에 정보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정보 격차의 크기만큼 정보를 가진 쪽이 권력을 갖게 된다.

그렇게 말은 권력이 되고 그 말을 가진 쪽은 권력 집단이 되어 일반인에게 균림하게 되는 것이다. 쉬운 말이 평등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이유다.

- 신지영, 『언어의 높이뛰기』(인플루엔셜, 2021) 238~239p

268) 석대성, <법률용어, 일반 국민은 물론 법조인 10명 중 6명 “무슨 말인지 몰라”>, 『법률방송뉴스』, 2018.03.22. 재인용.

269)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85590&cid=42251&categoryId=58300>) 재인용.

물론 전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도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반인과 소통할 때도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문가가 사용하는 전문어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일상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일반인은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검’이라는 용어를 ‘조직검사’로 바꾸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환자가 훨씬 침착하게 의사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²⁷⁰⁾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는 이유는 내 병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다. 내가 아픈 곳이 정확히 어느 위치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가 궁금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는 것 또한 전문가의 몫이다. 일반인이 전문 용어를 학습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가 일반인도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일방적인 존댓말과 반말

※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용어를 정리하고자 한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높임법’을 ‘남을 높여서 말하는 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높임법은 높임말을 설명하고 있지만, 낮춤말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 발제에서는 한국어에 존재하는 일방적인 높임말(존댓말)과 낮춤말(반말)로 인한 권력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한국어의 언어 예절이 높임말과 낮춤말로 대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존칭어(높임말)와 비칭어(낮춤말)를 합친 ‘존비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국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에게 반말을 사용하고, 반대로 어린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문화가 당연하다. 어른이 처음 만난 아이에게 반말하는 것에 대해 누구도 문제 제기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아이가 어른에게 반말하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으로 여겨진다. 심지어 버르장머리 없다고 혼이 나기도 한다. 설령 아이와 어른이 서로 반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됐다고 해도 말이다. 개인 간의 어떤 합의가 있었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나이가 어린 사람이 반말하면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다. 그렇다면 아이가 어른에게 반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1) 나이가 권력인 나라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하고, 다른 한쪽은 반말을 사용하는 한국의 존비어 체계는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이 주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나이를 기준으로 상대에게 존댓말을 사용할지, 반말을 사용할지 정하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존댓말과 반말은 권력관계를

270)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85590&cid=42251&categoryId=58300>) 재인용.

만들고, 그 기준이 나이가 됨으로써 나이는 권력이 된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몇 살이야?” 혹은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으며 나이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말이 다르니까 예의를 지키며 대화하기 위해서는 나이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이 주의가 위험한 이유는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나이로 인한 권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나이는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돈이 많은 적든, 어떤 가치관을 가졌든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늙어나는 것이 나이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인생의 경험은 풍부할지 몰라도, 반드시 나이가 어린 사람보다 낫거나 지혜롭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어 체계를 통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며 자연스럽게 나이가 많은 사람을 **윗사람**,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어릴 때부터 학습되면 준비어 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어려워진다. 만약 인식한다고 해도 나이가 들어 권력을 가지게 되면 금방 차별에 대한 감수성은 무뎌지고 권력에 익숙해진다. 내가 불편했던 행동을 나도 모르게 그대로 되풀이되는 것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에게 반말을 했을 때는 기분이 나빴는데 정작 내가 어린아이를 만났을 때 “안녕? 이름이 뭐야?”라고 대뜸 반말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악순환은 반복된다.

2) 반말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상대의 나이가 어린 것을 확인한 순간, 자연스럽게 “말 놓을게”라는 표현과 함께 일방적으로 말을 놓곤 한다. 정작 상대는 어떤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반말을 하는 쪽은 늘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이들은 ‘나이’라는 권력을 가짐으로써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을 때는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존댓말을 선택해 사용한다. 하지만 자신이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거나 일을 빨리 진행해야 할 때, 친근감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반말을 사용한다. 존댓말과 반말 중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특혜’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나이가 어린 사람이 먼저 “말 놓을게”라며 반말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무리 상대에게 친근감을 표현하고 싶어도 이들에게 먼저 반말을 사용하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말을 놓고 싶을 때 자유롭게 반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권력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상대에게 반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나이가 어린 사람은 상대에게 존댓말을 써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각자 위치에 따라 나이가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답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윗사람답게 행동하고 대우해야 한다는 인식도 함께 생겨난다.

3) 반말이 기분 나쁜 이유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심선화,한규석은 동신대학교 석사과정 대학원생 남녀 각 21명씩 총 4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34.7세였다. 조사 방법은 준비어

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에 대해 사회적 통념과 상관없이 본인의 생각을 적게 한 후, 존비어 사용으로 인해 겪었던 갈등을 자세히 서술하게 했다. 총 42개의 사례 중 39개가 갈등 상대가 응답자에게 반말을 해서 불쾌했던 사례였다. 존비어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적어보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²⁷¹⁾

표1 존비어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기준	사례 수	(%)
연령	15	35.7
친소관계	12	28.6
인격존중	9	21.4
기타	6	14.3
계	42	100.0

심선화.한규석, 「존비어 사용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준거 채택에서의 자기본위적 평향」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존비어를 사용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것은 **연령**이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연령을 중요한 기준으로 선택한 응답자들의 갈등 사례다. 이들이 쓴 갈등 사례를 보면 갈등 상대 대부분이 응답자보다 나이가 어렸다. 이는 응답자보다 나이가 어린 상대가 반말한 것이 갈등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반말을 들은 것이 불쾌했기 때문에 존비어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연령을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존비어 체계로 인한 갈등 상황은 ‘일방적인 반말’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존댓말은 상대를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친한 상대에게 존댓말을 들었을 때 괜히 거리감이 느껴져 서운할 수는 있지만, 상대가 먼저 존댓말을 쓴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지 않다. 오히려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서 괜히 기분이 좋아지곤 한다. 처음 만난 상대에게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존댓말과 달리 일방적으로 반말을 들으면 괜히 기분이 나빠진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나기도 한다. 반말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은 평소 우리가 반말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언어학자들은 반말이 위계질서와 친근함이라는 양면을 지니고 있어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와 분쟁을 일으킨다고 말한다.²⁷²⁾ 친밀도가 높은 관계에서 친근함을 드러내는 말로 사용되는 동시에 하대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271) 심선화.한규석, “존비어 사용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준거 채택에서의 자기본위적 평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심리학회, 2005.

272) 이동현, <친근·낯춤, 두 얼굴의 반말 ... 좌표 빼앗하면 졸지에 폭발>, 『중앙선데이』, 2015.4.5.

평소 반말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상황을 생각해 보자. 보통 나는 상대를 존중하고자 꼬박꼬박 존댓말을 썼는데 상대가 너무나도 쉽게 그 벽을 허물고 반말을 해올 때이다. 병원을 예로 들어보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대뜸 “어디가 아파?”라며 말을 놓는다. 당황스럽지만 어른에게 반말할 수는 없으니 “목이 아파서 왔어요”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 후에도 의사 선생님의 반말은 끝나지 않는다. 처음봤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인 것처럼 나를 대하는 것이다. 이런 경험은 병원 외에도 버스나 택시, 노래방, 미용실, 병원, 식당 등 우리의 일상 생활공간 어디에서나 쉽게 할 수 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말을 놓으면 당황스럽고 동시에 불편해진다. 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반말을 하니깐 말이다.

반말 중에서도 정말 기분이 나쁜 것은 “야!”와 같이 무시하는 표현이다. 이런 표현은 갈등 상황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주 사용한다. 갈등이 생겼을 때 나이가 어린 사람은 존댓말을 사용해서 자신의 억울함과 분함을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반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겐 “야”라는 표현이 존재한다. 존댓말로 아무리 열심히 화를 내도 “야!!”라는 호통 한마디를 이기기 어렵다. 권력관계에서 일방적인 “야!”는 상대를 하대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하대의 의미가 담긴 반말은 특히 서비스직 직원에게 자주 사용한다. 손님이라는 권력과 나이가 많다는 권력을 함께 이용해서 상대방을 하대하는 것이다. 2019년 알바몬에서 알바생 9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90.2%)이 아르바이트 중 고객의 비매너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상처받았던 순간의 1위는 ‘반말하는 고객을 대할 때’(51.5%)였다.²⁷³⁾

나이가 많은 소위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반말을 사용한다. 상호 반말이 아닌 일방적인 반말은 사람 사이에 위아래가 존재한다는 착각을 만든다. ‘윗사람’, ‘아랫사람’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이가 많은 사람은 ‘위(높은)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은 ‘아래(낮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무의식중에 나이가 어린 사람을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하대하게 된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상대에게 반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기본적으로 반말에는 하대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대보다 나이가 많은 나는 존중받아야 하는데 나보다 어린 사람, 즉 아랫사람이 반말을 사용하면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어디서 어린놈이 반말이야!”라는 말속에는 나이가 어린 사람은 반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반말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함께 담겨 있다. 정작 자신은 상대를 하대하며 반말을 사용하지만, 존댓말을 통한 존중은 받고 싶은 것이다.

4) 하대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은 반말

273) 박가영, <나이 많단 이유로 ‘반말’, 나만 불편한가요?>, 『nate 뉴스』, 2019.12.29.

그렇다고 반말에 항상 하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하대의 의미가 담기지 않은 반말은 오히려 친밀도를 높여 주며 더 편하게 소통을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족 간의 반말이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존댓말을 써야 하지만, 부모님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의 없다고 혼나지 않는다. 오히려 요즘은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 반말을 사용하는 가정도 많다.

나이 차이가 있지만 친하거나 편한 관계에서 서로 반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나이에 따라 사용하는 말이 다른 존비어 특성상 동갑인 친구와는 나이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단기간에 빨리 친해진다. 반면, 나이가 다른 친구와는 아무리 다른 부분이 잘 맞더라도 나이라는 간극 때문에 조심스러워지고 소통을 시작조차 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번 말을 놓고 서로 편하게 대하기 시작하면 나이 차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나의 경우, 한 캠프에서 나이를 밝히지 않고 모두가 반말을 사용하며 지낸 적이 있다. 처음에는 나이를 모르는 게 답답하고 어색했는데 막상 나이를 모르는 채로 관계를 맺고 나니 관계에 있어 나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반말을 사용하여 더 편안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만든 사례도 있다.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의 경우에, 자신은 학생들에게 반말을 사용하는데 학생들은 자신에게 존댓말을 하는 상황을 이상하게 여겼다. 자신이 반말 사용이 편해서 학생들에게 반말했듯이 학생들도 반말이 편한 학생은 자신에게 반말을 사용하고, 존댓말을 사용하고 싶은 학생은 존댓말을 사용하기를 바랐다. 실현하기 위해 같은 반 학생들에게 함께 반말을 쓰자고 제안했다. 선생님에게 반말을 사용해도 된다는 제안을 처음 들었을 때 학생들 대부분은 어색해했다. 하지만 막상 말을 놓고 나니까 생각보다 좋은 점이 많았다. 학생들이 자기 입장을 훨씬 편하게 얘기하게 되면서 소통이 활발해진 것이다. 특히 선생님과 생각이 다르거나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을 때 “싫어” “별로야” 같은 표현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학생 중 한 명은 선생님과 어떤 부분에서 생각이 다를 때 존댓말을 쓰면 조심스럽게 말하게 되는 반면, 반말로 얘기할 때는 “별론데?”라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²⁷⁴⁾

교육학을 전공한 신정민 박사는 이런 사례를 보며 **수평적 언어의 사용은 복종이 아닌 질문을 만들어낸다고** 평가했다. 반말 시스템을 확산시켜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사가 학생들과 수평적으로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을 다양화시키고, 질문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질문이 저절로 생긴다고 말이다.

위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대의 의미가 없는 친밀한 사이에서의 반말은 오히려 편하고 더 깊은 소통을 하게 만든다. 반말을 ‘아랫사람’이 사용하는 말로 생각하지 않고, 친근함의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말이 하대의 의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동의’와 ‘일방적이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 보통 반말이 하대의 의미가 될 때는 한쪽은 동의가 되지 않았는데 나이를 권력으로 삼

274) 닷페이스, 학생이 이 선생님에게는 반말을 한다 □

아 일방적으로 반말을 사용할 때다. 반대로 반말이 하대가 되지 않는 경우는 상호 반말을 사용할 때가 많다. (가족, 친구 등) 한쪽이 일방적으로 존중하지도, 일방적으로 무시하지도 않기 때문에 존비어로 인한 권력 관계가 일어나지 않는다.

꼭 상호 반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서로 간의 동의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상대에게 반말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는 건 반말 사용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기본적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있기에 반말을 한다고 해도 하대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5) 전통과 예의라는 이유로.

보통 높임법이 필요한 이유로 예의와 언어문화의 전통을 얘기하곤 한다.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높임말이 필요하다는 것은 높임말이 상대를 존중하기 위한 도구로서 잘 작용하고 있을 경우다.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정말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높임말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되며, 오히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본인은 상대를 하대하며 존중받기만을 바라는 권력자를 무조건 존중해주는 것이 '예의'인가? 예의는 한쪽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양쪽이 서로를 존중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다.

한 스피치 컨설턴트는 “존중받고 싶은 만큼 남을 존중해야 하는 게 대화의 기본자세다. 나이의 적고 많음을 기준으로 관계의 높낮이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 상대가 어떤 사람이라도 존중하는 태도가 우선돼야 의사소통 과정의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²⁷⁵⁾

전통이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비슷하다. 우선 나이를 기준으로 존댓말과 반말의 사용이 달라지는 것은 그렇게 오래된 전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과거에는 존비어의 사용 기준이 나이가 아닌 신분이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신분이 양반이라면 그 아래 신분의 나이가 어떻든 존댓말을 듣고 반말을 사용했다. 신분제에서는 이러한 언어문화가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지금은 이런 언어문화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알 수 있다. 전통이기에 지켜야 한다면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차별을 만드는 우리 언어문화의 전통이 정말 옳은 것인지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

만약 이 발제가 불편하게 다가왔다면 그동안 일방적인 반말과 존댓말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것은 아닌지, 당연하게 여겼다면 그 당연함이 정말 옳은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참고 문헌>

275) 박가영, <나이 많단 이유로 '반말', 나만 불편한가요?>, 『nate 뉴스』, 2019.12.29. 재인용

책

신지영, 『언어의 높이뛰기』, 인플루엔셜, 2021.

논문

최봉영, 「한국사회에서 존비어 체계와 유사신분관계」, 『한구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4.

심선화, 한규석, 「존비어 사용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준거 채택에서의 자기분위적 편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심리학회, 2005.

신문기사

이동현, ‘친근·낮춤, 두 얼굴의 반말 … 좌표 빼끗하면 졸지에 폭발’, 『중앙선데이』, 2015.4.5.

박가영, ‘나이 많단 이유로 ‘반말’, 나만 불편한가요?’, 『nate 뉴스』, 2019.12.29.

석대성, ‘법률용어, 일반 국민은 물론 법조인 10명 중 6명 “무슨 말인지 몰라”’, 『법률방송뉴스』, 2018.3.22.

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85590&cid=42251&categoryId=58300>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글지음』[일상 언어 속 차별 문제 첫 번째 이야기] 반말과 하대’, 2020.11.10.

<https://yhrjjeum.kr/activism/?q=YToyOntzOjE5OjE3b3JkX3R5cGUiO3M6MzoiYWxsljtZ0jQ6InBhZ2UiO2k6NTt9&bmode=view&idx=5293678&t=board>

영상

[왜 반말하세요 Ep.01] 학교 선생님한테 반말하면 어떻게 될까? | SBS 스페셜 닷페이스, 학생이 이 선생님께는 반말을 한다 □

무슨 말인지 1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다양한 세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전쟁 후 나라를 일으키는데 힘쓴 베이비 붐 세대부터, 인터넷에 능숙한 Z세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 우리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을까? 세대별 문화도 다르고, 신조어도 다른데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본 발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세대 정리는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1. 나는 무슨 세대야?

세대는 인간 세(世)와 대신할 대(代)의 합성어이다.²⁷⁶⁾ 같은 시대에 태어나 공통된 사고, 방식과 감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 현재는 일제 강점기 말에 태어나 6.25, 베트남 전쟁을 겪은 산업화 세대, 전쟁 후 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 힘을 쓴 베이비붐 세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X세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코 세대,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과 함께한 Z세대까지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나는 과연 무슨 세대일까?

베이비 붐 세대 : 1955년~1963년

한국 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출생자를 지칭한다. 전쟁으로 헤어졌던 부부가 전쟁이 끝나자마자 다시 만나고, 미뤄졌던 결혼이 한꺼번에 진행이 됐고, 그 당시 태어난 아기를 **베이비부머** 라고 부른다. 이들의 특징은 전쟁이 끝나고 망가진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데 힘을 썼다는 점이다. 과거 농경사회의 관념이었던 “가족주의, 가부장제”를 버리지 못한다. 산업사회의 1차 성공 요인이 ‘교육 = 정보화 능력주의 사회’를 깨닫고, 이미 커버린 자신의 교육보다는 자녀의 교육과 가족의 성공을 중요시한다.

X세대 : 1970년~1980년

캐나다의 소설가 더 글라스 쿠프랜드가 1991년에 출간한 장편 소설 『Generation X』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이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맞벌이였으며, 이들 중 50% 정도가 이혼, 별거 중인 부모 밑에서 함께 자랐다. 가정에 대한 동경과 반발심리를 모두 지니고 있어 부모 세대보다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전 세대들과는 분명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묘사하기는 어려운 세대이다. 한국에서는 화장품 광고에서 X세대라는 말이 처음 나왔다. 한국의 X세대를 잘 보여주는 것이 2014년 tvN에서 방영한 ‘응답하라 1994’이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이 넘어가는 것을 몸소 겪은 세대이면서 1997년에 일어난 IMF 경제 외환 위기를 직격으로 맞고, 비정규직의 고통이 시작된 1세대이다.

276) 네이버 한자 사전 재인용

에코 세대(밀레니얼) : 1981년~1996년

6.25 전쟁 이후 대량출산으로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 세대이다. 전쟁 후 대량출산이라는 사회 현상이 수십 년이 지난, 2세대들의 출생 붐으로 다시 나타난 것을 산 정상에서 소리를 외치면 잠시 뒤 돌아오는 메아리(echo) 현상에 빗댄 말이다. 에코 세대는 베이비 붐 세대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으로 풍족한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교육 수준 또한 높다. 더불어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다. 경기 불황과 저성장으로 인해서 취업의 난을 겪고 있으며, 결혼, 출산을 미루고 있다. 201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베이비 붐 세대 695만 명, 에코 세대 95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4.4%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단체의 성취보다는 개인의 성취를 중요시한다. 기성세대에서부터 내려온 군대 문화, 술자리 문화 등 당연히 여기던 통념들이 질게 배어 있는 세대이다.

Z세대 : 1996년~ 2000년

X세대의 자녀 세대이다. 윗세대인 밀레니얼 세대와 함께 MZ세대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나누어서 밀레니얼 세대를 1980년에서 1995년 사이, Z세대를 1996년부터 2000년 사이 출생한 세대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문화가 혼재된 환경에서 자란 에코 세대와는 다르게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을 경험한 '디지털 네이티브²⁷⁷⁾'다. 인터넷과 IT에 친숙하며, TV, 컴퓨터보다는 스마트폰, 텍스트보다는 이미지, 동영상을 훨씬 더 선호한다. 관심사를 공유하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익숙하여 문화의 소비자이자 동시에 생산자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소유보다는 공유, 상품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특징을 보인다.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나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표출하는 미닝아웃²⁷⁸⁾ 소비를 하기도 한다. Z세대는 미래보다는 현재를, 가격보다는 취향을 중시하는 성향을 가진 이들이 많다. '플렉스' 문화와 명품 소비가 여느 세대보다 익숙하다는 특징도 있다.

2. 신조어는 누구냐, 넌

신조어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 만들거나, 귀화한 외래어, 줄인 말 등으로 만들어져 쓰이는 말이다. 서울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권재일은 “신조어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존재했다. 신조어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사용했으며, 신조어가 많이 쓰일수록 새로운 어휘와 표현력이 풍부해져, 언어문화를 발전하는데 보탬이 된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매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한다. 신조어 중 쓰임이 굳어져, 하나의 단어로 쓸 수 있다고 판단 되면, 표준어로 등재 한다. 이런 경우는 아

277)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를 뜻하는 말.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원어민(Native speaker)처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세대라는 의미가 있다.

278) 소비자 운동의 일종으로서, 정치적·사회적 신념과 같은 자기만의 의미를 소비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주 흔치 않은 경우고, 신조어의 평균 수명은 약 5년 정도라고 한다. 대부분의 신조어는 유행이 지나 사라진다. 아래의 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신조어들이다.

반려동물	과거 사람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애완동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사람의 장난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소개팅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면서 신조어에서 표준어로 등록이 되었다. 비슷한 말인 미팅도 남녀학생들이 사교를 목적으로 집단으로 가지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사전에 등재되었다.
스마트폰	새로운 문물이 생겨나면서 신조어가 만들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대박	2000년대 초반부터 신조어로 등장한 뒤 꾸준히 사용되면서, 2008년에 표준 국어사전에 등재되었다.
누리꾼	과거 네티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지만, 이를 순화하는 단어인 누리꾼이 많이 사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사전에 등재되었다.

표 88 표준 국어사전에 등재된 신조어

신조어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고, 더불어 그 시대의 문화도 함께 들여다 볼 수 있다. 시대를 막론하고,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하는 '신세대'는 어디에서나 존재했다. 언어학자들은 신조어가 원활하고, 풍부한 의사소통 문화를 만든다고 평가한다.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 전시된 1920년대 사전을 살펴보면 '모보'와 '모걸'이라는 말이 있다. 각각 '모던 보이'(Modern boy·현대 남성)와 '모던 걸'(Modern girl·현대 여성)의 준말이다. 세대를 내려와서 보면 1980년대 복부인, 프리미엄, 땡전뉴스 등 신조어가 생겨났다.

복부인	부동산을 투기해 금전적으로 큰 이익을 꾀하는 가정부인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프리미엄	부동산 매매 시 웃돈이나 특정 부류에게 주어지는 혜택 특권을 일컫는 말이다.
땡전 뉴스	그 당시의 가장 대표적인 신조어로,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통제되고 일방적인 뉴스를 비난조로 이르는 말이다. 또한 권력에 아부하는 이들을 풍자하는 신조어들이 생겨났다.

표 89 1980년 신조어

1990년대에는 소비 지향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신조어가 생기기 시작했으며, '오렌지족, X세대, IMF 외환 위기 시절에는 동태, 생태, 황태 등의 신조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1990년 pc 통신의 등장으로 pc 언어도 함께 등장했다. 방가방가, 하이루, 되세염 등의 신조어가 빠르게 전파 되었고, 초성체와 줄임말 사용이 유행이 되었다. 즐, zzz, --(얼굴표정을 기호로 나열해 나타내기) 등이 그 예시다.

오렌지족	부모의 자산을 바탕으로 강남 일대에서 놀고 즐기는 소비를 즐기는 젊은이들을 가리킨다. 이는 당시 정치 및 사회적으로 개방된 사회 분위기와 자유분방한 소비생활을 누렸던 20대의 사회상을 보여준
X세대	적극적인 소비행위를 통해 이전 세대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새로운 문화를 보여주는 20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생산 지향적이었던 이전 세대에 비해 1990년대의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풍요롭고 자유로운 성장기를 보냈다.
동태	한겨울에 퇴직을 당한 사람
생태	해고 대신 타 부서로 전출된 사람
황태	황당하게 퇴직을 당한 사람

2000년 초반부터는 인터넷과 관련된 신조어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정한 특징을 지닌 남성과 여성을 일컬어 부르는 신조어들이 많이 등장했다. 네티즌, 딩크족, 기러기 아빠, 귀차니즘 등의 말이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골뱅이 세대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이 일상화 된 세대를 비유적 표현이다.
엽기녀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유행으로 시작된 말. 비정상적이고, 괴이한 행동을 일삼는 여자를 이르는 말이다.
폰생폰사족	폰에 살고, 폰에 죽는, 휴대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뜻한다.
된장남, 된장녀	사치를 즐기고, 허영이 많은 남자와 여자

표 91 2000년대 초반 신조어

현재에는 인터넷이 발달 돼서 유튜브, 예능, 웹툰, 소셜미디어 등에서 신조어가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2019년 10월 알바 콜과 두잇서베이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을 보자면, “신조어를 어떻게 접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3862명 중 sns 및 인터넷 커뮤니티 25.4%, 인터넷 방송,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서비스 플랫폼 19.3% 전체 응답자의 44.7%가 인터넷 상에서 신조어를 습득할 수 있었다. 나보다 어린 세대를 통해서 17.6%, tv, 라디오를 통해서 14.3%, 주변 사람을 통해서 13.2%가 나왔고, 접하지 않고 있다는 2.4%에서 그쳤다.

어쩔티비	어쩌라고, 어쩔건데, 안 물어봤는데 등의 의미이다.
킹받는다	열받는다를 ‘열’을 킹으로 바꿔서 부르는 합성어이다.
오히려 좋아	안 좋은 상황이지만, 좋은 점을 끄집어 낼 때 쓰는 말이다.

표 92 2022년 신조어 표

3. 네가 쓰는 그 말

발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시대마다 신조어는 존재를 하였고, 신조어를 쓰는 주체의 대부분은 학생들이었다. 학생들은 왜 신조어를 사용할까? 스마트 학생복에서는 제 570돌 한글날을 맞아 청소년의 언어 사용 실태를 알아보고자 ‘10대 언어의 특징인 줄인 말과 신조어에 대하여.’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스마트 학생복 sns 채널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다. 중고생 4809명이 설문에 응답을 했다. 설문 결과 청소년 10명 중 6명은 일상적으로 줄인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왔다. 평소에 맞춤법에 맞추어 한글을 사용하는 질문에 응답 학생의 55%(2671) 맞춤법과 표현에 신경을 쓰지만, 습관적으로 줄인 말, 신조어를 사용하게 된다고 5%(229) 응답을 하였다. 학생들은 올바른 표현보다는 줄인 말, 신조어 사용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신조어를 왜 쓰냐고 질문을 하였을 때는 친구가 사용을 해서 58%, 긴 문장을 적기 귀찮아서 25%, 재미있어서 유행에 뒤떨어질 것 같아서 16%의 응답이 나왔다. 2019년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과 두잇서베이에서 진행한 설문 중 질문 중 하나이다. 신조어 중 어떤 유형을 많이 쓰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줄임말 26.4%, 초성어 16.7%, 붙임 말 14.4%, 야민정음²⁷⁹⁾ 9.9%의 결과가 나왔다. 설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점은 친구 관계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10대의 언어 습관 형성에도 친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연 청소년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신조어, 줄인 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2019년 10월 잡코리아에서 성인 남녀 2,046명을 대상으로 “언어에 따른 세대 차이”를 주제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참여자의 79.4%가 신조어로 인해서 세대 차이를 느낀 적이 있다고 답을 했다. 세대별로 나누자면 40대 이상 그룹이 88.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30대 그룹은 85.7%, 20대 그룹은 71.7%로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다고 응답을 했다. 같은 해 10월 알바 콜과 두잇 서베이에서 회원 3,86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었다. 신조어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했고, 응답자의 64.8%가 신조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이유로는 신조어가 한글을 파괴한다고 생각해서 (복수응답 가능) 39.8%, 세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22.3%로 뒤를 이었다. 두 개의 설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나이차가 많이 날수록 신조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세대별로 신조어가 있었지

279) 야민정음은 한글 자모를 모양이 비슷한 것으로 바꾸어 단어를 다르게 표기하는 인터넷 밈이다. 위키백과 재인용

만, 서로 세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4. 이건 너와 나의 차이

세대마다 신조어도 존재했다. 우리는 왜 신조어로 인해서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세대에 따라서 문화적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인지 심리학자 김경일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인과 미국인은 문화 간의 차이로 인해 다른 것이다. 문화 간의 차이 보다 문화 내의 차이가 더 크다. 한국인과 미국인의 차이보다는 부모님 세대와 자녀 간의



최강 1교시 세대소통, 어떻게 할까



최강 1교시 세대소통, 어떻게 할까



크

최강 1교시 세대소통, 어떻게 할까



있

최강 1교시 세대소통, 어떻게 할까

다.” - 인지 심리학자 김경일 -

최강 1교시 세대소통, 어떻게 할까

그림 1을 보았을 때, dax와 같은 본질의 사각형 모형과 본질이 다르지만, dax와 같은 모형의 원형 통을 놓고 어느 것이 dax와 같냐고 물었을 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대답하는 답이 다르다고 한다. 기성세대의 대부분은 dax와 본질이 같은 사각형 모형을 고르고, 젊은 세대는 본질은 다르지만, 모양이 같은 원형 통을 고른다고 한다. 10년~2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의 대답은 대부분 사각형 모형을 고른다고 한다. 시간이 흐르고 젊은 세대일수록 원형 통을 고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기성세대가 사각형 모형을 고르는 이유로는 “본질이 같으니깐.”이었고, 젊은 세대가 원형 통을 고르는 이유로는 “본질이 다르더라도 용도가 같다면, 동일하는 것으로 분류하는 성향이 보인다.”²⁸⁰⁾ 인간의 평균 수명과도 세대 차이가 관련이 있다. 약 1만 년 전의 인간의 평균 수명은 약 18세에서 20세라고 한다. 현재는 100세 시대라고 불리며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 그래서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모두가 동질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와 타인이 항상 같은 생각을



한
다
고
여
긴
다.
상



최강 1교시 세대소통, 어떻게 할까

대방이 나와 생각이 다를 때, 다르다는 것

이 아닌 틀리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세대 차이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한다면, 서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280) 최강 1교시 세대소통 어떻게 할까

5. 앞으로 우리는

발제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 항상 타인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것을 틀리다고 단정 지어버린다. 어쩌면 신조어로 인한 세대 차이도 문화적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않을까? 문화는 빨리 바뀌고, 평균 수명은 늘고,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을까 싶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문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살아가면서 서로를 인정하는 사례는 얼마나 있을까?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점은 우리 주변에서 더 멀리 보아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대원 안에서 갈등은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해소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옳은 방향을 제시해주지 않을까 싶다.

<참고문헌>

<언어 더 월드 - (탄생과 세계공용어)>

단행본

빌 브라이슨, 『언어의 탄생』 (유영, 2021)

올리히 린스 『위험한 언어』 (갈무리, 2013)

논문

김혜란 “바벨탑 무너뜨리기” 제3시대그리스도연구소, 2018

김광현 “국제화로서의 영어에 대한 고찰” 대구대학교, 2008

김세중 “공용어의 개념과 영어 공용어화 논쟁” 국립국어연구원, 2001

참고기사

남영신 <세계화 위해 민족 버리자니...천박한 과잉 세계주의> 『조선일보』 1998. 07. 06

<누구를 위한 언어인가?>

책

신지영, 『언어의 높이뛰기』, 인플루엔셜, 2021.

논문

최봉영, 「한국사회에서 존비어 체계와 유사신분관계」,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

국사회학회, 2004.

심선화, 한규석, 「존비어 사용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준거 채택에서의 자기분위적 편향」, 『한국 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심리학회, 2005.

신문기사

이동현, ‘친근·낮춤, 두 얼굴의 반말 … 좌표 빼끗하면 줄지에 폭발’, 『중앙선데이』, 2015.4.5.

박가영, ‘나이 많단 이유로 ‘반말’, 나만 불편한가요?’, 『nate 뉴스』, 2019.12.29.

석대성, ‘법률용어, 일반 국민은 물론 법조인 10명 중 6명 “무슨 말인지 몰라”’, 『법률방송뉴스』, 2018.3.22.

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85590&cid=42251&categoryId=58300>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글지음][일상 언어 속 차별 문제 첫 번째 이야기] 반말과 하대’, 2020.11.10.

<https://yhrjiseum.kr/activism/?q=YToyOntzOjEjRjZl3b3JkX3R5cGUiO3M6MzoiYWxsljt zOjQ6InBhZ2UiO2k6NTt9&bmode=view&idx=5293678&t=board>

영상

[왜 반말하세요 Ep.01] 학교 선생님한테 반말하면 어떻게 될까? | SBS 스페셜 닷페이스, 학생이 이 선생님에게는 반말을 한다 □

<무슨 말인지 1도 모르겠습니다>

[참고기사]

고재연 기자 <산업화 세대→베이비부머→X세대→밀레니얼 세대→Z세대…세대별로 성장 배경과 소비 패턴·가치관이 모두 다르죠~>, 『싱글생글』 2018.10.15.

최동현 기자 <'롬복웁늬' '땡작'…청소년·노인 모두 "신조어로 세대차이"> 『news 1뉴스』 2018.10.09.

손희서 기자, 김지은 수습기자 <신조어, 사회를 비추다> 『송대시보』 2018.12.03

金華盛기자 <눈물밴 웃음 「명퇴시리즈」 신조어 한창> 『동아일보』 1997.01.17.

심지우 뉴스크레이션 <[이슈 모아Zoom] '조기·명태'부터 '흙수저'까지, 시대별 신조어> 『조선일보』 2016.12.01.

이주영 기자 <[우리말 지키기 ②] 79.4%가 신조어로 세대차이 느낀 적 있어> 『경기도 뉴스포털』 2020.10.07.

[사이트]

세종학당 재단,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신조어는?>, 네이버 블로그. 2019.0326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

네이버 한자 사전

로운(필명) topclass <넘치는 신조어는 ‘요즘 애들’의 문제인가?> 『신지영의 언어탐험』

[영상]

[최강 1교시] Full ver 세대소통, 어떻게 할까 _인지심리학자 김경일

15세가 현재 느끼고 있는 세대차이! (feat. ~^^) | What makes you feel a generation gap? <Simple Sample 심플샘플 >

<X세대·Y세대·MZ세대, 어떤 차이가 있을까?> 『YTN 뉴스 말모이』 2021.07.21

